

연구 참여자

정종훈 연세대학교 교수/ 기독교윤리학

조재국 연세대학교 교수/ 종교학

한인철 연세대학교 교수/ 조직신학

김동환 연세대학교 교수/ 기독교윤리학

박노훈 연세대학교 교수/ 신약학

이대성 연세대학교 교수/ 조직신학

연세의 개척자들과 연세학풍

엮은이 조재국 외
펴낸곳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전 화 02) 2123-3380~2
팩 스 02) 2123-8673
e-mail: ysup@yonsei.ac.kr
http://www.yonsei.ac.kr/press
등 록 1955년 10월 13일 제9-60호
인 쇄 (주)동국문화

2015년 5월 30일 1판 1쇄
ISBN 978-89-6850-097-8 (03910)

비매품

본 저작물은 연세대학교 글로벌특성화사업비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창립 13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에 『연세의 개척자들과 연세 학풍』을 펴내게 된 것은 참으로 의미있는 일이다. 연세의 선각자들은 오랜 역사 속에서 대학교육의 가치와 정신을 확립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다. 특히 연세대학교는 최초의 대학으로 한국 고등교육을 이끌어 오면서 시대의 요청에 따라 대학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대학행정의 모형을 개발해 왔으며,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학문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근대문명의 개막을 견인하였고, 현대 첨단문명의 기초를 세웠다.

오늘날, 연세대학교는 세계적인 규모의 대학캠퍼스와 학문연구와 교육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세계적인 연구 성과와 글로벌 인재의 배출에 있어서 많은 업적을 쌓고 있으며, 21세기 문명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하여 ‘제3의 창학’이라는 기치 아래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랑스러운 연세의 학문과 교육이 성취되기까지 연세를 위하여 생애를 바쳐 헌신한 개척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신앙과 교육은 연세의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세의 역사를 창조하고 이끌어 준 개척자들의 생애와 헌신, 학문과 교훈을 연세의 창립정신인 기독교 신앙의 시각에서 살펴보는 일은 연세의 학문정신과 기독교 신앙의 관계를 밝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

연세의 개척자들이 전해준 교육이념과 학문전통, 신앙과 삶의 태도는 매우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계승되면서 오늘의 글로벌 시대에 사립대학의 교육적 목표와 가치를 정립해 주었으며, 신앙에 바탕을 둔 반관학적 성격의 자유정신을 추구하는 진리탐구의 길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연세의 창립자들은 일본 식민지 시대의 제약 아래서도 세계주의와 독립정신에 기반을 둔 신앙교육과 민족교육을 동시에 실천하고자 하였고,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조선청년들에게 근대 학문을 전수하여 독립 역량을 키워 주고자 하였다. 해방 후에 독립정신은 실사구시를 추구하는 실천적 학문으로 발전하여 민주화의 정신적 기반을 제공하였으며, 130년의 역사를 도도히 흐르는 연세의 학풍으로 정착되었다.

교목실은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연세의 창립이념과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가운데, 연세의 학풍과 기독교 정신의 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교목실의 연구자들이 공동연구를 시작하였다. 우선 역대 교장 및 총장들 가운데, 언더우드, 에비슨, 오공선, 백낙준, 박대선 총장에 관하여 연구하고, 연세의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윤동주 시인을 연구하기로 하였다. 그들의 생애와 학문, 업적 등을 신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들을 통하여 형성되고 계승된 학풍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초대교장인 언더우드 선교사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Chosen Christian College 즉, 조선기독교대학을 설립한 교육선교의 개척자이며, 에비슨 선교사는 언더우드 사후에 제2대 교장이 되어 18년간 세브란스의학교 교장을 겸임하며 학교의 부지 구입과 법인설립을 비롯하여 대학의 기초를 세운 청초자이며, 오공선 교장은 에비슨의 뒤를 이어받아 세브란스의전의 최초 한국인 교장이 되어 한국의학을 발전시킨 개척자이며, 백낙준 총장은 해방 전후의 연희전문을 이끌며 세브란스와의 합동을 이끌어 연세대학교를 설립한 교육행정가이며, 박대선 총장은 민주화시대에 신앙과 학문의 양립을 통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굳건히 수호한 창학정신의 계승자이며, 윤동주시인은

민족정신을 미적 상상력으로 승화시키며 신앙과 삶을 조화시킨 연세학풍의 정신적 시혜자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연구 및 집필 작업은 정종훈, 조재국, 한인철, 김동환, 박노훈, 이대성 교수 여섯 명의 필자들이 발표와 토의를 반복하고, 선행 연구자들의 자문을 구하면서 연구대상자들을 선정하여, 글의 구성과 내용의 구조를 결정한 후에 각자 초고를 발표하였고, 공동연구자들의 토의와 전문가들의 비판적 의견을 반영하여 원고를 완성하였다. 원고를 자세히 읽고 적절한 비평과 조언을 아끼지 않은 최재건 박사과 조이제 목사의 수고를 잊을 수 없으며, 적절한 사진의 선별과 원고의 교정을 맡아준 정운형 목사에게 감사한다.

연세의 역사는 끝없이 꺼내고 또 꺼내도 다함이 없는 보물창고와 같다. 연세의 스승들의 끝없는 헌신과 봉사는 더 없이 아름답고 위대한 연세 역사의 퍼즐에 일부를 장식하고 있다. 퍼즐 조각 하나하나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어 그 가치를 발견하고 전하는 일은 또한 연세 역사의 퍼즐을 어어 가는 작업이기도 하다. 연세 선각자들의 신앙과 헌신을 통하여 도도히 흐르는 연세학풍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미래의 꿈과 비전으로 이어가는 아름다운 일에 모두가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2015년 5월 9일,
연세130주년 기념일에

집필자 대표 조재국



차례

간행사 • 조재국
그림목록

정 종 훈	I. 교육선교의 개척자 언더우드	11
	언더우드의 생애	14
	언더우드의 주요 선교활동	21
	언더우드에게서 드러나는 기독교 정신	35
	언더우드로부터 비롯되는 연세의 학풍	43
조 재 국	II. 연희의 정초자 에비슨	51
	에비슨의 생애	54
	에비슨의 병원신축과 의학교육	61
	에비슨의 연희전문학교 설립과 발전	69
	에비슨의 신앙과 교육관	86
	에비슨과 연세학풍	93
한 인 철	III. 현대의학의 개척자 오궁선	101
	오궁선의 생애	103
	오궁선을 통해 본 연세의 학풍	110
	오궁선의 친일문제	124
	오궁선의 학풍과 기독교	128

IV. 연세의 정초자 백낙준

백낙준의 생애	134
학문: 연구, 교육, 봉사	138
기독교: '영혼의 닻'	144
백낙준과 연세학풍	150

김
동
환

V. 신념과 양심의 대변자 박대선

박대선의 생애	166
학원 안팎의 포용과 화층	174
기독교 정신의 구현과 연세의 학풍	180

박
노
훈

VI. 연세학풍이 피운 꽃, 윤동주

소년시절: 명동촌	192
중학시절: 용정과 평양	201
대학시절: 연희전문	210
유학시절과 그 이후	219
연세학풍의 미학적 승화	226
찾아보기	237
색인	254

이
대
성

- 그림 1 언더우드의 부모
- 그림 2 뉴 부룬스위크 신학교 전경(1880년대)
- 그림 3 언더우드 고아학교
- 그림 4 초대교장 재임시 언더우드 (1915년)
- 그림 5 성서번역자회와 번역된 성서
- 그림 6 언더우드 동상
- 그림 7 에비슨 부부(1935년)
- 그림 8 구리개 제중원 당시의 에비슨 (1901년)
- 그림 9 에비슨 편찬 의학교과서
- 그림 10 간호부양성소 졸업기념 사진 (1918년)
- 그림 11 에비슨이 수술하는 장면(1904년)
- 그림 12 에비슨과 채플(1917년)
- 그림 13 최초의 교사 지원관(1918년 준공)
- 그림 14 한국을 떠나는 에비슨 부부와 환송하는 교직원(1935년)
- 그림 15 에비슨 서명한 백두현의 졸업증서(1922년)
- 그림 16 오궁선(1878~1963)
- 그림 17 해관의 미국 유학시절
- 그림 18 역대학장
- 그림 19 해부학실습지도
- 그림 20 제2대 교장 오궁선
- 그림 21 안양보육원생들과 같이(1959년)
- 그림 22 일제치하의 세브란스의전
- 그림 23 용재 백낙준 동상
- 그림 24 용재관
- 그림 25 청송대
- 그림 26 용재문고
- 그림 27 총장취임식(1958년)
- 그림 28 용재상 시상 장면(2007년)
- 그림 29 박대선 총장
- 그림 30 학생회관 봉헌(1968년)
- 그림 31 총장의 직무 모습
- 그림 32 본관앞뜰에서(1968년)
- 그림 33 윤동주
- 그림 34 윤동주의 육필원고 ‘새로운 길’
- 그림 35 윤동주와 정병욱
- 그림 36 윤동주의 육필원고 ‘自畫像’
- 그림 37 연희전문학교 입학하던 해의 윤동주(1938년)

그림 1,3,4는 연세대학교 박물관
 그림 7~10, 12~15, 18, 19, 22는 동은박물관
 그림 11, 30, 31, 33은 연세대학교 홍보실
 그림 34~37은 윤동주기념사업회로부터 도음
 받았습니다.

연세의 개척자들과
연세학풍

I

교육선교의 개척자 언더우드

정종훈_연세대교수(기독교윤리학)



1885년 4월 5일 부활절, 한국의 개신교 첫 번째 목회자 선교사로 입국한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元杜尤, 1859.7.19~ 1916.10.12)는 한국교회의 역사와 한국근대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끼쳤던 인물이다. 널리 알려진 정연희의 ‘언더우드의 기도문’은 그가 쓴 소설 『양화진』에 소개되어 있는데, 작가의 상상력에 의한 것임에도 언제나 감동을 준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

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귀신 ‘양귀자’ 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주소서.¹⁾

이 글은 언더우드의 서한과 강연문, 저서, 그리고 그에 대한 저술들을 중심으로 첫째, 언더우드 생애의 배경이 되는 가정과 학교와 교회, 둘째, 언더우드의 선교사역 진행, 셋째, 언더우드의 기독교 정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더우드로부터 비롯된 연세학풍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선교 방법론은 물론 연세대학교를 포함하여 모든 기독교대학들이 설립자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려는 도전과 그 통찰을 얻고자 한다.²⁾

언더우드의 생애

가정의 배경

언더우드는 1859년 7월 19일 영국 런던에서 아버지 존(John Underwood)과 어머니 엘리자벳(Elisabeth Grant Maire) 사이의 6남매 자녀들 가운데 넷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제조 화학 분야의 과학자로서 인쇄용 잉크와 타자기, 목지와 안전수표용지 등을 발명한 뛰어난 재능의 발명가였고³⁾, 어머니는 여러 자녀를 키우면서도 짜증을 내거나 큰 소리를 낸 적이 없는 온유하고 인자한 분이였다.⁴⁾ 그러나 1865년 언더우드가 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경건한 신앙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특히 '주의 재림에 대한 갈망과 기다림'의 신앙은 언더우드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신앙유산의 하나였다.⁵⁾ 아버지는 브리스톨(Bristol)에서 큰 고아원을 운영했던 '영국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뮐러(George Müller)와 가깝게 지낸 지인이었는데, 이런 인연이 언더우드가 선교사로서 한국에 온 직후에 고아원을 설립하게 된 계기였을 수 있다.

언더우드의 할아버지 토마스(Thomas Underwood)는 의학서적 등을 간행한 출판업자였고, 할머니는 18세기의 명설교가로서 해외선교사업과 교파연합운동에 크게 기여한 바 있는 알렉산더 와우(Alexander Waugh) 박사의 딸이었다.⁶⁾ 언더우드의 외증조부인 와우 박사는 선교회를 조직하고 기본강령을 직접 작성했는데, 그 내용에서 와우 박사의 신앙과 입장을 볼 수 있다.

이 위대한 사업을 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는 각 교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이다. 그러므로 분열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요인을 가능한 한 미리 제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본 선교회의 기본 강령을 선언하는 바이다. 우리의 계획은 장로교, 조합교회, 성공회, 혹은 다른 어떤 형태의 교회 체제나 행정을 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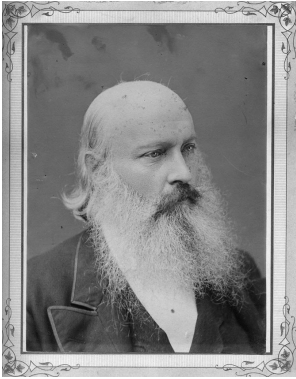


그림 1 언더우드의 부모

택하게 함으로써 신실한 사람들 사이에 그에 대한 견해 차이를 야기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된 복음을 전파하려는 것이다.⁷⁾

이로써 언더우드가 한국선교를 전개할 때, 교파연합에 앞장섰던 것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언더우드의 형제자매들은 서로에 대해서 우애가 돈독했다. 큰 형 존(John T. Underwood)은 언더우드가 한국의 선교사로 출발할 때 뉴욕에서 시카고까지 동반했고, 언더우드의 선교활동 초창기 이래로 사망 후까지도 선교비를 아낌없이 후원했다. 언더우드가 척박한 지역에서 질병의 고통과 대학설립의 반대에 봉착해서 어렵게 선교사역하는 것을 볼 때는 안타깝게 생각해서 자신의 회사에서 함께 일하며 미국에서 부유하고 편하게 살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⁸⁾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누구보다 성자에 가까웠던 작은 형 프레드릭(Frederick W. Underwood)은 언더우드가 열 살 때 프랑스의 볼로뉴 슈 메르(Boulogne Sur Mer) 지방에 있는 기숙학교에 언더우드와 함께 유학을 했고, 그곳에서 주변 아이들의 조롱과 야유에도 불구하고 취침 전에는 언더우드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그는 언더우드에게 시편 119편을 암송하도록 했다.⁹⁾ 프레데릭은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언더우드는 한국선교의 초창기 시절에 병으로 죽은 작은 형을 기념해서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환자들을 위한 피난처를 만들어 프레데릭의 이름('Frederick

Underwood Shelter’)으로 운영했다. 언더우드의 누이들은 그가 보수적인 교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구세군에서 활동을 할 때에는 주의를 주기도 했고, 다른 누이는 임종을 앞두고 요양 중이던 언더우드를 가까이서 돌보아주었다. 우리는 언더우드가 1916년 7월 7일 메사츄세츠에서 브라운 박사(Dr. Brown)에게 공식적으로 쓴 마지막 서신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의료진은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누가 저를 방문할 수 있는지 아주 제한적으로만 허가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저의 누이 스테판스 부인(Mrs Stephens)은 제가 이제 조금 더 호전되어 한두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에게 누구를 먼저 만나보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가장 먼저 만나고 싶은 사람은 브라운 박사라고 말했고, 그녀는 귀하게 저를 만나러 즉시 오라는 초청장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¹⁰⁾

이처럼 언더우드의 생애에 있어서 가정은 언더우드의 신앙을 형성하는 요람이었고, 선교 활동의 방식과 내용 및 자금을 제공받는 출처였으며, 기쁜 일과 슬픈 일, 힘겨운 일 등 무슨 일이든 함께 공유하는 사랑의 보금자리였다. 언더우드의 아버지와 형제자매들은 다음의 표어를 가장 좋아했다. “불가능을 일소에 부치고, 무엇이든 반드시 될 수 있다고 말하라.”¹¹⁾ 이 표어는 언더우드의 힘겨운 선교활동에 지침처럼 작용했으며, 지금은 언더우드의 후손들에게 가문의 가훈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 우리는 가정의 교육과 분위기가 한 인간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언더우드의 가정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학교의 배경

언더우드는 열 살 때 작은 형 프레데릭과 함께 프랑스의 ‘블로뉴 슈 메르’ 지방에 있는 기숙학교에서 2년 동안 유학했다. 이 학교는 학생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디에(Die) 교수가 운영하는 가톨릭 계통의 사립학교였는데, 개종을 요구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일이면 영국인교회에 출석하면서 개신교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다. 유학 초기에 다수의 프랑스인 학생들이 언더우드 형제가 실천하는 취침 시간의 기도를 조롱하고 야유하며 힘들게 했지만, 언더우드 형제는 가정에서 받은 경건한 신앙을 꺾끗하게 실천했다.¹²⁾ 어린 시절에 타지(他地), 그것도 외국에서 외로운 유학생생활을 경험한 것은 언더우드에게 부모·형제·친지를 떠나 이국 만리의 한국에서 선교사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언더우드의 아버지는, 목회를 하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희망하는 언더우드를 해스부루크 소년학교(Hasbrooke Seminary for Boys)에 보내어 그곳에서 고전을 공부하며 목회자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언더우드는 여섯 달만에 대학진학에 필요한 헬라어를 모두 배울 만큼 열심이었다. 당시 언더우드는 유니온 힐(Union Hill)에 있는 암흑가의 술집에서 종교서적을 배부하는 전도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술집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격심한 반대와 난폭한 행동,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가 있었지만, 언더우드는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술집을 방문했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한 그들과 친해질 수 있었다.¹³⁾ 언더우드의 불굴의 정신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더욱 다져지지 않았을까 싶다.

언더우드는 1877년부터 뉴욕대학(New York University)에서 공부했다. 그는 11km의 거리를 매일 걸어서 통학했고, 점심은 요기나 할 정도였지만 밤 12시까지 공부하고 다시 아침 5시에 일어나는 에너지 넘치는 생활을 지속했다. 언더우드의 대학시절에 특기할 사항은 델타 워프실론(Delta Upsilon, ΔΥ)이라는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신실하고 열정적인 회원이었던 언더우드가 동아리에 대해 지녔던 애정과 자부심, 소속감은 대단히 컸기 때문이다.¹⁴⁾ 1881년 뉴욕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언더우드가 훗날 1891년 6월 뉴욕대학에서 명예 신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12년 6월 그의 아들 원한경(H. H. Underwood, 元漢慶, 1890.9.6~1951.2.20)이 뉴욕대학 학부를 졸업할 때 명예 법학박사학위까지 취득한 것은 당연한 귀결로 여겨진다. 언더우드가 한국의 선교사로 활동할 때, 수많은 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감당하면서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뉴욕대학 시절에 에너지와 열정이 넘치는 생활로 충분히 훈련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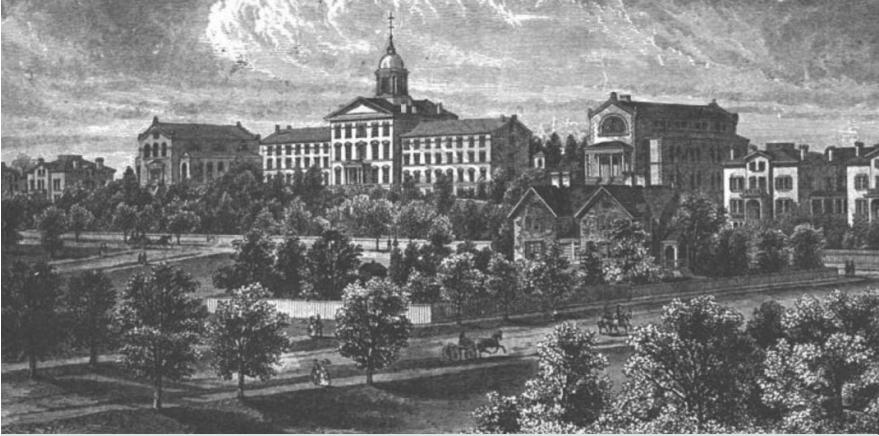


그림 2 뉴브룬스위크 신학교 전경(1880년대)

1881년 가을 언더우드는 뉴 브룬스위크(New Brunswick)에 있는 화란 개혁신학교(Dutch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에 입학해서 학업에 전념하는 동시에 복음전도활동을 병행했다. 그는 교수들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뉴 브룬스위크 거리에서 복음전도활동을 멈추지 않았는데, 이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긴박감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언더우드는 신학교 재학시절, 역사가 길지 않은 구세군이 뉴 브룬스위크에 지부를 창설했을 때 구세군의 일원이 되어서 가두집회나 실내집회에서 연설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했다. 특히 자신이 다니는 신학교가 소속한 화란개혁교회는 구세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의 선두에 있었는데,¹⁵⁾ 그는 구세군 활동을 주저하지 않았다. 우리는 한국의 선교사로서 활동하던 언더우드가 인종, 민족, 계급, 연령, 종파 등에 상관없이 누구와도 연합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단초를 언더우드의 구세군 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

교회의 배경

언더우드는 영국에서 살던 당시 선교학교의 과정을 마친 아버지의 경건함의 영향으로 매주일 교회 예배에 출석했고, 오후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버지가 부재한 주일의 오후에는 형제자매들과 주로 교회놀이를 하였는데, 언더우드는 언제나 설교자의 역할을 도맡아서 했다. 언더우드가 한국에서 감동적인 설교를 했던 것이나, 미국에서 한국의 선교활동 관련한 이야기를 공동적으로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훈련된 결과가 아니었을까?¹⁶⁾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은 놀라울 뿐이다.

1872년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경제적인 곤란 때문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후에 언더우드는 아버지와 함께 화란개척교회인 그로브교회(Grove Church)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했다.¹⁷⁾ 언더우드에게 그로브교회가 중요한 것은 그 교회에서 메이번 목사(Rev. William Mabon)를 만났기 때문이다. 언더우드는 메이번 목사 밑에서 대학진학을 준비하며 신앙생활을 했고, 화란개척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에는 조직신학교수이자 학과장이었던 메이번 목사를 다시 만나 가르침을 받았다. 우리는 언더우드가 청소년시절부터 신학교시절에 이르기까지 감수성이 예민하던 시기에 그가 존경하던 메이번 목사를 만나 영적으로나 학문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았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1883년 신학교의 마지막 학년이던 언더우드는 뉴저지주 폼프톤(Pompton)의 한 교회에서 담임목회자로서 최초의 사역을 수행했다. 언더우드가 가족적인 분위기의 작은 교회에서 선교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당회는 담임목회자의 보수를 지급할 수 없을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언더우드는 지체없이 이렇게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나는 보수를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결과 선교예산은 네 배로 늘어났고, 언더우드가 목회를 마칠 무렵에는 두 배의 보수를 받을 수 있었다.¹⁸⁾ 당시 언더우드는 젊었지만, 뉴욕의 한 개척교회로부터 연봉 1,500 달러에 주일예배와 수요기도회만 담당하고, 의학공부에는 지장이 없게 한다는 조건의 파격적인 청빙을 받았지만, 인도 선교사에 대한 비전 때

문에 그는 그 청빙을 수용하지 않았다.¹⁹⁾

언더우드는 1884년 11월 뉴 브룬스위크 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고, 어린 시절 이래로 인도 선교를 걱정했지만, 1883년 신학교에서 은둔의 나라 한국과 관련된 보고를 청취한 후로는 한국과 한국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다. 그는 한국에 갈 다른 선교사를 찾는 중에 “왜 너 자신이 가려고 하지 않느냐?”는 내면의 소리를 들었지만, 인도선교에 대한 생각 때문에 한국선교의 가능성은 접고 있었다. 그러나 개혁교회의 인도선교 요청을 수락하는 편지를 우체통에 넣으려는 찰나, “한국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라는 내면의 소리를 듣고서 수락 편지의 발송을 보류했다. 그리고 북장로교 선교부에 한국선교사를 신청했는데, 원래 한국에 파송하려던 사람이 사정상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북장로교 선교부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언더우드를 한국의 첫 번째 목회자 선교사로서 파송했다.²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오묘하기가 그지없다.

언더우드의 주요 선교활동

복음전도와 교회 선교

언더우드가 1884년 7월 28일 한국선교사로 임명을 받아 해외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반대한 그의 약혼녀는 약혼을 파기했다. 언더우드의 부인은 이 여성을 “선교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약혼자에 대한 존경심도 없었으며, 광범위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영감을 주는 원대한 삶에 대한 이상도 없는” 사람으로 평한 바 있다.²¹⁾ 그러나 복음의 열정이 뜨거웠던 언더우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미국을 떠나 1885년 1월 25일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했다.²²⁾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선교를 준비하던 언더우드가 아직 한국을 방문도 하지 않은 1885년 2월 16일에 효과적인 복음전도를 위해서 여자 선교사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기혼부부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정책을 제안했던 것은 놀랍다.

들은 바로는 여자 선교사를 통하지 않고는 한국여성에게 접근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현재로서는 기혼 여성만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한국에 파송할 여자 선교사는 모든 (남자)선교사의 아내라야 한다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하므로 선교부가 기혼 남자가 아니면 누구도 파송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입니다.²³⁾

언더우드가 한국에 입국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의 자격이 아니라 알렌(H. N. Allen, 安連, 1858.4.23~1932.12.11)이 개원한 광혜원에서 의료 활동을 보조하는 의료선교사의 자격 때문이었다. 당시 조선왕조 말기의 한국정부는 기독교 전파를 허용하지 않았다. 언더우드는 1885년 4월 5일 한국에 도착해서 곧바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몇 명의 소년들에게 영어를 가

르치면서 주일학교를 시작했다. 그는 두세 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며 1885년 8월 29일 엘린우드(F. F. Ellinwood, 1826~1908) 박사에게 서한을 보냈다.²⁴⁾ 한국정부의 선교금지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은 오직 선교에 불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서울에 버려진 수많은 고아들 사생아들이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을 데려다 입히고 먹이며 올바른 방법으로 양육하고 구세주를 사랑하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다.”²⁵⁾ 때문에 언더우드는 기독교의 전파를 간접적으로 모색했던 알렌과는 처음부터 정책적인 측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었다. 알렌은 고아원 역시 병원과 동일한 기초 위에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집을 받아 운영하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반면에 언더우드는 고아원을 자신들의 수중에 두고 선교기관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²⁶⁾

언더우드는 1886년 7월 11일 노도사라 불리던 노춘경에게 한국 최초의 세례를 집례했다. 언더우드가 “세례를 받는 것이 국법을 어기고, 다시는 되돌아 갈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임을 인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노춘경이 세례받기를 원했기 때문이다.²⁷⁾ 이 때 의료선교사 헤론(John W. Heron, 蕙論, 1856.6.15~1890. 7.26)의 딸 사라 앤(Sara Anne)에게는 유아세례를 집례했는데, 이로써 동서양 양인(兩人)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사건을 연출한 셈이 되었다.²⁸⁾ 이듬해 1887년 1월 23일 언더우드는 황해도 솔내에서 서상륜이 데리고 상경한 동생 서경조 이외에 최명오, 정공빈에게 세례를 집례했다. 그들은 박해와 순교의 위협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고백했고, 언더우드는 그들에게서 기독교의 근본교리들과 구원교리에 대한 확신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²⁹⁾ 이후에도 언더우드는 복음전도에 대한 열정으로 1887년 10월 홀로 의주까지 제1차 전도여행, 1888년 봄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 1858.2.6~1902.6.11)와 제2차 전도여행, 1888년 11월 제3차 전도여행, 1889년 3월 신흠여행을 겸해서 제4차 전도여행, 1895년 여름 제5차 전도여행을 하는 등 한국의 선교 사역지를 수시로 방문하면서 복음전파와 세례집례를 멈추지 않았다.

한편 언더우드는 1887년 9월 27일 저녁 자기 집 사랑방에서 14명의 세례교인들로 두 명의 장로를 선출한 후 한국 최초의 정규조직 교회인 정동교회(새문안교



그림 3 언더우드 고야학교

회의 전신)를 창립했고, 그해 12월 25일에는 정동교회에서 세례교인들과 함께 한국 최초의 성찬예배를 드렸다. 언더우드는 정동교회 이외에도 전도여행의 결실로써 많은 교회를 설립했다. 1893년 문화군 사평동교회, 고양군 잔다리교회, 1894년 곡산군 무릉리교회, 곡산읍교회, 1895년 장연군 의동교회, 1897년 고양군 행주교회, 토당리교회, 김포읍교회, 도리동교회, 1898년 곡산군 화천리교회, 은울읍교회, 1901년 김포군 송마리교회, 파주군 문산리교회, 신사리 신사동교회, 1906년 시흥군 광명교회, 가학리교회, 김포군 용강리교회, 파주군 죽원리교회, 1907년 경성부 남대문밖교회, 1908년 고양군 대현교회, 1910년 영등포교회, 1911년 시흥군 노량교회, 경성부 용산교회 등이 언더우드가 설립한 교회들이다.³⁰⁾ 현재 이 교회들은 원래의 이름에서 바뀐 이름의 교회들도 있지만, 언더우드 자매교회협의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중에 있다.

언더우드의 복음전도 활동 가운데 다른 괄목할만한 것이 있다면, 1904년과 1905년에 한성감옥서 주일예배를 통해서 전직 고위관리와 양반층의 옥중 개종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다.³¹⁾ 이 일은 한성감옥서 서장의 요청으로 시작되었는데, 기독교인이 아닌 서장이 기독교인 죄수들을 대상으로 주일예배를 주관해달라고

요청했던 이유는 죄수들이 기독교 교리를 많이 배우고 많이 실천할수록 그의 일이 쉬워질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언더우드는 러일전쟁 초기의 서너 주를 빼고는 매주일 한성감옥서에서 예배를 주관했고, 아울러 다양한 기독교 서적을 전달해줌으로 죄수들에게 읽을거리를 제공했다. 그는 이를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이 한국의 상류층에게 전파되기를 원했다. 언더우드의 부인은 한성감옥서 주일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했다.

감옥에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갇힌 높은 가문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외로움과 절망에 빠져 있던 그들은 옛 친구(언더우드)를 만나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것을 즐거워하였다... 이때 뿌려진 씨앗들은 한국 양반 가문의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었다.³²⁾

당시 한성감옥서의 도서관 대출 명부에 의하면 기독교 서적을 읽었던 죄수들로서 유성준, 이승만, 구만길, 이중화, 김정식, 이원궁, 이상재, 안명선, 김진석, 정진원, 육사명, 강원식, 진병호 등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³³⁾

교육선교

언더우드는 1885년 말부터 정동 자신의 집에 고아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1886년 2월 한국정부로부터 고아원 운영의 허가를 취득했으며, 1886년 5월 11일 고아원의 개원과 함께 학교를 운영했다. 이 학교는 처음에 언더우드 학당 혹은 밀러 학당으로 불리다가 예수교학당, 구세학당, 존 디 웰즈학원 등을 거친 후에 경신학원, 경신학교로 발전했다. 언더우드가 고아원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당시 주한미국 임시 공사였던 포크 중위에게 보냈던 1886년 2월 12일의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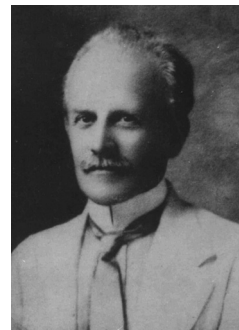


그림 4 초대교장재임시 언더우드(1915년)

한에 명확히 나타나 있다.

우리는 이 도시에 있는 고아들과 집 없는 자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아원과 같은) 이런 사업을 통해 자칫 부도덕과 사악함에 빠질 수 있는 자들을 이웃 사회와 국가에 유익을 주는 올바른 시민으로 교육시키기를 희망합니다.³⁴⁾

우리가 언더우드 학당의 출신자들을 보면, 1918년 파리 국제강화회의의 대표로 활약하고 상해 임시정부의 부주석으로 활약했던 김구식, 신민회를 조직한 안창호, 독립선언문의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갑성,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정재용 등이 있는데,³⁵⁾ 언더우드 학당의 교육이 어떠한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출신자들의 면면을 보아 유추할 수 있다.

언더우드는 1895년 새문안교회의 경영으로 영신학당을 설립했다.³⁶⁾ 언더우드는 교회마다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보았고, 1900년 4월 27일 뉴욕 카네기홀에서 개최된 ‘에큐메니칼 선교대회’에서 교회의 부설학교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보고한 바가 있다.

그(교회부설) 학교들은 형편에 따라 담당 선교사나 서리집사, 영수, 혹은 장로의 감독 하에 둔다... 장연교회에는 학교가 하나 있는데 남녀공학이다. 본토인들이 전적으로 지원한다. 교과과정은 천자문, 구약, 신약, 기초 산수, 지리, 만국사, 기초 격물학 등이다. 새문안교회에는 교사가 2명인 남학교와 교사가 1명인 여학교가 있다... 교회가 두 학교 경비의 절반을 대고 선교회가 나머지 절반을 담당한다. 모든 교회 부설학교를 자급하게 하는 것이 선교회의 목표이다. 교인들의 자녀를 위한 학교이지만 외부인의 후원도 받음으로 귀중한 전도기관이 되고 있다. 다른 지역에도 수많은 교회부설학교들이 자급으로 운영되고 있다.³⁷⁾

1904년 언더우드는 교회가 설립한 부설학교들을 통솔하고, 서로 연결해서 효

과적인 성과를 거두며, 표준 교과서를 편찬하기 위해서 조선교육협회를 설립했고, 그 회장으로 추대되어 활동했다.

언더우드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대학설립을 위한 그의 지난한 노력이었다. 그는 1888년 9월 8일 미국공사 딘스모어를 통해 한국정부에 대학설립을 일찌감치 요청한 바가 있다.³⁸⁾ 그 사실은 1888년 10월 16일 엘린우드 박사에게 보낸 언더우드의 서한에 드러난다.

왕실로부터 공식적인 서한은 없었지만, 딘스모어 공사는 왕으로부터 학교 계획을 찬성한다는 말을 들었고, 우리는 왕의 윤허장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일 받게 되면 이는 정부가 허락한 첫 윤허장이 될 것이고, 우리는 아직은 그 필요가 없지만, 곧 필요하게 될 학위(degree)를 수여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³⁹⁾

북장로교 한국선교회는 1906년 서울지회의 대학설립안을 승인했고, 언더우드는 그 승인에 근거해서 대학설립을 본격적으로 준비했다. 그는 대학설립을 위해 한국교육기금(Educational Foundation for Korea)을 세워 모금활동을 시작했고, 그가 안식년을 마치고 1909년 미국에서 돌아올 때는 벌써 52,000달러를 모금한 상태였다.⁴⁰⁾ 그러나 언더우드가 서울 선교지회의 명의로 10,000달러의 대학부지 구입비를 신청했을 때, 한국선교회는 1909년 연례회의에서 부결시켰고, 1910년 연례회의에서는 서울의 대학설립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의하기까지 했다. 이때부터 서울에 대학을 세우려 한 언더우드의 계획은 동료 선교사들의 강한 반대에 봉착해 길고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최재건은 1913년 작성된 서울의 대학설립관련 문건들을 참고해서 서울을 반대하고 평양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유와 서울에 있어야 함을 주장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서울을 반대하고 평양을 고수했던 다수 선교사들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평양은 만주지역의 인구가 매일같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지리적으로 중앙에 있다. 평양은 집에서 떨어져 있을 젊은이들에게 서울보다 여러 가지로 세속적

인 유혹이 적다. 평양은 수도 서울의 정치적, 사회적인 문제들로부터 자유롭다. 기독교인의 수를 비교하면 서울보다 평양의 비율이 높아 기독교의 영향을 강하게 끼칠 수 있다. 소도시에 있는 대학이 상대적으로 더 돋보인다. 평양은 목회사역을 위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쉬운 반면에 서울에서는 일반 전문직이나 세속적인 직업이 더 매력적이다. 평양은 대학부가 이미 설치되어 잘 운영되고 있다. 평양의 생활조건은 서울 출신 외에는 학생들이 적응하기가 더 편리할 것이다. 평양은 고조선의 도읍지로 고대문화의 근원이고, 한국인에게 사랑받는 도시이다. 평양에 있는 기존 시설을 버리고 서울에 새 대학을 세우는 것은 성공적인 선교의 결실을 저버리는 것으로 한국교회의 영적 재난이 되고, 선교회의 분열을 초래할 것이다.⁴¹⁾

그러나 언더우드를 비롯한 일부 선교사들이 서울을 선호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서울은 수도이고, 가장 큰 도시이며, 지리적 중심지, 교육의 중심지, 철도를 비롯한 교통의 중심지이므로 학생들이 편리하고 값싸게 접근할 수 있다. 기독교 인구가 현재로는 북쪽에 더 많으나 머지않아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분포될 것이다. 서울은 대다수의 선교회가 몰려 있는 가장 편리하고 실제적인 선교회의 중심지이다. 만일 한국에 단 하나의 교파연합 기독교대학이 있어야 한다면, 거의 모든 중등학교 학생들의 관심을 끄는 서울이어야 한다. 서울에는 관립법학학교, 의학교, 산업학교, 사범학교 등이 있어 학생활동의 중심지인데, 서울에 기독교대학이 없다면 한국선교를 포기하는 것이다. 서울에 대학을 세우야 모금도 쉽다. 평양은 서울의 1/6이고, 두 선교회 외에는 가려고 하지 않는다. 한국인들이 서울을 정치적 중심지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서울에 기관을 세우는 것이 특혜를 받을 수 있다. 다른 나라 선교부의 경우 대학을 지방에 세웠다가 다시 수도로 옮긴 사례가 많은데, 대학은 절대로 나라의 중심지에 있어야 한다. 서울에 대학을 설립한다는 조건으로 많은 기부금을 이미 받아놓은 상태에 있다.⁴²⁾

이처럼 언더우드에게는 기독교연합대학이 수도 서울에 설립되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했지만, 언더우드와 긴장관계에 있던 미국 북장로교 한국선교회의 평양 지부는 서울에 대학을 설립하는 것을 집요하게 반대했고, 때로는 반대를 위한 반대처럼 반대하기도 했다. 훗날 언더우드의 부인과 아들 원한경 박사는 기독교연합대학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언더우드가 받은 긴장과 고통, 모진 공격이 언더우드의 사망을 재촉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언더우드)의 말년, 동료들과의 불화, 그의 대학 설립 동기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이 그를 비통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을 재촉하였다.”⁴³⁾ 결국 언더우드의 일관된 주장과 노력의 결과로써 1915년 4월 12일 경신학교 대학부와 배제학교 대학부를 연합한 조선기독교대학(Chosen Christian College)이 YMCA 빌딩 안에서 시작되었고,⁴⁴⁾ 1917년 연희전문학교를 거쳐 1957년 연희대학교는 세브란스 의과대학교와 합병해서 연세대학교가 되어 오늘의 세계적인 대학으로서 있는 것이다.

교육에 대한 언더우드의 분명하고 일관된 입장은 일찌감치 설정되었던 것으로 1900년 2월 20일 엘린우드 박사에게 보낸 서한에 이미 나타나 있다.⁴⁵⁾ 첫째는 한국교회를 하나로 유지하고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기여할 교회의 지도자를 교육하는 것, 둘째는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교육함으로써 교육기관을 전도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 셋째는 전도사업의 주 대상이 중하계층과 하류계층이었던 반면에 교육사업을 통해 중상계층과 상류계층까지 포괄하자는 것, 넷째는 수도인 서울에 이러한 교육기관들을 세워야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의료선교

언더우드는 인도에 선교사로 갈 것을 대비하여 의과대학에서 1년간 의학을 공부한 경험이 있었고,⁴⁶⁾ 1885년 4월 10일 광혜원 진료실에서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알렌 박사를 돕는 조수로서 역할을 감당했다. 그는 비위가 약해서 외과수술 시에 피를 보고 실신한 후에는 시약소와 내과에서만 활동했다. 1886년 3월 29일 제중원에 의학교가 개설되자 언더우드는 교수로서 영어, 물리, 화학 등을 가르쳤다.

언더우드는 1892년 9월 그의 안식년 기간에 토론토에서 열린 장로교연맹 총공의회에서 연설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때 토론토 의과대학 교수로 일하던 에비슨(Oliver R. Avison, 魚丕信, 1860.6.30~1956.8.29)에게 한국의 선교사로 지원하도록 도전했다. 1893년 6월 입국하여 11월 제증원에 부임한 에비슨은 제증원의 직전 책임자 빈튼(Charles C. Vinton, 賓頓, 1856~1936.6.26)과 조선정부 사이의 갈등으로 야기되었던 제증원의 위기를 정상화시켰고, 이듬해에는 제증원의 운영권을 조선정부로부터 이양받아서 제증원을 온전한 의료선교기관이 되도록 하는 일에 기여했다.⁴⁷⁾ 제증원의 활동이 아주 미약해졌던 시절에 에비슨을 한국으로, 제증원의 책임자로 영입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 바로 언더우드였다.⁴⁸⁾ 언더우드와 에비슨의 우정과 연합은 1916년 언더우드의 사망으로 에비슨이 연희전문학교의 제2대 교장으로 취임한 뒤에도 계속 이어졌다.⁴⁹⁾

1893년 12월 언더우드는 죽은 형 프레데릭을 기념해서 버려진 환자들을 위한 피난처 ‘Frederick Underwood Shelter’를 개소했다.⁵⁰⁾ 환자들은 힘없는 하인들이거나 무연고자들로서 전염병에 걸렸을 때 내버려지는 사람들이었다. 이 피난처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교파에 상관없이 환자들을 돌보는 초교파적인 기관이 되었고, 버려진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들에 의해서 치료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한국정부가 병자를 버리는 잔인한 관습을 금지한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었다. 특히 1895년 여름 콜레라가 창궐했을 때는 이 피난처를 콜레라 치료병원으로 전환했고, 웰즈(James H. Wells) 의사, 언더우드, 언더우드의 부인, 그리고 새문안교회의 교인들이 참여해서 치료와 검역과 간호활동을 전개했다. 콜레라가 진정된 후에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한국 정부로부터 감사장과 약값과 선물을 받았고, 기독교 복음 전도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게 되었다.⁵¹⁾ 또한 언더우드는 프레데릭 피난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진료소를 세워 자신의 부인으로 하여금 치료와 약처방 그리고 성경반 운영을 맡도록 했는데, 그 진료소는 기부자였던 휴 오닐 부인(Mrs. Hugh O’Neil)의 이름을 따서 ‘휴 오닐 진료소’(Hugh O’Neil Dispensary)라 명명했다.⁵²⁾

1898년 언더우드는 열병이 만연한 한국에서 열병 치료에 좋은 ‘키니네’라는 약

품을 한국인들이 비싸게 구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급 물품을 싼 값에 팔아 한국인들을 돕는 것이 그리스도의 뜻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미국의 믿을만한 도매약품회사와 접촉했다. 그는 그 약품회사에서 저렴한 가격의 키니네를 대량으로 수입하여 권서인들을 통해서 싸게 판매하도록 했다.⁵³⁾ 언더우드가 키니네를 판매했던 이유는 분명했다. 첫째는 열병으로 고통당하는 한국인들에게 키니네를 싼 값으로 제공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전도활동을 헌신적으로 감당하는 권서인들에게 그들의 봉사에 대한 보수를 주는 것이었고, 셋째는 전도활동의 한 도구로 삼는 것이었다. 그래서 약병 껍질에는 전도문구의 포장지가 붙여졌는데, 그 내용은 “키니네는 육체의 어떤 병에는 효과가 있지만, 이 약으로 인간의 영혼을 구할 수 없고, 인간의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약은 따로 있다.”는 것이었다. 키니네는 한국인들에게 인기가 좋은데다 오래지 않아 꽤 넓은 판매망을 갖추어서 큰 수익의 기회가 되었지만, 일반 회사들이 상업적인 일에 뛰어난 선교사들을 질시한다는 점, 이윤을 얻은 젊은이들이 돈에 대한 욕심에 이끌리고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서 언더우드는 일 년 만에 그 사업을 중지했다.⁵⁴⁾

한편 언더우드는 1900년 12월 제중원의 새 건축을 위해서 에비슨의 친구였던 건축가 고든과 의논하고, 교섭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했다.

그(고든)는 토론토의 건축가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고든과 힐리웰 회사’ 소속이며, 캐나다에서 여러 정부 청사들의 입찰에 참여하여 공사를 따낸 자입니다. 그는 한국선교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이곳에 오는 경비, 체재비, 돌아갈 여비 등은 그가 해야 할 일을 고려하면 그러한 건축가에게 충분한 보수가 되지는 않겠지만, 만일 그가 자유롭고, 또 올 수 있다면, 한국선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년이나 일년 반 동안 이 일을 맡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⁵⁵⁾

그는 새로운 병원을 건축할 담당자의 연봉, 체제조건, 공식적인 초청 절차를 지휘했을 뿐만 아니라, 건축에 사용될 자재의 종류와 구입방법까지 제안했다.

조사해본 결과 우리는 목재 가격이 이곳보다 오리건에서 훨씬 저렴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대패질로 마무리가 된 1,000자의 목재가 오리건에서는 10달러이나 동일한 목재가 이곳 서울에서는 70달러입니다. 철도회사는 배 한 척 분량의 오리건 목재를 구했는데 제물포까지 1,000자 당 1.90달러의 운반비가 들었습니다. 건축할 새 병원, 새 교회, 그리고 6~7개의 사택을 조심스럽게 견적해 보면 작은 배 한 척 분량의 목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국에 있는 회사에 편지를 보내서 제물포까지 이 분량의 목재를 운반해 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⁵⁶⁾

제중원의 새 건물은 후에 세브란스병원으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언더우드는 죽을 때까지 세브란스 관리이사회의 이사로서 세브란스와 깊은 관계를 맺으며 의료선교활동에 참여했다.⁵⁷⁾

문서선교

언더우드는 한국선교의 준비를 위해 일본에 2개월 머무는 동안 이수정에게서 한국어를 배웠고, 한국에 입국할 때는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손에 지니고 들어왔다. 그는 “성경이 가장 훌륭한 선교를 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1886년 이래로 성경의 번역, 출판, 보급을 위한 일에 앞장섰다. 그는 미국성서공회의 헵번(James C. Hepburn) 박사의 충고에 따라서 1887년 2월 성서번역위원회를 구성했고, 1893년 번역자 선정, 원고검토, 편집, 성경가격 결정 등을 담당하는 상임성서 실행위원회로 확대 개편했다. 산하에 번역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는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위원장직을 수행했다. 그의 수고로 인해 1900년에 신약이, 1910년에 구약이 완역되어, 1911년에 신구약성경 출판감사에배를 드렸다.⁵⁸⁾

언더우드는 1888년 조선성교서회의 설립을 제안하고, 토론토 전도문서회, 미국 전도문서회, 런던 전도문서회 등지에 재정 지원을 호소했으며, 결국 1890년 6월 25일 조선성교서회를 설립하여 한국에서 본격적인 기독교 문서운동을 전개했

다.⁵⁹⁾ “조선어로 기독교 서적과 전도지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여 전국에 보급한다”는 목적으로 출발한 조선성교사회는 장로교와 감리교의 연합 선교 기관으로 운영되었다. 1890년 『성교촬리』를 비롯하여 1891년 『턴로지귀』, 1892년 『장원량우상론』, 1893년 『구세진전』 등은 조선성교사회가 출판한 대표적인 전도문서들이었고, 조선성교사회는 190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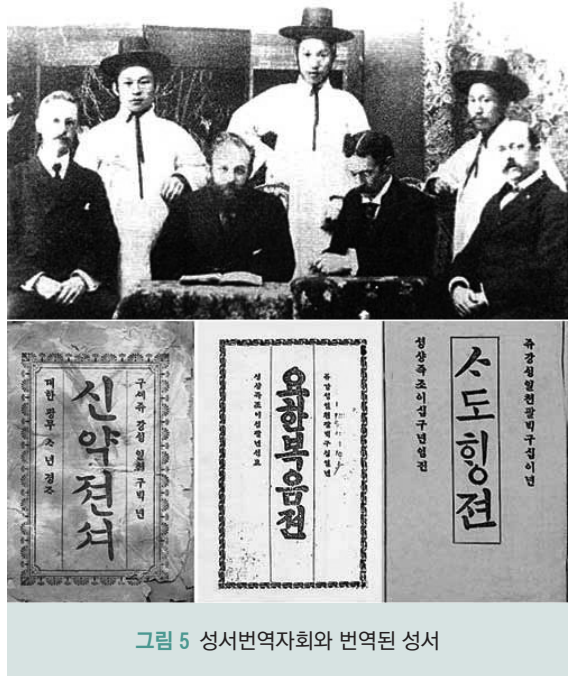


그림 5 성서번역자회와 번역된 성서

이미 총 부수 25만권 이상의 책을 출판했다. 한국말의 재능이 누구보다 뛰어났던 언더우드 자신도 적지 않은 책들을 번역해서 출판했다.

언더우드는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송순용이란 사람에게 한국어를 배웠고, 1886년 1월 31일 입국한지 9개월 밖에 안 된 상태에서 한국어를 배울 문법서의 출판에 대한 계획을 밝힌 적이 있다.

저는 이미 알고 있는 한국어를 수집해서 한 권의 작은 한국어 입문서를 출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하면 6월이나 7월까지 그런 책자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책 출판에 대한 선교본부의 관행을 모릅니다. 만일 그 책자를 준비한 후 빨리 출판할수록 더 좋다면 이런 사안에 대한 선교본부의 관행을 알고 싶으며, 선교회 전체가 찬성하면 제가 그 일에 착수해서 출판할 수 있는지, 또한 이곳 선교회 전체가 찬성하지 않을 경우 제 개인적으로 출판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⁶⁰⁾

그러나 3년 이상을 더 준비한 후에 1890년 4월 문법서인 『한국어입문』(*An Introduction to the Korean Spoken Language*)과 영한사전과 한영사전을 포함한 『한국어사전』(*A Concise Dictionary of the Korean Language*)을 출판해서 그가 한국에 처음 부임했을 때 한국어 관련 문법서와 사전이 없어 불편했던 것을 후배 선교사들과 다른 외국인들에게서 해소해주었다.⁶¹⁾

언더우드는 1891년 4월 안식년을 떠나 1893년 2월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가 안식년을 떠나기 전에 노력했던 찬송가 출판의 작업이 중지된 것을 발견하고는 스스로 찬송가 출판을 추진했다. 당시 한국교회는 출판된 찬송가가 없어 죽자에 쓴 찬송을 불렀기 때문이다. 그는 찬송가에 사용되는 신(神)에 대한 용어를 다른 선교사들이 선호하는 ‘하나님’이란 용어로 표현하지 않고, ‘주’, ‘천부’, ‘전능하신 주’, ‘여호와’ 등의 용어로 대체해서 표현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 1894년에 출판한 그의 찬송가는 공인 찬송가가 되지 못했다.⁶²⁾ 하지만 언더우드가 많은 부분을 번역한 총 116곡의 찬송가(그 중 일곱 곡은 한국인들의 작사로 만들어진 찬송)는 음악전문가인 번커씨(Mr. Bunker)의 자문을 받아 4성부의 악보를 포함해서 출판한 것으로 한국의 근대음악사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⁶³⁾

언더우드는 1897년 4월 1일 주간지 [그리스도신문]을 창간했다. 그가 “그리스도신문을 창간한 것은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지식인들과 민중들을 상대로 교육, 정치, 경제, 산업 및 농촌생활 등의 계몽을 위한 것”이었다.⁶⁴⁾ 엘린우드 박사에게 보낸 1900년 12월 10일의 서한을 보면, 언더우드가 그리스도신문을 출판한 의도가 분명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통전적인 복음을 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신문은 통전적인 가족 기독교 신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농민을 위한 농사법 정보, 공인을 위한 공장법과 과학, 상인을 위한 시장 보고서, 기독교 가정을 위한 생활 기사를 게재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기독교 방식으로 제시할 것이며, 그리

스도신문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위대한 목적을 이루고자 합니다.⁶⁵⁾

한편 언더우드가 출판한 그의 주요 저서로는 첫째 20여년을 한국에서 활동한 자신의 선교사 경험을 담아서 1908년 미국에 체류하며 출판한 『The Call of Korea』가 있고,⁶⁶⁾ 둘째는 1908년 뉴욕 대학의 찰스 덤스 철학강좌(The Charles Deems Lectureship of Philosophy)의 일환으로 강연했던 원고를 기초로 1910년 출판한 『The Religions of Eastern Asia』가 있다.⁶⁷⁾ 언더우드는 『The Call of Korea』에서는 한국의 국토, 한국인들의 일상생활, 한국인들의 종교생활, 한국선교 사역의 형태와 방법, 한국선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각 교파들의 사역현황을 다루었고, 『The Religions of Eastern Asia』에서는 도교가 중국종교를, 신도가 일본종교를, 샤머니즘이 한국종교를 대표한다는 전제 하에 각각의 종교들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관찰, 그리고 기존 연구서들을 바탕으로 저술한 이 책들을 통해서 선교현장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가장 우월한 신(神) 기독교의 하나님을 전파하고자 했다.

언더우드에게서 드러나는 기독교 정신

하나님 절대 신앙

언더우드는 1904년 9월 22일 한국 선교 사업 20주년을 기념하는 대회에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미래의 비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나는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새 한국, 완전히 해방된 나라, 정치적, 지적, 영적으로 실정과 무지와 미신의 속박에서 완전히 해방된 나라, 곧 기독교 한국을 분명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미래에 모든 읍과 마을에 세워진 학교에서 가르치는 공동체 정신을 가진 기독교 교사들을 보며, 모든 대도시에 세워진 중고등학교를, 의과대학과 간호학교, 모든 도시에 자급하는 병원들, 효율적인 본토인 여자 전도인들, 성경교사들, 고통당하는 자를 돌보고 죽어가는 자에게 빛과 위안을 주는 여자 집사들,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로 보여 주는 자비의 기관들을 본다.⁶⁸⁾

언더우드의 비전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슴조차 뛰게 하는 비전이고, 우리가 여전히 감당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그러나 언더우드는 이 비전의 원천이며, 이 비전을 이룰 완성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확신함으로써 그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드러낸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우리 눈에 놀랍지 아니한가. 주님을 찬양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기사를 행하시는 오직 하나님께.”⁶⁹⁾ 언더우드는 미래의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 속에서 선취한 것으로 고백했는데, 그 신앙이 놀랍다.

언더우드는 1908년에 출판한 그의 저서 『The Call of Korea』에서 선교지의 전통신앙에 대해 공격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을 증거하는 일

에 충실할 것을 충고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에서 비롯되고 있다.

외국으로 파송되는 선교사들은 그 나라의 전통신앙에 대해 공격하는 따위의 훈련을 받지 않는다. 선교사의 사역은 다만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건만을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서는 다른 어떤 신앙도 굴복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곳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한국 땅 방방곡곡에서 당신의 사역을 하고 계셨다.⁷⁰⁾

이처럼 언더우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의 선교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교에 응답하고 동참하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다.

1911년 일제가 무단통치의 일환으로 민족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105인 사건을 조작하고, 검거자들을 심문하며 한국교계를 흔들고자 했을 때, 언더우드는 미국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었다.⁷¹⁾ 1912년 8월 언더우드가 안식년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고자 할 때, 주변의 친구와 지인들은 그의 귀국을 말렸다. 그가 곤란한 지경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그가 추진하던 한국에서의 대학설립이 난관에 봉착했던 데다가, 그의 건강 역시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에게는 한국의 선교사로서의 일 맡고도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일들이 많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언더우드는 그런 이야기들을 웃어넘기거나 거절했고, 약속된 시간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가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역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 때문이었다. 그때의 일들을 언더우드의 부인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그에게 있어 선교 사업은 십자가이기도 했지만, 생명이자 기쁨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는 생명이 지속되는 한 그 일을 그만 둘 수가 없었다.”⁷²⁾ 이처럼 언더우드에게 있어 한국선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명령이었고 또한 삶의 의미였다.

한국에 귀국한 언더우드는 서울에 대학을 두는 편보다 차라리 대학이 없는 편이 낫다고 주장하는 다수 선교사들의 반대상황에 여전히 직면했는데도, 그는 하

나님 앞에서의 각오를 강력히 드러냈다. “그러나 우리의 의무를 그만둘 수 있습니까? 감히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⁷³⁾ 이처럼 하나님을 절대 신앙하며 선교사역을 수행했던 언더우드가 사망했을 때, 코리아 미션 필드는 ‘언더우드 박사’라는 사설에서 언더우드의 하나님 절대 신앙을 이렇게 요약했다.

언더우드 박사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그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에게 끊임없이 선물로 주시는 모든 선한 것을 믿었다. 그의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셨고, 위대한 ‘나는 나이다’(야웨)의 하나님이셨다. 그의 하나님은 교파나 교단의 신은 아니었고 더욱이 신조와 신학의 신은 아니었다... 언더우드 박사의 구호는 만일 우리가 더 많은 선교사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만일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 돈을 얻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러나 이 형제의 믿음은 하나님께 협력했다.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기도했고, 모든 것이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일했다.⁷⁴⁾

이처럼 언더우드 주변의 선교사와 한국인들은 언더우드가 행한 모든 사역의 이면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앙이 있었음을 보았다.

성육신

기독교의 핵심은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성육신의 신학에 있다. 전혀 이질적인 것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남과 화해가 가능해졌다는 신비를 고백하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의 초창기 복음주의 계열의 선교사들 대부분은 신앙 영역과 세상영역을 구분하고, 신앙영역에 비중을 크게 두었다. 반면 언더우드는 성육신의 정신 속에서 신앙이 세상영역 안에서 꽃피워져야 할 것으로 이해했다.

우리는 언더우드의 성육신의 기독교 정신의 사례들을 그의 다양한 선교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는 언더우드가 1896년 9월 국왕의 생일을 기념해서 기도 및 찬양집회를 계획하고 주관했던 일에서 드러난다. 이 일에 대해서 언더우드 부인은 기독교가 전국으로 알려지고 호의적으로 선전되는 기회로 보면서, “기독교는 선하고 충성스러운 교리를 가지고 있어, 한번 생각해볼만하며, 훌륭한 사람들도 그것을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져나갔다.”고 말했다.⁷⁵⁾

언더우드는 아관파천으로 침울해진 국왕을 생일기념행사를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전파하는 기회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둘째는 언더우드가 1897년 4월 그리스도신문을 발행할 때 기독교적인 내용만으로 한정하지 않았다는 것과 기독교인들만을 독자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드러난다. 그는 그리스도신문을 통해서 복음전파의 기회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사회를 변화시키고 한국인들의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일까지 관심을 두었던 것이다. 셋째는 언더우드가 1904년 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한 것에서 드러난다.

나는 기독교 가정, 기독교 마을, 기독교 통치자들, 기독교 정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한국) 나라가 강력하고 즐거운 영향력의 손을 한편으로 중국으로 뻗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으로 뻗어서, 전자의 나라에서는 편견과 보수주의를 부드럽게 하고, 후자의 나라에서는 믿음을 굳건케 한다.⁷⁶⁾

당시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2%도 되지 않는 한국적 상황에서 언더우드가 한국을 기독교 국가로 꿈꾸었던 것은 성육신의 기독교 정신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했다. 넷째는 언더우드가 한국의 종교, 문화, 역사, 삶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던 것에서 드러난다. 1908년 그의 저서 『The Call of Korea』는 그러한 관심의 결정체였다. 그는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피선교지 국가 한국의 “삶의 상황”(Sitz im Leben)을 제대로 알고자 했던 것이다. 다섯째는 언더우드가 기독교

인이 많이 분포된 서북지역의 중심지 평양에서 기독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독교대학을 발전시키기보다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비기독교인 학생들까지 포함하는 기독교대학을 설립하려고 했던 것에서 드러난다. 복음은 기독교인들에게만 제한될 수 없다. 복음의 본질은 세상과 비기독교인들에 대한 관심을 언제나 견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섯째는 언더우드가 기독교연합대학을 창립할 때 가르칠 내용에 대한 교육적 입장에서 드러난다. “기독교대학은 물론 종교를 가르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상업적, 농업적, 산업적, 전문적, 문화적인 측면에 걸친 생, 그런 것에 관련하여 교육을 하는 것이다.”⁷⁷⁾ 그래서 언더우드는 사농공상(士農工商) 주요 계층의 마지막에 상(商)이 위치해 있는 한국의 전근대적인 상황에서도 상학과를 기독교연합대학 안에 설치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웃사랑

언더우드의 부인은 남편 언더우드의 성격에 대해 말하기를, 사회의 모든 계급과 여러 종파들 사이에서, 직함을 가진 외교관으로부터 변변치 못한 부랑아에 이르기까지, 유럽인들과 미국인으로 이루어진 외국인 공동체에서나 중국 일본 한국이라는 비기독교적인 동양의 공동체에서, 왕으로부터 날뎀팔이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친구이자 형제로 다가간 언더우드의 모습에서 그의 성격이 빛을 발했다고 진술했다.⁷⁸⁾ 언더우드의 그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존엄하다는 기독교 정신과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웃사랑의 기독교 정신이 녹아져 표현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언더우드의 이웃사랑의 사례들을 여러 측면에서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언더우드는 그의 선교 사역 초창기부터 고아들에 대한 이웃사랑의 관심으로 그의 집에서 고아원을 운영했다. 둘째, 언더우드는 버려진 환자들에 대한 이웃사랑의 차원에서 작은 형을 기념하는 피난처를 운영했다. 셋째, 언더우드는 방탕하고 무익해 보이는 한 미국인에 대한 살인혐의의 재판에서 선교사가 살인자를 변호한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이웃사랑의 관심 속에 살인혐의자를 위한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전

개했다.⁷⁹⁾ 넷째, 언더우드는 “서양인들과 서양종교를 추종하는 한국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이 운영하는 학교와 집과 교회를 파괴하라”는 한국정부 발행의 밀서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을 때,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이웃사랑의 관심 하에 수행했고, 기어이 저지했다.⁸⁰⁾

한편 이웃사랑에서 비롯된 언더우드의 한국인들에 대한 애정은 특별했다. 잡지 『국내와 해외교회』(1891. 9)에 실린 “오늘 한국의 전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언더우드는 한국인들의 개방성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한국인들은 손님대접을 잘 하고, 외국인들에게 친절한 기질을 가지고 있고, 외국인의 풍속과 예절을 배우고 싶어 하고, 한국 바깥에서 온 좋은 것을 보려고 하고, 모든 주제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개방되어 있다.”⁸¹⁾ 또한 언더우드는 그의 저서 『The Call of Korea』에서 중국인, 일본인과 한국인을 비교하면서,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중간일 뿐만 아니라 지적으로도 신체적으로 두 나라 국민들의 중간 정도라고 보면서 한국인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한국인은 중국인처럼 냉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본인만큼 변덕스럽지도 않다. 그들은 중국인의 옹고집과 같은 무분별한 보수적 성향이나 일본인의 변덕스럽다고 할 만큼 쉽게 순응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냉정하게 비교 검토하여 만일 정말 좋은 것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자신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신앙과 전통을 경솔히 버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꺼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중국인처럼 미신에 노예처럼 얽매어 있지 않으며, 그들의 옛 종교에 빠져 있지도 않고, 과거의 전통을 맹신하지도 않는다. 반면 일본인처럼 무조건 모방하거나 따라하지도 않는다.⁸²⁾

이처럼 언더우드는 자신이 사역하는 피선교지의 한국인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장점과 긍정적인 면을 우선적으로 보았음을 알 수가 있다.

일치와 연합

언더우드의 선교활동은 미국 북장로교회 한국선교회의 서울지부에 한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초교파적인 활동의 선봉에 있었다. 그는 영국에 거주할 때 영국의 개신교도로서 프랑스의 가톨릭 계통의 학교에 유학했고, 미국으로 이민을 한 후에는 영국교회로부터 미국교회로 옮겼으며, 화란개혁교회가 운영하는 뉴부른스 위크의 신학생으로 재학할 때는 구세군에서 활동했다. 또한 그는 화란개혁교회의 목사로서 안수를 받았지만 북장로교회의 파송으로 한국에 온 최초의 목회자 선교사였다. 더욱이 그는 초교파적인 선교회를 조직했던 외증조부 와우 박사의 가문을 배경으로 하는 선교사였다. 그러므로 언더우드는 미국 북장로교회라는 특정한 교파에 속한 선교사로서 자신을 규정했기보다는 복음의 일군으로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초교파적인 선교사로서 사역하고자 했고, 그것은 그의 배경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가 1887년 4월 8일 웰즈 박사에게 보낸 서한을 보면, 그는 교육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감리교회의 성과를 지적하면서 북장로교회 선교부에게 교육사업을 위한 추가사역자를 요청하고 있다.

제가 교파적인 차원에서 추가 사역자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귀하와 저는 한국 감리교의 성공에 대해서 기뻐하며 우리 모두는 기꺼이 그들에게 '성공을 빕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마차의 뒷좌석에 눌러앉아 있는 광경은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⁸³⁾

또한 그가 1888년 2월 6일 헵번 부인에게 보낸 서한을 보면, 그는 감리교회가 장로교인을 경쟁적으로 빼가려는 상황에 직면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우리와 감리교회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얼마 전 우리 교인 한 명을 데리고 가려는 끈질긴 노력이 있었으나 중단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인 붙잡기 게임을 원하는 듯합니다. 이런 일을 말하는 것이 유쾌한 일은 아

니지만 사실입니다. 오, 우리가 교파간의 차이점을 이방 땅에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⁸⁴⁾

이처럼 언더우드는 특정교파의 선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사역하고자 했다.

이제 우리는 언더우드가 교회의 일치와 연합의 정신 아래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몇 가지 사역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1886년 성서번역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성서번역을 위한 위원회를 초교파적으로 구성한 것에서 볼 수 있다. 둘째는 1888년 경쟁적인 선교를 지양하고, 협력적이고 효율적인 선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로교 선교회와 감리교 선교회 간에 선교지를 분할하도록 주도한 것에서 볼 수 있다. 셋째는 1890년 6월 기독교 문서운동을 위해서 조선 성교서회를 초교파적으로 조직한 것에서 볼 수 있다. 넷째는 1895년 버려진 환자들을 위한 프레데릭 언더우드 피난처를 교파와 상관없이 운영한 것에서 볼 수 있다. 다섯째는 1899년 9월 장로교의 4개(미국 남장로교, 미국 북장로교, 호주장로교, 캐나다장로교) 선교부 공의회의 회장이 되어서 결국 하나의 장로교회를 한국에 세우는데 기여한 것에서 볼 수 있다. 여섯째는 1903년 한국의 중상류층 청년들에게 복음접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YMCA를 초교파적으로 조직하는 과정에서 YMCA의 이어나 회장으로 사망할 때까지 YMCA를 운영하는 모든 과정에서 볼 수 있다. 일곱째는 1905년 9월 15일 한국복음주의총공의회 회장으로 피선되어서 하나의 '대한예수교회'를 만들고자 주도한 운동에서 볼 수 있다. 마지막 여덟째는 평양에 있는 장로교 중심의 숭실대학에 머물지 않고, 1915년 모든 교파의 동참을 유도하며 서울에 기독교연합대학을 설립한 것에서 볼 수 있다. 이처럼 언더우드는 서로 다른 네 개의 장로교 선교부 간에,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부 간에, 교파를 초월해서 활동하는 모든 선교사들 간에, 나아가 한국인들과 선교사들 간에 서로 일치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30년 이상을 크게 수고했고, 그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을 알 수가 있다.

언더우드로부터 비롯되는 연세의 학풍

지금까지 우리는 언더우드의 생애와 주요한 선교활동들을 살펴보고, 그 이면에 내재한 기독교 정신을 살펴보았다. 민경배는 언더우드와 연세를 나눌 수 없는 일체로 본다. “연세대학교는 실제로 언더우드 개인의 피와 땀 그리고 기도로 세워진 대학이다. 그렇다면 연세의 창립정신은 어디 달린 이론적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언더우드가 곧 연세의 정신인 것이다.”⁸⁵⁾ 김인회 역시 언더우드의 교육정신이 연세의 교육 속에 계속 작동해 왔음을 말한다. “언더우드의 교육정신은 오늘날까지의 연세교육 속에 계속 이어지고 실천되면서 비록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으면서 실제에 있어서는 연세교육을 방향 짓는 정신적 준거로서 살아 움직여 왔다.”⁸⁶⁾ 이와 같은 인식 아래 우리는 언더우드의 생애와 선교활동과 기독교 정신에 비추어서, 연세가 언더우드로 인해 어떤 학풍을 형성했고, 언더우드로부터 어떤 학풍을 더욱 계승 발전시켜야 할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언더우드로부터 비롯되었을 뿐만 아니라 언더우드에게서 더욱 계승 발전시켜야 할 연세의 학풍은 불굴의 정신이다. 언더우드는 그의 가정의 표어대로 “불가능을 일소에 부치고, 무엇이든 반드시 될 수 있다고 말하라.”는 삶의 자세 가운데서 살았다. 그는 1910년 구미포에 피서하러 갔다가 실족해서 심각한 골절상을 당해 두 달 동안 움직이기 어려웠을 때에도 육체적인 고통을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교사역을 전혀 멈추지 않고 모든 노력을 다해 감당했다.⁸⁷⁾ 그는 기독교연합대학인 연희전문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동료 선교사들의 집요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선교부와 선교위원회를 설득했고, 마지막에는 반대했던 동료 선교사들까지 동참하도록 함으로써 기독교연합대학 조선기독교대학을 설립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인간승리였다. 그의 인간승리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불굴의 정신이었다. 이 불굴의 정신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우리에게 능력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신

양,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존재한다는 신앙,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만이 우리를 불굴의 정신으로 이끈다. 연세의 역사에는 불굴의 정신이 녹아져 있다. 일제강점기의 수난 속에서도, 한국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군사정권의 억압 속에서도 당당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왔기 때문이다. 이제 연세는 남북분단의 현실에서 불굴의 정신으로 평화통일을 만드는 일에도 크게 기여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언더우드로부터 비롯되었을 뿐만 아니라 언더우드에게서

더욱 계승 발전시켜야 할 연세의 학풍은 실사구시의 정신이다. 언더우드는 한국에 온 이듬해인 1886년 고아원으로 시작해서 학교로 발전시킨 언더우드 학당의 교육목표를 한국인들에게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치는 전도사와 교사를 양성하는 일에 두었던 동시에 자급자족을 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병행했다. 그는 그리스도교신문을 창간할 때 복음전과와 함께 사회구조의 개혁과 삶의 질의 고양을 동시에 도모했다. 또한 그는 연희전문대학을 설립할 때 상학(商學)을 주요 전공으로 설정했다. 이처럼 언더우드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신을 명확히 드러냈다. 이 실사구시의 정신은 언더우드에게 체화된 성육신의 기독교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바른 신앙은 삶과 영혼을 분리하지 않는다. 교회와 세상을 양자택일 하지 않는다. 세상 한 가운데서 꽃을 피워야 하는 생활신앙으로 이해한다. 그동안 연세는 ‘학문을 위한 학문’, ‘상아탑에 갇혀 있는 학문’을 추구하지 않았다. 연세는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새로 쓰는 일에 앞장 서 왔다. 연세가 추구해온 것은 삶의 현실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인간 삶의 필요와 풍성함에 기여하는 실사구시의 학문이었



그림 6 언더우드 동상

다.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1%의 특권층을 중심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오늘의 세계에서 연세는 학생들에게 개인의 입신양명이나 자기 이해관계의 관철을 가르치는 대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공동체의 공익 충족을 가르치는 대학으로서 “배워서 남에게 주자”는 실사구시의 정신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언더우드로부터 비롯되었을 뿐만 아니라 언더우드에게서 더욱 계승 발전시켜야 할 연세의 학풍은 섬김의 정신이다. 언더우드는 조선의 국왕과 왕비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았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전파와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기 위한 기회로 삼았다. 그는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지극 정성을 다해 도움을 주었다. 철도공사를 하던 일본인들이 그들과 마찰을 빚은 노인을 죽이려고 했을 때나, 살인혐의로 비난을 받는 미국인 부랑자를 변호했을 때, 언더우드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의 그러한 삶은 이웃사랑의 기독교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마지막 심판 때에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실천했는지의 여부로써 영생과 영벌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셨다. 연세는 권력자나 부자, 또는 특권층에 영합하기 보다는 가난하고 병들고 자기 스스로를 대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앞장 서 왔다. 이제 연세는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정직, 존중과 배려, 열정과 용기 등의 덕목을 배양하고, 교양인의 핵심역량(비판적 사고력, 창조적 상상력, 공감과 소통의 능력, 글로벌 리더십, 평생학습자로서의 능력,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능력), 전공지식과의 융합능력(튼튼한 기초지식과 최신 이론의 습득,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융합하는 능력)과 함께 섬김의 리더로서 자기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⁸⁸⁾

넷째로, 언더우드로부터 비롯되었을 뿐만 아니라 언더우드에게서 더욱 계승 발전시켜야 할 연세의 학풍은 에큐메니칼 정신이다. 언더우드는 외형적으로 특정교파와 교단인 미국 북장로교회에 소속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교파와 교단의 울타리나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않았고, 기독교라는 큰 지붕 아래 있는 하나님의

일군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의 인식을 견지했다. 그는 선교사역의 모든 활동을 교파를 초월한 일치와 연합의 정신으로 수행했고, 동료 선교사들이 일치와 연합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주도했다. 그의 이같은 노력은 기독교의 에큐메니칼 정신에서 비롯되었다. 에큐메니칼 정신이란 각자의 고유한 정체성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일치와 연합을 향해 나아가는 열린 정신이다. 한 지붕 아래 한 가족처럼 서로 하나가 되자는 정신이다. 서로 경쟁하지 말고, 협력을 통해 상호시너지를 창출하자는 정신이다. 언더우드의 에큐메니칼 정신은 연세의 역사 속에 연연히 흐르고 있다. 일제하에는 장로교회와 감리교회 그리고 성공회의 선교부가 연세에 이사를 파송하고 선교비를 지원하며 연세를 연합으로 운영했다. 1957년 지금의 연세로 합병되었을 때 한국교회의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과 기독교장로회 교단, 감리교회와 성공회 등에서 이사를 파송함으로 연세의 기독교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왔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연세는 백락준 총장의 말대로 연세는 “연세인의 연세, 한민족의 연세, 세계의 연세”로서 그 명성을 지켜왔다. 앞으로도 연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폐쇄된 정체성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교훈 아래 누구와도 협력하고 연대하며 폭넓게 기여할 수 있는 에큐메니칼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언더우드 추모식에서 행한 에비슨의 추모연설은 언더우드와 연세의 관계가 미래에 어떻게 진전될지를 예견한 것이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 대학의 완전한 발전이 그(언더우드)에 대한 가장 큰 기념이 되고, 그 대학이 다가올 미래에 모든 한국의 사상과 활동에 미칠 지속적이고 지대한 영향력의 측면에서 그의 풍성한 삶에 영광스런 면류관으로 증명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⁸⁹⁾

연세는 에비슨의 예견대로 설립자 언더우드의 가장 큰 기념물이 되었고,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명문대학으로 우뚝 서 있다. 연세는 언더우드

를 잊을 수도 없고, 또 잊어서도 안 된다. 언더우드 없이 연세는 존재할 수 없었고, 연세 없이 언더우드를 기억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나 언더우드는 연세에 의해서만 독점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언더우드 동상의 전면에 쓰여 있는 영문 글귀처럼 언더우드는 “하나님의 대언자, 그리스도의 제자, 한국의 친구” (*Messenger of God, Follower of Christ, Friend of Korea*)로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있다. 이제는 그의 존재가 우리의 과제로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한국에 온 복음의 대언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요, 한국인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자기를 철저히 헌신한 한국의 영원한 친구였던 언더우드를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그가 걸었던 길을 기꺼이 걸어가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 1859.7.19. 영국 런던에서 존 언더우드와 엘리자베스 그랜트 매리의 넷째로 출생
- 1865. 모친 사망
- 1869. 프랑스 볼로뉴 슈메르에 있는 천주교 남학교에 입학
- 1872. 전 가족 뉴욕으로 이민. 뉴더햄에 정착
화란개척교회 출석, 저어지의 해스브룩 소년학원에서 공부
그로브교회 목사 메이본 박사로부터 개인지도 받음
- 1877. 뉴욕대학교 입학
- 1881. 부친 사망. 뉴욕대학교 졸업 및 뉴브룬스위크 신학교 입학
- 1883. 뉴저지주 품턴교회 목회
- 1884.5. 뉴 브룬스위크 신학교 졸업. 인도 선교사로 준비하면서 의학 공부
- 1884.7.28. 한국 첫 장로교 목회 선교사로 임명받음
- 1884.11. 목사 안수를 받음
- 1884.12.16.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 요코하마로 출발
- 1885.1.25. 요코하마 도착. 서광범 등으로부터 한국어 배움
- 1885.4.5. 제물포 도착
- 1886.5.11. 정동 고아원 개원
- 1886.7.18. 한국인 노춘경에게 세례를 줌
- 1886. 여름 아펜젤러와 함께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
- 1887.2.7. 성서위원회 조직(회장)
- 1887. 봄 일본 요코하마에서 한글 마가복음 출판
- 1887.9.27. 정동장로교회(현 새문안교회) 조직
- 1887.10. 첫 북부지방 여행
- 1887.12.25. 정동장로교회 첫 한국인 성찬식
- 1888.1.1. 정동 감리교회와 정동 장로교회 첫 연합 기도회
- 1888.3.27. 의사 릴리아스 스텔링 호튼 내한
- 1888. 아펜젤러 목사와 북부지방 여행(2차 여행)
- 1888. 릴리아스 스텔링 호튼과 약혼
- 1888.11. 북부지방 여행(3차)
- 1889.3.14. 호튼 양(38세)과 혼인하고 북부 지방 신혼 전도 여행(4차)

- 1890.4. [한영자전],[영한자전],[한글문법서]와 한글 소책자 2권 출판
- 1890.6. 조선성교서회 조직(서기)
- 1890.9.9. 아들 원한경(H. H. Underwood) 태어남
- 1891.3. 아내의 관절염 악화로 미국으로 안식년 떠남
- 1891.6. 뉴욕대학교에서 명예 신학박사 학위 받음
- 1891.9. 내슈빌에서 열린 미국신학교선교연맹 대회에서 연설
- 1892.9. 토론토에서 열린 장로교회연맹 총공의회에서 연설. 애비슨 의사 한국 선교 자원
- 1895.11.28. 춘생문 사건
- 1896.1. 애비슨 의사와 함께 북부 지방 여행(5차)
- 1896.9.2. 고종 탄신 축하 행사
- 1897.4.1. [그리스도신문] 창간
- 1897.8.23. 두 번째 고종 황제 탄신 축하 행사
- 1900.10.1. 서경조 장로 안수식
- 1901.5. 이스라엘과 유럽을 거쳐 미국에 감(2차 안식년)
- 1903.10. YMCA 이사로 피선
1904. 언더우드 부인의 저서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출간
대한교육학회 회장에 피선
1905. *The Korea Review* 편집
- 1905.9.15. 복음주의총공의회 조직(회장). 하나의 대한예수교회 운동 고조
- 1905.11. *The Korea Mission Field* 창간
1906. 고종 황제로부터 최고 훈장 수여 받음
- 1906.7. 안식년 휴가(3차)
1908. *The Call of Korea* 출간
뉴욕대학교와 프린스턴대학교에서 ‘동아시아 종교’ 강의
- 1909.8.24. 북장로교 한국 선교 25주년 기념식에서 “회고” 발표
- 1909.9.1. 감리교와 교계 분할 협정 완성. 존 디 웰즈 학교(경신학교) 교장에 임명됨
1910. *The Religions of Eastern Asia* 출간
1911. 종교서회(회장) 건물 신축
- 1912.4. 안식년 휴가(4차)
- 1912.6. 아들의 뉴욕대학교 졸업식 참석. 명예 법학박사 학위 받음.

- 1912.8. 피어슨 성경학교 개교
- 1912.9.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조직(노회장)
- 1914.4.16. 한국 도착 30주년 기념
- 1915.4.12. 조선기독교대학 개교(초대학장)
- 1916.1. 일본어를 공부하기 위해 일본에 감
- 1916.4. 건강악화로 미국에 감
- 1916.10.12. 뉴저지 애틀란틱 시에서 소천
- 1916.10.15. 뉴욕 라파에트가 장로교회에서 장례식, 그로브 교회 묘지에 안장
- 1921.10.29. 언더우드 부인 서울에서 소천.

연세의 개척자들과

연세학풍

II

연희의 정초자 에비슨

조재국_연세대 교수(종교학)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Seoul Korea

The President and Board of Managers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have
Lupon. This is to certify that

BACHELOR OF MEDICINE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after instruction
to the regulations of the College, and careful

∴ In witness whereof this Diploma, signed
the President and Dean, and sealed with the seal
is awarded to him this _____ day of _____
in Seoul, Korea



察
校長
醫
京 法 開 本 私 醫 大 學

한국의 기독교선교는, 최초의 공식적인 파송선교사인 알렌이 1884년 9월 20일 제물포에 들어온 것을 기점으로 하면 올해로 131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알렌은 미국 장로교 해외선교부로부터 파송을 받아 조선에 들어와서 제중원을 설립하여 이후 속속 내한하는 선교사들의 선교거점을 제공하였다. 한국교회가 교회설립을 중심으로 서술되는 가운데, 정작 최초의 선교거점인 제중원의 개원, 세브란스병원의 발전, 연희전문학교의 설립과 연세대학교로의 통합 등은 간과된 것이 많다고 생각된다. 한국선교의 시작을 선교사의 내한을 기점으로 정하고, 최초의 선교기관을 제중원으로 본다면 당연히 알렌의 내한을 한국선교의 시작으로 보아 금년을 한국선교 131주년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제중원에 이어 최초의 선교병원으로 발전한 세브란스병원의 건축과 연희전문학교의 설립과 발전에 큰 역할을 한 에비슨 선교사의 사역에 대해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

에비슨은 지금까지 세브란스병원을 건축한 의료선교사로만 알려져 왔으나, 연희전문학교의 설립에 있어서 그가 한 역할과 18년간에 걸친 교장으로서의 업적을 생각하면 교육선교사로서의 성격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내한 동기에서부터 헌신적인 의료선교와 교육선교의 과정을 살펴보면 그의 한국



기독교에 남긴 유산의 지대함이 여실히 드러난다. 특히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조선기독교대학 및 연희전문학교의 설립을 위한 그의 노력과 헌신은 한국기독교에 든든한 초석을 놓는 사역이었다고 평가된다. 조선기독교대학의 설립을 둘러싼 선교사들 간의 갈등 상황에서 에비슨은 한결같이 언더우드 선교사를 도와 교육선교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언더우드의 사후에는 오랜 동안 교장으로로서 최고의 기독교사립대학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감당하였다.

이 글에서는 에비슨의 내한 경위와 언더우드의 조선기독교대학에 따른 협력선교, 언더우드 사후 연희전문학교의 법인설립 등 초기의 그의 역할과 선교 및 교육관을 살펴 그의 지도력과 행정력을 통하여 형성된 교육방침과 교육목표를 분석함으로써, 오늘의 연세대학교가 계승한 연세학풍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찾아보고자 한다.

에비슨의 생애

가난한 유년시절

올리버 R. 에비슨(Oliver R. Avison, 魚丕信, 1860.6.30~1956.8.28)은 1860년 6월 30일 영국 요크셔(Yorkshire)주 웨스트 라이딩(West Riding)의 재거 그린(Jagger Green)이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시몬 에비슨(Simeon Avison, 1833.11.9~1919.12.10)은 여섯 살 때부터 모직공장에서 직공으로 일하였고, 제품부의 감독까지 승진했으나 가족을 풍족하게 부양할 만큼 벌지는 못했다. 올리버의 가족은 아버지의 직장을 따라 브루크로이드(Brookroyd)로 이사를 했으며, 올리버는 처음으로 그곳에 있는 중년의 여성들이 동네 아이들에게 읽기, 쓰기와 셈하기를 가르치는 “숙녀학원”(dame school)에 다녔다. 그러던 중, 새로운 기계의 등장으로 실직을 우려한 아버지를 따라 올리버의 가족은 1866년 2월에 영국 리버풀(Liverpool)에서 뉴욕으로 가는 이민선을 타게 되었고, 뉴욕에 잠시 머무른 후 먼저 이민 온 삼촌이 있는 캐나다의 온타리오 서쪽에 위치한 브랜트포드(Brantford)로 이주하였다. 이후에도 몇 번 더 올리버의 가족은 아버지의 이직으로 이사를 다녔는데, 그 때마다 올리버는 물에 빠져 숨지거나 벼락을 맞아 혼수상태에 빠지는 친구, 그리고 성홍열로 반 친구 몇 명을 잃는 등 특이한 일을 겪었다. 그런데 성홍열은 세균에 의해 유행되는 병으로, 올리버는 그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장뇌(樟腦; camphor) 한 조각을 몸에 지니고 다녔으며, 자신이 그 병을 가볍게 앓은 것은 장뇌 때문이라고 믿었다.⁹⁰⁾ 한편 부모님이 감리교도였지만 감리교회가 없는 곳에서는 회중교회나 미국성공회를 출석하였기 때문에 올리버는 교파에 구애받지 않은 신앙을 갖게 되었다.

올리버는 알몬트(Almonte) 지방으로 이사한 후에 공립학교에 입학하여, 열한 살이 되기 전에 상급반인 8학년까지 진급하였다. 올리버는 공부에 대한 싫증과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며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졸랐다. 아버지는 아들의 생각을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자기가 다니는 공장의 솜털부(picking machine)에서 일하도록 해주었다. 올리버는 어머니가 마련해 준 작업복을 입고 일하러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⁹¹⁾ 그는 겨우 열한 살이었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 6시 30분까지 출근해서 하루 11시간, 주 6일간 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올리버는 공장에서 일하는 소년들이 읽기, 쓰기는 물론 셈을 할 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소년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야학을 개설하고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집에서 주 3일간 2시간씩 그들을 가르쳤다.

공장에서 일한 지 2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올리버에게 학교로 돌아가 공부하라고 권유하였다. 그 때, 그는 우유배달부로부터 “만약 네가 교육을 잘 받으면 궁핍하지 않게 살 수 있을거야”라는 말에 끌려 아버지 말씀을 따랐다.⁹²⁾ 올리버는 학급을 낮추어 학교에 들어갔지만 야학에서 가르친 실력을 인정받아 곧 상급반으로 올라갔다. 초등학교를 마칠 무렵, 교장선생님의 권유로 중학교 입학시험을 보았는데 1등으로 합격하였다. 교장 선생님의 진보적인 성향은 올리버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아버지의 강력한 금주론도 그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올리버가 열네 살 때, 불가지론자이면서도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던 아버지가 정식으로 교회에 등록하겠다고 아들에게 세례를 권유하였다. 이것은 올리버 가족이 예배와 기도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다.⁹³⁾

올리버는 중학교를 마친 후에 농촌인 퍼스(Perth)에 있는 사범학교(Model School)에 진학하여 초등학교의 선생이 될 수 있는 제3종 교사자격증을 받았다. 올리버는 알몬트에서 40Km거리에 위치한 스미스 폴스(Smith's Falls) 근처의 시골학교의 교사를 지원하였다. 최종면접을 위해 방문한 그라함(Graham) 이사장택에서 후에 결혼하게 될 제니 번스(Jennie Barnes, 1862~1936) 양도 만나게 되었다. 그는 1878년 1월 2일부터 교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교실 하나에 40여 명의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교사보다 더 나이든 학생들이 많았다. 그는 3년 동안 교사로 일하면서 학생들과 매우 친하게 지냈고, 그라함 씨의 배려로 제니 양이 다니는 감

리교회에 출석할 수 있었다. 올리버는 주일마다 예배를 마치고 그녀의 집에서 장로교회를 다니는 그라함 씨가 데리러 올 때까지 찬송가를 함께 부르며 기다리는 행운을 얻었다.

성공한 청년의사 시절

올리버 R. 에비슨은 스미스 폴스에서 3년 동안 교사로 일한 후에, 알몬트의 집으로 돌아와서 토론토대학 입학 준비하였다. 그러나 대학입학 예비과정을 마칠 즈음에 그는 생각이 바뀌어 평소에 좋아하는 화학분야의 일을 하기 위하여 스미스 폴스에 있는 약국에 견습생으로 들어갔다. 그는 3년 동안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주 6일간 일하며 화학, 식물학, 의약재료 제조법 및 사업수완을 배웠다. 일년 후에, 에비슨은 약국의 모든 책임을 맡게 되었고 의약 조제기술을 발전시킨 덕분에 수익을 늘렸다. 그는 고용계약이 끝날 무렵, 6년 동안 사권 제니 양과 약혼식을 올렸다. 또한 토론토대학 약학부의 졸업과 동시에 식물학을 담당하는 교수로 일하게 되었고,⁹⁴⁾ 셔틀워드(F. B. Shuttleworth) 교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의사자격을 얻기 위하여 1884년 토론토 의과대학에 입학하였다. 그는 약학부 졸업을 인정받아 3년 만에 의과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다.

에비슨은 1885년 7월 28일, 약혼자 제니와 결혼하였다. 그는 토론토대학 재학 중에 YMCA에 가입하여 하디(Robert A. Hardie, 河鯉泳, 1865. 6. 11~1949. 6. 30)와 게일(James Scarth Gale, 奇一, 1863. 2. 19~1937. 1. 31)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문과출신인 게일은 조선선교사로 먼저 갔다가 후에 북장로교 선교사가 되어 『한영대사전』을 편찬하고 『구운몽』, 『춘향전』 등의 고전을 번역하였다. 하디는 캐나다 YMCA 선교부 파송으로 조선선교사로 가서 감리교 목사가 되었다. 그는 기독교청년들을 모아 에비슨의 집에서 기도모임을 가졌는데, 기도모임의 멤버들이 하디를 조선 선교사로 보내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1890년 9월, 하디 부부와 어린 딸은 조선으로 떠나기 전에 에비슨의 집에서 묵었고, 오랜 후에 에비슨은 조선에서 캐나다로 돌아가는 하디 가족을 전송하였다. 그는 『천로역정』을



그림 7 에비슨 부부(1935년)

한국어로 번역하였고,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의 주역이 되었다. 또한 토론토 유지들이 조선으로 파견한 말콤 펜윅(Malcolm C. Fenwick, 1863~1935)는 평신도였는데, 한국에서 침례교 선교사로 활약하였다.

의사가 된 에비슨은 토론토 의과대학에서 약리학 교수를 하면서 시내에 병원을 개업하였다. 동시에 그는 YMCA 의료팀의 이사로 활동하였고, 셔어본 스트리트 감리교회(Sherbourne Street Methodist Church)의 평의회 회원 겸 평신도 설교자(lay preacher)로서 주일 오후에는 하였으며, 목요일 밤에는 동부지역 도시선교회에 속한 소년금주단의 책임자로 활동하였다.⁹⁵⁾ 에비슨은 토론토시장의 부인을 치료해 준 덕분에 시장의 주치의가 되었다. 에비슨의 신앙생활은 감리교도답게 매사에 규칙적이었으며 헌금에 대하여 “미리 매년 헌금을 얼마씩 할 것인지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그 돈을 쓰지 않도록 하든지, 아니면 수입과 지출의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자주 액수의 증감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엄격하였다.

한국에서의 의료선교

에비슨은 토론토에서 개업의로써 6년간 활동하면서 수입도 좋았고 토론토의 과대학 교수직도 5년간 계약을 연장하였으며 시장의 주치의로서 명성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한국에서 선교하는 하디와 게이로부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조선선교를 고민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안식년으로 뉴욕에 돌아와 있던 언더우드 선교사(Horace G. Underwood)를 초청하게 되었는데, 에비슨과 부인은 그의 선교보고를 듣고 크게 감동하였다. 그 자리에서 에비슨은 언더우드로부터 조선선교사로 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결국 조선행을 결심하게 되었다.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 총무 엘린우드(F. F. Ellinwood, 1826~1908)는 “당신들을 장로교인으로 만들기를 원치 않으며 한국에 감리교를 전파시켜 거기서 전도사업이 번창하기를 바란다”며 에비슨의 결심을 환영하였다.⁹⁶⁾ 에비슨은 집 근처의 앤드류 장로교회(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로 교회를 옮겨서 장로교 선교사가 되었다. 당시 에비슨에게 아이가 셋 있었고, 부인이 넷째를 임신하고 있었다. 그래서 친구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지인 조선으로 떠나는 것은 무리라며 말했다. 에비슨은 “만일 밴쿠버에 도착할 때까지 아픈 셋째아이가 살아서 배에 승선할 수 있으면 조선으로 가겠다. 하지만 아이의 병 때문에 탑승이 거절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가지 말라는 것으로 알겠다”고 말하며 친구들의 만류를 뿌리쳤다.⁹⁷⁾ 다행히 아이는 밴쿠버에서 건강이 회복되었고, “인도의 여제호”(Empress of India)를 타고 일본 요코하마를 향하여 출발하였다.

오랜 항해 끝에 에비슨은 1893년 6월 16일 부산항에 도착하였으며, 베어드(William M. Baird, 裴偉良, 1862. 6. 16~1931. 11. 29) 선교사 집에 머문지 일주일 후에 부인이 넷째 아이 더글라스(Douglas)를 출산하였다. 에비슨 가족은 두 달 정도 지난 후 제물포로 떠났으며, 배 안에서 조선 최초의 선교사인 알렌(Horace N. Allen, 安連, 1858. 4. 23~1932. 12. 11)을 만났다. 제물포에 도착한 에비슨은 언더우드 선교사의 안내를 받아 서울로 들어가 제중원 원장인 빈튼 선교사 집에 여장을 풀었다.

에비슨은 1893년 11월 1일부터 제중원에서 의료선교를 시작하였다. 제중원은 수도인 서울에서 조선청년들을 모아 의사로 양성하기를 바라는 그에게 가장 좋은 선교처였다. 당시 제중원은 조선정부가 건물을 제공하고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가 의사를 파견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반관반민 병원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병원에는 정부 관리들이 파견되어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에비슨이 지방출장을 떠난 사이에 정부 관리들이 병원시설을 일본인 의사에게 임대해 주었다. 출장에서 돌아 온 에비슨은 한 사람만 남겨두고 모든 관리들을 돌려보내며 조선정부에 병원 전체를 미국 선교회에 맡겨 달라고 요청하였다. 반년에 걸친 협상 끝에 1984년 9월 말, 그는 미국공사로 있던 알렌을 통하여 병원 운영권이 선교부로 이관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⁹⁸⁾ 그는 또한 미국 선교본부에 간호사 파견을 요청하여 쉴즈(Eather I. Shields)가 입국하였고, 그녀는 조선의 간호사제도를 정착시켜 주었다. 고종의 주치의로 임명된 에비슨은 청일전쟁 동안 유행했던 전염병 콜레라 방역에 최선을 다했다. 에비슨은 “상처를 깨끗이 치료받고 몸도 깨끗이 닦이우고 옷을 갈아입은 후에 감사하는 환자들의 웃음이 우리들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이었다”라고 고백하였다.⁹⁹⁾

에비슨은 당시 천민신분으로 백정출신인 박성춘(朴成春)을 찾아가 치료해 주었는데, 무어(Samuel F. Moore, 毛三悅, 1846~1906)선교사와 함께 완쾌될 때까지 그를 돌보아 주었다. 박성춘은 정성을 다해 천민인 자신을 치료해 주는 선교사에게 감동을 받았고, 에비슨의 권유를 받아 가족들을 이끌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교회에서 양반들이 백정들의 출석을 반대하여 교회가 갈라지게 되었다. 에비슨은 내무대신 유길준(兪吉濬, 1856.11.21~1914.9.30)에게 백정들도 평민처럼 상투를 틀고 갓을 쓸 수 있게 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고종이 그의 탄원서를 승인하였다. 박성춘은 공고문을 들고 마을을 다니며 알렸고, 백정들은 너무나 좋아서 잘 때도 갓을 쓰고 잤다고 한다.¹⁰⁰⁾

후에 박성춘은 은행가가 되었고, 승동교회의 장로로 크게 봉사하였다. 또한 그는 아들 박서양(朴瑞陽, 1885. 9. 30~1940. 12. 15)을 에비슨에게 데려와서 사람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박서양은 청소와 침대정리 등 잡일을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성실하게 하였고, 에비슨은 그를 정식으로 제중원의학교의 학생으로 입학시켜 의학공부를 하게 하였고, 1908년 첫 졸업생들 가운데 하나로 의사가 되게 하였다. 박서양은 세브란스의학교 교수로 일하다가 북간도 용정으로 가서 학교와 병원, 교회를 세우고 독립운동에 참가하였다. 그의 딸은 에비슨 부인이 설립한 제중원병원교회(남대문교회)의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하기도 하였다.

에비슨의 병원신축과 의학교육

의료선교와 병원건축

에비슨은 제중원을 신축하여 세브란스병원으로 발전시킨 장본인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중원은 한국에 최초의 선교사로 파견된 알렌이 1885년 4월 10일 개원한 반관반민의 서양병원의 효시이다.¹⁰¹⁾ 알렌은 고종에게 제출한 병원 설립안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만약 정부에서 약간의 시설들을 제공한다면 병든 사람들을 서양과학으로 치료할 수 있고 부상당한 군인들도 돌볼 수 있는 장소가 생기는 것이므로 조선 정부로서도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젊은이들에게 서양의 의학과 보건학을 가르치는 기관이 될 것입니다.¹⁰²⁾

알렌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병원의 두 가지 역할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과 조선 젊은이들에게 서양 의학과 보건학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알렌은 갑신정변으로 자상(刺傷)을 입은 민영익(閔泳翊, 1860~1914)을 치료하여 살린 후에 고종으로부터 “광혜원”이라는 시호와 함께 병원건물을 하사 받았다. 병원이름은 곧 제중원으로 바뀌었고, 알렌은 개원하면서 하루에 60~70명의 환자들을 돌보았다. 일 년 후에는 병원을 구리개로 이전하여 2.5배로 확장하였다. 그러나 제중원은 알렌이 1887년 10월 주미조선공사관의 참찬관(參贊官)으로 임명되어 미국으로 떠났고, 후임인 헤론(John W. Heron, 蕙論, 1956.6.15~1890.7.26) 역시 3년이 못되어 이질로 사망하였으며, 제3대 원장인 빈튼은 진료보다 전도에 더 관심을 두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¹⁰³⁾

에비슨은 1893년 11월, 제4대 원장으로 부임하여 제중원을 의료선교의 거점



그림 8 구리개 제중원 당시의 에비슨 (1901년)

으로 만드는 개혁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는 조선정부의 지분을 해소하고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가 단독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을 미국공사관을 경유하여 조선정부에 제출하였다. 오랜 논의 끝에 조선정부가 그의 요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제중원은 1894년 9월부터 미국 선교부가 경영하고 선교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선교병원이 되었다.¹⁰⁴⁾ 이로써 아침예배와 주중기도회, 주일 정기예배가 병원 내에서 진행되었고, 환자들도 신앙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었다. 1900년 선교보고서에 의하면 무어 목사와 그의 조수, 그리고 선교사 및 교인들이 입원환자들을 방문하여 전도하였고, 성경공부 모임도 이뤄졌다. 또한 1901년 6월에는 서상륜(徐相崙, 1848.7.19~1926.1)을 병원 전도사로 임명하여 직원들과 환자들을 위한 신앙적 돌봄을 행하였다.

서상륜은 아침 일찍 직원들을 모아 기도회를 갖고, 아침식사 후에 환자와 조수들과 병동에서 함께 기도회를 열었다……이러한 노력의 결과 병원의 환경은 진정

한 기독교 정신을 함양하는 전도의 장으로 훌륭하게 발전할 수 있었다.¹⁰⁵⁾

제중원을 선교병원으로 개혁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마친 에비슨은 1895년부터 새로운 병원건축에 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¹⁰⁶⁾ 그리고 그는 1899년 안식년을 맞아 캐나다로 갔을 때 건축가 고든(H. B. Gordon)에게 40명의 입원실을 가진 현대식 병원의 설계를 부탁하였다. 다음해 봄, 병원설계도를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준비하던 그는 미국 선교부로부터 뉴욕에서 열리는 선교 대회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에비슨은 귀국을 연기하고 1900년 4월 30일 에큐메니칼 선교대회(Ecumenical Missionary Conference)에 참석하여 카네기 홀에서 “의료선교에서의 상호협력”(Comity in Medical Missions)에 대해 연설하였다. 그는 한국의 의료선교사 7명이 협력하여 하나의 좋은 병원에서 일하면 각기 7개의 작은 병원에서 일하는 것 보다 더 효과적인 의료선교를 할 수 있다며 새 병원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연설을 마친 후에 선교부의 엘린우드 총무의 소개로 세브란스(Lewis H. Severance)씨를 만났고, 그에게 병원건축 계획안을 보여주며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엘린우드 총무로부터 한국의 병원건축을 위해서 1만불을 기증하겠다는 세브란스 씨의 약속을 전해들었다. 에비슨은 부인과 함께 감사를 표하기 위해 세브란스 씨를 방문하였는데, 세브란스 씨는 “당신은 모르시겠지만 아내와 나는 약 1년 동안 어느 곳인가 병원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된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감사하는 에비슨에게 “받는 당신의 기쁨 보다 주는 나의 기쁨이 더 큼니다”라고 말하였다.

귀국한 에비슨은 병원건축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지만 평양주재 선교사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1901년 9월 서울에서 열린 연례모임에서도 대다수의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다수의 의사가 사역하는 큰 병원을 건축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그들은 대형병원의 건축으로 선교사들이 복음전도보다 기관사역에 더 힘을 쓰게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¹⁰⁷⁾ 웰즈(J.H.Wells)는 “에비슨 의사는 미국인이 아닌 까닭에 미국의 제도나 방식을 좋아하지 않으며, 장로교인이 아닌 까닭에 동료 선

교사들의 다수표결과 감정을 따르려 하지 않는다”라고 비방하였다.¹⁰⁸⁾ 그러나 에비슨은 이에 굴하지 않고, 의학교를 포함한 종합병원을 건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미국 선교부의 총무 브라운(A. J. Brown)이 선교사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조선을 방문하였다. 브라운은 통역으로 동행한 에비슨이 평양으로 가는 도중에 소문을 듣고 찾아온 환자들을 정성을 다하여 치료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세브란스의 기부금을 전액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¹⁰⁹⁾ 이렇게 해서 에비슨은 미국 선교본부와 세브란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새 병원의 건축을 진행할 수 있었다. 세브란스가 먼저 보내준 5천불에 구리개 병원에 대한 고종의 보상금 1만 엔(5천불)을 더하여 남대문 밖에 있는 좋은 땅을 구입하고, 1902년 11월 27일(미국 추수감사절)에 알렌이 머릿돌을 놓은 정초식을 거행하였다. 그리고 세브란스가 보낸 의료선교사 허스트(Jesse W. Hirst, 許濟, 1864~1952.4.28)가 도착한



그림 9 세종원 의학교과서

1904년 9월 23일, ‘세브란스씨 기념병원’으로 봉헌식을 거행하였다.¹¹⁰⁾ 1907년에는 세브란스가 주치의인 러들로(Alfred Irving Ludlow, 1875~1961)와 함께 방문하였고, 러들로는 1912년 1월 다시 조선에 와서 외과의사로 1938년 퇴직할 때까지 병원과 대학을 위하여 일하였다.

에비슨의 끈질긴 노력과 세브란스의 신뢰와 후원으로 인하여 세브란

스병원이 신축되면서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선교방침에 약간의 변화가 나타났다. 평양선교사들은 전도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급의 원칙을 앞세우면서 의료사역을 낮게 평가한 반면, 서울선교사들은 의료사역을 선교의 실천행위이자 기독교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일로 보았기 때문에 양측은 양보없는 갈등을 노정(露呈)하고 있었다. 그래서 세브란스병원의 건축과정에서 서울선교사들은 인내를 가지고 평양선교사들과 대화하고 미국 선교부의 관계자들과 협의하면서 의료사역과 의학교육의 중요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또한 세브란스병원과 의학교의 성공은 이후 언더우드의 대학설립 구상에서 재현되는 양측의 갈등에서 언더우드와 에비슨을 비롯한 서울선교사들에게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에비슨의 초기 의학교육

알렌은 고종에게 병원설립 요청서를 제출할 때 병원설립의 목적을 “조선 젊은 이들에게 서양의학과 보건학을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기록하였는데, 실제로 제중원을 개원한 후 곧 한국 청년들을 모집하여 의학을 가르쳤다. 알렌이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을 때 미 북장로교 해외선교부 이사이자 뉴욕 라파엣(Lafayette)장로교회의 장로인 맥윌리엄스(Daniel W. McWilliams)는 ‘마퀀드 기금(F. Marquand)’의 관리자였는데, “기독교 교육을 위해 국내외에 사용할 수 있다”는 마퀀드의 유언을 따라 엘린우드 총무에게 조선선교를 시작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선교기금으로 5천불을 기탁하였다.¹¹¹⁾ 따라서 알렌은 마퀀드 기금의 취지에 따라 조선에서 병원과 함께 조선청년들에게 의학교육의 기회를 주고자 1885년 12월 포크(G.C.Foulk)공사와 의학교 설립문제를 협의하였다. 병원운영의 규칙인 『공립의원규칙』 전문과 제1조 “생도 약간명이 매일 배우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휴일을 제외하고는 마음대로 놀수 없다. (학업에)정통하고 탁월해 중망을 얻는 자는 공천해 표양한다”에 의거하여 이듬해 3월 26일 각 도의 감영에서 엄선한 16명의 학생으로 “제중원 부속의학교(Medical and Scientific School)”를 개교하였다. 이 학교에서 알렌은 화학을, 언더우드는 영어·화학·물리를, 헤론은

의학을 담당하였다.¹¹²⁾ 이러한 의학교육의 이상은 에비슨에게 계승되었고 많은 난관을 거쳐 1908년에 조선최초로 7명의 의사들을 배출하게 되었다.

에비슨은 1899년부터는 의학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극소수의 의료선교사의 힘만으로는 산적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조선 청년들을 교육시켜 의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병원 조수들을 선발하여 현대 의학기술을 가르치고 있었으나, 좀 더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교과서와 적절한 교육과정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다행히 에비슨은 캐나다에서 어린 때 야학을 만들어 가르쳤고, 사범학교 졸업 후 초등학교에서 그리고 대학에서 가르친 경험은 어떤 선교사보다도 많았다. 특히 약리학 교수를 하면서 얻은 경험은 교육내용은 물론, 교과과정·교수방법·교육행정 등에 전문적인 지식으로 축적되어 있었다.

1903년, 미국 북장로교 선교회 의무위원회 보고서의 제4항에 의하면 ‘조선에서 의료선교활동을 하는 모든 남자의사로서 의학교육 및 의사자격증 수여를 관장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칙과 교과과정을 작성하고 학생들에게 시험을 실시하여 교육과정을 완수한 학생들에게 자격증을 수여하도록 할 것을 건의한다’고 되어 있다. 에비슨은 1902부터 1907년 사이에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해부학을 비롯하여 약물학, 약리학, 미생물학, 피부과학 등의 임상의학 교과서를 편찬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리학, 무기화학, 화학 등의 기초학 교과서들을 편찬하였다. 그리고 주한 북장로교 선교회는 1905년에 의학부 과정은 7년으로 하고, 약학부 과정은 3년으로 정하여 체계적인 의학교육을 행하도록 결정하였다.¹¹³⁾

1908년에는 장기간에 걸쳐 의학을 공부한 7명의 학생들에게 졸업장을 수여하게 되었는데, 에비슨은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의사로서 개업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수여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사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외국기준에 준하는 엄격한 졸업시험을 치르게 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졸업식을 성대하게 거행하였다. 에비슨은 제일 선교사의 사회로 진행된 졸업식에서 당시 조선 통감으로 있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직접 첫 졸업생에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의사면허증을 수여하도록 요청하였다. 에비슨은 졸업생들에게 후배들을

위해 학교에 남아 달라고 하자 모두 주저하지 않고 선생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약속하였고, 그는 “나는 공부를 시켜 그저 의사를 양성한 것으로만 알았는데 자기 민족을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 기독교 정신이 가득한 의사를 육성하였다”며 기뻐하였다.

1909년부터는 성공회, 남북감리회, 남장로교, 캐나다장로교, 호주장로교가 의학교 운영에 참가하여 교명을 세브란스연합의학교(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로 변경하였다. 1912년에는 의학교 건물을 새로 지었고, 미국 북감리회와 남감리회가 교육에 참여하여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할 수 있었다. 1916년 4월 25일에는 재단이사회를 구성하였고, 1917년에는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로 새로 인가를 받았다. 또한 1923년부터는 관립 의학전



그림 10 간호부양성소 졸업생과 함께한 에비슨(1918년, 오른쪽 첫 번째)

문학교과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아 졸업생들은 국가고시 없이 의사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에비슨이 의학교육과 함께 새로 시도한 것은 간호교육이었다. 1906년에 북장로회 선교부에서 파견한 실즈가 제중원의 간호교육을 정식으로 착수하였다. 처음에는 “지원자는 글을 읽고 쓰고 그리고 시계를 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다. 간호사 지원자는 모두 기독교인이어야 했고 정규과정은 6년이었으나 3년의 단축과정도 있었다. 1908년 11월 5일에 두 명이 수업을 마치고 간호사 자격증을 받았는데 그 때 남은 재학생은 7명이었다. 이는 한국에서의 간호교육의 효시이자,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의 시작이었다.

에비슨의 연희전문학교 설립과 발전

언더우드의 교육선교

언더우드는 조선에 온 지 3개월째 되는 1885년 7월 6일 미국 선교부의 총무 엘리우드에게 보낸 편지에, 자기 집에서 여러 명의 소년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¹¹⁴⁾ 다음해 5월 11일, 그는 조선정부와 미국 선교부의 허락을 받아 정동 사택 옆의 한옥을 사서 교육을 시작하였다. 학생들은 한 명에서 10명으로, 그리고 25명으로 늘어났는데 대부분 고아출신이었다. 그리고 1891년에 언더우드는 가정학교를 남자학교로 재정비하여 ‘예수교학당’(Jesus Doctrine School)으로 개명하였고, 동족에게 진리를 전하는 설교자와 교사의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정했다.¹¹⁵⁾ 그런데 1897년 북장로교 한국선교회의 연례회의에서 언더우드, 에비슨, 베어드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교학당의 폐쇄를 결의하였다. 당시 한국을 방문한 북장로교 해외선교부 총무 스피어(Robert E. Speer)는 당면한 급선무는 복음전도이며, 고등교육에 대한 필요가 많지 않고, 학교평판이 좋지 않으며 교육할 책임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당 폐쇄를 주장하였다.¹¹⁶⁾ 이에 학교는 1900년에 연동교회 부속건물에서 계일을 교장으로 다시 시작하여 6명의 학생을 모집하였고, 1906년에는 북장로회 선교회 부회장 웰즈(John D. Wells)목사를 기념하는 후원금으로 새 교사를 건축하였다. 이에 앞서 1905년 봄, 계일 교장은 학교이름을 구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깨우친다는 뜻으로 “경신(敝新)학교”로 정했다. 언더우드는 1910년부터 2년간 교장으로 일했고, 1913년 10월 30일부터 쿤즈(Edwin W. Koons)가 26년간 교장으로 있으면서 학교를 크게 발전시켰다.

일찍이 언더우드는 1888년 9월 8일, “조선 젊은이들의 지도와 교육을 위해 미국의 대학과 같은 학교를 세우려는 뜻”을 당시 미국공사 딘스모어(Hugh Dinsmore, 1861~1939.9.21)와 더불어 국립대학 설립을 논의하였으나 진전을 이

루지 못한 언더우드는 장로교의 에비슨, 감리교의 베커(Arthur Becker) 등과 함께 서울에 기독교사립대학 설립을 추진하였다.¹¹⁷⁾ 언더우드는 1908~1909년에 안식년을 보내면서 5만2천불을 모금하였고 모든 교파들이 협력하여 서울에 연합대학을 세우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평양의 마펫(Samuel A. Moffett, 馬布三悅, 1864. 1.25~1939.10.24)을 비롯한 장로교 선교사들은 그의 대학설립안을 반대하였고,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도 평양의 송실학교 대학부로 족하다는 선교사들의 주장에 동조하였다. 에비슨은 브라운 총무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어 장로교와 감리교의 연합대학을 서울에 설립하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¹¹⁸⁾ 연합대학의 설립에 관심을 보인 브라운 총무는 북감리교 선교부 위원인 가우처(John F. Goucher, 볼티모어여자대학장)에게 문의하였고, 북감리교만이 아니라 남감리교도 서울의 연합대학 설립에 찬성한다는 응답을 듣게 되었다. 미국 북감리교 선교부 총무 노스가 한국을 방문하여 대학설립 문제의 실상을 파악하였고 1912년 3월, 연회(年會)에서 교파연합으로 서울에 대학을 설립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그해 9월 17일, 장로교와 감리교의 선교부 합동위원회(The Joint Holding Committee)가 요청한 주한장로교 선교사들의 찬반투표에서 121명 중 서울에 대학설립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37표에 불과하여 부결되고 말았다.

이때부터 평양대학을 주장하는 마펫과 서울대학을 주장하는 언더우드 사이의 지루한 줄다리기가 계속되었다. 세브란스의학교 교장인 에비슨은 미국 선교부 브라운 총무에게 서울이 모든 지역에서 접근하기 편리하고 교육의 중심이기 때문에 학생모집이 수월하다고 주장하며 언더우드 편을 들었지만, 게일과 클라크 등 대다수의 선교사들은 평양 쪽을 지지하며 논쟁과 반목이 계속하였다. 결국 1913년 2월 25일 뉴욕에서 열린 합동위원회에서 서울을 대학설립지로 선정되었다. 이것은 교파 간의 협동을 중시한 장로교 대표들이 감리교대표들의 강력한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이다.¹¹⁹⁾ 그러나 한국사역 일 년 이상 된 선교사 100명 중 37명이 서울을 지지하고, 63명이 평양을 지지하였기 때문에 주한 선교사들의 끈질긴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¹²⁰⁾ 미국 북장로교 총무 브라운은 합동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1914년 2월 24일, 장로교 한국선교회에 서신을 보내 서울의 대학설립안을 지지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마펫, 아담스(James E. Adams), 휘트모어(N.C. Whittmore), 샤프(Alise H. Sharp), 클라크(Allen D. Clark), 웰본(Arthur G. Welbon), 쿡(E.D.Cook) 등은 미국선교본부에 항의와 불만을 표시하였다.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는 1914년 12월 8일자 편지에서 서울에 하나의 대학을 세우기로 한 결의가 최종의 결정이라고 통보하였고 평양의 숭실학교는 초급대학(Junior College)으로 운영한다고 하였다. 브라운 총무의 지도력과 언더우드의 인내를 통하여 많은 오해와 반대를 극복하고 1915년 4월 12일 월요일, 서울 YMCA에서 경신학교 대학부로 조선기독교대학(Chosen Christian College)이 설립되었다. 언더우드는 조선에서 교육선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교육선교사로 사역하고자 하였으나 다른 장로교 선교사들은 직접전도를 주장하며 그의 교육선교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미국 선교본부의 브라운 총무와 친형 존 T. 언더우드의 계속적인 지원과 믿음직한 동역자 에비슨의 도움으로 교육선교의 염원을 실천할 수 있었다.

에비슨의 협력선교

에비슨은 언더우드의 대학설립에 가장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보냈으며 조선기독교대학의 부교장과 교장으로 봉사하였다. 그는 1916년 2월, 언더우드가 일본어공부를 위해 도쿄로 갔다가 도미하였는데, 10월 16일 미국 뉴저지 애틀랜타(Atlanta)에서 사망하자 교장에 취임하여 대학설립에 따른 제반 업무를 추진하였다. 에비슨은 1917년 5월 14일 정식으로 학교설립인가를 받았다. 그는 자신을 초청해 준 언더우드의 멘토로써 끝까지 그의 학교설립 과정을 도왔고, 그의 사후에는 그의 뜻을 따라 학교를 운영하여 크게 발전시켰다.

에비슨은 주한 장로교 선교사들 사이에 오래 동안 대학설립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언제나 언더우드의 편을 들어주며 어려운 일을 도맡아 주었다. 1914년 3월, 새로 만드는 연합기독교대학의 관리 이사를 구성할 때 에비슨은 밀러(Frederick S. Miller)와 함께 기꺼이 이사회에 참여하였고,¹²¹⁾ 27일 언더우

드 집에서 모인 대학임시관리이사회 회의에 노블(W.A. Noble), 하디, 빌링스(B. W. Billings), 밀러, 베커와 함께 참석하였는데, 베커는 북감리회 선교사로 평양 숭실대학의 제2인자이면서도 언더우드의 의견에 적극 찬성하였다.¹²²⁾ 평양주재 선교사들의 반대로 인하여 협력자인 브라운 총무까지도 “당분간 개교를 연기하는 편이 훨씬 더 나을 것 같다”고 언더우드를 만류하였지만¹²³⁾ 에비슨은 한사코 언더우드 편을 들었기 때문에 평양주재 선교사들은 그와 언더우드를 선교회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 “고집불통”이라고 비판하였다. 심지어 마펏을 비롯한 평양선교사들은 언더우드와 에비슨이 선교회를 사퇴하여야 하며, 한국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²⁴⁾

마침 한국을 방문한 세브란스마저도 한국장로교 선교회를 평양과 서울, 두 개로 나누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고,¹²⁵⁾ 에비슨도 언더우드와 밀즈에게 선교회 분리안을 제안하였다. 언더우드는 차라리 선교회를 탈퇴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에비슨이 같이 떠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말하면서 만류하였다.¹²⁶⁾ 몇 일 후에 에비슨이 평양으로 가서 마펏을 설득하였으나 그는 에비슨에게 사퇴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사퇴하겠다고 대답하였다.¹²⁷⁾ 에비슨은 1914년 6월 언더우드의 부탁을 받고 브라운을 직접 만나 대학설립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보고하였는데,¹²⁸⁾ 이 때 언더우드는 미국 선교본부의 승인이 늦어져서 예정된 토지구입이 무산될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¹²⁹⁾ 연합대학은 1915년 4월 12일 월요일, 총독부 학무국장 세키야(関屋貞三郎)의 조언을 받아들여 경신학교 대학부의 이름으로 개교하여 학생 60명을 받았고, 이때도 에비슨은 언더우드의 요청을 받고 뉴욕으로 가서 브라운을 만나 대학설립의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였다.¹³⁰⁾

다음해 2월, 언더우드가 일본어 공부를 위하여 도쿄에 가면서 에비슨에게 임시교장의 직을 부여하고 대학 설립인가에 필요한 수속을 부탁하였다.¹³¹⁾ 에비슨에게 주어진 역할은 법인 정관에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르칠 수 있는 조항을 넣는 것이었다. 언더우드는 정관에 들어 갈 내용으로 첫째, 이 대학이 언제나 기독교에 기초한 기독교 기관이어야 한다는 것, 둘째, 이 기관의 학장과 교사는 건전한 신앙인이어야 한다는 것, 셋째, 관리자와 직원, 그리고 이 법인에서 일하도록 고

용한 자들은 반드시 기독교 성경을 믿는 자라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¹³²⁾ 에비슨은 언더우드 부재중에 임시교장으로서는 감리교 해외선교부 등에 대학설립과 운영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면서 실질적으로 교장의 역할을 감당하였고,¹³³⁾ 와병 중에 있던 언더우드는 사망하기 직전까지도 서신을 통하여 에비슨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나타내었다.

에비슨은 1916년 10월 12일, 언더우드가 미국에서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브라운에게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냈다.

저는 24년간 언더우드 박사와는 형제와 같이 지냈습니다. 우리는 서울에서 함께 살면서 서로 아주 친밀하고 지속적인 조화 속에서 사역하였습니다.…하나님께서 비록 그 일꾼을 데리고 갔지만 사역은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저는 언더우드 박사를 한국에서 아니 아마 전 선교지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 가운데 한 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그 만큼 한국인의 신뢰를 받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모두가 그를 존경했고 사랑했으며, 말년에 현존하는 정부의 전적인 신뢰를 받았습니다.¹³⁴⁾

동료인 장로교 선교사들의 비난과 방해 속에서도 곳곳이 교육선교의 길을 함께 간 언더우드의 갑작스런 사망이 에비슨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이지만, 그는 슬픔에 앞서 언더우드의 유지를 받들어 조선기독교대학을 제대로 된 대학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오랜 꿈이 이제 막 눈앞에 실현된 상태에서 훌쩍 세상을 떠나버린 언더우드를 생각하며 에비슨은 형제와 같은 동역자로서 그의 꿈을 아름답게 이루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릴리아스(Lillias H. Underwood, 好敦, 1851.6.21.~1921.10.28)는 남편 언더우드의 사망 후에 에비슨에 대한 믿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에비슨이 조선에 선교사로 온 것은 언더우드가 간절히 소원하여 이룬 하나의 결

실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에비슨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세브란스병원과 의학 전문학교를 설립하고, 교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의학교과서들을 편찬하고 학생들과 젊은 의사들에게 강한 복음적이고 자기희생적인 정신을 심어주고, 한국에서 모든 선교기관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에비슨은 처음부터 언더우드의 가장 동정적이고 효과적인 동역자이며 조언자이고, 지난 20년간 모든 어려움 속에서 언더우드 편에서 주었고 배려하는 마음을 나누었다. 에비슨은 우리 선교회에서 일하기 위해서 그의 원교단인 감리교를 떠났고, 아이들을 어려운 환경으로 이끌어 왔고, 그의 훌륭한 전문직을 포기하였고, 경제적인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다.¹³⁵⁾

이와 같은 에비슨에 대한 언더우드가의 신뢰와 믿음은 이후 에비슨의 대학경영에 대한 언더우드가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에비슨을 이어 아들 언더우드와 손자 언더우드의 헌신적 봉사의 기반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최재건 박사는 에비슨과 언더우드의 관계에 대하여 언제나 한 마음 한 몸과 같이 서로 협력한 동역자라고 평가하고 있다.

언더우드와 에비슨은 한평생을 같이한 유대관계는 양교의 밀접한 유대관계를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 두 사람은 항상 선교정책이나 학교운영에 대하여 뜻을 같이 하였다. 두 사람은 세브란스병원과 의학교가 중흥 발전할 때도 동조했고, 서울에 종합대학을 세우는 일에도 뜻을 같이 하였다. 둘은 함께 한국선교회에서 소수파의 일원이 되어 오랜 기간 고군분투하며 대학설립을 관철시켰다. 언더우드의 사후에는 에비슨의 유업을 이어 받아 18년 동안이나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 연합의학전문학교, 양교의 교장을 겸직하였다. 둘은 실로 일심동체와 같았다.¹³⁶⁾

오늘의 연세대학교는 조선에 선교사들을 파견한 모든 기독교 교파들의 연합선교라는 이상을 실현한 결과이지만, 그 시작은 장로교 출신의 언더우드와 감리교 출신의 에비슨이라는 두 신앙인의 뜨거운 우정과 동역을 통하여 나타난 결실이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은총의 증거라고 생각된다.

연희전문의 설립과 정착

에비슨은 언더우드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하여 대학설립과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한 몸에 질 수 밖에 없었다. 누구보다도 언더우드의 뜻을 잘 알고 이미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교장으로로서 대학행정을 풍부하게 경험한 그가 부교장으로 동참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더구나 에비슨은 미국장로교의 독지가들인 루이스 H. 세브란스와 그의 아들 존 L. 세브란스, 그리고 언더우드의 친형 존 T. 언더우드와의 친분으로 인하여 평양 선교사들의 방해를 비롯한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언더우드의 원대한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겸비하고 있었다.

교장에 취임한 에비슨에게 주어진 과제는 학교의 운영비 모금과 대학설립인가, 그리고 대학부지구입 등 세 가지였다. 특히 학교운영비는 학생들의 수업료 수입을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 선교부 지원금 및 교회의 현금을 요청해야 하고, 대학 설립인가는 일본의 기독교대학의 경험을 배워야 하는 문제이고, 대학부지구입은 전적으로 총독부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일이었다.

초기의 대학운영은 전적으로 미국 선교부와 교회에 의존하여야 했는데, 다행히 존 T. 언더우드와 존 L. 세브란스가 1917년 감리교 해외선교본부에 ‘조선의 기독교교육을 위한 연합이사회’를 조직하여 대대적인 모금운동을 하였고, 대학설립에 참여한 교파들이 안정적인 후원금을 지원해 주었다.¹³⁷⁾ 장로교는 학교설립을 반대한 한국장로교선교회의 입장 때문에 1921년까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지만 대신에 감리교가 큰 도움을 주었다. 초기의 재정 상황을 보면 1915~6년도의 총수입 27,512.30엔 중에 수업료 등 수입은 1,162.32엔이고, 나머지는 선교부출자금 4,349.98엔, 선교사 교원 월급해당액 22,000.00엔으로 되어 있어, 수업료 비율은 총수입금 대비 4.2%에 불과하였다. 다음해인 1916~17년도의 총수입 26,146.85엔 중에 수업료 등 수입은 1,007.70엔이고, 선교부출자금 5,139.14엔, 선교사교원 월급해당액 20,000.00엔으로 되어 있다. 학생수는 1915~16년에 81



그림 11 신축 세브란스병원에서 에비슨이 수술하는 장면(1904년)

명, 1916~7년에 91명, 1918~19년에 94명, 1919~20년에 17명, 1920~21년에 68명, 1921~22년에 118명으로 증가했으나 1919년에는 3.1운동의 영향으로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¹³⁸⁾ 또한 1920~21년도에는 총수입액이 39,748.04엔이며, 선교사출자금이 13,022.04엔, 수업료 등 수입금이 726.00엔, 선교사교원 월급해당액이 26,000.00엔으로 미국선교부의 출자금이 해마다 늘어났고, 선교사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월급 해당액도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¹³⁹⁾

총독부로부터 대학 설립 인가를 받아내어 정규학교로 인정받아야 하는 과제는 교장 에비슨에게 부과된 가장 큰 일이었다. 대학의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대학정관의 작성과 소정의 예치금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사립 연희전문학교 기독교연합재단법인의 기부행위(정관)는 언더우드가 에비슨을 중심으로 구성한 연합위원회에서 심의를 거듭하여 만들었고 언더우드의

사후에 에비슨이 일본인 신자이며 법률가인 와다나베(渡辺暢)의 도움을 받아 최종안을 만들었다. 연합위원회에는 미북장로교, 미남북감리회, 캐나다장로교가 참가하였고, 설립 당시 이사에는 미북장로회에서 4명, 미북감리회에서 4명, 캐나다장로교에서 1명, 윤치호(尹致昊)와 신흥우(申興雨), 그리고 일본인 와다나베와 사카데(坂出鳴海)가 참가하였고, 교장인 에비슨은 당연직 이사로 선임되었다.¹⁴⁰⁾

에비슨은 1916년 12월 1일자로 브라운에게 보낸 편지에서 언더우드의 사후에도 대학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기를 간청하고 있다.

물론 우리는 언더우드의 갑작스런 사망에 큰 타격을 입고 있지만 그것이 대학의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교육위원회(Joint Board of Education)가 어떤 한 사람에게 의지하여 그러한 기관을 계획한 것이 아닐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는 급선무인 대학 설립인가에 필요한 정관에 대하여 이미 초안이 잘 작성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서울의 대학설립을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칭찬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선교사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훌륭하고 실용적인 정관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관 조항을 읽어본 모든 일본인들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곳 여러 개의 선교회들은 우리가 아직 뉴욕 선교본부의 승인도 받지 않은 이 정관의 내용에 기초하여 자기학교의 정관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 작성은 이미 언더우드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당시 고등법원장으로 있던 와다나베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당시 총독부 학무국장인 세키야 데이자부로(関屋貞三郎)의 협력을 받았다. 일본교회의 교인으로 와다나베는 일찍이 메이지학원의 정관 작성에 참가한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정관은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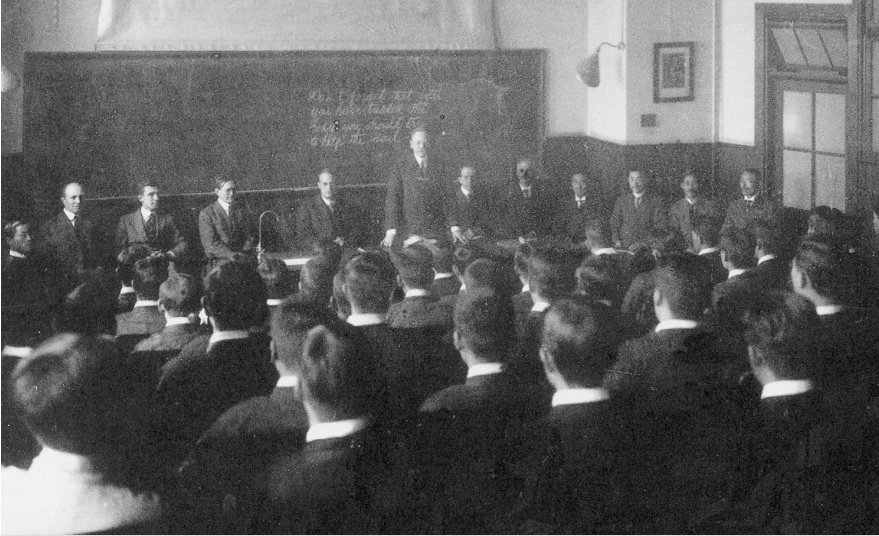


그림 12 에비슨의 채플선교(1917년)

서 설립한 메이지학원의 정관이 바탕이 되었다. 특별히 총독부의 종교교육금지 방침에 따라 기독교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종교교육에 관해서는 일본의 기독교학교인 도시사대학의 하라다(原田助) 총장의 조언과 총독부의 우사미의 협력이 주효했다. 하라다는 신학과를 설치하면 기독교관련 과목을 정규과목에 넣을 수 있고 정규과정 밖에서는 종교교육을 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또한 기독교 신자로서 당시 총독부 내무부장관으로 있던 우사미(宇佐美勝夫)는 종교교육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주었다.¹⁴¹⁾

에비슨은 1917년 3월 6일 감리교 해외선교부 총무인 노스 앞으로 보낸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아담스 선교사에게 보낸 우사미 씨의 편지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담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학교들도 그와 같은 이해를 가지고 새로운 정관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¹⁴²⁾

에비슨은 대학설립 정관을 제출하기 직전인 3월 3일 다카이 교수와 함께 총독부의 우사미를 방문하여, 다른 두 담당관이 동석한 상태에서 우사미에게 정관의 조항에 대하여 일일이 물어 우사미의 대답을 들은 후에 최종안을 확정하였다.¹⁴³⁾ 그리고 에비슨은 이를 후인 3월 5일 오후, 다카이 교수와 함께 경성부윤(京城府尹)인 가나야 미즈루(金谷充)를 방문하여 대학설립 신청서 3부를 제출하였는데,¹⁴⁴⁾ 1부는 경기도장관인 마츠나가 다케요시(松永武吉)에게 전달되었고, 나머지 1부는 총독인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에게 전달되었다.¹⁴⁵⁾

에비슨은 노스에게 확신에 찬 어조로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대학이 새로운 정관 아래서 4월 1일에 새 학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It is expected that all will be perfected so that the College can begin the new school year, April 1st, under the new charter.)라고 하였다.¹⁴⁶⁾ 에비슨은 1917년 3월에 조선은행에 학교자금으로 48,019.83엔을 예치하고 3월 5일 경성부윤에게 대학 설립안을 제출한 후에 4월 7일, 드디어 “사립 연희전문학교”라는 이름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영어 이름은 여전히 “Chosen Christian College”였다. 에비슨의 믿음과 확신대로 언더우드와의 합작인 사립 연희전문학교 기독교연합 재단법인이 탄생한 것이다.

또한 에비슨은 언더우드의 유지인 캠퍼스 조성을 위한 대지구입에 착수하고자 하였다. 언더우드는 친형 존 T. 언더우드의 원조로 자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총독부의 외사국장 고마츠 미도리(小松縁)의 도움을 받아 지금의 신촌캠퍼스 부지를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에비슨은 1916년 12월 1일 브라운에게 보낸 편지에서 대지구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동안 부지구입을 위해 우리와 협력해 주던 고마츠가 사임했고,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사람이 그 자리에 임명되어 부지구입에 관한 협상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희망하는 부지 가운데 왕족의 묘지가 있고 동양척식회사(the Oriental Development Co.)가 그 일대의 땅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일은 고마츠의 도움으로 어려움이 해결되고 구

입을 위한 협상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 년이 지나도록 계속된 협상에 대하여 합동위원회(the Joint Committee)에 보고 되었고 아직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동안 언더우드는 사망하고 고마츠는 직책을 떠나 다른 사람으로 대치되었는데, 이런 변화된 상황을 이용하여 고마츠가 정리해 준 문제가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학의 위치에 대한 오랜 논쟁으로 인하여 부지구입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의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현재 땅을 모두 구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결정이 더 지체된다면 우리는 그 땅을 잃어버릴 것이고 우리는 곤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¹⁴⁷⁾

에비슨은 언더우드의 계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선교본부의 결정이 늦어져서 부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 갔고, 고마츠의 도움으로 다시 구입협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는데 고마츠를 대신하여 새로 중추원 서기관장 대리가 된 아키야마(秋山雅之介)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니 그 전에 선교본부의 구입허가가 나와야 한다고 브라운에게 호소하고 있다. 언더우드는 대학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1908~1909년에 미국에서 5만 2천불을 모금하여 북장로교 선교부에 예치해 두고 있었다. 대학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감리교의 가우처 박사는 서울에 대학을 설립한다는 조건과 함께 감리교 교단에서 15만불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고, 대학 설립 장소가 서울로 발표되자 존 T. 언더우드가 런던발행의 수표로 2천 파운드를 보내왔다. 그 밖의 독지가들로부터도 40만 9천불을 모아졌다. 에비슨은 1917년 9월, 당시 경기도 고양군 연희면의 송림이 울창한 토지 29만 320평을 교지로 매입하였다.¹⁴⁸⁾ 이 땅은 총독부 임업과로 양도된 땅으로 한번 동양척식회사에 넘어갔던 것을 다시 사들인 것이다.¹⁴⁹⁾

연희전문학교의 인가와 발전

에비슨은 세브란스 전문학교의 교장으로서 다양한 대학경영의 경험과 수완을 살려 단기간에 연희전문을 한국 최고의 사립대학으로 발전시켰다. YMCA에서 개교한 대학은 금방 교실이 모자라고 협소하여 새 교사를 지어 이사하여야 했다. 에비슨은 1917년 9월 7일, 브라운에게

“우리는 지금 YMCA의 교실을 빌려서 3학년까지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고, 내년 4월에는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만 교실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새로 구입한 교지에 지을) 건물의 모양과 형태, 규모와 비용, 건축가가 속히 결정되어야 하고, 스티븐스 기금 및 다른 기금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사회(Board)는 합동위원회와 협의를 위하여 저의 도미를 허락해달라고 당신에게 요청하였습니다.”¹⁵⁰⁾

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후 전보로 “허락” 혹은 “불허”의 답을 속히 달라고 부탁하였다. 에비슨은 같은 날 존 T. 언더우드에게도 서신을 보내어 스티븐스 기금을 사용해서 학교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빨리 결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하고 직접 미국을 방문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브라운 총무와 상의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¹⁵¹⁾

에비슨의 편지는 총독부와의 교지구입 협상이 성사된 후에 교사건축의 긴급함을 호소하는 것이었다. 스티븐스 기금이 들어오기 전에 에비슨은 먼저 존 T. 언더우드가 보내준 5천불로 1917년 가을에 목조건물인 치원관(致遠館)을 짓기 시작하여 1918년 봄에 완성하고 YMCA에서 이사하여 새 학기를 맞았다. 그리고 로스앤젤리스에 거주하는 스티븐스(Charles M. Steamson)의 기부금 2만 5천불로 1919년 4월에 석조 3층을 건축하여 스티븐스홀이라 칭하였고, 1920년 9월부터 교실로 사용하였다. 이어서 1922년에는 남학생 기숙사로 연건평 224평의 3층 석조건물이 건립하고, 미남감리교 해외선교부 총무인 핀슨(W.W. Pinson)을 기념하여 핀슨홀



그림 13 최초의 교사 지원관(1918년 준공)

이라고 불렸다. 1924년에는 현재 본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더우드홀이 존 T. 언더우드의 기부금 10만불로 건축되었고, 같은 해 가을, 매사츄세츠의 피츠필드(Pittsfield) 제일감리교회의 헌금으로 아펜젤러홀(Appenzeller Hall)이 건축되었다. 각 건물의 크기는 언더우드홀이 연건평 888평의 5층 석조건물이고, 아펜젤러홀이 석조 3층으로 연건평 518평이다. 또한 1932년 11월 노천극장이 화학교수인 밀러에 의하여 설계, 기공되어 1933년 5월말에 6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준공되었다.¹⁵²⁾ 그는 대학으로 들어오는 길에 백양나무를 심었는데 오늘날 백양로라 부르게 되었다.

연희전문학교 캠퍼스의 마스터 플랜과 건물 설계는 미국인 건축가인 헨리 머피(Henry K. Murphy)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예일대학 건축과를 졸업한 머피는 1908년 존 T. 언더우드의 회사 가까이에서 “머피-다나 건축 사무소”를 개업하였고, 한국과 중국, 일본과 필리핀에서 활동하며 주로 기독교대학의 건축에 관계하였다. 그는 에비슨과 언더우드의 부탁을 받고 연희전문대의 부지활용 계획을 완성하였고 지원관과 초기의 석조건물들을 건축하였다. 또한 1914년부터 1935년까

지 8번이나 중국을 방문하여 칭화대학교(淸華大學校)의 초기건물들을 건축하였는데 장제스(蔣介石)의 부탁을 받아 난징(南京)에 신수도(首都) 건설을 위한 마스터프랜을 완성한 것으로 유명하다.¹⁵³⁾

초기 교직원 상황을 보면, 1915년에 26명(교수8명, 직원18명), 1917년에 28명(교수 10명, 직원 18), 1919년에 28명(교수 12명, 직원 16), 1921년에 36명(교수 12명, 직원 24명), 1923년에 45명(교수 18명, 직원 27명), 1925년에 56명(교수 21명, 직원 35명), 1928년에 40명(교수33명, 직원 7명), 1931년에 47명(교수 40명, 직원 7명), 1934년에 69명(교수 24명, 전임강사 7명, 조교 27명, 직원 11명)으로 해마다 늘어났다.¹⁵⁴⁾ 에비슨이 교장으로 취임한 첫 해인 1917년에는 교직원수가 28명이었는데, 퇴임한 해인 1934년에는 교직원수가 70명으로 2.5배 증가하였고, 학생수는 1917년에 89명에서 1934년에는 353명으로 증가하였다.¹⁵⁵⁾ 1931년 5월 30일자 교수명단을 보면 교수 40명 중에 박사학위 소지자가 11명으로 당시로서는 최고의 학자들을 초빙한 것으로 보인다. 교수들의 국적을 보면 캐나다인 1명, 미국인 8명, 일본인 4명, 한국인 27명으로 일본인의 비율이 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¹⁵⁶⁾ 언더우드는 대학을 시작하기 전부터 최고의 학자를 초빙하여 학생들을 가르치게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에비슨이 그의 뜻을 받들어 유억겸, 백낙준, 이순탁, 이춘호, 백남석, 최현배, 백남운, 이원철, 홍승국, 정인보, 현제명 등 학자들을 교수로 임명하였다. 기독교 교육과 조선어 교육에 중점을 두어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민족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에비슨은 회고록에서 백낙준 박사가 미국장로교의 초청을 받아 1년간 파크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정교수로 일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고 한국동포들을 위한 교육에 전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귀국하였음에도 동료들과 함께 투옥되는 어려움을 당했다고 안타까워하고 있다.¹⁵⁷⁾

특히 3.1운동을 기점으로 무단정치에서 문화정치로 바뀌면서 1922년에 개정된 신교육령에 의하여 성경과목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고 채플과 종교의식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에비슨 교장은 7시부터 9시까지 수업을 하고, 9시부터 9시 45분까지 휴식시간을 가지면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채플에 참

여할 수 있게 하였다.¹⁵⁸⁾ 또한 한국인의 정신적 부활을 위한 국학중시는 한국어와 한국사 과목을 통하여 나타났다. 최현배는 [연희회고기](1960년)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일제탄압 아래서 [조선어] 과목을 차린 것은 연희학원의 한 자랑이다. 이와 동무하여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르친 것 또한 우리의 교육사 내지 사상사에 두드러진 이정표의 하나인 것이다. 당시의 압제정치 아래에서는 버젓하게 [조선역사]로 내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동양사]란 명목 밑에 국사를 가르쳤던 것이다.¹⁵⁹⁾

에비슨은 신교육령이 발표된 후 1924년 4월에 학칙을 개정하여 정원을 문과 200명, 신과 60명, 상과 150명, 수물과 150명을 정원으로 하고, 수업연한을 상과는 3년, 타과는 4년으로 하되 신과는 학생을 선발하지 않았다. 에비슨의 교육방침은 각 학과 학생들로 하여금 한국 민족에게 봉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미 조직된 문과, 상과, 수물과의 기초를 확고히 하려는데 있었다고 한다.¹⁶⁰⁾ 그는 학생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중·고등학교 교사만이 아니라 각 학과의 학문적 성격에 따라 한국의 경제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자 하였다. 문과 졸업생들은 교회사역, 저술가, 신문기자, 변호사 등의 전문직에서 일할 수 있도록, 상과 졸업생들은 한국인의 상업상 신망을 높이고 당시 한국에서 실행되지 못한 각종 사업에 도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교육받았다. 수물과 졸업생도 순수한 과학교사에만 전념하지 않고 제조업과 공업 등의 실용적 과목을 교육받았다.¹⁶¹⁾

에비슨이 연희전문과 세브란스의학전문 양교의 교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선교부에서 양교의 설립이념이 같고 두 기관의 이사들이 서로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발전하기 위하여 통합하는 편이 현명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에비슨은 한국의 대학발전을 위하여 두 학교 및 협성신학교를 통합하여 새로운 종합대학을 설립하자는 미국선교부의 취지에 동감하여 언더우드의 아들과 함께 모금에 착수하였다. 에비슨과 언더우드 아들은 1925년 미국으로 건너가서 1926년

3월까지 150만불을 모금하였다.¹⁶²⁾

이러한 통합운동에 의하여 1933년 10월에 연희전문학교에서는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에 신축부지를 대여할 것을 결정하였고,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역시 그 해에 양교에서 예비순 합동관을 건립할 것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연희와 세브란스의 합동 이야기는 24년 후에 실현되어 연세대학교의 탄생을 보게 되었다.¹⁶³⁾

에비슨의 신앙과 교육관

에비슨의 신앙과 삶의 태도는 가정을 부양하기 위하여 노동자로서 성실하게 산 아버지에게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아버지 시몬은 방직공장에서 일하면서 언제나 진보적 사고를 가지고 노동자 편에서 일하였다. 그는 처음에는 불가지론자였으나 아들과 함께 세례를 받은 후부터는 감리교도답게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하였다. 에비슨은 어린시절부터 아버지를 따라 방직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노동의 신성함을 깨달았고, 청년시절부터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진취적인 모습을 갖추었으며,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여 일하며 공부하고, 주위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 한 단계 한 단계씩 도약하는 삶을 살았다. 특히 방직공장에서 일할 때 학교를 다니지 못한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야학을 개설하여 가르친 경험은 약자에 대한 특별한 감수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었고, 외로운 청년시절에 만난 부인과 함께 다닌 교회에서의 신앙생활과 평신도 사역자로서의 경험은 신앙의 깊이를 더해 주었을 것이다. 에비슨은 토론토 의과대학 재학시절 금주회를 조직하여 학생들의 음주문화를 개선하고 평생을 통하여 금주생활을 실천하였는데 이는 후에 한국교회의 금주금연의 정착에 기여하였다.¹⁶⁴⁾ 또한 에비슨은 토론토대학 YMCA에서의 신앙 활동을 통하여 해외선교와 의료봉사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선교사로 떠난 하디와 게일 등 동료선교사들과의 교제로 조선선교에 대한 꿈을 키웠을 것이다. 세브란스병원과 의학전문학교 그리고 연희전문학교의 설립과 운영에서 보여준 에비슨의 추진력과 지도력은 그의 믿음과 헌신이 얼마나 굳건한 것인가를 알게 해주는 것이었다. 의료선교사와 교육선교사로서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의 교장으로 헌신한 에비슨이 보여준 신앙관과 교육관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에비슨의 헌신과 봉사는 확고한 신앙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는 누구보다도 의료선교사로서 신앙적 열정에 불타는 인물이었다. 그는 의료선교사의 마음가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처음 선교사로 나간 사람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순수하고 소박하게 전파하고자 하는 마음 이외의 다른 의도로 외지에 가는 사람이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선교지에 가보면 설교 이상의 무엇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그들의 현재의 침상에서 구출해 주는 실질적인 도움을 우선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의료선교사들은 그들의 의료봉사를 그 자체로서 그리스도 복음의 일부분인 것으로 믿고 헌신해야 한다.¹⁶⁵⁾

이러한 의료선교에 대한 에비슨의 확실한 입장표명은 당시 선교사들 간에 논란이 되고 있었던 교육과 의료의 선교적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에 썩기를 박았다.¹⁶⁶⁾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의료와 교육은 더 없이 좋은 수단이 되며, 그러한 봉사는 복음을 선교하는 것이 목적이 될 때 정당성이 부여된다는 것이다. 언더우드와 에비슨의 신앙에 기초한 봉사정신은 이후 연희전문학교 및 연세대학교의 역사 속에서 도도히 흐르는 광맥이 되었고 연세의 학문연구와 교육에 끊임없이 에너지와 동기를 부여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으며 연세가 배출한 수많은 선각자들의 신앙과 삶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둘째로 에비슨의 헌신과 성공은 그의 실천적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의 신앙과 삶의 특징은 실천적인 사고와 행동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백낙준(白樂濬)은 클라크의 『에비슨 전기』 서문에서 에비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그는 시종일관한 정력가요 헌신적 정신의 인물이었다. 그의ダイ나믹한 인격과 논리적 발언은 언제든지 청중에게 감명을 주었다. 그의 발언은 대체로 당면문제 의 현실적 해결에 필요한 면을 제공하였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었으나 조직적 행동에는 엄정한 규율의 여행자(勵行者)이었다. 그는 당시 선교사들 사이에 심각하였던 신학논쟁이나 또는 그의 한국인 동료들 사이에 볼 수 있었던 정치, 사회문제의 토론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었기(고전6:12)' 때문이었다.¹⁶⁷⁾

에비슨의 열정과 헌신은 그의 확고한 신앙과 사명감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불필요한 신학논쟁과 정치토론을 피하려고 했고, 언제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 방법을 찾고자 했다. 에비슨은 지도자로서 엄정한 규칙을 실행하는 원칙주의자였고, 선교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현실적인 해결방법을 도출해 내기 위하여 기도하고 고민하는 지도자였던 것이다. 그의 실천적 신앙과 가치관은 연희전문학교의 교육에도 나타난다. 그는 1917년 11월 13일 미국 남장로교 해외선교부총무 체스터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연희전문대학은 3년 혹은 4년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특화된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실천적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 년 안가서 한국과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과제들을 잘 해결해 줄 졸업생들을 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¹⁶⁸⁾

셋째로 에비슨이 이룩한 연희와 세브란스의 발전은 그의 진보적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에 대한 후학들의 평가에서 가장 돋보이는 말은 진보라는 단어이다. 에비슨 교장과 함께 연희전문학교에서 가르치고 통합 연세대학교를 이룩한 백낙준은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연희전문학교는 국내에서 사립학교로는 진보적이며 규모가 크고 또한 국민의 여망을 가지고 출발한 기관이었다. 더욱이 그 교육방침은 설립자 언더우드와 에비슨의 영도하에 근대적 시설과 진보적 사상과 또한 비교적 좋은 대우로 한국인 학자들을 모으고 있었다.¹⁶⁹⁾

이상과 같이 백낙준은 에비슨이 연희전문에서 이룩한 업적에 대하여 '사립', '진보', '근대'라는 단어로 평가하고 있다. 에비슨은 언더우드의 뜻을 따라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사립대학을 만들고자 하였는데, 그에게 사립이란 곧, 기독교 신앙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에비슨에게 별명을 붙인다면 진보라고 해야 할 정도로 곳곳에 진보적인 생각과 삶이 드러나 있다. 그는 1935년 11월 14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송별회에서 답사를 통하여 진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생은 진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상에는 정지상태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진보하지 않으면 퇴보합니다. 우리는 늘 전진하여야 합니다. 이 진보의 요소는 인내와 결단입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진보를 위하여 늘 생각하고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¹⁷⁰⁾

이렇게 진보는 에비슨의 신앙과 사상의 특징이었다고 한다면 그의 삶과 행동의 특징은 근대라는 말로 설명될 수 있다. 에비슨은 세브란스병원과 의학전문학교, 그리고 연희전문학교를 일거에 근대적 조직과 시설을 갖춘 기독교기관으로 발전시켰다. 세브란스병원은 당시 서양병원에 뒤지지 않을 만큼 근대적 병원으로 건축하였고, 의학전문과 연희전문은 건물 등의 시설은 물론 당시 국내외에서 최고의 근대학문을 연구한 학자들을 초빙하여 교수진을 구성하였다. 유억겸, 백낙준, 이순탁, 이춘호, 백남석, 최현배, 백남운, 이원철, 홍승국, 정인보, 현제명 등은 에비슨 교장과 함께 연희전문을 근대학문의 전당으로 만들어준 선각자들이었다. 물론 백낙준의 증언과 같이 당대 최고의 근대 사상가들을 초빙하기 위하여 에비슨은 가장 좋은 대우를 하여야 했고, 대학경영을 위해 미국 선교부들과 교회로부터 지속적인 후원을 받아야 했다.

넷째로 에비슨의 교육선교는 서민적이고 조선적인 교육의 실천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가 백정의 아들인 박서양에게 의학교육을 시켜 최초의 졸업생의 한 사람으로 만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는 가난하고 어려운 조선 청년들을 교육시켜 조선의 미래를 개척하고, 민족 독립을 찾게 하고자 하였다. 그의 한국인에 대한 신뢰와 기대는 한국인과 같은 유색인종의 능력에 대한 그의 편견 없는 이해에 기인하였다. 에비슨은 은퇴 후에 쓴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유색인과 백인이 같은 지능을 가진 것일까? 일반적으로 내가 백인 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유색인의 지능이 백인과 같지 않다고 부인한다. 하지만 모든 종족이 타고난 평균지력은 같다는 것이 내 의견이다. 충분한 기간 동안 공부와 실습을 위한 동등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종족에 상관없이 모든 남자나 여자 모두가 동등하게 성취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그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아시아에서 40년 이상 살면서 상류층부터 가장 낮고 무시되던 농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과 가깝게 접촉했던 나는 답을 얻었다.¹⁷¹⁾

특히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 한국서민에 대한 에비슨의 애정은 그의 교육관에도 나타나고 있다. 에비슨은 1923년 1월 1일, 『동명(東明)』에 기고한 “조선의 교육”이라는 글에서 자신의 교육관을 피력하였다. 그는 조선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 세계의 새로운 조류인 민본정치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로 교육의 보급을 위해서는 어려운 한문사용을 강요하지 말고 쉬운 언문(한글)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둘째로 소학교(초등학교)를 도처에 증설하여 모든 적령 아동들이 공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셋째로 일반 민중들이 정당하고 고상한 지조와 세계이상을 품게 할 수 있는 문학을 보급하여 지·덕·체 삼면을 고르게 발달시켜야 한다. 특히 종교는 심령을 함양시키는 것이다. 넷째로 교육은 문학과 정치만이 아니라 농업과 상업, 공업 등의 방면에 고르게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에비슨의 교육관은 당연히 연희전문을 통하여 실현되었는데 연희전문은 교육적 특징은 조선말과 조선 글, 조선 역사, 조선 문학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총독부의 규제로 인하여 조선어를 비교과 과정으로 편성하여 가르쳐야했지만 최현배, 정인보 등을 조선어 교육의 선구자로 키웠다.¹⁷²⁾ 에비슨의 후임이 된 원한경 교장도 한국인 교수들이 조선말로 조선인 학생들에게 현대교육을 시키는 것을 지상목표로 삼았고, 만주사변이 이후에는 조선학의 대가인 유억겸 부교장을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였다.¹⁷³⁾ 이렇게 연세대학교의 한글사랑은 에비슨의 서민에 대한 특별한 사랑과 한국인의 능력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에비슨은 교육선교사로서 확고한 신앙적 정체성에 바탕을 두고 대학을 경영하고, 민족교육을 실천한 탁월한 지도자였다고 할 수 있다. 일제의 식민지 통치시대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선청년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에비슨의 신앙과 인격, 그리고 그의 열정과 지도력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연희전문을 당대 최고의 대학으로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백낙준은 에비슨에 대하여 이렇게 회고한다.

그는 노련하고 강직하며, 또한 이해가 깊은 노신사였다. 그는 또한 전형적인 영국인이었다. 나는 그 때에 그의 모든 발언과 훈사와 교섭에 참여하였다. 그의 가사건의 핵심을 포착하고, 위협에 불복하고 결의에 용감하였다는 것은 학교 행정의 초년병인 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¹⁷⁴⁾

한국대학교육의 산증인이며 대학행정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백낙준이 1927년부터 7년 동안 함께 일한 에비슨 교장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숨기지 않았다. 특히 원칙을 중시하고, 신념을 굽히지 않는 에비슨의 지도력이 연희전문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한다.

에비슨은 교수들의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여 연희전문학교는 어느 학교보다도 자유로운 분위기였지만, 학생들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1920년 5월 30일, 학생회가 교과목의 개정, 교수 증원, 기숙사 확장 등을 주장하며 동맹휴업에 들어갔으나 학생들을 설득하여 이해를 구하였고, 1923년 5월에 일어난 상과학생들의 모 선생의 배척운동과 1926년 10월 문과 2학년 학생들의 교수들에 대한 문제 제기 등에 대하여 에비슨 교장은 교권수호를 위하여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1929년 상과 학생들이 사회주의 노선의 이순탁 교수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동맹휴학을 일으켰을 때는 학생 100여명을 자퇴형식으로 내보내면서까지 교권을 지키고자 했다.¹⁷⁵⁾ 에비슨의 강직함은 조선인들에 대한 신뢰와 믿음에도 나타났다. 연전의 모든 학과의 과장을 조선인 교수로 보하여 대학의 운영을 조선인 교수들에게 맡기고자 한 에비슨의 방침은 조선에 대

한 사랑과 조선인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실현될 수 없는 것이었다. 세브란스의 학전문학교를 은퇴할 때, 많은 선교사들의 반대를 일축하고, 오궁선(吳兢善) 교수에게 교장직을 물려준 것은 에비슨의 조선인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반영한 것이었다.

에비슨과 연세학풍

에비슨은 연희전문학교의 교육과 학문의 기초를 세웠고, 오늘 날에 이어지는 연세학풍의 형성에 초석을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연희전문학교의 설립과 더불어 에비슨 교장이 정착시키고자 한 연세교육의 특징은 “동서고근(東西古近)의 화충(和衷)(동서양과 전통-근현대의 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동서는 동양의 학문과 서양기독교의 정신문화를 말하고, 고근은 옛부터 내려온 전통과 현대의 첨단과학을 말하는 것이다. 이 둘의 화충이 에비슨의 연희전문학교의 공동체가 추구한 교육의 목표이다. 이 둘의 화충적 소통을 통하여 조화롭고 건전한 학문과 인격을 추구하고, 이를 통하여 민족의 부흥과 해방을 기대하며 이상과 현실을 조화할 줄 아는 섬기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연희전문학교의 일관된 교육목표이다. 또한 이러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희전문학교의 설립 주체인 기독교의 정신과 가치를 가르치고 배우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 그러나 동서고근의 화충에 있어서 핵심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서양문명의 도입에서, 기반이 되는 기독교정신을 교육과정에 넣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일반대학에서의 기독교 교육은 총독부에 의하여 근본적으로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언더우드와 에비슨은 학생을 뽑지 않는 신학과를 설치하여 기독교 과목을 교수하였고, 정규수업 시간 외에 자율학습의 형식으로 채플을 실시하였다. 다행히 3.1운동 후에 소위, “문화정치”의 흐름 속에서 1920년 3월, 사립학교 규정이 개정되어 대학에 자율성이 대폭 강화되었다. 새 규정으로 인하여 교과목의 제한과 교원의 자격이 완화되고 종교의식과 성서의 교육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연희전문학교는 기독교 교육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¹⁷⁶⁾ 특히 에비슨은 근대적 교육을 통하여 기독교 정신과 민족정신의 조화를 추구하였고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도입하고 학생들을 훈련시켜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양육하고자 하였다. 에비슨이 추구한 동서고근의 화충을 목표로 한 연희전문의 교육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4 한국을 떠나는 에비슨부부와 환송하는 학생과 교직원(1935년)

첫째로, 연세교육은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두고 민족을 섬기는 미래적 지도자를 양육하는 것이다.

에비슨 동상(1966년 5월 14일)의 명문(銘文)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올리버 알 에비슨 박사는 세브란스 연합의학 전문학교와 부속병원의 설립자요, 연희전문학교 제2대 교장이며, 한국 근대사의 증인이요, 이 겨레의 의인이요, 하나님의 종이시다. 박사 서른세 살 때에, 선교사로 1893년 이 땅에 와서 몸 바쳐 일하다가, 1935년 미국으로 은퇴할 때까지 마흔 뚝을 넘기면서, 앞서 보고 전진하며, 인화와 믿음으로 살고, 우리 겨레를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기셨다.”¹⁷⁷⁾

에비슨은 한국 근대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겨레를 섬겨준 은인이며, 학생들을 가르쳐 겨레를 섬기는 지도자로 기르고자 하였다. 물론 그가 그러한 원대한 꿈과

목표를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써 부른 받은 사명을 다하였기 때문이다.

에비슨과 동역하며 그의 신앙과 삶을 가장 많이 접한 백낙준도 “에비슨은 한민족 근대사의 증인이십니다. 이 겨레의 친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使者)였습시다”라고 평가하였다.¹⁷⁸⁾ 에비슨은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의 혼란 속에서 한국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한국인들에게 의료와 교육을 위하여 일관되게 봉사한 진정한 친구였다. 그가 정초(定礎)하고 이끈 연희전문학교의 교육과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근대사를 개막시키는 역사적 사명을 다하는 것이고, 그것은 한국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위한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에비슨의 교육의 지향점은 편협한 민족 이기주의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 바탕을 둔 미래를 예비하고 심기는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연세교육은 동서의 학문과 사람이 조화하고 협동하는 정신을 양육하는 것이다.

에비슨과 오래 동안 함께 일한 동료이며 역사가인 클라크는 “에비슨 박사는 그 현명하고 원시(遠視)적인 행정정책, 즉 학교행정을 한인 동료들에게 점진적으로 이양할 것과 변함없는 기독교 이상교육 집착(執着)방침은 필경 두 전문학교가 현재의 연세대학교로 병합되고 그의 열망도 성취되었던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¹⁷⁹⁾ 에비슨의 미래지향적인 시야는 한국인 동료들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것과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와 연희전문학교를 하나로 통합하여 다가올 민족독립과 문명의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는 학교의 운영을 미국 선교회의 기부금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던 시절에 이미 한국인 교수들에게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는 일찍부터 한국인 교수들에게 대학운영의 책임을 분담하여 행정경험을 갖게 하고자 함이었다. 그는 언제나 미래를 바라보는 지혜를 가졌고, 기독교적 가치관의 핵심인 희생과 사랑이 실천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먼 후일에 결국 두 학교의 합동을 통하여 연세대학교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클라크는 에비슨을 “연합사업의 추진과, 재능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협동, 조화시키는 천재적 재능을 가진 인물”이라고 평가하였다.¹⁸⁰⁾ 에비슨이 루이스 H. 세브란스에게 많은 기부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교과에서 온 모든 의료선



그림 15 에비슨이 서명한 백두현의 졸업증서(1922년)

교사들의 협력하여 병원과 의학교를 만들겠다는 큰 포부를 밝혔기 때문이다. 그는 새 병원을 짓자마자 여러 교과의 선교사들을 설득하고, 적절한 역할을 주어 세브란스연합의학교로 개명하였다. 또한 언더우드가 평양선교사들의 반대로 인하여 대학설립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에비슨은 여러 번 평양을 방문하여 마뻬트를 설득하였고, 안식년으로 미국에 갔을 때는 브라운 총무를 만나는 등 연합대학을 세우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는 연희전문학교의 교장으로 적극적으로 한국인 교수들을 영입하였고 가능한 한 각과의 책임자로 한국인 교수들을 보하고자 하였으며, 정인

보 교수와 같은 비기독교인 학자와 이순탁 교수와 같은 사회주의계열의 학자도 초청하여 최고의 학문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하였다. 그는 특히 동양학과 한글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연희전문학교를 처음부터 국학연구의 중심지로 만들 수 있었다.

셋째로, 연세교육은 학문과 실무를 겸비한 진보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에비슨은 평양 선교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생 모집부터 매우 진보적인 정책을 도입하여 적당한 수의 비기독교인 학생들도 받아들여 기독교인 교수들과 학생들의 신앙적 감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¹⁸¹⁾ 또한 그는 연희전문학교를 통하여 학생들이 특화된 기술교육을 받고, 실천적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정하였다. 그는 1928년부터 각 과의 교수를 증가시켜, 학생들로 하여금 고등학교 교사가 되는 것만 아니라 각 전공의 성격에 따라 졸업생들이 한국인의 경제력을 발전시킬 수 실제적이고 전문적인 직업을 갖게 하고자 노력하였

다.¹⁸²⁾ 이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하는 실무형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일이었다. 이것은 후에 백낙준 박사의 “온고지신과 실사구시”라는 교육목표로 이어지며 연세학풍의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연희전문학교상황보고서』는 연희전문학교의 교육방침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본교는 기독교주의 하(下)에 동서(東西) 고근(古近) 사상의 화충(和衷)으로 문학, 신학, 상업학, 수학, 물리학 및 화학에 관한 전문교육을 시(施)하여 종교적 정신의 발양(發揚)으로써 인격의 도야(陶冶)를 기(期)하며 인격의 도야로부터 독실(篤實)한 학구적 성취를 도(圖)하되 학문의 정통(精通)에 반(伴)하여 실용(實用)의 능력을 병비(并備)한 인재의 배출(輩出)으로써 교육방침을 삼음.¹⁸³⁾

또한 『연세대학교 백년사』는 상기의 교육목적은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다.

본교의 내면적인 교육방침은 기독교주의 아래 동서고금 사상의 절충, 즉 본교 창립정신에 입각한 신과의 설치를 비롯하여 선진국가의 정신과학수입, 상업 진흥을 위한 선도자 양성, 자연과학 이론의 실생활에서의 적용, 농업에 대한 실용지식의 함양 등을 목표로 문학, 신학, 농학, 상업학, 수학 및 물리학, 응용화학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종교적 정신의 함양으로 인격의 도야를 기하여 독실한 학구적 성취를 기도하되 학문의 정통에 의한 실용의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지도자를 배출하는 데 두고 있었다.¹⁸⁴⁾

연희전문학교 교육의 목표는 기독교주의에 입각한 동서고금의 사상을 화합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선진국가의 학문을 받아들여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신앙훈련과 학구적 성취를 통한 인격의 성숙과 실용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여 민족을 이끌어 가게 하는 것이었다. 특히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헌신과 봉사의 이타적 사랑을 기반으로 동양의 인문학과 서양과학을 조화시키는 교육과 학문연구

는 미래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진보적인 사고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연세교육이 일찍부터 과학과 기술을 중시하고 상업학을 가르친 것은 동서의 화층과 더불어 새 시대의 문명을 열기 위한 고근의 화층을 추구하였기 때문이다. 에비슨의 신앙과 교육, 교무와 행정에서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은 진보적 사고이다. 끝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전진하고자 하는 그의 삶의 태도는 후학들의 삶 속에 이어지고, 연세학풍의 성격을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1860. 6. 30. 영국 요크셔주 웨스트 라이딩의 재거 그리인에서 시몬 에비슨과 엘리자베스 사이에 5남매 중 차남으로 태어남.
- 1866. 3. 12. 캐나다 온타리오의 웨스턴에 정착
- 1877 퍼드의 사범학교 졸업
- 1879 오타와의 고등사범학교 졸업
- 1884. 6월 온타리오 약학교 졸업
- 1885. 7. 28. 제니 반스와 결혼
- 1887. 6월 토론토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1887. 7. 6. 토론토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임명됨(~93까지약리학, 치료학 강의)
- 1887~1893 토론토에서 개업
- 1892. 9월 언더우드 초청
- 1893. 2. 6. 미 북장로회 해외선교부로부터 의료선교사로 임명 받음
- 1893. 7. 16. 부산 도착
- 1893. 7. 23. 4남 Douglas Bray 출생
- 1893. 8월 서울 도착
- 1893. 10월 고종의 시의로 임명받음
- 1893. 11. 1. 제중원 근무 시작
- 1894. 9. 26. 제중원이 미 북장로회로 이관됨
- 1895. 10월 제중원에서 의학교육 실시
 그레이 해부학 번역 시작(1899. 3월 번역 완료되었으나 분실됨)
- 1900. 4. 30 뉴욕 에큐메니칼선교대회(Ecumenical Missionary Conference) 참석,
 'Comity in Medical Missions' 발표
- 1902. 11. 27. 세브란스 씨 기념병원 정초식
- 1904. 9월 김필순이 그레이의 해부학 번역 완료
- 1904. 9. 23. 세브란스병원 봉헌식
- 1906. 4. 28 대한제국으로부터 훈4등 태극훈장을 받음
- 1906. 9월 세브란스병원 간호부 양성소 개교
- 1907. 9. 2. 세브란스 씨 내한(주치의 러들러 대동)
- 1908년 교과서 「무씨 산과학」 출판

- 1910.12. 6. 세브란스병원 부속 남대문교회 봉헌식
- 1913. 6. 13. 교명을 세브란스연합의학교로 개칭
- 1916.10.12. 조선기독교대학(Chosen Christian College) 교장 취임
- 1917. 4. 7. 조선총독부로부터 사립 연희전문학교 인가 받음
- 1928. 3. 20. 에비슨 동상 건립
- 1934. 2. 16.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교장 사임. 명예교장/병원장으로 추대됨
오금선을 후임교장으로 추대
- 1935. 7. 28. 금혼식 거행(황해도 솔내 해수욕장)
- 1935.12. 6. 서울을 떠남(12.18 밴쿠버 도착)
- 1936. 9. 15. 부인 제인 별세
- 1937년 토론토대학교에서 졸업 50주년 기념으로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받음(LL. D.)
- 1943. 6월 포프와 재혼
- 1952. 3. 1.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공로훈장을 받음
- 1956. 8.28. 미국 플로리다 세인트 피터스버그에서 별세(96세). 부인 제니가 묻혀있는 캐나다 스미스 폴스 힐크레스트 묘지에 안장됨
- 1958. 6월 포프 별세
- 1961. 8. 15.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문화훈장을 받음

연세의 개척자들과
연세학풍

Ⅲ

현대의학의 개척자 오공선

한인철_연세대 교수(조직신학)



이 글은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2대 교장인 해관 오금선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는 연세의 학풍을 검토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오금선은 그 한 사람에게서 다양한 연세의 학풍을 읽어낼 수 있을 만큼 풍부한 삶을 살았지만, 그에 관한 자료나 연구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이 그의 삶 속에서 연세학풍의 흔적을 읽어내려는 데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자료로도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주 자료로 사용된 해관 오금선선생 기념사업회가 펴낸 『해관 오금선』은 오금선에 관한 연구자료만이 아니라, 그에 관한 다양한 지인들의 생생한 증언들을 담고 있다.

이 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먼저 오금선의 생애를 간단히 살펴보고, 둘째로, 오금선의 학풍을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하고, 셋째로, 오금선의 친일문제를 검토하고, 끝으로 그의 학풍과 기독교와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오궁선의 생애

오궁선은 1878년 10월 4일, 충청남도 공주군 사곡면 운암리에서 부친 오인묵 공과 모친 한산 이씨 사이에서 1남 3녀 중 맏아들로 태어났으며, 호는 해관, 자는 중극이다. 그는 특히 위로 10남매를 잃은 후 얻은 맏아들이라, 그가 태어난 사곡면 일대에 화젯거리였으며, 부모들의 기쁨과 기대가 매우 컸다고 한다.

오궁선은 출생 후 17세까지는 고향에서 한문을 수학하며, 과거 장원급제의 꿈을 키워왔다. 7세부터는 부친에게서 기본 한문을 배웠고, 이어 이당진 서당에 들어가 사서를 수학하였다. 14세에 때 이른 결혼을 한 이후에는 과거에 급제할 뜻을 갖고, 17세까지 한학 수학에 열중하였다. 그러나 당시 과거시험이 폐지되자, 그는 18세에 상경하여 그의 스승 이후(전 승지)의 추천으로 내부의 주사로 등용되어 관직을 맡게 된다.

오궁선은 일정 기간 내부 주사로 관직에 나섰다가, 1896년경 신학문을 배우기 위해 배재학당에 들어간다. 배재학당 재학시절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경험은 신학문의 수학 자체보다는 서재필이라는 독립운동가를 만난 것이었다. 오궁선은 배재학당에서 서재필을 만난 인연으로 ‘협성회’라는 학생자치회에 들어가게 되고, 배재학당 대표로 독립협회 간사를 역임하게 되며, 나중에는 독립협회의 부활과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는 만국공동회에 참여하게 되어, 결국은 그에 대한 체포령이 떨어지게 된다. 이에 오궁선은 서대문 부근에 있는 침례교 선교사 스테드만(Steadman) 목사 집에 피신하여 화를 면하게 된다.



그림 16 오궁선(1878~1963)

오공선은 이후 만 22세에서 23세까지 선교사 스테드만을 따라 공주, 논산, 군산 등으로 피신하여, 선교사들의 한글 개인교사를 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그 후 군산에서 한글을 가르쳤던 미국 남장로교 소속 의료선교사 알렉산더의 권유로 미국 유학준비를 하게 되어, 유학에로의 새로운 길에 접어들게 된다.

이후 만 24세에서 29세까지 오공선은 미국에서 고학을 하며 의학을 전공, 의료 선교사로서의 길을 준비한다. 오공선은 처음 알렉산더의 권유로 알렉산더 고향 근처에 있는 캔터키주 덴빌에 있는 센추럴대학에 입학하여 물리학과 화학을 전공한다. 그가 이 전공을 선택한 것은 후에 의학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였다. 그는 센추럴대학에서 2년 과정을 수료하고, 같은 주에 있는 루이빌의 과대학으로 편입하게 된다. 그리고 3년 후 이 대학을 졸업하여 의사가 되면서, 이와 함께 의학박사학위를 받게 된다. 이 해가 1907년인데, 한국인으로 의학박사학위를 받은 것은 서재필 이후 두 번째이다. 그러나 서재필이 미국 국적으로 학위를 받은 것을 감안하면, 순수 한국인으로서 오공선이 첫 번째 의학박사인 셈이다. 오공선은 루이빌대학을 졸업하고 그 곳 시립병원에서 6개월 인턴을 마친 후, 6년 만에 귀국하게 된다.

미국에서 의학공부를 마친 오공선은 미국 남장로회 선교부가 한국에 파견하는 의료선교사로 위촉되어, 30세에서 34세까지 5년간 군산, 광주, 목포 등지를 순회하며, 병원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귀국 직후에는 순종의 권유로 황실 전의로 입궁



그림 17 해관의 미국 유학시절(맨앞줄 오른쪽 첫 번째)

할 것을 요청받기도 하고, 이등방문으로부터 지금의 서울의대부속병원에 해당하는 대한의원에 근무할 것을 요청받기도 했으나, 자신은 의료선교사로 군산야소교병원에서 의료선교사로 일하도록 약속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모두 거절하고, 군산야소교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하게 된다. 이 기간 중 그는 자신의 미국 유학을 주선해준 알렉산더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그의 한국 이름을 따서 1908년에 안락학교를 세워 소학교 교육에도 힘썼고, 이듬해 1909년에는 다시 중학교 과정의 영명학교를 세워 교장으로서 청소년교육에도 힘쓰게 된다. 그리고 이 때 부친을 설득 기독교로 개종하게 하고, 집의 전답을 팔아 구암리장로교회를 세우기도 한다. 이어 그는 1910년 미국 남장로교 선교본부의 요청으로 광주야소교병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광주에 간 그는 병원장으로서 병원을 돌보는 일 이외에도, 애양원에서 나환자들을 돌보는 일과, 인근 수피아여학교에서 물리 화학 등을 가르치는 일에도 참여한다.

그 후 1911년에는 다시 목포야소교병원에 병원장으로 취임하여 자리를 옮기게 된다. 여기에서도 그는 정명학교 교장에 취임하여 교육사업에도 참여하게 된다. 그 후 1912년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는 그를 다시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이하 “세브란스의전”)로 파견하게 되어, 귀국 5년 만에 세브란스의전으로 옮기게 된다.

세브란스의전에 파견된 오공선은 그 후, 만 35세에서 53세까지 18년간 세브란스의전의 교수로서 의학교육에 전념하게 된다. 이 기간 중 그는 실로 많은 일을 하게 된다. 경성제대와 빈 대학에서 피부비뇨기과학을 연구하여 한국에 토착화시키는 한편, 학감과 부교장 그리고 교장을 역임하며 학사행정에도 참여하고, 보육원과 양노원을 설립, 사회사업에도 착수한다.

오공선에게는 ‘최초’라는 타이틀이 누구보다 많다. 한국인 국적을 가진 최초의 의학박사, 한국인 최초의 미국 의료선교사, 한국인 최초의 세브란스의전 학감, 부교장, 한국인 의사 최초의 유럽 여행과 피부과학 연구, 한국인 최초의 고아원과 양로원 설립.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획기적인 ‘최초’의 사건이 되었던 것은 외국 재단에 의해 운영되고 외국인 교수들로 이루어졌던 세브란스의전에서 초대 교장이던 예비슨에 이어 1934년 4월 제2대 교장에 취임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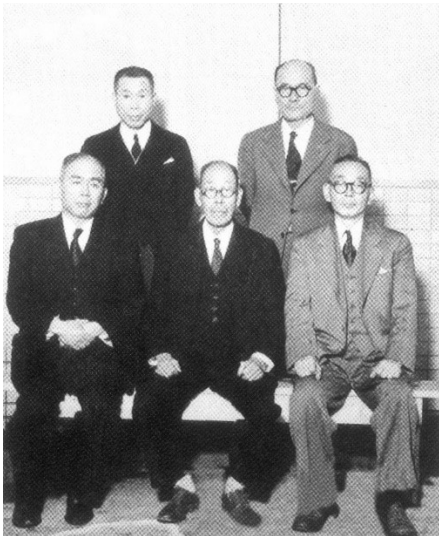


그림 18 역대학장(앞 왼쪽 이영선 오공선 최동
뒤 왼쪽 김명선 이용설)

1934년부터 1942년 65세로 정년퇴임하기까지 교장으로서 오공선의 삶은 ‘의학교육사업에 있어서 황금의 결실을 맺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가 교장으로서 한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크게 평가되는 것 중 하나는 세브란스의전 출신의 의사면허를 국내에서만 아니라, 일본 전역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세브란스의전을 문부성 지정 학교로 만드는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브란스의전 출신들이 내무성 발행 의사면허를 받게 만드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었다. 이로써 세브란스의전 출신 의사들은 국내와 일본 어디에서나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¹⁸⁵⁾

이와 함께 오공선이 했던 또 다른 큰 공적 가운데 하나는 세브란스의전 각과 주임교수들을 한국인 교수로 거의 대체한 것이었다. 1940년 초 세브란스의전 교수 진용을 보면, 미국 등 외국인 교수는 2개 임상과 주임교수만을 맡고, 기초, 임상 거의 전 과목의 주임교수들은 한국교수들이 맡게 되고, 그가 교장 취임 시 11명이던 일본인 강사진도 4명으로 줄게 된다. 이로 인해 1940년 11월 19일 일제가 한국 거주 미국인들에 대해 추방령을 내렸을 때에도, 세브란스의전은 거의 교수진의 공백 없이 교육을 이어갈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한국의학의 토착화를 촉진시키

는 계기가 된다.

오공선은 만 65세가 되던 1942년 세브란스의전을 은퇴하고, 86세까지 21년간 안양기독보육원 원장으로서 직접 운영하면서, 고아양육사업에만 전념하게 된다. 그의 65세 은퇴는 오늘날에는 매우 당연한 것이지만, 당시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우선 당시에는 교수 정년제도가 없었다. 그래서 세브란스의전 초대 교장에 예비는 74세에 퇴임했고, 오공선이 퇴임하던 해에 연희전문 교장으로 취임한 윤치호는 오공선보다 13세 많은 78세였다. 더욱이 오공선은 당시 세브란스의전 교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었고, 또 아직 일제 강점 하에 있던 상황에서 그가 해야 할 일도 많았다. 그러나 그는 후진 양성을 명분으로 정년제를 만들고, 당시 부속병원장으로 있던 이영준에게 교장직을 물려주게 된다. 이 때에도 그는 선임교수들을 제치고, 그리고 총독부에서 일본인 교장을 앉히려는 압력을 물리치고, 이영준을 교장으로 선임한다. 이것은 마치 선임교장 예비군이 많은 반대를 물리치고 오공선을 선임한 것과 같은 용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영준은 교장이 된 후, 연희전문을 비롯한 보성전문 등 다른 사학들은 학교 명칭도 바꾸고, 학교 자체를 실업학교로 격하시키고, 교장자리까지 일본인들에게 넘겨주기도 했지만, 세브란스의전은 교명만 '아사히의전'으로 바꾸었을 뿐,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하는 능력을 발휘한다. 그리고 오공선은 명예교장직과 재단이사직을 갖고 세브란스의전을 수호하는 방탄역을 맡게 된다. 당시 연희전문학교는 총독부에 접수되고, 일본인 교장이 들어서면서 대다수 교수가 교직에서 밀려났지만, 세브란스의전의 경우, 명칭은 아사히의전으로 바뀌기는 했어도 교장은 여전히 한국인이 맡고, 일본인 교수 몇 명 받은 것 외에 거의 대부분의 한국인 교수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공선이 뒤에서 버티고 있었던 덕분이었다.

세브란스의전을 은퇴한 오공선은 곧바로 안양기독보육원 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그는 우선 8만 평이던 보육원 땅을 7만여 평을 더 구입하여 15만 평이나 되는 큰 대지를 마련하고, 100여 명의 고아들을 위한 삶의 터전으로 일군다. 당시 그는 이 거대한 땅의 보육원을 운영하는 모든 경비를 자신의 사재로 충당했다고 한



그림 19 해부학실습지도(오공선, 뒷줄 오른쪽 첫 번째)

다. 다행히 1945년 8.15 해방 이후에는 서울특별시장의 후생시설 대행기관으로 공인받게 되고, 1949년 2월에는 미국에 본부를 둔 기독교아동복지회에 가입하여 원조를 받게 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도 원사 3동을 기증받는 한편, 1949년 9월 28일부터는 새로 제정한 교육령에 의거, 학령 아동들을 안양읍내 공립국민학교에 취학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1950년 6.25 동란으로 보육원은 폐허가 되고, 1.4 후퇴 후에는 거제도 근처 가덕도에 피난살이를 하다, 1952년 9월 다시 돌아오게 된다. 1963년 5월 오공선의 서거 이후에는 차남 진영이 맡아 운영하게 된다.

오공선은 은퇴 후 보육원장을 역임하는 동안, 정치계로부터 여러 차례 정치 참여를 권유받게 된다. 그러나 그는 보육원 일에만 전념하면서, 정치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해방 후 미군정이 들어섰을 때에는 군정청의 요직을 권유받았으나 거절했고, 배재학당 2년 선배로 학당 시절부터 교제가 있던 이승만 초대 대통령으로부터는 사회부장관직을 권유받았으나, 이 또한 거절하면서 자신을 도와주려면 보육원 사업을 도와달라고 요청한다. 단 하나 그가 관직을 받은 것이 있다면, 부산 피난 시절 이승만 대통령이 구황실재산관리총국의 책임을 맡아달라고 권유한 것을 차마 사양할 수 없어 받은 것이 하나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황실재산관리 문제와 관련하여 오공선의 건의를 대통령이 거절하자 곧 사임하고 만다.

오금선은 1963년 5월 18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대조동 둘째 아들 집에서 8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임종 직전 병환이 위독하여 자손들이 입원 치료를 권했으나 거절했고, 자손들이 처방해 준 약까지 거절하고는,¹⁸⁶⁾ 아무 유언도 남기지 않은 채, 아주 조용히 미련 없이 웃는 얼굴로 생애를 마쳤다.¹⁸⁷⁾

오공선을 통해 본 연세의 학풍

지금까지 간략히 오공선의 생애를 살펴보았다. 만약 오공선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난 연세의 학풍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물론 학풍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면에서, 이제 언급하는 학풍이 오공선에게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오공선에게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아주 두드러진 학풍이 돋보이고 있고, 그것은 연세대학교 안에서 오늘날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 영향에 대한 문제를 생략하기로 한다.

소명으로서의 학문

첫째로, 오공선은 의학이라는 학문을 재물을 얻는 도구로 생각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부름(calling, 召命)을 받은 것으로 이해했다고 하는 것이다. 오공선은 자신의 안방에 “돈을 사랑함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한 디모데전서 6장 10 절의 말씀을 친필로 써놓고, 그 옆에 조선은행권 지폐 한 장을 붙여놓았다고 한다.¹⁸⁸⁾ 이것은 오공선 자신이 절대 돈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식과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의 교육철학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했다.



그림 20 제2대 교장 오공선

오공선은 교장직을 물러나기 1년 전인 1941년 3월, 『동광』지에 세브란스의전 졸업생 및 재학생들을 향해 ‘돈 버는 의사보다 병 고치는 의사가 되라’는 글을 남긴 적이 있다. 이 글은 비단 의학을 공부한 의사에게만 해당하는 교육철학이 아니

라, 학문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교육의 근본철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공선은 우선 돈 버는 의사가 되지 말 것을 당부한다:

세상에서는 흔히들 의사는 돈을 많이 번다고 합니다. 사실 조선만 하더라도 의사가 무척 모자라니까, 이 방면의 사람들이 비교적 생활의 안정을 얻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또는 의사가 된 사람으로서, 그 제 1의 목적을 다만 돈을 버는 데 둔다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문을 나서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돈 버는 의사가 되지 말고, 병 고치는 의사가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의술은 인술’이라고 일러 왔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의사란 그 의무와 직책이 얼마나 중차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돈을 모으려면 차라리 다른 장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금광관으로 가라고 하고 싶습니다.¹⁸⁹⁾

오공선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세브란스의전을 졸업하고 곧바로 개업을 하려는 졸업생들을 특별히 경계했다:

‘돈 벌 생각은 먹지 말아라!’ 이것이 우선 그네들에게 하고 싶은 첫 부탁입니다. 다음은 학교를 나가서 곧 개업할 생각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졸업장만 손에 들게 되면 자기는 벌써 당당한 의사가 된 줄로 자임하고 자산이나 있으면 곧 개업하려고 하는 폐단이 있는데, 이것은 신중히 생각하고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학교에서 공부한 것만을 가지고 귀중한 생명을 다루겠다고 생각하고 나서는 것부터가 잘못입니다. 학교에서의 공부란, 더구나 의학교에서의 공부란 다만 장래 할 직책에의 지침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만을 가지고 개업의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모로 생각하든지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학교를 나가서 적어도 2년이나 3년 동안은 큰 병원이나 고명한 선배 밑에서 실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론에서보다 실제에 있어서 의사는 배

전의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2년이나 3년의 실습하는 동안을 아무쪼록 얻으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밟지 않고 명예욕 또는 재물욕에 불타서 학교를 나가자마자 곧 개업을 한다면, 그는 열이면 열 개거(皆擧)가 실패하고야 말 것입니다.¹⁹⁰⁾

그리고 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에서만 머뭇거리지 말고 시골로 들어가라고 주문한다:

끝으로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것은 ‘도시 중심으로 모이지 말고 지방으로 시골로 가라!’는 것입니다.... 의학을 모르고 또는 병원을 구경도 못하고 사는 그들에게 비록 경제적인 곤란은 얼마간 있다 하더라도 친절하게 약 한 봉, 주사 한 대를 주는 것이 얼마나 떳떳하고 기꺼운 봉사이겠습니까? 이제 교문을 나서서 의사로서 일생을 바치려는 사람으로서는 응당 이같은 문화적 양심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¹⁹¹⁾

오공선은 이러한 교육철학을 제자들에게만 강조하거나 주문했던 것은 아니다. 오공선은 임종 무렵 슬하에 5남매를 두고, 그 아래로 40여 명의 자녀손이 있었는데, 그 중 15명이 의사였다. 거기에 세 누이동생의 자손 중에서 나온 의사 13명을 합하면, 오공선 가문 4대에 걸쳐 총 28명의 의사들이 배출되었다. 오공선은 그 자신 당대의 명의를지만, 치부를 위해 개업을 한 적이 없다. 그는 자신의 자손들과 제자들에게도 그가 살아온 대로 그대로 가르쳤다. 한 번은 세브란스의전 교수로 있던 큰 아들 한영이 “시국도 어지럽고 집안 살림살이도 도을 껴해서 개업할 의사를 비치자,”¹⁹²⁾ 오공선은 “서양사람들은 남의 나라에 와서 청년교육을 위해 일생을 바치는데, 항차 우리나라 청년교육을 외면하고 돈을 벌기 위해 개업을 하겠다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라고 크게 책망했”다고 한다.¹⁹³⁾ 국립마산결핵병원장을 역임한 그의 장손 증근은 할아버지의 교훈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

할아버지 대부터 제 아들 대까지 4대 의사집이라고 하여 가끔 마스크에 소개됩니다마는, 끼니를 굶지 않으면 됐지 의사가 금욕을 바라면 이미 의사가 아니라는 할아버지의 가르치심에 따라, 이 나이까지 그 분 뜻대로 개업하지 않고 있습니다.¹⁹⁴⁾

사회적 약자를 돌봄

둘째로, 오공선은 평생 의료인의 길을 갔지만, 동시에 이에 못지않게 동시대의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에 헌신했다. 오공선에게 있어서 힘없고 약한 사람을 돌보고자 하는 것은 그의 천성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오공선의 사위였던 최영규는 오공선의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전한다:

어느 날 8순이 넘으신 해관의 노자당(老慈堂)께서 손서(孫壻)인 나의 손을 잡으시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가운데 몇 가지 해관에 대해 들려주신 이야기가 생각난다. 어렸을 때 누비저고리를 새로 만들어 입혔더니, 어느 거지에게 벗어주고 들어왔기에 몹시 마음에 언짢으셨다는 것이다. 누비저고리가 아까운 것이 아니라, 귀한 아들의 옷을 입은 거지가 그 옷을 입고 길거리에서라도 얼어 죽던지 하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즈음 또 동대문 밖에서 떨고 있는 늙은 거지에게 외투를 벗어 입혀주고 들어왔다는 것이다.

또 그 당시 서울 거리에 나무 장사들이 많았다. 어려운 사람들이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시중에 팔아서 겨우 그날의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허다했다. 추운 겨울 밤 땅이 어두워질 때까지 나무가 팔리지 않아 거리에서 떨고 있는 사람을 보시면, 집으로 돌아오시던 길을 멈추시고, 그 나무를 팔아주시고, 지계에 가득 실은 나무바리를 알지도 못하는 가난한 오막살이집에다 부리게 하고 오시는 일이 많았다고 하셨다.

또한 거리의 고아와 거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숙소를 마련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 자연 해관을 따르는 고아와 거지가 많아지자, 그 당시 보통학교에 다니던 어린 자녀들은 한 반 아이들에게서, '너희 아버지는 거지대장'이라는 놀림을 받



그림 21 안양보육원생들과 같이(1959년)

고 돌아와 울면서, 항의하던 일화도 들려주셨다.¹⁹⁵⁾

이렇게 오궁선이 사회적 약자를 구체적으로 돌보기 시작한 것은 세브란스의전 평균수 시절인 1919년 경성보육원을 설립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는 3.1운동이 일어나기 전 해인 1918년 12월 크리스마스 전날, 남대문 시장을 지나다가 길가 쓰레기더미 옆에서 흑한과 기아에 떨고 있는 7명의 걸인 아이들을 만나게 된다. 동전 몇 닢을 주고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아이들로부터 부모도 친척도 없다는 말을 듣고, 그 날 서대문 자신의 집에 데려다 옷을 입히고 밥을 먹여 하루를 재운 후 남대문 창골에서 숙박업을 하는 친구 김병찬에게 부탁하여 얼마동안 데리고 있도록 부탁한다.¹⁹⁶⁾

그리고 그 며칠 후인 1919년 1월 3일 윤치호, 이계육, 송택수, 김광준, 김태화, 김병찬 등을 발기인으로 경성고아구제회를 구성, 고아양육사업을 시작했고, 그 해 3월에는 언더우드 소유의 대지 3천 여 평과 가옥을 헐값에 사서 경성보육원을 설립하게 된다. 그러다가 3.1운동 이후 희생자의 증가로 고아의 수가 늘자, 1920년 5월 20일에는 당국으로부터 재단법인 인가를 얻어 정식 재단으로 출범하게 된다. 당시 이사장직을 맡고 있던 오궁선은 대지대금과 운영비를 거의 부담했다고 한다.¹⁹⁷⁾

그러다가 오공선은 세브란스의전 교장시절인 1936년 9월, 안양에 대지 8만 여 평을 사들여 이사하면서 경성보육원을 안양기독교보육원이라는 이름으로 개칭하게 된다. 그리고 1942년 교장직을 은퇴한 오공선은 다시 7만 여 평의 땅을 더 사들여 15만 여 평의 국내 최대 규모의 고아원을 만들게 된다. 이 안에는 30여 채의 단독 건물과 의무실, 교회가 있고, 각 건물에는 15명의 고아들이 어머니 역할을 하는 보모와 함께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돌봄을 받게 되고, 의무실에서는 오공선이 직접 진료를 했다고 한다. 오공선은 이 모든 운영비용을 자신의 사재로 충당했다고 한다.¹⁹⁸⁾ 이후 6.25 전쟁을 통해 원아 20여 명을 폭격으로 잃게 되는 비운도 경험하지만 가덕도에서의 피난살이 이후, 다시 3년 만에 건물을 재건하고, 모든 보육원 시설과 운영체제를 정비하게 된다. 이후 오공선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보육원을 통해 양육된 고아들은 3,000여 명에 이른다고 하고, 오공선은 ‘고아의 아버지’라 추앙을 받게 된다.¹⁹⁹⁾

오공선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은 고아에 그치지 않았다. 1931년 세브란스의전 부교장에 선임된 오공선은 노후에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의 노후대책을 위해 서대문 옥천동 고아원 근처에 경성양노원을 설립하고 그 자신이 재단이사장으로 취임한다.²⁰⁰⁾ 양로원 또한 고아원과 더불어 한국에서는 최초로 만들어진 시설로, 이것은 세브란스의전 교수로서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있는 구미 여러 나라들을 시찰하면서 세계일주여행에서 얻은 견문을 실천한 것이라고 한다.²⁰¹⁾

그러나 1934년 오공선이 세브란스의전 교장이 되어 바쁜 일정에 쫓기게 되자, 양로원 일에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려워지고, 설립초기부터 이때까지 자신의 사재를 털어 넣어 운영해오다 보니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결국 1936년 보육원이 안양으로 이전하면서, 양로원 운영권은 관리자이던 이윤영에게 위임된다. 그리고 운영권을 위임받은 이윤영은 양로원을 서대문구 세검정 삼각산 밑으로 이전하면서 명칭을 ‘청운양로원’으로 개칭하게 된다.

이러한 점들로 볼 때, 오공선은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지 못한 특별한 마음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함께 아파할 줄 아는 공감의 감수성이다. 마커스 보그라는 신학자는 예수의 가르침

과 삶을 관통하는 예수의 영성은 “함께 아파하는 마음”(compassion)이라고 했는데,²⁰²⁾ 오공선은 바로 이러한 예수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동시대의 어느 누구보다, 심지어는 어느 목회자보다, 예수의 길을 제대로 걸어간 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섬김의 삶

셋째로, 오공선은 미국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은 의사로서 당시 한국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었지만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기 보다는 늘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 물론 외형적으로 보면 오공선은 수많은 기관의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인 것만 추려보면 군산, 광주, 목포의 야소교병원장, 영명중학교와 정명중학교의 교장, 세브란스의전 교장, 경성양로원 재단이사장, 안양기독교보육원 원장, 이승만 대통령 시절 구황실재산관리총국장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하나의 자리들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는 자리를 탐하여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적도 없고, 또 자리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으려고 했던 적도 없었다. 이 모든 자리들은 이 사회가 그를 필요로 하여 부를 때, 그 부름에 응하여 불가피하게 앉게 된 자리들이었다. 이제 그 내막을 하나 하나 살펴보자.

오공선은 1907년 가을 미국 유학을 마치고 의료선교사의 자격으로 귀국한 후 배재학당의 은사이자 3대 교장이던 번커의 주선으로 순종황제에게 귀국인사를 하게 된다. 이 때 순종은 그에게 백마를 하사하고 황실 전의로 입궁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²⁰³⁾ 뿐만 아니라, 그의 귀국소식을 들은 일본 총감부의 초대 총감 이등박문이 그를 초청하여 오늘날 서울의대부속병원에 해당하는 대한의원에 근무할 것을 요청한다.²⁰⁴⁾ 그러나 그는 미국서 올 때, 의료선교사로서 군산야소교병원에 근무하기로 약속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모두를 거절하고 군산으로 내려간다. 말하자면, 군산야소교병원의 원장 자리는 그가 야심을 갖고 쟁취한 높은 자리가 아니라, 황실전의와 대한의원 교수 자리를 고사하고 내려간 낮은 자리였던 것

이다. 그 뿐인가? 그는 군산에 내려간 후 병원의 원장 자리만 지킨 것이 아니라, 서해안 산간벽촌의 환자 진료에 나서게 된다.²⁰⁵⁾ 그리고 그 후 그가 옮겼던 광주야 소교병원장과 목포야소교병원장 자리도 미국 남장로교 선교본부의 요청에 의해 부름을 받은 자리였지, 그가 쟁취하려 했던 권력의 자리가 결코 아니었다.

그가 맡았던 초·중등학교의 교장자리는 또한 어떠한가? 오궁선은 군산야소교 병원장 시절, 소학교 과정의 안락학교를 세운다. 이 학교는, 일설에 의하면, 오궁선이 도미유학시절 선교사 알렉산더에게 빌린 돈 2천 3백 달러를 갚으려 하자, 알렉산더가 그 돈을 한국민을 위해 쓰라고 부탁을 해서 세워지게 되었다고 한다.²⁰⁶⁾ 달리 말하면, 안락학교는 그의 돈으로 세운 학교였다는 말이다. 또 같은 시기 그가 세우고 교장직을 맡았던 중학교 과정의 영명학교는 당시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던 군산의 젊은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바쁜 병원 일에도 불구하고 자기희생적으로 세운 학교였고, 교장이었지만 학생들에게 영어와 산술을 직접 가르치기도 했다. 목포야소교병원장 시절에는 병원에서의 진료 이외에도, 주말이면 남해안의 낙도들을 찾아 가난한 섬 주민들을 치료해주었고, 정명학교 교장에 취임한 후에는 학생들에게 “독립정신을 기르고 자유주의 사상을 일깨워 주기 위해” 직접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자임했다고 하니, 이 모든 자리가 섬김의 자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²⁰⁷⁾

아마도 오궁선이 맡았던 일 가운데 가장 영예로운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브란스의전 교수가 되고 또 교장으로 취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수 되기가 하늘의 별따기 보다 어려운 오늘의 시대와는 달리, 당시 그가 세브란스의전 교수가 된 것은 그가 목표로 삼고 노력해서 얻은 자리가 아니라, 이 역시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에서 그를 파견한 것이었다. 달리 말하면, 그는 보냄을 받은 것이다. 또 그가 학감이 되고, 부교장이 되고, 교장이 된 것은 어떠한가? 그가 자리를 탐하여 다른 사람을 제치고 그 자리에 오른 것인가? 세브란스의전 교수가 된 이후, 그가 맡게 된 이 모든 자리는 오궁선의 “투철한 기독교 신앙정신과 소박한 인간성, 뛰어난 자질, 정확한 판단력 등에 감동”하여 당시 세브란스의전 교장 예비순에 의해 맡겨진 자리였다.²⁰⁸⁾ 그는 교장으로 섬김을 받고자 교장직을 쟁취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교장으로 세브란스의전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교장 자리에 결코 연연하지 않았고, 65세가 되었을 때에는 당시 있지도 않은 정년제를 만들어 그 자신이 정년퇴임 1호가 되었던 것이다.

경성양로원 재단이사와 안양기독교보육원 원장 자리와 관련해서는 앞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더 부연할 것이 없다. 단지 한마디 하고 지나간다면, 이 자리는 수입이 주어지는 자리도 아니고 권력이 주어지는 자리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오공선은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을 섬기기 위해 양로원을 만들고, 부모 없이 떠도는 아이들을 보살피기 위해 고아원을 만들고자, 그의 모든 재산을 여기에 쏟아 부었다.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양로원도 고아원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맡은 자리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였다. 그는 노인들의 아들로, 고아들의 아버지로 그들을 섬겼던 것이다.

끝으로 오공선이 이승만 대통령 시절 맡았던 구황실재산관리총국장 자리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오공선은 배재학당 2년 선배이자, 독립협회와 만국공동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이승만과의 인연으로, 1948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으로부터 사회부장관직 제의를 받는다. 그러나 오공선은 고사한다. 이어 1949년 사회부로부터 보건부를 독립시킨 이승만은 다시 오공선에게 보건부장관직을 제의한다. 그러나 오공선은 이 자리도 고사한다. 그러다 부산피난시절 이승만은 다시 오공선에게 구황실재산관리총국(문화재관리국의 전신)의 국장 자리를 맡아달라고 제의한다. 이 때 오공선은 이것만은 거절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할 수 없이 맡게 된다. 그러나 그 후 그 운영과 관련하여 의견이 대립하자, 이마저도 사임하고 만다. 오공선은 근본적으로 섬김을 받는 권력의 자리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부름을 받았을 때, 단지 그에 응했을 뿐이다.

나눔의 실천

넷째로, 오공선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늘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나누는 일에 앞장섰다. 오궁선은 사실 동시대에 얼마든지 부를 축적하여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당시 조선에는 서양에서 의학공부를 하고 서양에서 전문의(專門醫) 경험을 가진 그런 한국인 양의사가 전무한 상태라, 오궁선이 만약 지방의 야소교병원장으로 내려가라는 미국선교부의 요청을 회피하고 서울에서 병원을 개업했다면 거의 돈방석에 앉았을 것이다.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약 그가 황실 전의로 입궁할 것을 제의 받았을 때나 조선총독부로부터 대한의원 교수자리를 제안 받았을 때, 혹은 이승만으로부터 장관자리를 제의받았을 때, 이를 받아들였다면, 그는 최소한 생고생은 하지 않고 안정된 자리에서 평생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물론 남장로교 파송의 의료선교사라는 위치가 걸림돌이 되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설명이 충분치 않다. 오히려 오궁선은 부유해질 생각이 전혀 없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부자가 되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앞서 오궁선은 자신의 안방에 “돈을 사랑함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한 디모테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친필로 써놓고, 그 옆에 조선은행권 지폐 한 장을 붙여놓았다”고 했다.²⁰⁹⁾ 세상의 모든 악은 재물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오궁선의 생각이었던 것이다. 특히 의사가 돈에 집착하면, 의사의 본분인 인간의 생명 돌보기를 등한히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당시 돈에 관심있는 의사들이 손쉽게 선택할 수 있었던 개업의(開業醫)에 대해 그는 특히 경계했다. 그 자신도 개업의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제자들에게도 개업의가 될 생각을 하지 말라고 권했고, 개업을 하려는 아들을 한사코 만류했던 것이다.

하지만 부에 대한 오궁선의 태도는 단순히 부를 축적하려 노력하지 않았다는 소극적인 것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조차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나누었다. 부를 축적하려 노력하지 않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재산을 남과 나누는 일은 더욱 그렇다. 축적하지 않으면서 있는 것을 털어내면, 남는 것은 가난 뿐이다. 그런데 오궁선은 아주 쉽게 가진 것을 내놓았고, 그리고 나누었다.

왜, 무엇을 위해 오공선은 이렇게 손쉽게 자신의 가진 것을 내놓고 나누려 했을까? 이 또한 대답이 간단하다. 동시대의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기 위해, 그는 자신의 재물과 재산을 아주 쉽게 내놓았다. 이것이 오공선이다. 앞서 오공선이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기 위해, 학교, 보육원, 양로원, 교회 등을 세웠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이러한 기관들은 대부분 외부 기금을 얻어 세운 것이 아니다. 오공선 자신의 사재를 털어 세운 것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1909년 군산 야소교병원장 시절 구암리장로교회를 세울 때에는 집의 전답을 팔아 건축비를 마련했고,²¹⁰⁾ 65세 은퇴 후 안양기독교보육원 원장으로 일할 때에는 모든 운영비를 자신의 사재로 충당했다고 한다.²¹¹⁾

동서화충(東西化衷)

다섯째로, 오공선은 학문적으로 동서의 만남을 시도한 적은 없지만, 그의 사상과 삶 속에서는 확실히 동과 서가 서로 갈등없이 화충하고 있었다. 그는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을 학제간 연구의 방식으로 접근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유교와 기독교를 종교간의 대화 형식으로 접근한 적도 없다. 단지 동과 서가 그의 사상과 삶 속에서 공존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오공선은 이미 “7세 때부터 부친한테서 천자문(千字文)과 동몽선습(童蒙先習) 등 기본 한문을 배우기 시작”하여, “이당진(李唐津) 서당에 들어가 논어 맹자 등 사서(四書)를 수학하면서 천재적인 재질을 발휘”한 바 있고, “12, 3세 때에는 이미 오언(五言) 칠언(七言)의 시구를 지어 운(韻)을 붙임으로써 집안 어른들을 놀라게 하였다”고 한다.²¹²⁾

그 후 14세에 유교 풍습을 따라 조혼(早婚)을 한 이후에는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갈 계획으로 공주읍내에 있는 이후(李厚) 문하에 들어가서 17세 때까지 3년간 한학 수학에 열중했다.²¹³⁾ 그러나 불행히도 1894년 갑오경장으로 과거제도가 폐지되자 한학 공부의 결실인 과거 급제의 길이 막히게 되었고, 대신 1896년 초 18세의 나이에 스승 이후(李厚)의 추천으로 내부(內部) 주사(主事)로 등용되어

관직을 맡게 된다.

오공선이 과거 급제를 통해 그의 한학 실력이 공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지만, 7세부터 14세까지 기본 한문과 사서삼경을 섭렵했고 한시(漢詩)까지 지을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당시 고종 즉위 초에 승지(承旨)를 역임하고 낙향하여 후진을 양성하던 이후(李厚) 같은 좋은 스승 밑에서 3년간 한학을 공부한 것을 보면, 그가 한학에 얼마나 깊은 조예가 있었는지, 그리고 유교로부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는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오공선이 1896년 초 주사직을 하다, 그 해 10월에 배재학당에 입학하게 되고, 여기에서 서양학문에 접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선교사스태드만을 통해 세례를 받은 기독교인이 되고, 동시에 미국에서 서양의학을 배워 서양의로 선교사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충분히 언급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언급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오공선의 생애를 보게 되면, 17세까지는 한학을 통해 유교의 세계를 접하고, 그 이후부터는 서양학문을 통해 기독교의 세계에 접하게 된다. 말하자면, 오공선은 86년의 생애 동안 두 개의 서로 다른 세계를 살았던 것이다. 문제는 오공선이 미국유학을 마치고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도, 그의 사상이나 삶 속에 과연 동양적인 것이 살아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을 묻는 것은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1907년에 그의 나이는 29세였고, 이 때부터 세상을 떠나기까지 56년간을 의료선교사로서 살았기 때문이다.

먼저 그의 사상에 그런 흔적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자.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이후 오공선 안에 유교사상이 그대로 살아있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그가 세브란스의전 교장 재직 중 1937년 12월 27일자 『학해(學海)』지(誌)에 발표한 「청년학도에 여(興)하는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십계명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형식을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에는 분명하게 유교사상이 드러나 있다. 우선 전문을 보자.

제1명 나의 교육을 후원하는 부모의 은공을 더욱 감사히 생각하라.

- 제2명 경험 적은 나로서 경험 많은 선배 공경할 줄을 알라.
- 제3명 이상도 필요하나, 실지 이행이 급한 것을 잊지 말라.
- 제4명 풍부한 상식을 얻는 것이 서투른 전문지식보다 나은 것을 기억하라.
- 제5명 조선 전래의 윤리 도덕의 미점(美點)을 다시 한 번 음미하라.
- 제6명 뇌를 가지고 일하고 눈으로 일하지 말라.
- 제7명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아니한 일을 할 때, 남의 비소(誹笑)를 무서워하지 말라.
- 제8명 사회의 지도자 되기를 원하지 말고, 사회의 봉사자 되기에 힘쓰라.
- 제9명 자기가 맡은 직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심성의로 하라.
- 제10명 사업을 하다가 속히 성공하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말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제1명과 제5명이다. 이것은 분명 히포크라테스선서에도 없는 오공선만의 강조점이라 할 수 있다. 그는 학생들에게 부모의 은공을 잊지 말 것과 조선 전래의 윤리 도덕이 갖는 미점(美點)을 잊지 말도록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 오공선이 미국 유학 이후 세브란스의전 교장이 된 시점에도, 오공선의 사상에 있어 유교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것만이 아니다. 오공선은 은퇴한 후에도, 매일 아침 일어나면, 논어, 맹자 등을 소리 내어 읽고, 옛 한시구(漢詩句)를 암송하고는 했다고 한다.²¹⁴⁾

오공선에게 있어 유교는 단지 그의 사상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유교는 그의 생애 전체에 걸쳐 그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오공선은 무엇보다도 유교의 효를 생활화한 이름난 효자였다고 한다. 그는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부모님께 문안을 거른 일이 없고, 날씨가 추울 때에는 새벽 일찍 일어나 가족 몰래 부모님의 침소에 군불을 지폈다고 한다. 또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고하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잘 다녀왔다고 인사하는 「출필고 반심면」(出必告 反心面)의 예를 지켰다고 한다.²¹⁵⁾ 한 번은 세브란스의전 교장 시절인 1938년 세계여행 중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 체류하고 있었을 때에, 자당께서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았는데, 그는 이 전보를 받자마자 바로 세계여행을 중단하고 곧바로

귀국했다고 한다.²¹⁶⁾

오궁선은 부모의 효만이 아니라, 부부지간의 의리도 철저히 지켰다. 오궁선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던 위키백과도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오궁선은 당대의 지식인들과 사대부들이 첩을 두고, 기생첩과 내연녀를 두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이었다. 또한 자신보다 나이가 5세 연상에다가 마마를 앓다가 얼굴이 곰보가 된 밀양 박씨와 평생 해로하였고, 다른 여자들의 유혹을 모두 물리쳤다. 또한 그는 자식들에게도 평생에 이혼이란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다.²¹⁷⁾

실제로 장남이 부인과 뜻이 맞지 않아 이혼하겠다는 뜻을 비치자, 그는 “그 실은 나도 너의 모(母)와 의가 좋지 않아서 이혼을 해야겠는데, 이혼에도 선후가 있는 법이야. 내가 먼저 이혼한 다음에 너도 하여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물론 본인이 이혼의 뜻이 있었다는 말이 아니다. 두 번 다시 이혼 이야기를 발설하지 못하게 하려는 뜻이었다.

이런 점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오궁선은 동시대에 충분히 동양적이면서도 충분히 서양적인, 충분히 유교적이면서도 충분히 기독교적인, 말하자면 동과 서가 갈등없이 조화롭게 화충을 이루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아닌가 싶다.

오공선의 친일문제

하지만 오공선에게는 늘 따라다니는 옥의 티와같은 오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친일파라는 지적이다. 우선 위키백과 한국어판에 나오는 글을 살펴보자.

1930년 대 초반부터 일제가 황민화를 위해 설립한 조선교회단체연합회에서 활동하며 친일활동을 벌이기 시작하여,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때는 적극적으로 친일에 참여했다. 사상범을 감시하는 사상보호관찰소 보호사 직무촉탁에 임명되었고, 친일 단체들인 국민총력조선연맹, 조선임전보국단에 가입하여 강연과 기고활동을 통해 전쟁을 미화하고 참전을 독려했다.²¹⁸⁾

오공선의 친일행적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아마도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일본이 주도하는 전쟁에 참여하도록 연설을 했다는 점일 것이다. 다음은 매일신보 1943년 11월 5일자 신문에 “주저말고 곧 돌진하라”는 제목의 기고문 일부이다.

제군은 그 웅장한 결의로 출선 최전선을 향하여 적 미 영 격멸에 분투하라. 지금 출선해서 장행의 도(途)에 오르는 제군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그대들의 후배에도 지대한 영향을 재래(齎來)할 것이니, 제군은 실로 반도 역사가 있는 이래 가장 위대한 역사적 임무를 지고 있음을 자각하여야 할 것이다....만일 제군이 일시의 투안(偷眼)을 탐하여 이 중대 시국에 일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국가의 부르심을 회피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다만 제군 일신의 치욕 무능을 폭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장차 다음 세대를 건설할 제군의 후배를 절망의 구렁 속으로 떨어뜨리게 할 것이니, 지하에 있는 제군의 선조의 영을 무슨 면목으로 대할 것인가!²¹⁹⁾

오공선의 친일을 주장하는 근거는 이것만이 아니다. 일부 사람들은 여기에 더하여, “그가 교장에 재임하는 동안에 국내 지식인과 애국지사들에 의해 일어난 수



그림 22 일제치하의 세브란스의의전

양동우회사건, 청구구락부사건, 흥업구락부사건 등에 관련되지 않았던 사실과 세브란스의의전에 가한 탄압이 가벼웠다는 일들을 들어, 일부에서는 해관을 친일적인 인물”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²²⁰⁾

그렇다면 오금선은 정말 친일파인가? 이에 대해 오금선 자신은 일체의 변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세브란스의의전 교장직을 역임하는 동안 해관에게는 친일파란 평판이 공공연히 나돌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변명을 하거나 오해를 풀기 위해 애쓴 일이 없이, 일제가 강요하는 창씨개명을 거부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고 한다.²²¹⁾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금선과 같은 시기에 한 캠퍼스에서 학장과 부총장을 역임한 1931년 졸업생 조동수 박사의 회고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분은 지조를 지키신 분이였다. 일제시 그 분을 친일인물이라는 비평을 나는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표면상의 행동을 보고 하는 비평일 뿐, 절대 친일인물은 아니였다. 일제말기 본의건 타의건 모두가 굴욕적인 창씨개명을 할 때, 이를 감연히 거부한 몇 명 안 되는 민족 지도자의 한분이였다.²²²⁾

이러한 것을 보면, 친일문제와 관련하여 오궁선에게는 두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세브란스의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일본의 요구에 응했던 반면, 다른 한편으로 세브란스의전과 상관없이 개인의 소신에 따라 행동할 경우에는 일본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김영식의 연구는 이 점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고 본다. 그는 당시 다른 학교의 조선 학생 비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당시 통계를 살펴보면, 오궁선과 이영준이 일제에 협력한 배경을 알 수 있다. 당시 경성의전 등의 관립학교에는 조선 학생보다 일본 학생이 더 많았다. 윤치호는 1933년 6월 30일의 일기에서, '사범학교는 일본인 80%에 조선인 20%였고, 경성의전은 조선인 20%였던 것이 8%가 만주국 학생에게 할당되어 12%로 더 낮아졌다'고 한탄했다. 그리고 유일한 대학인 경성제대 의학부도 비공식적으로 일본인과 조선인을 7:3의 비율로 뽑았다. 이에 반해 세브란스의전은 조선인 학생이 100%였다.

조선인의 고급 인재 교육을 철저히 억제하는 정책 하에서 세브란스에 대한 총독부의 접수 시도는 계속됐다. 미국의 지원도 끊긴 상태에서, 두 조선인 교장의 일제에 대한 불가피한 협력이 방패가 돼, 조선 청년에 대한 의학교육이 계속될 수 있었던 공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사료에 나타난 그들의 친일 흔적을 지적하려면, 위와 같은 시대상황의 인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²²³⁾

이처럼 오궁선은 세브란스의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본의 굴욕적인 요구에 불가피하게 응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세브란스의전의 운명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일에 있어서는 어느 모로 보나 친일인사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앞서 오궁선이 동시대 민족지도자나 애국지사가 고통을 당할 때 한 발 물러서 있었다고 하는 점에서 친일파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홍사단사건으로 대전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안창호가 1935년 봄 가출옥된 후, 국내 각계인사들과 세브란스병원에서 밀회를 하게 한 사례라든가, 도산(島

山)이 출옥한 후 그의 거취문제에 대해 대다수 인사들이 언급을 회피하는데도 해관은 동지의식을 발휘하여 대담하게 소신을 밝힌 일 등은 그가 친일적이지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²²⁴⁾ 이 뿐이 아니다. 오공선이 미국서 귀국한 후 “일제가 그에게 중추원 참의가 되어줄 것을 요청했지만,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명예직인 참의 자리를 사양했”다는 점과,²²⁵⁾ 당시 쉽게 거부할 수 없었던 창씨개명을 거절했던 점은, 그가 친일인사가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아무리 오공선이 세브란스의전을 지키기 위해 일본에 협조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의 친일 행적이 묵과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 점은 이 점대로 분명히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그를 한 마디로 친일파라고 단정지을 수 있을까? 그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들의 증언이나, 그의 개인적인 결단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그는 결코 친일파는 아니었다고 보여진다. 그는 친일파는 아니었지만, 교장으로서 세브란스의전을 일제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일제의 강압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협조했던 것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오공선을 “식민지 치하 나라 없는 설움을 달래면서 슬기와 지혜로 세브란스의전을 지킨 명교장”²²⁶⁾이었다고 평가한다면, 그것은 무리한 평가일까?

오공선의 학풍과 기독교

우리는 위에서 오공선의 학풍을 크게 다섯 가지 점에서 살펴보았다. 그는 학문을 돈벌이가 아닌 소명으로 이해했다는 점, 동시대의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삶을 살았다는 점,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를 섬김의 자리로 이해했다는 점, 부를 축적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가진 것을 나누려고 했다는 점, 그리고 동과 서를 갈등의 관계에서 이해하지 않고 화충(化衷)의 관점에서 이해했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연구를 마치면서 한 가지 보다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오공선에게서 이러한 다섯 가지 학풍을 가능하게 했던 정신적 뿌리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그 대답은 아주 자명하다고 본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기독교 정신이 아니었던가 싶다. 물론 오공선은 목사 안수를 받은 목회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의료선교사로서 군산, 광주, 목포에서 활동한 것을 비롯, 여러 중등학교의 설립과 운영, 교회의 개척, 고아원과 양로원의 설립과 운영, 세브란스의전에서의 교수생활과 보직 활동, 그리고 기독교청년회, 대한성서공회, 대한기독교서회 등 기독교 관련기관에서 이사나 이사장으로 활동한 것 등이 모든 것은 결국 문제가 많은 척박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넓은 의미의 목회자 아닌가 싶다.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기독교정신을 대한민국 땅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일에 그의 전 생애를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제 끝으로 이러한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두 사람의 증언을 소개하는 것으로 본 연구를 마치고자 한다. 하나는 세브란스의전에서 30년 동안 외과 교수로 가르쳤던 알프레드 어빙 러들로 교수의 증언이다:

1913년 이래 강의실에서, 병원에서, 그리고 진찰소에서 오공선과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큰 행운이었다. 의사, 학자, 교수, 고아의 아버지, 그리고 버림받은 자의 친구이며, 선을 행하는 데 있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본을 따라가는 오공선을 내 친구 중에 포함시키는 것이 자랑스럽다.²²⁷⁾

오금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이 평가는 오금선 자신의 자평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교수, 그것도 외국인 교수가 그의 삶을 지켜본 결과로 증언한 것이기에 값지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오금선의 외손녀되는 최은경 교수의 증언이다:

86년간의 그의 생애는 한 마디로 봉사의 생활이었다. 작은 일로부터 큰 일까지 그가 도와주었던 걸인, 병약자, 학생, 친지의 수효는 부지기수다. 그의 도움의 형태는 빵 한 덩이 주고 매스콴을 타는 오늘날의 방법과는 너무나도 다른 침묵 일변의 원조였다....미국에서 최신식의 의술을 이 땅에 최초로 배워 오신 의학박사요, 1917년 의전 교단에 서서 우리나라 교수 1호를 장식하신 할아버지답지 않게 그는 겸손하시며, 절대로 하신 일을 자손에게도 알리지 않으시는 분이였다. 오늘날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육영사업을 벌려 훈장을 타고, 화려하고 두툼한 자서전, 전기를 내어 서가를 구미며, 그 업적을 예술작품의 대열에 끼어 놓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정신상태의 소유자와는 판이한 분이였다. 그러기에 그는 귀국 후 개업을 하여 장안의 모든 황금을 끌어들이지 않으셨고, 그 대신 버림받고 가련한 인생, 햇빛은 거지를 모아 사재를 털어 고아원을 최초로 설립하셨고, 양로원도 만드시며, 후배 의사 양성에 전념하신 것이다. 도대체 이런 일들을 하시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무엇보다도 그의 신앙의 힘이 밑거름이 되었다고 본다. 그는 핼과리 신앙인이 아니었고,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가시는 하나님의 종이였다.²²⁸⁾

연세의 개척자들과
연세학풍

IV

연세의 정초자 백낙준²²⁸⁾

김동환_연세대 교수(기독교윤리학)



전 연세대학교 총장인 송자는 백낙준의 생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백 박사님은 국운이 기울어 가던 암담한 시대에 태어났으나 나라를 다시 찾고 세우는 방도가 교육에 있음을 알고 일평생 교육사업에 종사하여 오신 민족의 선각자요, 겨레의 스승이요, 정치사회의 경륜가요, 교회의 지도자요, 당대의 석학이시었습니다.”²²⁹⁾ 근대 한국 교육에서, 한국 기독교에서, 한국 대학에서 그가 이룩한 업적은 실로 지대하다. 특별히 그가 몸담은 연세대학교에 끼친 그의 영향력은 연세의 발전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자양분이다. 대표적으로, 그는 진리와 자유의 기독교 정신을 연세의 창학정신으로 정함으로써 연세의 정신적 기틀을 마련하였고, 그 정신적 기틀의 바탕 위에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 의과대학을 통합하여 연세대학교라는 종합대학을 설립함으로써 제2의 창학을 이루어낸 연세의 리더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백낙준에 대하여 연구한다는 것은 단지 그 개인의 훌륭한 삶의 업적들을 살펴보려는 것만을 뜻하지 않으며, 이에 더 나아가 그의 삶 속에서 영글어져 수확된 근대 한국 교육의 결실, 특별히 그가 몸담은 연세대학교 교육의 초기 열매를 실제로 만져보려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하여, 그 열매

를 담아내는 작업으로서의 본 연구는, 우선 그의 생애와 학문과 기독교 신앙을 다각도에서 조명해 볼 것이고, 다음으로 그러한 조명 속에서 그가 추구하고 이루어낸 학풍을 찾아낼 것이며, 최종적으로 그가 추구하고 이루어낸 학풍이 바로 그를 통해, 그와 함께 추구되고 이룩된 연세의 학풍이었음을 밝혀내고자 한다.

백낙준의 생애

백낙준(白樂濬)은 1895년에 평안북도 정주군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한 때 풍헌(風憲, 지금의 면장)을 지낸 일이 있기는 했으나 순박한 농부였다. 그의 어머니는 사람을 잘 사귀었고 총명하였다. 그는 아주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천자문을 배웠고 서당에 다니면서 한문을 익혔다. 마침 1906년에 이웃 동네에 기독교 교회가 들어오면서 신학문을 가르치는 영창학교가 설립되자, 그의 아버지는 비록 기독교인은 아니었으나 아들에게 신학문을 배우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입학시켰다. 영창학교를 졸업한 후에 그는 중학교에 진학하려 했으나 이미 아홉 살에 어머니를 여의고 열세 살에 아버지까지 잃어, 당시 큰 형 집에 머물던 그에게 중학교 진학은 어려운 도전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미국인 선교사 매쿰(G. S. McCune, 尹山濶, 1872~1941.12.1) 교장을 만나게 되어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그의 도움으로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평안북도 선천군에 소재한 신성중학교에 1910년 입학하였다. 하지만 입학 후 1년만인 1911년에 ‘105인 사건’²³⁰⁾이 터지게 되어, 이 사건에 연루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1년간의 도피 생활을 하게 되었고, 1913년에 겨우 졸업을 하고는 중국 천진으로 힘겹게 건너가 신학서원(神學書院)에 입학하여 이곳에서 3년간 영어를 익히고 성경과 동양 고전을 두루 익혔다.

신학서원에서 수학한 후 백낙준은 우여곡절 끝에 1916년에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으며, 매쿰 교장의 추천으로 그의 모교인 파크(Park) 대학에 입학하여 역사학을 전공하면서 미국 유학 생활을 시작하였다. 파크대학 시절, 그는 기독교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였고, 1차 세계 대전의 발발과 3·1운동의 소식을 접하면서 민주적 세계 평화와 고국의 독립을 향한 열망을 품게 되었다. 파크 대학에서의 학업을 마친 백낙준은 1922년부터 프린스턴 신학교에 입학하였고 1925년에는 프린스턴대학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곧이어 같은 해에 예일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여 그가 학문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는 라토렛(K. S.

Latourette) 교수의 지도 아래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s in Korea, 1832~1910*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쓰고, 한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예일대학에서 1927년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를 받은 그해 1927년, 백낙준은 미국 장로교 켄자스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같은 해 8월, 오랜 미국 유학생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고국에 돌아왔으며, 33세의 나이에 연희전문교의 교수가 되어 본격적으로 교육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가 연희전문에서 처음 가르친 것은 주로 성경이었으나, 위낙 동서양 고전에 통달하였기에 그의 수업은 동서양의 문명을 아우르는 폭넓은 수업이 되었다. 1년 후인 1928년에 문과 과장으로 취임한 백낙준은 서양사를 가르치기 시작했으며, 학교행정도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당시 그는 일제 하에서 정규과목으로 가르칠 수 없었던 조선어를 선택과목으로 편성하여 가르치게 하였으며, 동양사를 통해 조선의 역사를, 한문학을 통해 국문학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조선학을 가르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연희전문교의 문과가 국학의 산실이자 민족의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²³¹⁾

10년간의 교편생활 후 1937년에 안식년을 맞이한 백낙준은 미국에 가서 각 지방을 순회하며 강연과 설교를 하였다. 당시 뉴욕의 선교단체들의 권유로 영국 옥스퍼드에서 ‘교회, 공동체 그리고 국가’(Church, Community and State)라는 주제로 열린 생활과 사업(Life and Work) 총회의 한국 교회 대표로 참석하였으며, 한국 교회가 겪는 수난과 박해의 현실을 알리고자 노력했다. 그런데 그즈음 소위 수양동우회사건과 흥업구락부사건이 터져서 일본인들이 만주사변을 일으키기 위한 공작으로 국내의 민족주의자들을 대거 검속하였고 연희전문교의 많은 교수들도 투옥되었으니 당분간 귀국하지 말라는 갑작스런 소식을 듣게 되었기에, 그는 뜻하지 않은 2년여 간의 미국 망명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39년 여름에 가까스로 귀국하였으나, 이미 일제에 의해 교수직이 박탈되어 해직교수의 신분이 되었기에 해방이 되기까지 변변한 일자리도 없이 힘겨운 은둔생활을 하여야만 했다.²³²⁾

1945년 광복을 맞이하면서 백낙준은 그의 동료들과 함께 일제에 의해 경성공

업전문학교로 둔갑했던 연희전문학교를 접수하고, 다음 해에 유억겸의 후임으로 연희전문학교 교장이 되었다. 교장이 된 백낙준은 학교 정비에 온 힘을 쏟았으며, 대학준비위원회를 조직해서 대학수격을 준비하여 1946년 8월에 연희전문학교를 연희대학교로 승격시키고 초대 총장으로 취임하였다. 그는 교양교육과 채플을 강화하고 수강신청 제도와 남녀공학 제도를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성서에 기초하여 ‘진리와 자유’라는 연세의 정신이자 표어를 제정하였다. 그는 이에 대하여 이렇게 회고한다.

진정한 자유는 진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격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남의 지배나 다스림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외적 자유이지요. 각자는 또 양심을 가졌고 도의를 알고 이상을 바라며 살지요. 이 양심과 도의와 이상을 해치려는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내적 자유입니다. 내적 자유 없이는 외적 자유를 누릴 수없음[습]니다. 학문적 양성을 통한 지식의 발전으로 진리를 깨치는 일이 곧 내적 자유를 충실하게 누릴 수 있는 조건이지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정했던 것입니다.²³³⁾

그의 교육자로서의 지속적인 노력은 1950년 5월 문교부장관으로 취임하면서도 계속되었다. 그는 한국의 교육 이념으로 ‘홍익인간’을 표방하면서 한국의 교육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지대한 역할을 감당하였으며, 취임 직후에 터진 한국전쟁이라는 시련 속에서도 노천학교, 전시연합대학 등을 세웠다.

1952년 10월, 문교부 장관을 그만두고 연희대학교 총장으로 다시 돌아온 백낙준은 1953년에 학교본부가 서울로 다시 복귀되는 것을 시점으로 파괴된 학교시설을 수리하고 학교의 교육시설을 확충해 나갔다. 그러한 노력 속에서 드디어 1957년,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통합하여 연세대학교가 출범하게 되었고, 백낙준은 연세대학교의 초대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연세대학교를 명실상부한 종합대학으로 승격시키는 데에 온 힘을 기울였다. 그는 실사구시의 학문적 풍토를 마련하였고, 전인적 교육을 실행하였으며, 교양학 교육을 시작하였고, 과



그림 23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중앙도서관 앞 동상: 백낙준 박사 탄생 백주년을 기념하며 세워졌다.

학관, 도서관, 대강당, 광복관, 체육관, 성암관, 논지당, 한경관 등 학교 제반 건물과 시설을 확충해 나갔으며, 동방학연구소와 한국어학당을 부설하는 등 연구여건과 교육 환경의 기초를 다졌고, 학교의 자산을 크게 증대시켜 연세대학교를 국내 최고의 종합 사립대학으로 우뚝 세우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1960년 7월 정년으로 총장직을 물러날 때까지 백낙준은 ‘연세는 연세인의 연세요, 연세는 한민족의 연세이며, 연세는 세계의 연세’임을 굳건히 밝혀나갔다. 이에 연세대학교에서는 1961년 5월, 백낙준을 연세대학교 명예 총장으로 추대하였으며, 1965년 5월, 연세대학교 창립 80주년을 맞아 명예 문학박사학위를 수여하였다. 정년퇴임 이후에도 백낙준은 연세대학교의 명예총장으로서 학교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오다가 1985년, 연세대학교 창립 100주년이 되던 해 1월 13일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세상과 작별을 하였다.

학문: 연구, 교육, 봉사

백낙준의 연구는 국학 연구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심지어 미국에서 쓴 그의 박사학위 논문조차 국학 연구의 일환인 것으로 그는 회고한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이자 그의 주저인『한국개신교사』(韓國改新敎史,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s in Korea, 1832~1910*)²³⁴⁾를 살펴보면, 우선 그가 채택한 역사관은 선교사관으로서 서구의 선교사 중심의 역사관이었다. 또한 그의 적용한 역사 방법론은 철저히 서구의 근대 역사학적 방법론이었다. 더불어 그가 유학하여 공부하고 있던 장소적, 상황적, 시대적 여건이 그러했기에, 그가 조사하여 사용한 자료들은 모두 국외의 자료로 일관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한국개신교사』가 국학과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그러나 백낙준 스스로는 자신의 한국교회사 연구를 ‘국사의 한 분류사’요, ‘한국문화사의 일면’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의 연구를 섭렵한 민경배도, 백낙준의 한국교회사 연구를, 교회가 아닌 ‘국사연구’의 한 부분이라고 단정한 바 있다. 이는 백낙준이 서구적이고, 외래적인 연구여건과 연구 전개에의 요건을 다 동원하였으면서도, 연구의 목적에서, 연구의 주제와 소재에 있어 ‘국사’의 것, ‘국학’의 측면에 중심을 두었다는 말이 된다.”²³⁵⁾ 다시 말하면, 그가 서구에서 유학하는 외중에 학문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론, 역사관, 자료는 서구적인 것뿐이었으나(아니 서구적일 수밖에 없었으나), 근원적으로 그가 다루고자 한 내용은 한국의 기독교였고 한국의 역사였던 것이다. 말하자면,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당시에 한국의 개신교 역사를 가장 잘 정리하여 풀어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서구의 발전된 학문적 방법론, 역사관, 자료를 동원하는 것이었고, 그러하기에 그는 어려운 유학의 길에 올라 곳곳이 한국 개신교의 역사를 정리해 내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그의 주저인『한국개신교사』는 분명 그 주제 선정에 있어서, 역사 서술의 내용에 있어서, 주된 관심에 있어서 모두 국사적인 것, 국학 중심적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²³⁶⁾ 이러한 국사와 국학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연구는 그가 유학을 마치고 고국에 돌아온 후 한국 땅에



그림 24 용재관: 백낙준 박사의 호를 따서 지은 건물로 1957년 건립 당시에는 도서관으로 사용되었다. 이후에는 교육과학 대학 건물로 사용되어 오다가 2012년에 철거되었다.

서 실질적인 열매를 맺게 된다. 그 구체적인 열매는 바로 그의 ‘교육’을 향한 열정을 통하여 영글어졌다. 그의 묘비에도 교육에 대한 열정은 그의 고백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나는 전쟁을 앞뒤에 두고 나고 자라고 활동하는 동안 민족을 붙들고 살리는 방도가 교육에 있음을 알고 일생 사업으로 교육에 종사하여 왔다.”²³⁷⁾ 그가 유학에서도 국사와 국학 연구의 중요성을 잊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그 연구를 적용하고 싶었던 분야는 바로 고국에서의 교육에 있었다. 결국 교육을 통하여 그는 한국의 희망을 바라보았고 그의 모든 열정을 쏟고 싶었던 것이다. 실제로 그는 당시 세계 대전의 풍파와 일제의 억압의 현실 속에서 한국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교육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합병 후 일반 애국지사들이 나를 위하여 걱정하고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 일어난 여러 운동이 있었는데, 교육으로써 나라를 구하지는 운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많은 영향을 받았으리라 생각된다”²³⁸⁾고 고백하기도 하였다. 교육을 통하여 쓰러진 나라를 구하지는 구국 운동은 당시 통찰력 있는 시대의 선각자들의 운동이었고, 이러한 운동에 깊은 영향을 받은 백낙준은 그간 그가 배우고 연마한 국사와 국학 연구를 한국의 교육 쇄신을 통해 풀어내고자 하였던 것이다.

특히 연세대학교에 오랫동안 몸담은 백낙준은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였으며, 연세대학교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학문 수양의 최고봉이 되어야함을 피력하였다. “學生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그는 이렇게 말한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로 보아 우리 학생들은 학문에 정진하고 있는가? 선생이 부족하고 도서가 충분치 못하며 실험기구가 불비하며 무엇이 없고 무엇이 없다고 학문할 수 없는 조건을 들어 말할 수 있을 줄로 안다. 이런 불평은 그 불평을 하는 자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이용하고도 오히려 부족함이 있어 그런 불평을 말할 때에는 그 불평은 불평으로 들리지만 자기 눈앞에 있는 기회를 이용하지 않으며 자기가 배울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실행치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하였다고 불평을 하는 것은 불평을 위한 불평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²³⁹⁾

한국 땅에서 풀어내었던 교육자로서의 백낙준의 전반적인 교육 사상은 근본적으로 ‘홍익인간’의 사상에 잇대어 있다고 볼 수 있다.²⁴⁰⁾ 교육의 목적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말한다.

지난 날의 한민족의 교육 목적은 이전에 말한 것과 같이 ‘홍익인간’이라 할 수 있다. 왜 교육을 하는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고 배우려고 하는 것이 교육하는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모르는 것을 배워 알려고 하는가? 모르는 것을 배워 알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널리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내 자신의 명리나 부귀영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모든 좋은 것을 배우기 힘쓰고, 배운 후에도 그 배운 것을 내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와 민족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배움에 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온갖 좋은 것을 배워 사회를 위해 널리 유익되게 한다는 홍익인간 사상은 달리 말하면 수기치인(修己治人)이라고 할 수 있다. 옛 선조들은 먼저 자신의 인격과 학문을 닦은 후에 나아가 남을 다스리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았다. 교육을 하는 목적이나 교육을 받은 후에 그것을 사용하는 목적이 사회와 국가를 위하자는 데 있었다는 점에서 홍익인간이나 수기치인은 피차 다를 바가 없다.²⁴¹⁾

동양의 유교 사상의 핵심인 수기치인(修己治人)과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이자 교육이념인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절묘한 조화, 바로 이것이 백낙준이 열망하던 교육을 통한 국가 쇄신의 정신이자 목표였다. 풀어 말하면, 자기 자신의 수양에 힘쓰고 이를 바탕으로 남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수기치인의 교육, 그리고 배움을 통하여 나를 연마하여 결국 남의 이로움을 위하여 쓸 수 있는 홍익인간의 교육, 이 둘의 오묘한 조화를 이 땅에서 이루어낼 때 진정한 구국쇄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교육철학이자 신념이었던 것이다.

한편 교육자이자 행정가였던 백낙준은 수기치인에 잇댄 홍익인간의 교육관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근대의 민주적인 교육의 틀을 사용하고자 애썼다. 그는 교육의 장인 학교에 있어서 민주적인 교육을 가장 으뜸가는 교육의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민주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학교 행정과 교육 제도가 민주적이어야 한다. 학교라는 사회의 행정의 원칙과 주위에 서리고 있는 분위기가 민주적이어야만 학생들에게 또한 직원과 학생 사이에 민주주의적 실천이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가르치면서 학교의 행정이나 모든 분위기가 이에 반한다면 민주주의는 바랄 수 없다.”²⁴²⁾ 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는 당연한 말일지 모르나, 당시 광복 이후 격변하는 한국의 정치적 흐름 속에서 교육행정가로서 민주주의적 틀을 학교 교육의 틀로서 마련하여 실행하고자한 것은 매우 독보적인 노력이 아닐 수 없다. 특별히 근대식 최초의 사립대학인 연세대학교가 관료주의적, 권위주의적 교육의 틀이 아닌 민주적인 교육의 틀을 초기부터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학교 창립의 선각자들이 민주주의적 교육의 틀을 몸으로 익힌 서구의 선교사들이었다는 근본적인 이유도 크나, 이와 함께 연세대학교의 초대 총장인 백낙준과 같은 시대적 통찰력을 가진 한국의 교육행정가들의 공헌이 있었기에 분명 가능하였다.

학교 중에서 그가 몸담고 발전시킨 학교는 물론 대학이며, 구체적으로는 연세대학교이다. 대학 교육의 이념과 그 기능에 대하여 교육행정가로서의 백낙준은 카알 야스퍼스(Karl Jaspers)의 입장을 택하였다. 야스퍼스의 교육적 입장은 가르침, 연구, 봉사의 세 가지 요소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올바르게 실

현될 때 대학 생활은 자유로울 수 있고, 이상적일 수 있으며, 품격 있는 인성을 기를 수 있고, 결국에는 참된 시대의 리더를 양성할 수 있게 된다고 그는 제시하였다.²⁴³⁾ 연세대학교 교육의 틀이 이 세 요소의 적절한 조화와 발전을 추구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이유 또한, 그 교육의 틀을 마련하는 출발점에 백낙준과 같은 통찰력 있는 연세의 초기 교육행정가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백낙준의 교육사상에서 돋보이는 또 하나의 통찰은, 그가 교육의 과정을 ‘인격’의 수양으로 보았다는 점이다. 학생들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신체는 도구는 될지언정 명령기관은 되지 못한다. 우리 신체의 명령을 듣는 때는 안일과 쾌감을 요하게 되고 그 요청을 만족케 하려면 신체적 쾌감이 오게 되는 것이다. 이 신체는 우리 두뇌에서 나오는 이성적 판단에서 생기는 명령을 받아야만 된다. 우리 사람의 생활에서는 이성의 명령과 신체 명령이 서로 충돌되는 때를 발견하게 된다. 한걸음 더 나가서는 우리 이성도 양심의 명령을 받아야만 하나. 양심이 올바른 명령을 발(發)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언제나 그 양심을 밝히고 언제나 그 동기를 깨끗이 가져야만 될 것이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인격의 수양이다.²⁴⁴⁾

앞서 수기치인적 홍인인간의 교육에서 드러났듯이, 그의 교육관은 인간의 자기 수양과 자기 성찰이 밑거름이 되어 타인과 사회를 향하여 뻗어나가는 나사선식 교육관이다. 스스로를 다스려 남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력이 사회와 전 인류에게 지대한 힘을 끼칠 수 있는 수기치인적 홍익인간의 교육의 전 과정은, 한마디로 ‘전인격적 수양의 교육 과정’이다. 따라서 민주적인 교육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가르침과 배움, 연구와 조사, 봉사 활동을 통하여 얻어지는 대학 교육의 최종 결과물은 고귀한 인격의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된다. 마치 연못에 작은 돌이 떨어져 넓은 파장을 일으키듯, 한 사람의 올바른 인격의 수양이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함께 고귀한 인격체를 이루게 되며, 결국에는 전인격적 사회가 조



그림 25 청송대: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본관부터 총장공관까지 뻗어 있는 숲으로, 백낙준 박사가 이름을 지었다. 들을 '청(聽)'에 소나무 '송(松)' 자로서, 바람에 흔들리는 소나무 소리를 듣는다는 의미이다.

성되는 교육, 그것이야말로 그가 지향하던 인격수양의 교육이자 대학교육의 목표였다.

한편 가르침, 연구, 봉사의 세 가지 교육 요소 중 특별히 전인격적 수양의 교육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그에게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봉사'였다. 미국 파크대학에서의 공부를 마치면서 그는 “공부하는 목적과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의 할 일은 봉사하는 것임을 깨닫고 자아실현의 길은 봉사를 통해 가능하다는 자신의 사상의 기초를 확립했다고 술회하였다... 이러한 봉사는 자아의 실현과 자아의 발전뿐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봉사 자체가 봉사의 보답이다. 따라서 봉사하는 사람치고 불행한 사람이 없으며, 사람은 봉사의 범위에 따라 사회적 신분이 좌우되기도 한다고 역설하였다.”²⁴⁵⁾ 결국 배워서 남 주는 사람, 자신을 수양하는 목적이 남의 수양에 있는 사람, 배움의 종착역이 널리 인류를 이롭게 하는 데에 있는 사람, 즉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봉사하는 사람'이 그가 추구하는 수기치인적 흥인인간의 교육과정인 낱은 고귀한 인격자의 생활 모습인 것이다. 실제로 백낙준은 발로 뛰며 봉사하는 교육행정가였다. 교육자로서의 그를 교육행정가로 부르는 이유는, 물론 그가 뛰어난 행정가적 자질이 있었기 때문인 것도 있으나, 이와 함께 배운 것을 남과 나누고 그 나눔을 교육의 실체인 대학 속에서 실제로 이루고자했던 그의 근본적인 봉사 정신에서 비롯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기독교: ‘영혼의 닻’

백낙준의 삶의 근원적 바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독교이다. 기독교는 그의 삶의 기초에 굳게 자리 잡고 있는 ‘영혼의 닻’이었다. 급변하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영혼의 닻을 그는 기독교의 믿음에서 찾았다. 1972년 3월 연세대학교 경영·행정·산업 대학원 채플 설교를 통하여 그는 이렇게 말한다.

변천하는 시대에 지식의 변천으로 인간의 능력이 향상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이 향상되었다 해서 인간성이 향상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성을 향상시키려면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닻이 있어야 합니다. 굳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드러나고 인간성이 향상되어야만 물질 문명의 변천이 가져다 준 인간의 향상된 능력을 옳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혼의 닻, 믿음을 굳게 붙잡고 바로 서서 세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²⁴⁶⁾

영혼의 닻이란 그의 삶을 붙들어주는 그의 종교적 신념이었으며, 세상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올곧게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그의 기독교적 신앙이었다. 이러한 영혼의 닻이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 깊이 내리워져 있었기에, 혼돈의 시대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 백낙준을 떠올릴 때 회자되는 많은 호칭들, 곧 교육자, 학자, 행정가, 정치인, 목사라는 호칭들, 그리고 그러한 호칭들에 걸 맞는 훌륭한 업적들을 이루어낸 그의 삶을 조명해 보면서, 어떻게 한 명의 사람이 그 많은 역할을 제대로 다 감당할 수 있었는지 묻는다면, 그 대답 역시 그의 삶의 근저에 깊이 드리워져 있었던 굳건한 영혼의 닻, 곧 기독교적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기독교와 백낙준과의 연결점은 기본적으로 그의 성실한 인품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어린 시절, 하루는 미국 선교사가 당시 소년이었던 백낙준에게 뒤뜰에

가서 장작을 좀 패라고 하고는 시골 교회 순회를 위하여 외출하였다. 선교사가 밤 열시가 다되어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뒤뜰에서 장작 패는 소리가 들렸다. 어쩐 일인가 싶어서 뒤뜰에 들어서보니 소년 낙준이 어둠 속에서 장작을 패고 있던 것이 아닌가. 선교사가 “왜 여태 장작을 패고 있느냐”고 물으니 낙준이 대답하기를 “장작을 패라고 하셨지 언제까지라고는 하지 않으셨기에 돌아오실 때까지 패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 말에 깊은 감동을 받은 선교사는 그의 손을 잡고 “너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다. 너를 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한다.²⁴⁷⁾ 이 일화는 그와 기독교가 어떻게 만나 서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즉 그의 성실한 인품과 이를 알아보는 기독교 선교사가 서로 만나고 있는 장면이다. 이처럼 정직하고 성실한 그의 인품이 있었기에 신실한 기독교의 신앙은 그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었다. 그의 성실한 인품이 넓고 푸르른 바다와 같았기에 기독교라는 신실한 영혼의 닻은 그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깊이 드리워질 수 있었던 것이다.

성실한 인품에 접목되어 영글어진 백낙준의 기독교 신앙은, 당시 혼란한 사회 속에서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기 이전에 한명의 기독교인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더욱 중요하다는 그의 신념이 되었다. 그와의 대답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얼마 전에 젊은 청년들을 만나서, ‘너희가 부정 부패를 규탄하듯이 너희 자신이 부정 부패를 하지 않고 살도록 노력하라’고 한 일이 있음[습]니다. 문제는 개인이나 교회가 자기 자신이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²⁴⁸⁾ 언뜻 보기에 이 말은, 사회를 향해 정의를 외치며 활발히 활동한 정치가요 교육행정가로서의 백낙준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사회문제에 대하여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말로 들린다. 그러나 그의 성실한 기본 인품의 바다 위에 드리워진 영혼의 닻으로서의 기독교 신앙을 조명해 보면, 사회 정의를 외치고 나아가기 이전에 스스로의 신념을 점검하고 이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며 우선이 되어야한다는 그의 깊은 의중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가 한국의 교육 이념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수기치인(修己治人)을 강조한 것 또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한 명의 올바른 기독교인이 되어야한다는 이

러한 그의 신앙관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백낙준의 인품과 기독교 신앙의 조화로운 연결을 볼 때, 그가 연세대학교의 초대 총장으로서 ‘진리와 자유’(요한복음 8장 32절)의 기독교 정신을 연세의 정신으로 삼았던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일이었으리라 여겨진다. 그의 성실한 인품과 기독교적 신앙의 어우러짐이 자연스러웠던 것처럼, 연세와 진리·자유 의 기독교적 가치와의 만남은 지극히 자연스러웠다. 그의 성실한 인품의 바탕위에 신실한 기독교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깃들어 영혼의 닦으로 깊이 드리워졌던 것처럼, 선교사들의 성실한 헌신의 삶을 통해 세워진 한국 최초의 사립대학의 근저에 신실한 기독교적 가치(진리와 자유)가 자연스럽게 깃들어 연세의 정신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기독교적 연세 정신의 자리매김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으로서 백낙준의 신실한 기독교적 삶이 있었던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연세의 학풍을 논함에 있어서 진리와 자유의 기독교적 가치가 빠질 수 없는 이유는, 단지 그 가치가 본 대학의 창학 정신으로 정해졌기에 연결 지워야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연세의 출발점에서부터 연세와 함께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그 근저에 깊이 드리워진 ‘학풍의 닦’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백낙준의 호(號)가 만들어진 배경 또한 그와 기독교와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보여준다. 그의 호인 ‘용재(庸齋)’의 뜻은 ‘바꾸지 않는다,’ ‘실용적이다,’ ‘응용해서 쓰인다,’ ‘용렬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한다. 그는 이 호를 쓰면서 일평생 그 의미대로 살고자 노력하였다. 그런데 이 호가 만들어진 때는, 그가 영국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천진의 신학서원에서 공부하고 있을 당시였다. 앞서 그의 생애에서 살펴본 대로, 그가 신성중학교를 다니던 시절인 1911년에 ‘105인 사건’으로 이 학교의 교원과 학생들이 다수 체포되었으며, 그 또한 검거를 피해 다니다가 1913년에 겨우 졸업을 하게 되었고, 졸업 후 중국으로 망명하여 영국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천진의 신학서원에 입학하여 영어와 성경, 그리고 동양의 고전을 익혔다. 이때 그는 실학자 정약용의 저서에서 얻어낸 ‘용재(庸齋)’라는 호를 쓰게 된다.²⁴⁹⁾ 영국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신학서원에 입학하여 동서양 학문을 연마하던 한국 소년이

사용하게 된 호, 용재. 말하자면 서양 기독교적 배경 속에서 설립된 동양에 위치한 신학교에서, 서양의 학문들과 함께 동양의 고전을 두루 익히다가 발견하여 사용하게 된 호 용재는, 그의 성실한 한국인으로서의 인품과 신실한 기독교의 정신이 자연스럽게 만나 독특한 학문적 배경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 탄생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 굳이 틀렸다는 말을 덧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용재라는 아호의 뜻을 해석해내듯, 그의 삶은 변덕스럽지 않고 심지가 굳은 그의 인품과 실용적으로 열심을 내어 무엇인가 이루어내는 합리적 추진성을 겸비하였다. 이런 점에서 그의 호인 용재(庸齋)는 동양의 인격적 바탕 위에 서양의 기독교적 신앙이 조화를 이루어 열매를 맺는 백낙준의 삶 전체를 대변해주고 있는 듯하다.²⁵⁰⁾

이처럼 그의 인품과 기독교가 만나 조화롭게 맺은 열매는 더욱 풍성해져서, 신학서원에서의 수학을 마치고난 후 미국으로 건너가서 파크대학에서 역사학 학사 학위, 프린스턴신학교에서 문학 석사학위를 받고 1927년에는 예일대학에서 ‘한국개신교사’를 연구하여 ‘한국인 제1호의 박사학위’를 받았다. 특히 그의 최종 박사학위 논문이 보여주듯, 그가 서양의 역사적 방법론을 통하여 동양의 역사를 조망하되 그 내용을 한국의 기독교 역사로 잡았다는 사실은, 이러한 조화로운 결실,



그림 26 연세대학교 명예 총장 시절 그의 직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중앙도서관 5층 국학자료실 내 용재문고)

곧 그의 성실한 한국적 인품과 그의 신실한 기독교적 신앙이 어우러져 자연스럽게 이루어낸 학문적 결과였다. 오랜 시간 그의 삶 속에서 영어어린 학문적 성취에 대하여 당시 지도교수였던 라토렛이 말하였던, “당신과 같은 제자를 둔 것이 내겐 영광이다”라는 칭찬은, 성실한 인품과 기독교 신앙을 조화롭게 잘 겸비한 동양 학생을 제자로 둔 서양의 학자에게서 당연히 나왔을 법한 칭찬이 아닐 수 없다.²⁵¹⁾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백낙준은 미국에서 세례를 받아 공식적으로 기독교인이 되었으며, 예일대학을 졸업한 직후 미국 캔사스시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된다. 이런 과정을 살펴보면, 그에게 붙은 많은 칭호들, 곧 교육자, 학자, 행정가, 정치인, 목사 중 그의 삶의 기본 바탕을 이루어준 칭호는 목사가 아니었을까 짐작해본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에 임함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그 많은 다양한 직무들을 성실히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그의 삶의 근저에는, 그의 고백처럼 분명 ‘영혼의 닻’인 기독교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어느 직위에 있든지 이러한 신앙을 담대히 밝히면서 이를 각각의 직무에 적절한 방식으로 발현하려 노력했던 그의 모습은, 목사로서의 그의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던 것이라 보여 진다.

특히 백낙준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은 한국인으로서의 기독교인이 되는 것에 있었다. 미국에서 서양의 학문적 방법론으로 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기독교인으로 세례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았으나, 그 모든 과정의 바탕에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우선적이었기에, 그는 그가 한국인으로서의 기독교인, 한국인으로서의 목사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는,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유대 민족이 되었다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한국인이다. 한국인으로서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것이며, 하나님이나 예수의 가르치심은 우리가 국적이 없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도 아니다. 한국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아무런 모순되는 점이 없다.”²⁵²⁾라고 분명히 말하였다. 말하자면, 그의 삶과 사상의 바탕이 되는 기독교 신앙, 곧 영혼의 닻이 모습을 갖추고 만들어진 항구는 비록 미국이었으나, 그 영혼의 닻이 완성되어 실제로 내려질 그의 인생의 바다는 처음부터 한국이었고 결국 한국어어야만 했던 것이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이 단순히 개신교회사 연구가 아니라 한국개신교회사 연구였던 것은 이런 점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볼 수 있다.

한편 한국인 기독교인으로서 백낙준이 발견한 기독교의 힘이자 그가 한국에서 발현하고 싶은 기독교의 영향력이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자체적으로 지니고 있는 ‘사람을 새롭게 하는 힘’이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기독교 안에 들어 있음을 깨닫고 이를 직접 삶 속에서 경험하였기에, 그는 서슴없이 기독교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기독교의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다. 기독교를 믿게 되는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는 그의 회고는 다음과 같다.

나는 일찍이 소년 시절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보아 왔다. 이전에 게으르던 사람이 부지런하여지고, 거짓되게 살던 이가 참되어지고, 자기 밖에 모르던 이가 남을 생각하고 도와 주는 것을 보고 기독교를 통해 한 민족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여 기독교를 전파하느라고 하였다. 그래서 기독교가 처음 들어와 사람이 새로워지고, 오랜 역사를 가진 옛 나라가 새로운 나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을 기록하여 보았다... 내가 이 교육계에 들어서면서 사람을 새롭게 하는 힘이 기독교 안에 있으며, 이 기독교 신앙으로 우리 민족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믿었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다. 내가 전공을 택한 동기도, 나 이외에 나라와 민족이 있다는 생각에서, 나만의 발전뿐만 아니라 민족 모두가 새롭게 발전하여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역사를 택했고,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기운을 가져다준 초기 기독교의 활동을 연구한 것이다.²⁵³⁾

혼란한 시대 상황 속에서 한국 사회를 새롭게 하고자 갈망했던 그에게, 사람을 새롭게 하는 근원적 힘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라는 종교는 너무나도 매력적이었음이 분명하다. 기독교 신앙으로 한국 민족을 새롭게 하고픈 그의 열망이 그의 신념이자 신앙으로 자리 잡아 교육자로서, 정치가로서, 행정가로서, 목사로서의 다양한 직무를 통해 표출되었던 것이다.

백낙준과 연세학풍

백낙준은 연세대학교에서 가르치는 동안 동서고금을 꿰뚫어 이 둘을 자유자제로 연결시킬 수 있는 학풍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어린 시절부터 한자 공부와 중국 고전 연구에 열의를 다하던 그가 미국으로 유학의 길에 올라 영어와 서양의 학문적 방법론을 채택하여 집필한 그의 박사학위논문이자 주저인『한국개신교사』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동서고금을 함께 연결시키는 그의 학문성을 보여주는 첫 결과물이었다. 이 저서에는 한국의 역사라는 국학적 관심과 내용을 서양의 역사학적 방법론과 자료를 통하여 기독교 신학적으로 풀어낸, 지금으로 말하자면 학제간 융합이 이루어낸 산물이라 볼 수 있다. 고국에 돌아와 연세대학교에서 가르치는 동안, 그는 동서고금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수업에 임하여 학생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도전을 주었다. 이에 관련하여 “여기 일화 한 토막이 있다. 앞서 1923년부터 연희전문에서 제직하고 있던 정인보가 백낙준의 강의실에 들어가 뒤편에 앉아 있었다. 미국에서 갓 돌아온 한 젊은 동료의 학문 세계와 접근 방식에 대한 궁금증을 견디다 못해 마침내 그의 수업을 청강하고자 했던 것이다. 동양 고전을 막힘없이 끌어들이 성경을 풀이하는 품에 국학의 일인자인 정인보도



그림 27 총장취임식(1958년)

커다란 인상을 받았다. 이것을 계기로 두 석학은 의기상투하였다. 우리의 역사 전통과 문화유산을 논구하여 계승하자는 국학 연구가 다른 곳이 아닌 연희 동산에서 꽃필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 두 학자가 만나 교분을 나눴기 때문이었다.”²⁵⁴ 이런 점에서 볼 때, 그의 학풍의 첫 번째 특성은 ‘통섭과 융합’의 학풍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동양과 서양의 고전들을 자유자재로 연결시키는 그의 교수 방식, 그리고 그의 주저가 보여주듯 국학, 역사학, 신학이라는 다양한 학제간 연결은, 그가 통섭과 융합의 학풍을 지녔으며 이를 그의 연구와 대학 교육에서 실행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직접적인 증거이다.

백낙준이 지니고 추구한 통섭과 융합의 학풍은 학자로서뿐 아니라 행정가로서의 그의 모습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1945년 12월부터 1946년 8월까지 연희전문학교 6대 교장으로, 1946년 8월부터 1957년 1월까지 연희대학교 1대 총장으로, 1957년 3월부터 1960년 7월까지 연세대학교 1대 총장으로, 장장 15년간 전문적인 교육행정가로서 연세에서 이룩해낸 그의 많은 업적 가운데서 가장 독보적인 것은 아마도 1957년 1월 5일,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 의과대학을 통합하여 연세대학교(延世大學敎, Yonsei University)를 설립한 업적일 것이다. 실로 제2의 창학으로 명명되는 연희와 세브란스의 통합은, 1885년 제중원 설립으로부터 시작하여 세브란스 병원과 연희전문출범으로 이어지는 제1의 창학과, 최근 2010년 인천 송도 국제캠퍼스의 개교를 계기로 시작되는 제3의 창학을 이어주는 굳건한 대교(大橋)였다. 이 대교를 이루어내기 위하여 백방으로 뛰어다니 교육행정가 백낙준의 수고와 노력은 굳이 설명을 달지 않아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통합의 업적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 그의 뛰어난 교육행정가적 자질과 능력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앞서 설명한 그의 통섭과 융합의 학풍, 곧 그의 동서양을 아우르는 통섭의 학문성과 학제 간 연결을 꾀하는 융합의 교육관이 그의 전 인생을 통하여 차곡차곡 쌓이고 증대되어 큰 거름으로써 뒷받침해주지 않았다면, 아무리 행정적 자질과 능력이 뛰어난 그라 할 지라도 제2의 창학이라 일컬어지는 연희와 세브란스의 통합의 역사를 쉽사리 쓰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연희와 세브란스의 통합, 바로 백낙준과 그와 함께 통섭과

융합의 학풍에 마음을 실은 유능한 연세 교육행정가들이 이루어낸, 눈으로도 보여지는 역사적인 증거이다.

백낙준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두 번째 학풍은 ‘전인격적’ 학풍이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그의 교육철학이자 교육의 목표는 인격적으로 수양된 사람을 기르는 것이었다. 백낙준 박사는 전인 교육을 인격 도야로 보았으며, 바로 이 인격도야는 연세 교육의 중점임을 강조하였다. 그를 통하여 인격도야를 통한 전인 교육의 방법으로서 “옛날의 육예(六藝) 곧, 지·덕·체의 셋으로 이루어졌던 전인교육의 정신과 비슷하게 통재 교육(인간과 사상·사회·우주), 어학 교육, 종교 교육 및 체육의 4종으로 구성된 교양 교육(general education)이 채택되었던 것이다.”²⁵⁵⁾ 또한 앞서 강조해온 인격 수양을 목표로 한 수기치인적 홍익인간의 교육관은 실로 그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문교부장관으로서 한국 교육을 향하여 제시한 호소어린 교육관이었으며, 구체적으로 연세에 몸담으면서 항상 거울로 삼아 비추어보며 추진해왔던 피땀 어린 교육철학이었다.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고 지식만 습득된 머리 좋은 대학생,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 정립되지 않고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기독교 청년, 바로 그가 가장 꾸짖고 경계하던 기독교인 대학生の 모습이였다.

제2의 창학기에 그를 통해 제시되고 추진된 전인격적 학풍은 제3의 창학기를 선포한 현재 연세대학교에서도 계속해서 제시되며 추진되고 있다. 연세 제3의 창학의 핵심 내용은 송도 국제캠퍼스의 Residential College (RC) 교육이다. 신입생 전체 기숙사 생활을 통한 RC 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제3의 창학을 선포한 21세기의 연세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표방하는 것은 바로 ‘전인교육’이다. 배움과 삶이 함께 어우러져 이루어지는 연세 RC 전인교육은 엄밀히 말하면 제3의 창학을 선포하기 위하여 독창적으로 제시된 아이디어는 아니었다. 제2의 창학을 시작하며 연세대학교의 1대 총장 백낙준이 교육행정가로서 그의 삶 전체를 통하여 심고 물주던 전인격적인 학풍의 씨앗이, 그 후 50여년의 세월 속에서 자라고 열매를 맺어 제3의 창학기에 접어들어 새로운 RC 교육을 통하여 수확하게 된 역사적 결실인 것이다.

셋째로 백낙준을 통해 드러나는 학풍은 ‘세계 지향적’ 학풍이다. 일제 치하를



그림 28 용재상: 초대 총장인 백낙준 박사의 학덕을 기리고 발전시키고자 그의 호를 따서 1995년 백낙준 박사 탄생 백주년을 맞아 제정되었다(사진은 2007년 루스체플에서 열린 제13회 용재상 시상식에서 수상한 연변대학 김병민 총장의 모습)

경험하면서도,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도, 분명 그는 무너진 자국의 회복에만 머무르지 않고 회복 이후에 이루어질 한국의 세계적 성장을 바라보았다. 그에게 있어서 국가 재건의 방책으로 삼은 내용이 교육에 있었기에, 그는 교육을 통하여 국가 재건을 이룩하려고 노력하였는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시대적으로 암울한 상황 속에서 그가 교육을 통하여 제시한 국가 재건의 목표가, 무너진 국내 교육의 쇠신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국제적 수준의 교육의 확립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그가 국사와 국학 연구에 대하여 강조한 이유이자 최종 목표 또한, 그저 일제 치하에서 사라져가는 국사와 국학의 보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제 치하가 끝난 이후에 펼쳐질 국사와 국학 연구의 국제적 수준의 역량 강화에까지 미쳐 있었던 것이라 여겨진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송도 국제캠퍼스를 통하여 제3의 창학을 선포하는 최근 연세의 교육이 여실히 국제적일 수 있는 근원적인 힘 또한, 핏박 속에서 국학을 수호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세계 수준의 국학을 희망하며 꿈꾸던 백낙준과 같은 연세인이 있었기에 생겨났다고 말한다 해서 굳이 그렇지 않다고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그는 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홍익인간의 이념의 최종 목적이 “개인의 이익보다 남을 위한 생활을 확장하여 궁극에는 세계 문화에 공헌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그의 교육적 이상은 세계 평화라고 하는 인류의 이상으로 귀결된다.”²⁵⁶⁾ ‘연세는 연세인의 연세요, 연세는 한국의 연세요, 연세는 세계의 연세’라고 역설한 그의 외침이 보여주듯,

연세의 교육행정가로서 그가 제시한 최종 목표는 분명 세계 수준의 대학 설립에 있었던 것이다.

넷째로 백낙준을 통하여 나타나는 학풍은 ‘봉사’의 학풍이다. 특별히 봉사의 학풍은 그의 기독교 신앙에서 우러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경에 나오듯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다”(마태복음 10:45)는 예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여, 그는 “봉사를 자발적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리고 상대의 처지를 나의 처지로 생각하는 동정심에서 남을 위하여 행하는 利他行爲라고 정의하였다.”²⁵⁷⁾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봉사는 그가 꿈꾸던 세계적 수준의 교육보다도 먼저였던 것 같다. 허호의 교수는 백낙준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백낙준은 한 때 미국의 우수한 대학에서 총장으로 초빙한 적이 있었는데, 주위에서는 한국인으로서는 큰 영예라고 초빙에 응하도록 권하였지만 ‘세계적인 대학의 총장이 되는 것보다 연세대학교를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하여 사양하였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 연세를 섬기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섬긴다는 믿음으로 사신 분이셨다.”²⁵⁸⁾ 이 말은 언뜻 들으면 세계적 수준의 학풍을 지닌 연세를 향한 꿈을 표출하려는 말처럼 들린다. 하지만 세계를 향한 연세를 만들고자 하는 꿈을 그가 굳 근본 이유이자 목적이 세계를 섬기며 봉사하는 데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 말씀의 궁극적 의도가 세계적 수준의 대학이 되는 연세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적 수준이 되어 결국 세계를 섬기며 봉사하는 연세가 되는 것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로 백낙준을 통해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학풍은 ‘진리와 자유’의 학풍이다. 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을 바탕으로 한 연세의 두 가지 주제어인 진리와 자유가 연세대학교의 건학정신이자 연세의 이념인 것은 연세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또한 진리와 자유를 연세의 정신으로 정한 연세인이 백낙준이라는 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는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 취임사에서부터 진리와 자유의 기독교 정신이 연세정신이어야 함을 분명히 밝혔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진리를 알 것이요 眞理가 너희를 自由롭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교가 새로 출발함에 있어서 모든 人的 資源과 모든 物的

施設을 기울여 이 眞理와 自由의 精神的 價値을 얻기 위하여는 道義의 터전 위에서 이 學校를 운영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²⁵⁹ 더 나아가 백낙준이 작사하여 지금도 교가와 같이 불려지는 ‘연세의 노래’를 불러 보면, 그가 진리와 자유의 연세 학풍을 얼마나 갈망하고 사랑했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다.

관악산 바라보며 무악에 둘러, 유유히 굽이치는 한강을 안고, 푸르고 맑은 정기 하늘까지 뻗치는, 연세 숲에 우뚝 솟은 학문의 전당. 아, 우리들 불멸의, 우리들 영원한 진리의 궁전이다. 자유의 봉화대다. 다함없는 진리의 샘 여기서 솟고, 불멸의, 자유의 불 여기서 탄다. 우리들은 자랑스런 연세의 아들 딸. 슬기, 덕성, 역센 몸과 의지로, 열성, 진실, 몸과 맘을 기울여, 연세에 맡겨어진 하늘의 사명, 승리와 영광으로 길이 다한다. 찬란한 우리 이상, 밝은 누릴 이룬다.²⁶⁰

그가 연세대학교의 초대 총장으로서 진리와 자유의 학교 이념과 정신을 처음부터 굳건히 다졌기에, 지금까지도 그 이념과 정신에 입각하여 “연세대학교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진리와 자유의 정신에 따라 사회에 이바지할 지도자를 기르는 배움터이다”²⁶¹라는 정의가 공식적인 연세대학교의 정의로서 내려질 수 있는 것이다.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은 백낙준의 생애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인간 백낙준, 그는 주체적 한국인이면서 아울러 자유로운 세계인이었으며 또한 헌신적인 기독교인이었다. 한국인으로서의 용재는 자립심이 강하고 부지런하며 독립정신이 투철한 애국자였다. 세계인으로서의 용재는 거침없는 천의무봉의 폭넓은 인품의 소유자로서 동서고금의 학문 전적을 섭렵하여 막힘이 없는 현인이었고 자유인이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용재는 교파나 교회에 대해서보다는 세계와 인류에 봉사하는 기독교의 역사적 사명에 대해서 더욱 헌신적이었던 봉사와 화해의 실천가였다.”²⁶² 이러한 요약이 지나친 칭찬이 아니리만큼 백낙준은 분명 당시 어지러운 시대적 상황을 뚫고, 성실한 인품과 신실한 기독교 신앙의 바탕 위에서 국학의 진

흥과 한국 교육계의 발전과 대학의 세계적 수준의 도약을 이루기 위해 온몸과 마음을 다하였던, 시대가 낳은 교육자요, 학자요, 행정가요, 정치인이요, 목사였다. 특별히 연희전문학교 교장, 연희대학교 초대 총장, 그리고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내며 쌓아올린 연세를 위한 그의 노력은, ‘진리와 자유’를 연세의 정신으로 정한 그의 업적, 그리고 연희와 세브란스를 통합하여 연세대학교를 설립함으로써 제2의 창학을 시작한 그의 공적과 함께 지금도 연세의 캠퍼스 곳곳에, 그리고 많은 연세인들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이제껏 백낙준의 생애와 학문과 기독교 신앙을 깊이 조명해본 후 발견된 학풍을 살펴보면, 그 학풍이 단지 동서고금을 꿰뚫은 유능한 학자요 수기치인적 흥익 인간을 표방한 훌륭한 교육자로서의 백낙준 개인이 추구하고 이룩해낸 학풍이었던 것만이 아니라, 뛰어난 교육행정가였던 백낙준과 뜻을 함께한 많은 연세의 동료들이 힘을 합하여 추구하고 이루어낸 대학의 학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시 말해보면, 그의 삶을 통하여 이제껏 발굴된 다섯 가지의 학풍, 곧 통섭과 융합의 학풍, 전인격적 학풍, 세계 지향적 학풍, 봉사의 학풍, 진리와 자유의 학풍은, 단순히 훌륭한 인물 백낙준 개인이 쌓아올린 학풍이었던 것만이 아니라, 당시 어지러운 세상의 풍파 속에서 진리와 자유의 기독교 정신을 창학 정신으로 삼고 백낙준과 함께 울고 웃으며 온 정성을 기울여 제2의 창학을 시작한 수많은 연세인들이 함께 이루어낸 연세의 학풍이었다는 것이다. 그 연세 학풍의 시작에, 중심에, 전 과정에 백낙준이 있었던 것은 연세에게 있어서는 행운이었음이 분명하며, 그에게 있어서도 기쁨이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용재 백낙준, 실로 연세 학풍의 정수(精髓)이다.

- 1895. 3. 9. 평안북도 정주군 관주면 관삽동에서 출생
- 1910. 9.~1913. 6. 평안북도 선천 신성중학교 졸업
- 1913. 7.~1916. 6. 중화민국 하북성 천진 신학서원에서 수학
- 1918. 9.~1922. 6. 미국 미조리주 파크대학 졸업
- 1922. 9.~1925. 9.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졸업
- 1923. 9.~1925. 6. 미국 프린스턴대학 대학원 졸업
- 1925. 9.~1927. 6. 미국 예일대학 대학원 졸업
- 1927. 7.21. 미국 캔사스시 노회에서 목사 안수 받음
- 1927. 9.~1938. 9. 연희보명학교장, 연희전문학교 교수, 문과 과장
- 1929. [조선말 큰사전] 편찬 발기인 및 준비위원
- 1930.~1931. 대한 예수장로회 경기노회 소속 대학교회 당회장
- 1932.~1937. 조선기독교연합공의회 이사 및 실행위원
- 1934. 5. 진단학회 발기인, 조선민족학회 발기인
- 1935. 5.~1983. 2. 재단법인 세브란스 연합의학 전문학교 이사
- 1938. 1.~1939. 6. 미국 파크대학 초빙교수
- 1943. 조선어학회 사건증인으로 흥원 유치장에서 취조 받음
- 1945. 미 군정하 연희전문학교 접수위원
- 1945. 1.~1948. 미 군정청 문교부 교육심의회 교육심의위원
- 1945. 9.~1945.12. 경성대학 법문학부장
- 1946. 1.~1946.10. 연희전문학교 교장
- 1946. 3.~1985. 1. 조선어학회 회원 및 명예이사
- 1946. 8.~1957. 1. 재단법인 연희대학교 이사장
- 1946.10.~1957. 1. 연희대학교 초대 총장
- 1948. 대한민국 교육법 심의위원 및 기초의원, '동방학연구소' 설립 초대 소장, 하바드 연경학사 재정지원 국교 총감 사업수행
- 1948. 5. 미국 파이크대학에서 명예 신학박사학위 받음
- 1948.10.~1961. 5. 재단법인 대한소년단 총재
- 1950. 5.~1952.10. 국무위원, 문교부장관
- 1950. 7.~1952. 6. 서울로타리클럽 회장

- 1952.~1954. 한국교육문화협회 창립, 초대회장
- 1952.11. 유네스코 제7차 총회 한국대표
- 1953.7.~1955.6. 세계 대학봉사회 한국위원회 설립, 초대 위원장
- 1953.12.~1956.10. 대한YMCA 연합회 이사장
- 1954.1.~1960.7. UNESCO 한국 위원회 위원
- 1954.6. 미국 스프링필드대학에서 명예 문학박사 학위 받음
- 1954.10.~1957.1. 재단법인 세브란스 의과대학 이사장
- 1954.11. UNESCO 제8차 총회 한국수석대표
- 1955.6.~1962.11. 재단법인 세계 대학봉사회 한국 이사회 이사장
- 1955.8.~1956.9. 한국문교서적 주식회사 사장
- 1955.9. 아세아 반공대회 제1차 총회 한국수석대표
- 1956.6.~1958.9. 사회과학연구도서관 초대 이사장
- 1956.8.~1958.5. 대한교육연합 회장
- 1956.10. 한국행정학회 창립, 초대 회장
- 1957.1.~1960.5. 재단법인 연세대학교 이사장
- 1957.7. 미국 대포오대학에서 명예 법학박사 학위 받음
- 1958.4. 아세아 반공대회 제4차 총회 한국수석대표
- 1958.9.~1961.5. 재단법인 한국연구도서관 초대 이사장
- 1959.6. 아세아 반공대회 제5차 총회 의장
- 1960.3.~1962.12. 사단법인 정신건강협회 초대 회장
- 1960.8.~1961.5. 대한민국 초대 참의원 의원, 참의원 의장
- 1960.10. 대한민국 제2공화국 신정부 수립 경축위원회 위원장
- 1961.5.~1985.1. 연세대학교 명예총장
- 1962.12.14. 뉴욕대학에서 세계적 인물에게 수여하는 학교장 받음
- 1965.~1980. 한국교회사학회 창립, 초대회장
- 1965.5. 연세대학교에서 명예 문학박사 학위 받음
- 1969.~1985.1. 국토통일원 고문
- 1970.8.15. 대한민국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
- 1971.10.~1974.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안 추진위원회 위원장
- 1972.~1974. 도산 안창호 선생 기념사업회 회장
- 1972.8. 제6차 세계반공연맹 세계대회 한국대표

1974. 3.~1985. 1. 재단법인 외솔회 이사장
1979. 3.19. 제7회 인종문화상 수상
1981.~1985. 1. 애산학회 이사장
1982. 1.~1985. 1.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회 명예총재
1983. 2.~1985. 1. 학술원 원로회원
1985. 1.13.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별세
1985. 1.17. 대한민국 사회장. 국립묘지 국가유공자 묘역에 안장

연세의 개척자들과
연세학풍

V

신념과 양심의 대변자 박대선²⁶³⁾

박노훈_연세대 교수(신약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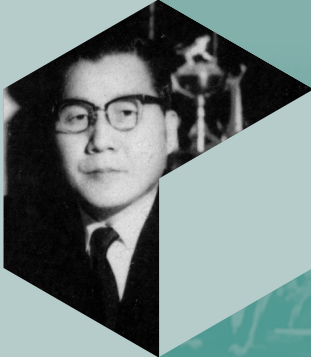




그림 29 박대선 총장

‘진리’와 ‘자유’의 기독교 정신을 건학이념으로 삼는 연세대학교의 학풍은 지난 130년 동안 대학의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한 공동의 산물이다. 그들 가운데 박대선은 연세대학교의 제2창학기를 대표하는 분이다.²⁶⁴⁾ 그는 1964년 9월부터 1975년 4월까지 약 11년간 연세대학교의 4·5·6대 총장을 역임하였다. 비록 연세대학교에서 수학하거나 교편을 잡는 등의 인연은 없었지만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학원이 직면한 수많은 난관들을

능숙히 헤쳐 갔고 연세는 그를 통해 고유한 학풍을 중단 없이 발전시켜 갈 수 있었다.²⁶⁵⁾

연세의 고유한 학풍은 연세학원의 창립이념인 기독교 정신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연세대학교의 법인 정관 제1조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대학이 설립되었음을 명시한다.²⁶⁶⁾ 기독교 정신은 ‘동서 고근의

화충'과 '전문 교육'이라는 설립당시의 교육목표 속에서도 확인된다.

본교는 기독교주의 하(下)에 동서(東西) 고근(古近) 사상의 화충(和衷)으로 문학, 신학, 상업, 수학, 물리학, 화학에 관한 전문교육을 시(施)하여 종교적 정신의 발양(發揚)으로써 인격의 도야(陶冶)를 기(期)하며 인격도야로부터 돈실(敦實)한 학구적 성취를 도(圖)하되 학문의 정통(精通)에 반(伴)하여 실용(實用)능력을 겸비한 인재배출로써 교육 방침을 삼는다.²⁶⁷⁾

이 선언은 교육의 목표를 기독교 정신의 토대 위에 겨레와 인류, 옛 것과 새 것, 동양과 서양, 자신과 타인의 조화와 협력에 두었음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학문의 목적이 국가와 인류 사회 발전에 공헌할 지도적 인격도야에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대학의 실천적 사명을 분명히 하였다.²⁶⁸⁾ “연세인은 겨레와 인류의 문화유산을 이어 받고 비판력과 창의력을 길러서 학문의 발전을 이끌어 간다. 또한 정의감과 기백을 드높이고 열린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인류의

번영에 기여한다.”²⁶⁹⁾

박대선은 이러한 연세대학교의 정체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였고, 기독교 정신의 학풍을 더욱 든든히 세워갔다. 연세의 학풍은 그의 총장직 임명(任命)과 재임(在任) 속에서 나타나지만 놀랍게도 그의 사임(辭任)을 통해서도 잘 나타난다. 당시 유신 독재체제하에서 정부는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 무고히 해직을 당했던 교수들과 퇴학을 당한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러나 박대선 총장은 반(反)독재 시위에 가담한 학생들을 중징계하지 않았고, 심지어 교도소를 찾아가 일일이 학생들에게 영치금을 넣어 주기까지 하였다.²⁷⁰⁾ 나아가 문교부의 지침을 거부하고 김찬국 교수와 김동길 교수를 복직시켰고 15명의 학생들에게도 복교를 허락하였다.²⁷¹⁾ 이후 그 스스로 총장직에서 물러나기를 선택함으로 진리와 자유의 정신에 따른 연세의 건교정신과 학풍을 지키고자 하였다.

박대선 총장의 임명과 재임, 그리고 사임을 통해 우리는 연세대학교의 고유한 정신과 학풍을 재발견할 수 있다. 본 소고는 목사요, 교육가요, 행정가로서



연세대학교의 건교정신을 구현한 박대선 총장의 행적을 살펴보고, 그를 통해 지난 130년간 연세가 걸어온, 그리고 앞으로도 걸어갈 '오래된' 새 길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박대선의 생애와 연보

박대선은 1916년 4월 15일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쌍계동 산골에서 박상동(朴尙東)과 김순이(金順伊)의 9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어린 시절 집안에서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다. 그의 가문의 신앙적 뿌리가 되었던 증조부는 조선에 기독교가 들어온 1885년 기독교 신앙에 입신하였다. 이후 독실한 신앙을 지켜온 그의 가문은 대대로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그의 조부 박영화 목사는 1919년 3·1운동 당시 경북 지방의 만세 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옥고를 치렀고, 부친 박상동 목사 역시 대구 계성고보 2학년 재학 중 3·1운동에 참가하여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훗날 박상동 목사는 태평양 전쟁이 시작될 무렵 독립운동을 했다는 죄목으로 다시 체포되어, 또 다시 5년간의 모진 옥고를 치름으로 순교를 맞게 되었다.

유년기 박대선은 목사인 아버지를 따라 일본에 건너갔고, 일본에서 영문학을 공부하였다. 그가 영문학을 공부한 것은 후일 신학을 배우기 위한 준비였다.²⁷²⁾ 그는 일본 관서학원대학 영문과와 신학부를 마치고, 1940년 귀국하기까지 약 2년여간 일본 니시노미야(西宮)시의 한인 교회에서 담임 전도사로 시무하였다. 1942년 귀국한 그는 평양 창광산 감리교회, 중앙 감리교회, 서평양 감리교회 등에서 목회자로 활동하는 한편, 1945년부터 5년간 평양 성화신학교의 교감 및 교장대리로 재직하였다.²⁷³⁾

그런데 공산치하에 있었던 당시 평양의 상황은 불안하였고, 납치와 고문이 잇따르고 있었다. 많은 수의 사회 인사들이 중앙보위부에 의해 연행되어갔고, 아무도 그 뒤 소식을 모르는 일들이 반복되었다. 서평양 교회를 담임할 때, 그는 이미 세 번이나 감옥에 갔고 생명의 위협으로 10개월이나 은신해야 하기도 했다. 그의 주위에는 이미 적지 않은 이들이 그의 월남을 권유하고 있었다.²⁷⁴⁾ 그는 경상북도가 고향이었고, 그의 부모와 형제들이 모두 대구에서 살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교회의 교인들과 신학교의 학생들을 두고 남한으로 떠날 수 없다는 생각을 굳히고

있었다. 박대선은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술회한다.

나는 평양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 않은가. 목자가 양을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서울로 가면 되겠는가. 그것도 양 떼들을 사지에 남겨놓고 나 혼자만 떠난다면 나는 무엇인가. 나는 샅군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나는 또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은가. 그 학생들을 남겨놓고 나만 홀로 살겠다고 떠날 수 있는가. 여러 날 생각하고 기도한 끝에 죽어도 내 양들과 신학생들과 같이 죽어야지 하고 평양에 남아 있기로 결정하였다....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 마음에 평온을 얻을 수 있었다.²⁷⁵⁾

그는 교회를 지극히 사랑했고, 교회 또한 그를 지극히 따랐다. 그러던 그가 고향인 대구에 내려가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의 부친 박상동 목사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소식이 그에게 들려온 것이었다. 박상동 목사는 독립운동의 죄목으로 체포되어 5년간의 옥살이 끝에 병을 얻게 되었다. 박대선은 많은 고민 끝에 교회의 직원회의를 소집하여 교회의 허락을 구하고 단 일 개월만 고향에 다녀올 것과 반드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였다. 그의 약속은 죽음의 사선을 넘어 다시 돌아올 것을 의미하는, 당시로서는 순교를 각오한 다짐이었다.

여러분, 나를 믿어 주십시오.... 나는 내가 사랑하는 교우들을 실망시키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런 문제가 미묘한 것을 잘 압니다. 직원회의에 내놓지 않고 나 혼자 몰래 갔다가 돌아온 후에 알리려고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돌아올 것을 결심하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는 편을 택했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만 일개월간 고향에 다녀오겠습니다.²⁷⁶⁾

그리고 그의 말처럼, 그는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 그의 평양귀환은 훗날 교수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연세대학교 총장직을 내려놓는 결단과 더불어, 그가 한 평생 추구해온 기독교적 소명과 공적 책임감을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그림 30 학생회관 봉헌(1968년)

그러다 1950년 마침내 전쟁이 발발하고 교회와 신학교가 폐쇄되기에 이르자, 그는 1.4 후퇴를 기해 월남을 감행하였다. 남한으로 내려와 초대 군목으로 대구 육군본부에서 근무하던 그에게 뜻밖에도 미국 유학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미국 감리교 본부의 후원이었지만, 가족과 함께 떠날 형편은 되지 못하였다. 그는 1952년 가족을 두고 홀로 도미하여, 그로부터 3년 만인 1955년 10월 마침내 보스턴대학교에서 구약성서의 예언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고국에 돌아온 그는 감리교신학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던 중, 1964년 연세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되었고 1975년에 사임할 때까지 약 11년 동안 4·5·6대 총장을 역임하였다.

그가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학들은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그는 약 10여 년간 외국의 협력기관으로부터 1천만 불이 넘는 지원을 받아들였다.²⁷⁷⁾ 그를 통해 루스채플을 비롯해, 공학관, 간호대학 교실, 가정대학 교사, 음악대학 교사, 경영학 교실단, 종합관, 학생회관, 장기원기념

관, 영빈관, 알렌관, 여자 기숙사, 의과대학 학생 기숙사, 농업개발원(연세우유), 덕소 수양관 등을 신축하였고, 간호대학, 치과대학, 암센터, 의과대학 등 연세의료원의 시설을 확충해 교육과 연구, 그리고 인프라 영역에서 학원의 잠재역량을 크게 확대하였다. 또한 그의 재임 중,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치과대학, 행정대학원, 가정대학, 간호대학, 음악대학, 산업대학원을 승인하였다.²⁷⁸⁾

그러나 1960년대와 70년대의 대학기는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진원지로 부상하고 있었다. 그가 11년 총장으로 시무하는 동안, 단 1년만 제외하고는 늘 크고 작은 데모가 이어졌다. 데모가 끝나면 경찰에서 데려가 구속 수감을 하고, 총장인 그에게는 학생을 제적시키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그러나 그는 학생이 시험을 부정하게 치르거나 학생의 신분으로 부당한 일을 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데모로 인하여는 퇴학 제적 처분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오직 자신의 ‘양심에 의한 처벌’에 맡겼다.²⁷⁹⁾

그러나 1974년 전국 100개 대학에서 해방 후 최대의 데모가 일어났다. 그해 1월 8일에 내려진 긴급조치 1호로 인해 연세대학교 내에서도 의과대학생 7명이 군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4월에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과 관련 긴급조치 4호가 발령되어 더욱 많은 학생들과 교수들이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1974년 11월 21일 박대선은 마침내 연세대학교 총장 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문에서 구속된 학생들과 교수들을 대신해 “사상과 그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애국적인 방향에서 크게 확대되어야 함은 타당한 요구”라고 언명하고, “조속하고도 진정한 민주주의 구현을 바라는 것은 민족과 국가를 위한 애국적 호소임을 의심치 않는다”고 선언하였다.²⁸⁰⁾

당시 민청학련 사건으로 연세대학교에서는 김찬국 교수, 김동길 교수 두 사람과 학생 15명이 구속되어 10개월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하였다. 이듬해 봄에 석방된 그들에 대하여 정부는 복직시키거나 복교시켜서는 안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어길 시에는 엄중한 처벌을 한다는 경고도 함께 담고 있었다. 그러나 연세대학교는 교무위원회를 통해 석방된 교수와 학생들을 전원 복직, 복교시켰다. 당시 문교부는 세 번에 걸쳐 감사반을 파견했고 교무처와 재무처, 그리고 재단 사무처를 감

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흠을 잡을 수 없었던 문교부는 연세대학교 재단 이사장에게 총장을 해임하라는 계고장을 보냈다. 1975년 3월 24일 당시 이천환 이사장은 답화문을 통해 그의 해임에 대한 거부의 뜻을 밝혔다.

학교 법인 연세대학교 이사회는 지난 18일 문교부로부터 총장 해임의 계고장을 받고 충격을 금치 못하였으나.... 본인은 국내 사정을 감안할 때 문교당국과 대학은 면학분위기 조성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공동의 목표라고 한다면 현시점에서 반드시 총장 해임 안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지 않는다.²⁸¹⁾

당시 학생들은 정부의 조치에 대하여 대규모의 성토대회와 데모를 감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국의 압력은 계속되었고 학교가 다시 어려운 상황을 빠지게 될 것을 우려한 그는 스스로 총장직에서 물러나기를 결심하였다.²⁸²⁾ 그리고 1975년 4월 10일 자신의 사임서와 함께 사임 수리 요청서를 이사장에 제출하였다.²⁸³⁾

존경하는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사 여러분께 삼가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인이 사임하는 것만이 이 어려운 시련 속에서 연세대학교의 전통과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람되오나 본인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사랑으로 관용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연세의 위대한 교육의 정신이 만족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모두가 위대한 연세 정신의 계승자로서의 책임을 수행하는 데 있다면 본인의 사임은 바로 이러한 책무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자부하는 바입니다.²⁸⁴⁾

박대선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정창영은 그의 2주기 추모식에서 총장 박대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사(弔詞)를 낭독하였다:

총장님은 진실로 의로운 분이셨으며, 원칙을 중요시하고 언행이 같으시고 늘 웃

오시며 감사하고 기도하는 선한 목자이셨습니다. 제자와 동문과 학교를 한 없이 사랑하시고 겨레와 인류 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인재를 기르는 데 노심초사 하셨습니다.²⁸⁵⁾

박대선을 기억하는 이들은 한결같이 그를 정직과 정감, 그리고 정의를 통해 설명한다.²⁸⁶⁾ 그는 원칙을 중요시하였으나, 언행이 따뜻하였고, 그리고 정의를 찾는 구도자였다.

무엇보다 박대선은 원칙에 철저하였다. 그 날 처리할 일은 그 날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아무리 많은 시간이 걸려도 새벽 2시까지 결재서류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정독하였다. 11년간 그와 같은 삶으로 인해, 퇴임 후에도 새벽 2시까지는 잠이 오지 않았다고 그는 술회하였다.²⁸⁷⁾ 그는 학내의 교육, 인사, 서무 및 재정 등에 대한 행정 기강의 확립을 위해서도 전력을 기울였다. 주어진 제도와 규정을 재 정비하여 직제를 확립하였고, 불필요한 규정은 개정 또는 폐기를 유도했다. 그렇게 다듬어진 규정은 곧 공정한 학교 행정을 위한 기초가 되었다.

공정한 행정에 대한 그의 원칙은 자신의 가족에게도 적용되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에게조차 총장의 관용차를 태우지 않았다. 정비다 사모는 총장 재임기간인 11년 동안 버스와 전차를 타고 다녔다.²⁸⁸⁾ 박대선은 학생 입학, 직원 승진, 친인척의 취직에 대하여 그가 정한 원칙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았다.²⁸⁹⁾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신의 친동생이 경영학과 교수로 지원해 학과 회의에 통과되었을 때에도, 총장인 그가 끝내 거부하여 동생이 연세대학교가 아닌 다른 대학의 교수가 될 정도였다.²⁹⁰⁾ 자신의 아들도 연세대학교의 입시에서 탈락시켜 재수하도록 하였다. 당시 각 대학들이 입시 청탁과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을 때, 그가 총장으로서 지켜 나간 원칙들은 큰 화제가 되고 있었다. 그의 원칙 준수는 훗날 문교부의 세 차례에 감사에도 불구하고 행정에 관한 어떤 흠도 잡을 수 없을 만큼 철저하였다.²⁹¹⁾ 그의 원칙 준수는 그 자체로서 교육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학의 발전과 영존성을 크게 향상시킨 핵심 요소가 되었다.

그는 운동주의 서시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바라는’ 총장이

되기를 원했고, 그런 대학이 되기를 희망하였다.²⁹² 총장직을 퇴임한 후에도 거처할 집이 없을 만큼 청빈한 삶을 살았던 그에게 당시 원일한 연세대학교 재단 이사가 나서서 자택을 구해 주기도 하였다.²⁹³ 훗날 구순(九旬)에 이른 그에게 기자가 그만의 건강법에 대하여 질문하였을 때, 그는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 하지 않는 것이 비법’이라고 밝힐 정도였다.²⁹⁴ 정직과 원칙은 기독교 목사요 신앙인으로서 그의 살아낸 삶의 방식이었다.

그러나 강직한 원칙 준수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정감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그는 사람들의 지위 고하를 따지지 않았으며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고자 하였다. 학교의 용원들에게도 ‘수고합니다’는 인사와 함께, 손을 잡고 따뜻하게 격려하기를 잊지 않았다.²⁹⁵ 학교의 직원이나 운전기사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 자신이 직접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관용차가 아닌 시내의 전차를 즐겨 이용하기도 하였다.²⁹⁶ 그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는 교직원들로부터 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이유가 되었다.²⁹⁷

또한 박대선은 어둠의 시대에 정의의 불을 밝힌 시대의 구도자(求道者)이기도 하였다. 그는 자신의 학위논문의 주제였던 구약성서의 예언자적 전통을 삶 속에서 지켜가고자 노력하였다. 그에 의하면 구약성서 미가 6:8의 말씀 곧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구절은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핵심이다. 그는 정의야말로 신과 인간의 공통된 본래의 속성이라고 생각하였다. “신은 우리 모두에게 양심을 주었고, 우리는 그 양심이 명하는 대로 살면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양심은 우리에게 옳고 그른 것을 가르쳐 주며 착하고 정직하게 살 것을 가르쳐 준다.”²⁹⁸

그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학교를 떠나는 졸업생들에게도 정의로운 인물이 되어줄 것을 호소하였다. “나는 정의의 사자인 아모스의 인간상을 여러분이 지니고, 사회에 나가 공의를 실현하는 연세인이 되어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²⁹⁹ 훗날 그가 지닌 살신성인의 큰 용기가 어디서 왔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암 5:24)라는 성서의 말씀

을 따라 단지 실천한 것뿐이라고 말하였다.³⁰⁰⁾ 그는 기독교는 사회정의를 구현해야 하고, 기독교 대학은 사회정의를 가르쳐야 한다고 믿었다. 그의 정의 추구는 1950년대 초 보스턴대학교의 학풍과도 깊은 연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보스턴대학교는 사회 정의를 크게 강조하고 있었고, 그의 두 반 아래에는 마르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 목사가 공부하고 있었다.

1975년 4월 10일 연세대학교의 총장직에서 물러난 박대선은 11년 동안 시무 하였던 학교를 떠나게 되었다. 이후 그는 서울 YMCA 이사장과 한국선명회장, 대한성서공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였다. 그리고 2010년 4월 29일 오후 7시, 향년 94세를 일기로 하늘의 부름을 받기 전 자신의 시신을 세브란스 병원에 기증하였다.

학원 안팎의 포용과 화층

박대선 총장이 지켜간 원칙이 그의 자주성의 반영이라면, 그가 드러낸 포용은 타자성의 수용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둘은 상호충돌 없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가 실천한 원칙의 준수는 대학 안에 공정한 기회를 만들어 냈으로 오히려 더욱 많은 이들을 받아들일도록 하였다. 또한 그가 수용한 타자성은 구성원의 진리 추구하고 학문의 자유를 보호하는 원칙으로 연결되었다. 자율성과 타율성의 조화는 그의 총장 임명에서부터 사임에 이르는 전 과정 속에 잘 담겨 있다.

박대선의 총장 임명과 사임

무엇보다 박대선의 총장 임명은 연세대학교의 ‘포용’과 ‘화층’의 정신을 반영한다. 그를 선임한 이사회의 결정은 당시 교내외 인사들에게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다.³⁰¹⁾ 당시 연세대학교 총장 물색위원회는 총장 선임에 관한 몇 가지 조건을 정하였다. 첫째,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심오한 학문을 도야하게 한다는 정관 제1조를 구현할 수 있는 인사일 것. 둘째, 만 45세 이상 된 자로, 기독교 목사나 장로의 자격을 가진 자 선호. 셋째, 자신의 힘으로 박사학위를 얻은 자일 것. 넷째,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활동할 수 있는 자(영어에 능숙하여 국제무대에 설 수 있는 자).³⁰²⁾

물색위원회는 위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후보로 먼저 20명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후보군을 압축하여, 마지막 3명의 후보들 가운데 최종 후보자로 박대선을 선출하였다. 당시 원일한(Horace G. Underwood) 이사는 최종 후보자로 선출된 박대선을 직접 찾아가 그의 임명 소식을 전해 주었다. 자신의 임명 소식을 들은 박대선은 실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³⁰³⁾ 그는 먼저 ‘자신이 연세대학교에 가야 할 이유’를 찾아야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가 얻은 답은 ‘자신이 목사라는 것’과 ‘연세가 기독교 대학이라는 것’이었다.³⁰⁴⁾



그림 31
총장 직무 모습

당시 이사회의 결정은 기독교대학 연세가 지닌 포용성의 일면을 그대로 보여 준다. 연세대학교는 본래 그 시작부터 특정 계층과 개인에 관한 장벽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그의 총장 임명은 다음 네 가지 면에서 특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총장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그 자신은 연세대학교와 아무런 인연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는 연세의 동문이거나 교수가 아니었다. 둘째, 그는 연세대학교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총장직을 수행하였다. 그의 재임기간은 1964년 9월부터 1975년 4월까지 무려 11년에 이른다. 셋째, 그가 총장으로 처음 임명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불과 불혹을 넘은 48세에 지나지 않았다. 대한민국 최초의 대학이요, 최고의 대학이었던 연세대학교의 총장으로서는 비교적 젊은 나이였다고 할 수 있다.³⁰⁵⁾ 넷째, 그의 총장직 수용의 변에서 밝힌 것처럼 그는 자신이 ‘목사’라는 것과 ‘연세가 기독교 대학이라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었다. 목회자요 신학자로서의 삶을 살아온 그를 연세대학교의 총장으로 임명함으로써 대학은 기독교적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그의 총장 취임식은 1964년 9월 22일 내외빈과 교직원, 학생들로 가득 메운 노천극장에서 거행되었다. 『연세대학교 80년사』는 그의 취임사를 다음과 같이 소

개하고 있다. “총장 박대선은 취임사에서 연세의 발전을 기약하는 학교 운영의 기본 정책을 창립 정신의 구현, 학원의 자유 보장과 학문 진작, 역사에 참여하는 대학 교육, 그리고 행정 기강의 확립에 두었다.”³⁰⁶⁾

그의 총장 임명은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연세대학교의 정신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총장으로 임명된 박대선은 학생들은 물론 동문과 교직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고, 그는 그 안에서 자신의 사명을 더욱 절감하고 있었다.³⁰⁷⁾ 박대선의 총장 임명에서 나타난 연세대학교의 포용과 화층은 또한 그의 사임을 통해서도 나타났다. 연세대학교가 이방인과 다름없었던 그를 총장으로 임명했다면, 그는 학생과 교수들을 위하여 총장직을 스스로 내려놓았다는 점이 차이일 뿐이었다.

1974년 발효된 긴급조치 4호로 인해, 당시 대학의 자율과 학문의 자유는 크게 훼손되었고, 100여개가 넘는 대학들은 일제히 정부의 강압적 요구를 따르고 있었다.³⁰⁸⁾ 그러나 박대선 총장은 긴급조치로 인해 면직되었던 교수들을 복직시키고 학생들 전원을 복교시키는 한편, 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호소하였다. 그는 ‘대학의 자유가 보장된 프랑스나 영국과 달리, 그를 말살했던 독일과 일본이 패망했던 사실을 역사의 산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대학의 생명인 ‘진리’와 ‘자유’를 함께 지켜줄 것을 호소하였다.

본인은 전연세인의 요청과 대학사회의 성의에 찬 기대를 외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미 두 교수와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구생활에의 동참을 약속받은 바 있으므로 하루라도 복교를 늦추는 것은 정당한 처사가 못된다고 믿는다. 우리는 대학의 영존성과 지적적 판단의 뜻을 지켜야 하며 치외법권은 바라지 않으나 대학의 자율과 선의의 발전은 침해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협조적인 교육이념을 문교당국은 아량으로 이해해 줄 것으로 믿으며 모든 대학이 민족의 장래에 보다 크게 공헌할 수 있도록 사회재현의 성원을 기원하는 바이다.³⁰⁹⁾

훗날 박대선은 역사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한 개 학교는 퇴학을 당한 학

생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술회하였다.³¹⁰⁾

학원의 변화와 성숙

‘포용’과 ‘화충’의 학풍은 박대선 총장을 통해 대학의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널리 파급되었다. 그는 자신과 평교수들 사이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공관에서 집무실까지 걸어 다녔고, 매일 점심을 교수식당에서 하며 교수들과 대화를 나누었다.³¹¹⁾ 그리고 훌륭한 교수 요원의 확보와 계발에 온 정성을 기울였다. 그는 소위 VIS(Very Important Student) 운동과 함께 VIP(Very Important Professor) 운동을 전개하였고, 1970년대 초 국내 대학으로서는 처음으로 박사 학위 소지자를 교수 지원 자격으로 내놓았다. 당시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박사 학위를 지닌 교수들이 드물 때에 내린 파격적인 결정이었다. 그와 함께 기존의 교수들에게도 박사 학위를 취득하도록 권고하였다.³¹²⁾ 미국의 장학재단인 UB(United Board)의 교수양성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박사 학위가 없는 교수들을 선발해 3~5년씩 해외로 유학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들 가운데 김동길 교수(사학과)와 박영식 교수(철학과)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다른 대학 출신이라도 기꺼이 석학들을 교수로 초빙하기 위해 힘을 썼다. 이를 통해 초빙된 교수로는 훗날 의무 부총장이 된 김효규 교수, 행정학과의 노정현 교수, 정외과의 이기택 교수, 신학과의 함성국, 유동식 교수 등이 있었다.³¹³⁾

이처럼 뛰어난 교수 요원의 확보와 계발을 위한 그의 노력에는 포용의 정신이 담겨 있었다.

나는 연세대학교 교수를 스카우트하는데 연세대와 국내 우수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분들과 일본의 우수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학자들, 그리고 미국과 유럽 각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학자들을 모셔와 세계의 학문의 흐름을 알고 있는 학자들을 망라함으로써 연세대학교를 세계적인 대학교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대학이 너무 폐쇄적이 되면 발전할 수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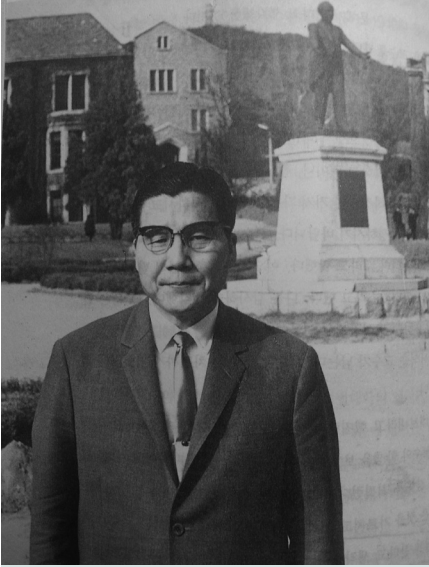


그림 32 본관 앞에서(1968년)

기 때문에 여러 대학교 출신 학자들의 피를 섞어야 된다고 믿고 있다.³¹⁴⁾

교직원의 급여와 관련해서도 그는 포용을 실천하였다. 그는 교직원 모두에게 고루 혜택을 분배하는 적극적 인센티브(positive incentive)의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를 통해 구성원 모두에게 고루 기회를 주며, 그들의 기여를 적절히 보상하고자 하였다. 또한 교직원들의 처우를 크게 개선하였는데, 그의 바람은 한국 최고로 그들을 대우하는 것이었다. 그는

당시 김규삼 부총장과 의논하여 교직원 봉급 50% 인상이라는 일대 용단을 내렸다. 그것은 그야말로 파격적 결정이었다. 그가 사임서를 제출하며 학교를 떠날 때, 용원들은 돈을 모아 그에게 금메달을 기념품으로 증정하였다. 메달에는 “자랑스러운 연세인”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³¹⁵⁾

희생과 봉사, 사랑의 기독교 정신은 그의 재임기간 대학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렸고, 학원의 구성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1964년부터 1975년에 이르는 극심한 사회적 갈등의 시기에 그는 이익과 비용의 손익계산을 넘어 공평한 기회를 나누고자 하였다. 분열과 대립을 넘는 포용성의 제고(提高)는 1975년 사회적 분열과 마찰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조차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 ‘폭넓은 제휴’(broad coalition)를 가능케 하였다. 유신의 엄혹한 시기에도 교수와 학생, 직원 사이에 쌓여진 동지적 연대는 오히려 학원의 발전을 이끌고 있었다.

박대선은 본교 캠퍼스와 의료원의 연합과 일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오래전부터 연희와 세브란스 사이에는 철조망의 경계선이 있어서 서로 넘나들 수

없었고, 본교의 교직원은 의료원의 교직원만큼 진료비의 혜택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총장 재임 중, 본교와 의료원 사이에 설치된 철조망이 제거되었고, 본교의 교직원 역시 의료원 교직원과 똑같은 진료비 50%의 감액을 얻게 되었다.³¹⁶⁾

캠퍼스간 연대와 연합은 동문회로도 확대되었다. 그는 신설된 기획실을 통해 학교와 동문 사이의 유대를 강화해 나갔다. 이즈음 신촌캠퍼스와 의료원 등 여러 개로 나뉘어 모이던 산별적 동문회들이 점차 하나로 통합되기 시작하였다.³¹⁷⁾ 박대선은 국내외 대학들과, 기독교 교단, 사회재단 그리고 국제기관과의 연대를 추구하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다. 그는 각 기관과 단체들의 대표를 방문하고 만나는 일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직무로 여겼다.³¹⁸⁾ 그의 총장 재임기간 연세대학교는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 사회와 세계와의 폭넓은 연대를 이루어 갔다. 당시 학원 안팎에서 이루어진 연대와 일치하는 오늘날의 수준과 비교해 보아도 큰 차이가 없을 만큼 발전을 거듭하였다.

기독교 정신의 구현과 연세의 학풍

총장 박대선에게서 확인되는 연세대학교의 학풍은 기독교 건교정신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³¹⁹⁾ 기독교 정신은 박대선에게는 부인될 수 없는 연세대학교의 정체성이었다. 그는 기독교대학의 세속화 현상을 우려하였고, 무엇보다 기독교대학으로서의 권위를 세우려는 굳은 뜻을 품었다. 그는 기독교 정신의 함양을 위해서는 채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본 대학교의 경우도 본래 초창기의 창립이념과 현재 기독교 교육이 사명주의적 정신에 입각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교육이념에 차이가 있으며 채플의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적 추세로서 대학이 확장되고부터 세속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래의 기독교정신을 끝까지 제시하도록 할 것이며 일반 대학이 신학교 같이 다룰 수는 없다 하여도 채플이 교양 강좌로 되어져 가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고 채플을 통하여 기독교 인생관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 교양학부의 종교시간이나 과외활동을 통한 기독교 정신을 함양시키도록 구현한다.³²⁰⁾

그리하여 그 스스로 매주 오전 8시에는 의과대학의 채플에, 정오에는 본교의 채플에 빠짐없이 참석하였다. 채플이 반정부 시위의 기회가 된다고 하여, 문교부장관이 대통령의 엄한 명령이라며 단 하루라도 중단하기를 요구했을 때 그는 “채플은 연세대학교의 생명입니다. 하루도 예배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³²¹⁾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연세대학교가 한 나라의 문교부 장관이 채플을 하루 중단하라고 해서 중단한다면 대학의 자유는 어디 있고 대학이 금과옥조와 같이 여기는 대학의 이상과 이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연세대학교의 교육 이념, 즉 기

독교 정신에 입각한 고등교육 실시도 중단할 것인가? 기독교 대학의 총장은 총장직을 걸고 기독교 대학의 이념 구현을 위해서 양보하지 말고, 투쟁할 것은 투쟁해서 쟁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³²²⁾

그는 또한 미국 루스재단(Luce Foundation)의 도움을 받아 루스채플을 건립하여 예배를 강당이 아닌 예배당에서 드릴 수 있도록 하였다. 그는 이 루스채플을 연세대학교의 심장이라고 불렀다.³²³⁾ 연세대학교가 다른 대학교들과 차이가 있다면, 그 유일한 차이는 바로 기독교 건교정신에 있다고 그는 믿었다.

연세대학교는 한 가지 점에 있어서 다른 대학교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세대학교는 기독교정신에 입각해서 고등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이올시다. 심오한 학문을 연구하고 고도의 기술을 습득하는 점에 있어서 모든 다른 대학교와 다른 점이 없지만 연세대학교는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진정한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참된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선결문제이고 참된 인간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희생과 봉사와 사랑의 숭고한 정신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³²⁴⁾

기독교 정신의 교육은 그가 사임서를 제출하며 발표했던 담화문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제로 등장한다. “연세는 또한 앞으로 영원무궁토록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교육을 실시한다는 건교정신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굳게 믿고 있다는 것도 나의 신념입니다.”³²⁵⁾

그는 연세대학교의 전통과 학풍은 기독교 정신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³²⁶⁾ 그리고 졸업해 교문을 나서는 학생들에게도 연세대학교의 기독교 정신 강조하기를 잊지 않았다.

연세가 세워진 후 83년간을 내려오면서 연세인에게 주고 싶었던 선물은 단편적인 지식이나 어느 정도의 기술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정신이었습니다. 삶

의 목적을 제시해 주고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며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 새 사람을 만들고 진정한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우리러보고 이 교문을 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그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고 그의 희생과 봉사와 사랑의 정신이 여러분의 정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진실로 간절합니다.³²⁷⁾

연세대학교의 교육목표는 확고한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인재 양성이 되어야 했다. 물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의 면학(勉學)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았다. 그의 임기 중 면학의 규율은 매우 엄격히 적용되어, 1967년도 한 해 동안만 230명이 유급되기도 하였다.³²⁸⁾ 그러나 연세가 기르는 인재는 단순히 유능한 인재 그 자체에 있지 않았다. 기독교 정신을 기초로 한 학문적 탁월은 곧 민족교육과 민족사상, 그리고 민족사회에 큰 공헌을 이룰 수 있다. “유능한 인재를 만든다는 것은 어느 곳이나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연세는 유능한 인재 그 자체가 아니라 얼마나 희생적 사상을 가지고 나가느냐가 문제인 것이고, 사회에 얼마나 봉사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즉 기독교 정신을 배경으로 한 학문적 탁월을 주장하는 것이다.”³²⁹⁾ 이처럼 연세의 교육은 ‘역사창조의 주체’로서 기독교정신의 구현이라는 큰 사명을 갖고 있었다.³³⁰⁾

개화 문명의 도입으로 민족교육의 시발로 삼아 서구의 과학적 방식을 전파하였고, 자주 자립 자존의 사상을 고취(鼓吹)함으로써 민족사상의 본거지를 마련하고, 이의 확산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며 민주주의 이상을 교육목표로 삼아 진리와 자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유인의 형성과 자유 신봉의 정신적 자세를 성취하는데 민족사회에 끼친 공헌은 연세교육의 가장 두드러진 업적이요, 찬란한 전통이요, 불멸하는 정신적 유산입니다.”³³¹⁾

한편 연세에 주어진 사명은 불의와 박해의 시대에 정의의 추구로 나타났다. 박대선은 평소 인용하던 아모스 선지서의 한 대목,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

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암 5:24)는 말씀처럼, 유신 독재체제 속에서 정의를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였다.

당시 유신 정권의 극심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구속되었던 교수와 학생들을 다시 받아들였을 때, 그것은 사실 자신의 총장직을 건 결의에 다름 아니었다. 문교부는 철회 압력과 더불어 세 차례에 걸쳐 문교부 감사를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단 하나의 부정도 발견할 수 없었던 문교부는 연세대학교의 이사회에 총장을 해임해 달라는 계고장을 발송하였다. 그때 그는 자신의 총장직 사임이 그의 사명 완수의 또 다른 방법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의 사표수리 요청서에 다음과 같은 글이 담겨 있었다. “연세의 위대한 정신이 민족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오직 우리 모두가 위대한 연세 정신의 계승자로서 책임을 수행하는 데 있다면 본인의 사임은 바로 이러한 책무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자부하는 바입니다.”³³²⁾

앞서 반대의 뜻을 표했던 연세대학교 이사회는 그의 요청서를 받아들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였고, 마침내 그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가결하였다. 이사회는 그의 사임을 “순교자적 정신으로 자기희생을 감수한 영단과 참뜻”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지극히 유감스러우나 그의 뜻을 살리기 위해” 그의 사표를 받아들이기로 했음을 발표하였다.³³³⁾ 박대선은 그의 사임이 최종 결정되자 담화문을 발표하며 11년간 정들었던 학교를 나섰다.

“한국의 대학이 민족과 국가가 열망하는 사명을 성취하기에 아직 많은 난관이 가로놓여 있는 현실을 본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하는 이는 언제나 그 최선의 길을 택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연세는 또한 앞으로 영원무궁토록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교육을 실시한다는 건교정신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굳게 믿고 있다는 것도 나의 신념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뜻과 이끄심이 연세를 통하여 조국 위에 성취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³³⁴⁾

그의 담화문처럼 연세대학교는 많은 난관 속에서도 관학이 아닌 사학으로서 고유한 정신과 전통을 지켜갔다. 박대선 총장은 기독교 명문사학으로서 연세에

주어진 사명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다.

진리와 자유를 motto(모토)로하고 있는 것인 만큼 연세는 자주적, 민주적 탁월을 만드는 것을 이상으로 한다. 연구나 공부에도 자유를 내세우고, 모든 것을 문교부가 명령한다고 해서 꼭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모든 것을 자주적인 방향으로 삼아서 한국의 대학이 나아갈 길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 연세의 현 좌표가 있다.³³⁵⁾

그는 연세의 외인(外人)으로 총장으로 부임하였지만, 진리와 자유라는 연세의 건교정신을 끝까지 지켜낸 참 연세인 이었다. 엄혹한 시대 속에서도 연세대학교는 그를 통해 기독교 창립정신의 불을 밝힐 수 있었다. 그가 지키고 전수하였던 연세의 정신과 전통은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자유인’의 형성을 지속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 되었다. 그를 통해 연세학풍에 동화된 대학의 구성원들은 불의의 압제 속에서도 서로 연대해 갔고, 대학 안의 연대는 곧 대학 밖의 세계로 뻗어갔다. 기독교 정신은 연세학원에 코스모폴리탄의 세계성을 더했고, 국지적 협력과 세계적 연대를 가능하게 하였다.

박대선 이후 연세대학교는 기독교 명문사학으로서 발전과 성숙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연세가 그와 함께 기독교 정신을 확립하지 못했다면 오늘날 연세대학교의 발전은 물론, 학풍의 구현 역시 실로 요원하였을 것이다.

본 글은 1964년 9월부터 1975년 4월까지 연세대학교의 4·5·6대 총장을 지낸 박대선 총장의 행적을 통해, 그의 재임기간 연세학원 속에 뿌리 내린 고유한 학풍과 기독교 정신을 살펴보았다. 신앙인으로서 박대선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고 원칙을 준수하는 사람이었으나, 언제나 정감이 넘쳤고, 자신에게 맡겨진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희생적인 사람이었다. 무엇보다 어두운 식민의 시대와 분단의 혼란기 속에서도 묵묵히 정의를 추구하는 원칙과 신념의 지도자였다. 그는 자신이 직면한 역사의 현실을 회피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으며, 현실을 넘어 진리와 자유

의 정신을 따르는, 민족과 인류의 발전에 이바지할 지도자를 기르고자 일심전력 하였다. 또한 그가 지켜간 연세대학교의 건교정신은 세계와의 연대로 뻗어 갔다.

연세는 그와 함께 기독교 정신의 학풍을 안팎에 크게 진작시킬 수 있었다. 연세의 창학기 ‘동서 고근의 화충’의 정신은 그를 통해 타자성의 수용과 발전 그리고 연합과 연대의 포용성으로 발전하였다. 이 전통은 오늘날 학문간 ‘융복합’과 ‘세방화’의 흐름 가운데 연속되고 있다. 역사의 혼돈기에 박대선을 통해 계승된 연세대학교의 기독교 정신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넘어 시대의 변화와 도전 앞에서도 창조적 변화를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기독교대학의 교육과 선교는 과거의 역사와 끊임없이 교감하는 동시에 미래의 요구에 맞선 창조적 재구성에 달려 있다. 박대선에게서 확인된 연세학원의 기독교 학풍은, 역사의 어느 고비에서든 주어진 현실에서 도피하지 않고 새 역사를 창조하는 새로운 희망의 원천이 될 것이다.

- 1916년 4월 15일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출생
- 1930년 3월 일본 관서학원대학 부속 중학교 3년 수료
- 1935년 3월 일본 나교야 중학교 졸업
- 1937년 3월 일본 관서학원대학 예과 2년 수료
- 1940년 3월 일본 관서학원대학 법문학부 영문과 졸업
- 1940년 6월 일본 문부성 중등 영어과 교원 면허증 수령
- 1940년 6월 일본 문부성 고등 교원 영어과 면허증 수령
- 1940~42년 일본 니시노미야(西宮)시 한인 교회 담임(전도사 시무)
- 1942년 12월 일본 관서학원대학 신학부 졸업
- 1942~50년 평양 창광산 감리교회, 박구리 감리교회, 중앙 감리교회, 서평양 감리교회 목사
- 1945~50년 평양 성화신학교 교장 대리, 장로회 평양신학교 강사
- 1951~52년 초대 군목으로 대구 육군 본부 근무
- 1955년 10월 미국 보스턴 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신학박사 학위 취득
- 1955~64년 감리교신학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강사, 이화여대 대학원 강사
- 1959~61년 서울 광희문 감리교회 담임
- 1961~2010년 혜촌회(惠村會) 회장
- 1964~75년 연세대학교 총장
- 1964년 아시아 기독교 대학 총장 회의 참석(대만)
- 1965년 3월 한국 기독교 학교 연합회장
- 1965 - 69년 한국 유도 연맹 회장
- 1966년 4월 미국 국무성 초청으로 미국의 주요 대학 시찰
- 1966년 5월 아시아 기독교 대학 총장 회의 참석(뉴욕)
- 1968년 5월 고려대학교 명예 법학박사 학위 취득
- 1968년 5월 아시아 기독교 대학 총학장 회의 참석(뉴욕)
- 1969~71년 성곡(省谷) 학술 문화 재단 이사
- 1970~71년 한국 기독교학생회 이사장
- 1970년 국토 건설 종합 계획 위원
- 1970년 2월 아시아 의료 관계 실무자 회의 참석(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1970년 6월 미국 및 아시아 주요 대학 총학장 회의 참석(일본 도쿄)
- 1971년 6월 미국 및 아시아 주요 대학 총학장 회의 참석(태국 방콕)
- 1971~74년 대한 YMCA 연맹 및 서울 YMCA 이사장
- 1972년 5월 아시아 기독교 대학 총장 회의 참석(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1972년 6월 미국 및 아시아 주요 대학 총학장 회의 참석(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1972년 대한민국 훈장 모란장
- 1973년 우간다 캄파라에서 열린 YMCA 세계 연맹 실행위원회 참석
- 1973년 대학 태권도 연합회 회장
- 1974년 5월 일본 국제기독교대학에서 명예 인문학박사 학위 취득
- 1974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 YMCA 연맹 실행위원회 참석
- 1974~75년 운정(雲庭) 장학재단 이사
- 1976~78년 감리교 동부 연회 초대 감독
- 1978~85년 감리교 동부신학교 설립, 교장
- 1978~2003 대한성서공회 이사
- 1979~85년 United Board 이사
- 1979년 4월 미국 감리교단 초청으로 1개월 간 미국 교회 순방 강연
- 1979년 4월 미국 United Board 초청으로 1년간 미국 교회와 대학 순방 강연
- 1979~85년 아시아 기독교 고등 교육 연합재단 이사
- 1979~80년 미국 뉴욕 유니언 세미너리 초청 교수
- 1980~86년 대한기독교서회 이사
- 1982~86년 신애 감리교회 목사
- 1982년 5월 연세대학교 명예 문학박사 학위 취득
- 1982년 한국 수교 100주년 친선 한국 대표 미국 방문
- 1983~89년 한국 선명회 회장
- 1986년 감리교회 원로목사·감독
- 1988년 대한성서공회 이사장
- 1989년 11월 일본 관서학원대학 명예 법학박사 학위 취득
- 2010년 4월 29일 소천

연세의 개척자들과

연세학풍

VI

연세 학풍이 피운 꽃
윤동주

이대성_연세대교수(조직신학)



윤동주 시인은 연세대학교의 학풍 형성에 이바지한 다른 인물들과는 여러 면에서 차별이 된다. 그는 학자도 교수도 아니었으며, 많은 저술을 남기거나, 제자를 둔 것도 아니었다. 그가 연세대학교와 맺은 인연은 4년 동안 연희전문학교를 다닌 것이 전부였다. 그는 1945년 2월, 29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가 죽고 나서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의 가족과 몇몇 가까운 친구들뿐이었다. 그때까지 아무도 그가 연세의 역사는 물론 우리나라 역사에서 특별한 인물로 기억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1948년 그의 유고집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어 그의 시와 생애가 알려지게 되면서 그는 짧은 기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일반적인 “학풍”의 관점에서 그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가를 말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연세가 배출한 인물 중에 윤동주만큼 연세인은 물론 한국인 전체와 세계인에게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윤동주가 연세 학풍에 끼친 영향을 논하기 위해서는 학풍이라는 개념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학풍을 “학문에서의 태도나 경향”이라는 좁은 뜻뿐만 아니라 교풍(校風), 즉, “학교 특유의 분위기와 기풍”도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접근할 때 우리는 윤동주가 연세 학풍의 최대 수혜자(受惠者)이며 동시에 최대 시혜자(施惠者)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연세의 학문적인 풍토와 기풍이 운동주가 그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최적의 환경을 제공했으며, 또한 운동주는 고도의 사상적, 미학적 작업을 통해 연세의 전통에 바탕을 두면서 연세와 민족과 인류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성찰과 이상을 보여줌으로 연세 학풍을 아름다운 꽃으로 개화시켰다.

운동주는 평생 학생이었다. 취학연령 이후 그의 경력은 입학, 전학, 진학 등으로 계속 연결된다. 그의 묘비의 약력을 보면 학력 외에 별 것이 없다. 운동주의 삶이 훌륭했다면 그 이유는 그가 계속 학생으로 충실한 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운동주의 생애를 그가 다녔던 학교를 중심으로 재구성해보려고 한다. 또한 그의 고향인 명동촌의 역사와, 옥사 이후 그의 시집『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출판되기까지의 경위도 운동주의 삶과 시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함으로 함께 포함시키려고 한다. 운동주의 삶을 재조명하면서 우리는 그의 시는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가 다녔던 학교의 학풍의 영향 아래, 시대적, 실존적 한계에 대항하여 의미 있는 삶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 고투하는 가운데 형성되었으며, 이 과정을 통해 민족, 기독교, 문학이라는 세 이념이 고차원적으로 융합되어 그의 시 세계의 핵심 사상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소년시절 : 명동촌

윤동주의 고향 명동촌의 역사

모든 전기에는 한 인물이 태어난 고향에 대한 언급이 있기 마련이지만, 대부분 요식절차로 간단하게 언급되거나 유년시절의 배경 정도로 소개가 된다. 그러나 윤동주의 고향인 명동촌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명동촌의 역사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윤동주의 사상과 시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왜 그가 운명적으로 그런 생애를 살고, 그런 죽음을 맞이했는지 더 깊이 공감하게 된다.

명동촌은 만주 땅 북간도에 위치해있다. 만주 지역은 고구려와 발해 시대에는 우리 선조의 땅이었지만 청(淸)나라가 들어선 후로 청태조의 발상지로 여겨져 만주족 외의 다른 민족의 출입이 수백 년 동안 금해졌었다. 압록강과 두만강 남쪽에 살던 우리 선조들은 기근이 심할 경우 아무도 경작하지 않는 만주의 버려진 옥토에서 ‘도둑농사’를 지었는데, 당시의 금령을 피하기 위해 “강 사이에 있는 섬에 간다”는 일종의 암호를 사용하다 보니 간도라는 지명이 생겨났고, 압록강 이북은 남간도, 두만강 이북은 북간도로 불리게 되었다. 1880년대에는 국운이 쇠퇴한 청이 금령을 폐지하고 이주 정책을 채택하였고, 우리 이주민이 많아지자 1903년부터는 조선 관리가 간도 지역에 상주하기도 했다. 김응교는 만주지역의 전반적 특징으로 첫째, 지리적인 주변성, 둘째, 종족적인 디아스포라적 특성, 셋째, 문화적인 혼종성을 들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19세기 말 이 지역의 일반적인 상황을 잘 지적한 것



그림 33 윤동주

이다.³³⁶⁾

명동촌은 1899년에 북간도 지역에 들어서게 되었다. 대부분의 마을이 오랜 기간에 걸쳐 자연적으로 형성되지만, 명동촌은 예외적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집단이주자들에 의해 계획적으로 형성되었다. 이주에 동참한 가족들은 두만강변 종성과 회령에 거주하던 문병규, 김약연, 남도천, 김하규의 가문에 속한 총 141명이었다.³³⁷⁾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뜻을 품고 북간도로 이주하게 된 데는 그들 간의 친분관계와 시대적인 배경이 함께 작용했다. 이들의 결단의 동기 중 중요한 것이 동학의 실패였다.³³⁸⁾ 선비 동학군이었던 김하규(문익환 목사의 외조부, 당시 38세)는 김약연(당시 32세)을 만나 미래가 안 보이는 민족의 처지를 한탄하며 어떤 돌파구가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한다. 추진력이 탁월했던 김약연에 의해 북간도 이주 계획이 진행되면서 가까운 가문들이 뜻을 모으게 되었다. 이미 1886년부터 북간도 자동(紫洞)에 이주하여 자리를 잡고 살던 윤하현(윤동주의 조부)의 집안과 연락하면서 김약연은 현지 사정을 조사하며 적당한 장소를 물색한 후 마침내 오늘의 명동촌 땅을 청국인 대지주로부터 구입하고, 집단 이주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1889년 2월 18일 새벽 6시에 총 141명의 식구가 이주를 단행했다. 윤동주네 윤씨 가문은 다음 해인 1890년에 총 18명의 식솔과 함께 명동촌으로 이주하여 명동촌 형성에 일찍부터 동참하게 된다.

명동(明東)이란 이름은 ‘중국보다 동쪽에 있는 조선을 밝게하자’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이들이 명동촌에 이주하면서 기대했던 것은 다음의 세 가지였다고 알려지고 있다. 첫째, 간도는 비옥한 땅이어서 경제적 조건이 유리하다. 둘째, 집단으로 오래 살면 간도를 우리 땅으로 만들 수 있다. 셋째, 공동체를 만들면 더욱 효과적으로 나라를 일으킬 인재를 기를 수 있다.³³⁹⁾ 특히 이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남달랐다. 우선 문병규, 남도천, 김하규, 김약연 이 네 사람은 모두가 고향에서 후학을 가르치던 훈장이었고 유교와 실학에 정통한 학자였다. 김하규는 주역을 만독하였고, 김약연은 맹자를 만독하였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명동촌으로 이전하면서 교육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학전(學田)으로 땅을 내놓고 공동으로 경작하였고 그 수익금으로 서당을 운영하였다. 초기 명동촌의 문화는

유교적 전통의 영향 아래 있었으므로 교육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1907년을 전후하여 신학문이 도입되면서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북간도에 최초의 신학문 교육기관이 들어선 것은 1906년 용정의 서전서숙(瑞甸書塾)이다. 이 학교는 이상설, 이동녕, 이준, 정순만, 박정서 등이 세운 학교로 학생 수는 70여명에 달했는데, 일반 학문과 함께 철저한 반일 민족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나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의 밀사로 이상설이 고종의 임명을 받고 떠나게 되면서 서전서숙은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해 문을 닫게 되었다.

이 시절 명동촌 주민들은 1905년 치욕스런 을사5조약 체결과 러일전쟁(1904~1905)의 결과를 보면서 서양식 문물을 받아들여야 일본을 이길 수 있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이런 때 우연히 김하규가 친척의 죽은 부인에게 열녀 표창을 내려달라는 탄원서를 써서 서울에 보냈는데, 그 탄원서를 읽어본 대한제국의 탁지부(度支部)에서 그 글의 탁월함에 감탄하여 김하규를 ‘함북흥학회 회장’에 임명하는 임명장을 보내고, 그와 함께 “이제 구학은 소용없으니 신학문을 일으키라”는 통지문을 보낸 일이 있었다.³⁴⁰⁾ 이 통지문을 접한 김하규와 마을 학자들은 더 이상 구학문으로는 나라를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평생 소중하게 여겨온 한학을 제쳐놓고 신학문을 본격적으로 마을에 도입하기로 결단을 하였다. 마침 문을 닫은 용정의 서전서숙을 명동촌으로 옮기고 교명을 좀 더 현대적인 ‘명동학교’로 개칭하면서 1908년 4월 27일 정식으로 개교를 하였다. 막상 신학문을 가르치는 학교를 열었지만 학생을 제대로 가르칠 교사진을 확보하는 것이 큰 문제였다. 사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1909년에 용정에서 활동하던 정재면(당시 22세)을 선생으로 초청하고, 김약연이 교장을 맡게 되는데, 이때부터 명동학교는 자리를 잡아가게 되고, 명동촌이 크게 변하게 되었다.

정재면은 한신대학교 학장을 역임한 정대위 박사의 부친이기도 한데, 평남 속천 출신으로 “청년회관”이라는 서울의 기독교계 신학문 교육기관에서 공부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이동휘, 안창호, 김구, 전덕기 등이 조직한 애국비밀결사신민회의의 회원이었다. 정재면은 이동휘의 영향을 받아 기독교를 통한 구국 운동에

열심을 내었다. 이동휘는 상동교회에서 전덕기 목사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상동교회는 스크랜턴 선교사가 세운 병원교회가 발전한 것이다.

정재면은 부임 조건으로 학생들에게 정규과목의 하나로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이것은 깊은 유교적 전통을 따르고 있던 마을로서는 무리한 요구였다. 그러나 마을의 지도급 유학자들이 회의를 한 결과 신학문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 이로서 명동촌에 신학문과 함께 기독교가 들어온 것이다. 나중에는 어른들도 학교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서 마을 전체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1909년에는 교회도 세워지게 되었다. 운동주의 증조부는 1910년에 기독교를 믿게 되면서 과감히 가풍을 고치고 신문화 도입에 적극 힘썼다고 전해진다.³⁴¹⁾ 정재면은 당시 쟁쟁한 지식인들을 명동학교의 교사로 끌어들였다. 황의돈, 박태환, 김철 등 모두 독립운동가로서도 헌신적인 교사들이었다. 이동휘의 딸 이의순과 정재면의 누이 정신태도 합류하여 여성 해방론에 입각해 여성교육을 실시했다.³⁴²⁾

명동학교는 개교 이후 크게 발전하여 1910년에는 중학교 과정까지 신설하였고, 1910년 한일합방 소식이 들려오자 북간도, 시베리아, 국내 등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유학을 왔다. 명동촌은 명동학교 교사들과 마을 지도자들이 합심하여 모범적인 농촌운동을 정착시켰고, 1912년 최초의 해외 한인자치기구인 간민회(墾民會)가 김약연을 회장으로 결성되면서, 독립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김약연은 후세에 “한국의 모세,” “간도의 한인 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도력을 발휘하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신하였다.

명동촌에 신학문이 들어오고 교회가 생기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이 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은 정재면 한 개인의 노력과 한 마을 지도자들의 결단 등 몇 가지 우연적 요소들이 결합되어 일어난 것으로 보기 쉽지만, 우리는 좀 더 넓은 지정학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 의미를 조명해보아야 한다. 만주지역은 일찍이 스코틀랜드 자유연합교회의 존 로스(John Ross) 목사가 선교활동을 하고 있었고, 1876년에 한국인 이응찬을 만나 그와 함께 성서번역을 추진한 지역이다. 1877년 최초의 한글 번역 성경 “예수성교 전서”가 출판되어 매서인(賣書人)을 통해 이 지

역에서 전도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1884년 겨울에는 83명이 로스 목사에게 세례를 받고 국내보다 앞서서 교회를 설립하기도 했다.³⁴³⁾ 북간도 지역에서는 캐나다장로교 선교사 그리어슨(Robert G. Grierson)이 1902년부터 순회하며 전도활동을 하였는데, 1906년 이후 화룡면, 광제암, 용정 등에 교회를 세웠다. 이동휘는 국내의 상황이 점점 어렵게 되자 일찍부터 기독교와 접촉이 있었던 북간도를 거점으로 구국 운동을 전개하기로 마음을 먹고 친분이 있던 그리어슨 선교사의 협조를 얻어 북간도에 기독교와 신학문을 보급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재면이 북간도 명동촌으로 와서 이 마을을 기독교화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급박한 정세 변화 속에서 나라의 미래를 염려하며 구국의 방편으로 선각자들이 채택한 기획이 북간도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독교에 입교만 하면 개인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물론, 구미 열강의 보호 아래 신변을 보장받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국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기독교로 개종하였다.³⁴⁴⁾ 1911년 이동휘가 명동교회에서 부흥회를 열었을 때 수백리를 걸어 1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이 때 행한 이동휘의 설교를 보면 당시 북간도 한인들의 정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무너져가는 조국을 일으키려면 예수를 믿어라! 예배당을 세워라! 학교를 세워라! 자녀를 교육시켜라! 그래야만 우리도 서양문명국처럼 잘 살 수 있다. 삼천리 강산 한 마을에 교회와 학교를 하나씩 세워, 삼천 개의 교회와 학교가 세워지는 날 우리는 독립할 것이다.³⁴⁵⁾

운동주가 출생하기 이전의 그의 고향의 역사에 대해 길게 살펴본 것은 그만큼 운동주의 생애와 사상을 명동촌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명동촌 이야기는 변방의 어느 작은 마을의 사소한 역사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 민족 모두의 좌절과 투쟁의 체험과 국권회복에 대한 소망의 열망이 농축된 역사이다. 이 마을은 미국, 캐나다, 유럽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들어온 기독교가 일치를 이

루며 마을 사람들에게 영적인 구원과 사회적인 해방의 방도를 제시했던 지역이고, 유교, 도교 등의 전통적 사상과 서구의 신교육이 만나 사상적인 지평이 확장되는 장이었다. 또한 이곳은 나라가 주권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통하여 자주적이고 자립적으로 마을을 운영하면서 모범적인 농촌 공동체를 이루며 주권국가 회복의 꿈을 다졌던 유토피아적인 공간이었다.

출생에서 명동소학교 시절까지(1917~1931)

윤동주는 1917년 12월 30일 명동촌에서 부친 윤영석과 모친 김용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1886년 북간도 자동으로 온가족을 이끌고 이주를 단행했던 윤동주의 증조부 윤재옥은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부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가문을 번성시켰고 1900년에 식솔을 이끌고 명동촌으로 이주를 하였으며, 윤동주가 태어나기 11년 전인 1906년에 별세했다. 조부였던 윤하연은 교회 장로로 마을 사람들의 신망을 받고 있었다. 부친은 윤씨 가문에서 처음으로 신학문 교육을 받은 지적인 인물로서, 1909년부터 명동학교에서 신학문을 배웠고, 18세인 1913년에는 정재면의 주선으로 북경 유학생 생활을 하기도 했고, 윤동주가 태어날 때는 명동학교 선생으로 가르치고 있었다. 윤동주의 어머니 김용은 김약연의 이복 누이동생으로 도량이 큰 인품과 재능으로 마을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인물이었다. 윤동주의 출생 세달 전 9월 28일에는 친정집에 와 있던 윤영석의 누이 윤신영이 같은 집에서 윤동주의 고종 사촌이 될 송몽규를 출산하였다. 윤동주와 송몽규는 둘 다 유아세례를 받았고, 기독교 신앙의 분위기에서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같은 집에서 성장했다.

1925년 4월 4일(9세)에 두 사람은 명동소학교에 입학했다. 이 때 동급생으로는 문익환과 당숙 윤영선, 고종사촌동생 김정우 등이 있었다. 이때는 북간도에 큰 가뭄이 들어 북간도 전체가 경제적 공황에 빠진 시기였으며, 이 지역 한인들도 경제적인 타격을 입어 한인 학교들의 경영이 어려워지기도 했고, 그 영향으로 1925년 명동중학교는 폐교하고 소학교만 남게 되었다. 1928년(12세)부터는 북간도 지역

에 공산주의가 급속하게 영향력을 넓히게 되었으며, 명동촌도 예외는 아니어서 1929년에는 명동소학교가 교회학교의 형태에서 인민학교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송몽규가 소학교 5학년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마을 어른들이 모인 앞에서 명동학교가 인민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연설을 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 송창희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지만, 어릴 때부터 자기 주장이 강하고 리더십이 뛰어난 그의 인품이 드러나는 일화이다. 그렇지만 송몽규가 공산주의에 빠져든 것은 아니었다. 송우혜 작가에 의하면 송몽규는 곧 공산주의의 한계를 인식하여, 김구가 중심이 된 민족주의 노선을 택하여 무장 독립운동에 관여하게 되고, 평생 다시는 마르크스주의에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고 한다.³⁴⁶⁾

명동학교는 인민학교 형태로 오래 버티지 못하고 같은 해 9월 중국 정부에 의해 공립으로 강제 수용되었다. 김약연은 명동학교 운영에서 손을 떼고 환갑 한해 전에 고향에도 불구하고 평양 장로교 신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는 평양신학교의 특별

한 배려로 1년 수학 후 목사 안수를 받고 명동교회에 부임을 했다. 명동 마을로 돌아온 김약연은 명동소학교에서 가르칠 수는 없었지만 당시 14살이던 운동주와 송몽규는 김약연으로부터 직접 맹자와 시경과 성서를 배울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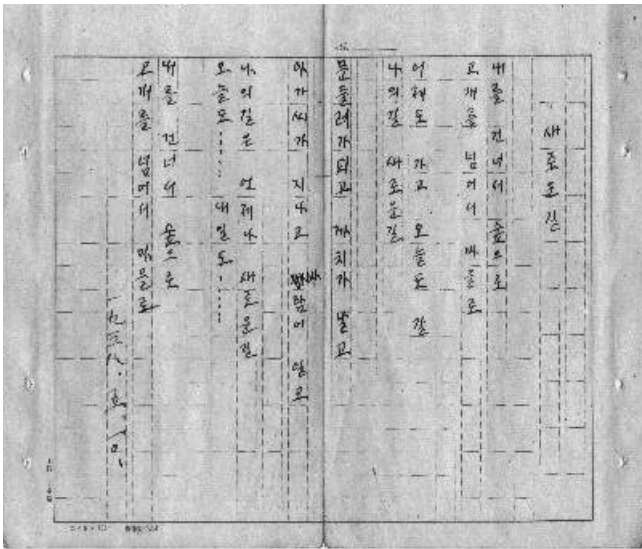


그림 34 운동주의 육필원고 '새로운 길'

회를 가졌다.

운동주에게 명동소학교 시절은 그가 일생동안 걸어갈 삶의 행로의 방향과 테두리를 정해준 중요한 시기였다. 생애 중 절반을 이곳에서 살면서 그의 인품과 사상과 문학적 감수성이 형태를 잡아가게 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병풍처럼 산에 둘러싸여 아늑한 분위기를 주는 명동마을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연이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었다.³⁴⁷⁾ 운동주는 1928년부터 서울에서 간행되던 어린이 잡지 『아이생활』 정기구독을 시작했고, 송몽규는 『어린이』를 정기구독 했는데, 이것은 만주 벽촌에서는 큰 사건이 아닐 수 없었고, 마을 전체에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³⁴⁸⁾ 운동주와 송몽규는 급우들과 『새 명동』이란 등사판 잡지를 만들면서 어려서부터 문학적인 재능과 열정을 보여주었다. 이 시절 운동주가 지은 동시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한 작품도 보존되지 않은 것은 무척 아쉬운 일이다.

명동촌이 운동주에게 끼친 문학적 영향 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명동촌의 독특한 언어문화이다. 명동촌 사람들의 말씨는 아주 부드럽고, 표현이 섬세했는데, 그 이유는 세종대왕 시절 육진(六鎭)에 옮겨온 이 지역 사람들이 다른 지방과 큰 교류 없이 오랜 세월을 고립해서 지내다보니 세종 때의 언어가 보존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한다.³⁴⁹⁾ 운동주는 이렇게 언어 감각이 섬세한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에 남다르게 우리말로 된 아름다운 시어들을 자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운동주의 명동촌 시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민족주의 교육이다. 김약연은 명동학교에서 가르칠 때 국경일이나 국치일마다 태극기를 걸어놓고 숙연히 민족애를 설교하여 학생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이기창 선생은 어떤 작품이든 조선 독립이라는 말로 결론을 내지 않으면 점수를 주지 않았다고 한다.³⁵⁰⁾ 민족교육을 강조하는 학교의 분위기와 명동촌의 정서는 운동주와 송몽규의 삶과 문학에 평생 남을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운동주에게 고향 명동촌은 단순한 출생지 이상으로 그가 일생동안 발전시킬 사상과 문학의 싹을 자라게 한 못자리와 같았다고 볼 수 있다. 기독교와 동양 고전에 근거한 사상적 심오함, 민족정신, 문학적 감수성, 섬세한 시어, 그리고 훌륭한 스승과 친구들은 명동촌이 운동주에게 준 선물이었다. 불행

히도 명동촌은 운동주가 명동소학교를 졸업할 때를 전후하여 공산주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마을로 이주 했다. 마침내 운동주 집안도 1931년 용정으로 이사하게 되는데, 이 이후로 명동촌은 다시 찾아가도 더 이상 옛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는 마을이 되었다. 운동주의 고향은 실제적으로는 지상에서 사라지고 그의 시 속에서만 남아있는 유토피아가 된 셈이다.

대랍자 중국인 소학교 시절(1931 ~ 1932)

1931년 3월 20일(15세) 에 운동주, 송몽규, 김정우는 명동소학교를 졸업하고, 명동에서 10리 동쪽에 있는 대랍자(大拉子, 중국식 발음으로 따라즈)에 위치한 중국인 소학교(화룡 현립 제1소학교)에 6학년으로 편입하여 1년 간 수학하게 된다. 운동주가 이 학교에 편입한 것은 명동 소학교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졸업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 기간 동안의 운동주의 생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는 많지 않다. 운동주는 친구들과 함께 매일 걸어서 통학을 했으며, 이 시절에 「별 헤는 밤」에 나오는 “패, 경, 옥”과 같은 이국소녀들의 이름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랍자는 간도 화룡현 현청 소재지로서, 나중에 송몽규의 부친 송창희가 이 지역에서 촌장을 지냈고, 조카뻘인 운동주의 누이 윤혜원은 운동주가 옥사했을 당시, 그 집에 머물면서 소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나름대로 운동주와 깊은 인연이 있는 도시라 하겠다.

중학시절 : 용정과 평양

용정은진중학교 시절(1932. 4~1935)

운동주의 가족은 1931년 가을 명동에서 북쪽으로 30리 떨어진 용정시로 이사를 했다. 당시 용정은 인구 4~5만의 소도시로, 조선인은 약 2만 명이 살고 있었다. 명동촌에는 중학교가 없어서 운동주는 용정의 미션계 학교인 은진중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는데, 자녀 교육이 이사한 중요한 이유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외에도 날로 격렬해지는 좌우의 간의 싸움으로 치안이 안정된 도시 지역으로 이사 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농사일을 모르는 운동주의 부친 운영석(당시 36세) 연령대의 교육받은 장년들이 직장을 찾으러 도시로 가는 추세였던 것을 감안해보면 당시 이 지역의 일반적인 분위기가 이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면도 있다.

1890년 명동촌 초기에 이주를 하여 40년을 넘게 살던 곳을 떠나 용정으로 이사하는 것이 운동주의 조부 윤하현에게는 큰 변화였다. 평생 농부로 살면서 부자소리를 들을 정도로 가세를 유지시켰던 그였는데, 삶의 터전인 농토를 소작으로 주고 도시로 이사하기로 결심한 것은 가장으로서 아들과 손자의 장래를 위한 고려 때문이었다. 운동주의 가정은 용정에 이사한 후에도 여전히 부농에 속하는 정도의 경제력을 유지했지만 생활수준은 명동촌과 비교할 수는 없었다. 명동촌에서는 큰 마당과 과수원이 딸린 마을에서 제일 큰 기와집에서 살았는데 도시로 이사 와서는 20평짜리 초가집에서 조부모, 부모, 운동주네 3남매, 그리고 송몽규까지 더부살이를 하게 되어 총 8명이 한 집에 살게 되었다. 운영석은 새로운 삶의 기반을 찾기 위해 인쇄소를 차려 운영했으나 실패하고, 포목점도 열었다가 문을 닫았다. 이런 과정에서 운영석은 교회에 나가기를 그쳤다고 한다. 그가 교회를 다시 찾은 것은 아들 동주가 감옥에 갇히고 나서이다.³⁵¹⁾ 다른 가족은 용정중앙교회에 성실하게 출석했고, 운동주는 그 교회 주일학교에서 유년부 학생들을 가르기도 했다. 교회 시무 장로였던 윤하현으로서는 용정으로 이사하면서 여러 면에서 상

실감을 느꼈을 것이다.

1932년 4월(16세) 운동주는 송몽규, 문익환 등과 함께 은진중학교에 입학했다. 어려워진 집안 환경이 운동주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 같다. 운동주는 문학은 물론 축구, 재봉틀, 웅변, 수학, 기하학 등에 관심을 가지며 행복한 청소년기를 용정에서 보냈다. 은진중학교는 캐나다 장로교 선교부 구역인 “영국덕”에 위치해 있었다. 당시 국제법상 캐나다는 영국 연방국 중 하나여서 “영국의 언덕”이라는 뜻으로 이런 명칭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영국덕은 일종의 치외법권 지역이었다. 선교사들은 이곳에 학교와 병원 등을 설립하고 운영했었고, 그 중에는 은진중학교 외에 명신여학교, 제창병원 등도 있었다.³⁵²⁾

1932년 3월 일본이 괴뢰국인 만주국을 세우면서 북간도 지역에서 일본의 지배는 더욱 강력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진중학교 학생들은 치외법권적 보호를 받으며 철저한 민족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태극기를 휘두르며 애국가를 목청껏 부를 수 있었고 “삼일절이 되면, 단군의 초상화를 정면에 걸고, 그 옆에 태극기를 내어 걸고 애국가를 부르며, 조국 광복의 날이 속히 오기를 기원했다.”³⁵³⁾

특히 은진중학교 시절 학생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시키며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분은 동양사, 국사, 한문을 가르치던 명희조 선생이었다. 그는 동경제대 출신으로 한문의 대가였다. 학생들은 그를 통해 국사를 동양사와 세계사의 연관 속에서 볼 수 있게 되었고, 조국의 광복을 넓은 안목에서 내다 볼 수 있도록 깨우침을 받았다. 학생 중 라사행이 이광수의 소설 “흙”을 읽고 감동받았다고 하니 그를 꾸짖으면서 국가가 주권이 없는데 그런 이상론 운동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면서, 우선되어야 할 것은 독립이라고 강조하며 역사를 보는 바른 시각과 대의를 서릿발같이 일깨워주었다고 한다.³⁵⁴⁾ 그 영향으로 라사행은 후에 낙양군관학교로 입학하게 된다.

명동촌에서부터 운동주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김약연은 이 시절 은진중학교로 부임하여 1934년까지 성서와 한문을 가르치면서 운동주에게 계속 영향을 주었다. 그는 나중에 1938년 2월에 은진중학교와 명신여고 이사장으로 취임할 정도

로 교육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당시 은진중학교 교목이었던 장공 김재준은 김약연이 제자를 가르치는 모습은 “마치 공자가 제자들에게 도를 행하는 것과 흡사하다”고 말했을 정도로 그는 학생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다.³⁵⁵ 운동주는 김약연의 각별한 지도로 시간 나는 대로 학문을 배우기도 했다.³⁵⁶ 김약연의 사상은 유교, 기독교, 민족주의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융합되어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이런 사상은 곧 명동소학교와 은진중학교의 학풍이었다고도 볼 수 있으며, 운동주의 사상과 시 속에서도 그 영향이 그대로 드러난다.

운동주의 은진중학교 시절을 말할 때 꼭 언급해야 할 것은, 이 시기에 그의 시적 창작욕이 본격적으로 불붙었다는 것이다. 명동소학교 시절부터 동시를 지었던 그는, 은진중학교에 진학해서도 급우들과 교내 문예지를 발간하여 작품을 발표했다. 교내 웅변대회에서 ‘땀 한 방울’이라는 제목으로 1등상을 차지한 적도 있었고, 1,2학년 때는 윤석중의 동요와 동시에 심취하였고, 중학시절 동안 세계문학전집을 통독하며 문학적 소양을 계속 심화시켰다. 그런데, 운동주가 본격적으로 시를 쓰고 자신의 작품을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송몽규가 1934년 12월에 동아일보 신춘문에 콩트부문에 당선되었다는 발표가 난 직후이다.

운동주와 마찬가지로 문학적 재능이 많았던 송몽규는 송한범이란 아명으로 “순가락”이라는 콩트를 출품했는데 그것이 당선되어 중학교 3학년 18세의 나이로 작가로 등단을 하게 된 것이다. 당시 동아일보 신춘문에는 한 해 전에 황순원이, 한해 후에는 김동리, 정비석, 서정주가 등단한 바 있는 작가가 되기 위한 가장 권위 있는 창구였다. 이것이 운동주에게는 큰 자극이 되었던 것 같다. 송몽규가 등단한 후에 운동주는 대기(大器)는 만성(晩成)이라는 말을 자주했다고 하는데, 이는 송몽규와 자기를 비교하며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말이었을 것이다.³⁵⁷ 이때부터 운동주는 자기 작품을 소중히 챙기고 그것을 쓴 날짜를 정확히 적기 시작했다. 운동주가 남긴 시 중 최초의 3편은 1934년 12월 24일(18세)에 지어진 것으로 명기된 「삶과 죽음」, 「초한대」, 「내일은 없다」이다. 운동주가 이날 3편의 시를 모두 완성했다기보다는, 송몽규의 등단 소식에 자극을 받은 운동주가 자신이 그동안

썼던 시 중 가장 맘에 드는 것을 골라서 이 날 최종적으로 다듬어서 날짜를 적으며 창작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다졌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³⁵⁸⁾

운동주의 사촌이면서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송몽규는 등단을 통해 운동주에게 큰 자극을 주었지만, 그는 정작 작가의 길을 계속 걷지 않았다. 1935년 1월 1일자 동아일보에 그의 당선작이 게재되어 전국 방방곡곡에 그의 이름이 알려졌지만, 송몽규는 그 해 4월 은진중학교 3학년을 수료하고 4학년으로 진급하지 않은 채 결연히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중국으로 건너가 낙양군관학교 한인반에 2기생으로 입교를 한 것이다. 그에게 군관학교 입교를 권유했던 사람은 명희조 선생인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삼엄한 일제의 감시 하에 독립군은 점조직처럼 후보생을 모집했는데 명희조 선생은 라사행, 송몽규 같은 학생을 은밀하게 만나 비밀루트를 통해 낙양 군관학교로 가도록 안내했다. 운동주는 명희조 선생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것 같다. 이 군관학교는 임시정부의 김구가 장개석의 자금 지원을 받아 군사 간부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학교였다.

송몽규가 중학교 3학년을 수료하고 진로를 크게 변경한 것은 당시의 학제와 연관이 있다. 당시 정규 중학교는 5년제였는데, 은진중학교는 4년제였다. 대학에 진학하기 원하는 학생은 5년제 중학교를 졸업해야 했는데, 5학년으로 편입은 잘 안 받아주어서 4학년으로 올라가면서 편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당시 용정에는 5년제 중학교로는 친일계 광명학원 중학부 밖에 없었다. 민족의식이 있는 집안에서는 자녀를 이 학교에 보내기 싫어서 상당한 유학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평양에 있는 기독교 계통 5년제 송실중학교로 보내곤 했는데, 운동주의 동급생인 문익환은 1935년 4월에 송실중학교 4학년으로 편입했다. 운동주는 집안 어른들이 허락하지 않아 은진중학교 4학년으로 진급했다.³⁵⁹⁾ 송몽규는 당시 청소년들이 장래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인생의 기로에서 낙양군관학교로 진학하기로 선택한 것이다. 태어나서부터 항상 그와 붙어 다녔던 운동주는 처음으로 송몽규와 떨어져 살게 되었다. 운동주에게 2년간 지속된 송몽규의 부재는 친구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한 마음으로 운동주의 삶에 큰 흔적을 남겼다. 그리고 송몽규가 운동주와 떨어져서 살았던 2년은 그가 일본경찰의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계기가

되면서 두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

평양 숭실중학교 시절(1935 ~ 1936)

운동주가 1935년 4월(19세) 은진중학교 4학년으로 진학했을 때, 급우들의 자리가 여기 저기 비어 있는 것을 보았다. 운동주는 자신도 숭실중학교에 가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계속 부모님을 졸라 마침내 9월 1일에 시작하는 가을 학기에 진학하기로 허락을 받았다. 그런데 편입시험을 치르러 평양에 갔던 운동주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그가 편입시험에서 떨어진 것이다. 숭실중학교는 그에게 4학년으로 편입할 자격은 주지 않고, 한 학년을 낮춰 3학년으로 편입하는 것만을 허락하였다. 이것이 운동주가 겪은 생애 최초의 심각한 좌절의 경험이었다. 평소 에 우수한 학생이었던 그는 편입시험에 떨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실 패하여 한 학년을 낮춰 학교에 다니게 된 것이다. 특히 동급생이었던 문익환도 합격한 시험을 자신이 떨어졌다는 것은 크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다. 운동주는 이 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 볼 정도로 크게 상심하였다고 한다. 운동주의 집안에서도 운동주를 나무라는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³⁶⁰ 당시 운동주의 집안은 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한 해 더 비싼 유학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부모를 생각하면서 운동주의 심정은 매우 착잡했을 것이다.

송우혜 작가는 이런 경험이 운동주 시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인 “부끄러움”의 본질을 체험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³⁶¹ 운동주는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곤혹과 수치감을 이겨내고 삶의 고뇌와 슬픔을 승화시켜 “부끄러움의 미학”의 단계로 다듬어 내었다. 생전 처음 겪는 좌절과 함께 시작한 객지의 환경과 내적인 갈등과 고뇌가 오히려 그의 시 세계의 지평을 활짝 넓혀 주었다고 보는 것이다.³⁶² 실제로 숭실중학교 시절은 운동주의 시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었던 기간이었다.

운동주는 1934년 12월 24일 날짜가 명시된 3편의 시를 쓰고 나서 숭실에 가기까지 「거리에서」라는 단 한 편의 시만 썼다. 그런데 숭실중학교에 머무는 7개월

동안 동시 5편을 포함하여 무려 15편의 시를 썼다. 1935년 10월(19세) 송실중학교 학생회 문예지인 『송실활천』 15호에 「공상」이라는 시를 게재했는데, 이는 그의 시 중 활자화된 최초의 작품이 된다. 이 시절 운동주에게 시는 삶의 신성한 가치였고 숭고한 사명이었다.³⁶³⁾ 운동주는 문예지 편집 일을 맡으면서 한 학년 위인 문익환에게도 시를 써내라고 했는데, 막상 그의 시를 받아보더니 “이게 어디 시야” 하면서 퇴자를 놓았다는 일화도 있다.³⁶⁴⁾

이 기간 동안 많은 시를 썼다는 것보다 더 문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의 시의 내용과 스타일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운동주가 1935년 12월 동시 「조개껍질」을 쓰면서 그 동안의 현학적이고 관념적인 말로 화려하게 꾸며졌던 시어들이 사라지고 쉽고 동시적인 시들이 선을 보이기 시작했다.³⁶⁵⁾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은 운동주 특유의 쉽고, 생생한 언어들, 투명하고 진솔한 정서 등이 이때 드러나기 시작했다. 1935년 10월 27일에 『정지용의 시집』이 출판되었었는데, 운동주는 이 시기에 그의 시에 심취했었다. 정지용의 시가 쉬운 말로 진솔한 감정을 동요와 민요풍으로 표현하는 특징이 있고, 또 정지용에게 동시가 중요했던 것을 고려해볼 때, 운동주는 정지용의 영향으로 새로운 시세계를 열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³⁶⁶⁾

운동주가 송실중학교에서 머문 기간은 오래 가질 못했다. 일제는 이 무렵 서양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기독교 학교에까지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거부하던 송실중학교는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송실중학교는 미국 북장로교 소속 베어드 선교사가 1897년에 세운 후 비약적 발전을 이룬 송실학교의 중학부 과정이었다. 대학부는 1908년에 대한제국 학부로부터 대학인가를 받은 국내 최고의 민족주의 대학이었다. 운동주가 재학할 당시 송실학교의 교장은 맥쿤이었는데, 그는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1936년 3월 21일 교장직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1936년 4월(20세) 새학기가 시작하자, 학생들은 일제 당국의 신사참배 강요와 부당한 압박에 대한 저항과 맥쿤 교장선생에 대한 지지의 표시로 동맹퇴학을 감행하였다. 송실학교는 결국 1938년 3월 19일 폐교되는데, 이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가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굴복하느니 차라리

학교를 폐교함으로써 종교의 순결성과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지키기로 결단한 것에 따른 결과였다.³⁶⁷⁾

윤동주에게 숭실 시절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자신의 시풍을 만들어가며 많은 시를 지었던 기간이었고 투철한 기독교 정신과 민족주의 정신을 통하여 사상적인 깊이를 심화시키는 기간이었다.

용정 광명학원 시절(1936~1938)

윤동주와 문익환은 숭실학교 자퇴 후 용정으로 돌아와서 1936년 4월 6일(20세) 친일계열 광명학교 중학부로 입학했다. 윤동주는 4학년으로, 문익환은 5학년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니, 숭실중학교 편입시험의 실패의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니는 셈이었다. 광명학교는 일본이 한국인의 황국화(皇國化)를 위해 세운 학교로 철저한 친일 교육을 실시했다. 학생들은 대부분이 한인이었지만 이 학교에서는 모든 과목이 일본어로 강의되었고, 항상 일장기와 만주국기가 휘날리고, 신사참배는 신성한 의무이자 특권으로 여겨졌다. 이 학교 선생들은 학생들을 잘 가르쳐 일본 의무성 순사로 만들거나 만주군관학교로 보내어 대륙 침략을 위한 만군 장교로 만드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생각했다. 동급생이었던 정일권은 후에 만주군관학교를 나와 소위로 임관한 후 모교로 돌아와 후배들에게 군에 입대하는 것이 장래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연설하면서 군관학교 입학을 독려해서 많은 조선인들이 입교를 했다고 한다.³⁶⁸⁾ 정일권을 중심으로 한 만군 출신 장교들이 먼 훗날 역시 만주군관학교 출신인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큰 도움을 주고 권력을 휘둘렀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불과 1년 전 애써 광명중학교를 피해서 진로를 택했던 윤동주와 문익환, 특히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동맹자퇴를 했던 두 사람이 대학 진학 자격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친일파 학교를 2년 동안 다니게 된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윤동주는 학교 수업을 착실하게 듣고, 1937년 8월(21세)경에는 학교 농구 선수로 활약하고, 9월에는 금강산과 원산 송도원 등지에 수학여행을 하는 등 외

형적으로는 큰 문제없이 학창 생활을 보냈다.

이 학교에서 운동주는 어떤 과목들을 들었을까? 이전까지 운동주가 다니던 학교의 학적부는 보존된 것이 없는데, 다행히 광명중학교 시절부터는 기록이 있다. 운동주는 4학년과 5학년 때 각각 16과목씩, 총 32과목을 들었는데, 4학년 때 들어있던 만주어 대신 5학년 때 부기(簿記)가 들어간 것 빼고는 동일한 과목들이다. 수신(修身), 공민(公民), 지리, 역사, 물리, 화학, 대수, 기하, 실업, 부기, 미술, 체육 등의 다양한 과목과 일어(독본, 문법, 작문), 조한(조선어와 한문), 만주어, 영어 등의 어문학 과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2년 전체에서 최고 점수는 조한 독본(88점)과 부기(91점)였고, 수학, 과학, 사회과학 분야 과목에서는 80점을 전후한 고른 점수를 받았으나 일어는 40-50점대 까지 내려가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 동안 주로 한국어로 가르치는 학교를 계속 다녔던 그로서는 일어 수업을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운동주는 학교 수업보다는 독학으로 문학적인 역량을 키우는 일에 힘썼다. 그는 무서운 독서가로 늘 새벽 2-3시 까지 책을 읽었다고 한다. 일본 판 세계문학전집과 한국인 작가의 소설과 시를 탐독하고, 1936년 1월에 한정판으로 출판된 백석의 시집 『사슴』은 전체를 필사해서 갖고 다니며 애독하였다. 그리고 『정지용 시집』을 계속 가까이 하고 『영랑 시집』, 『올해 명시 선집』 외에 많은 책들을 구입하여 읽었다.³⁶⁹⁾ 그 결과 광명중학교 시절에 27편의 시와 22편의 동시를 썼다. 그리고 연길 지역에서 발행되는 『카톨릭 소년』이라는 월간 어린이 잡지에 2년 동안 동시를 5편 게재하였다. 처음으로 시를 세상에 발표하게 된 것이다.

운동주의 광명중학교 시절의 삶을 살펴보면 꼭 언급해야 하는 것이 송몽규의 그간의 행적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송몽규는 1935년 4월 은진중학교 3학년을 마치고 김구가 운영하는 낙양 군관학교 한인반에 입학했다. 그는 거기서도 문학적인 재능을 발휘하여 한인반 잡지를 등사판으로 제작하였다. 김구는 그 내용을 보고 몹시 흡족해하면서 그 잡지에 신민(新民)이라는 제목을 지어 주었다고 한다.³⁷⁰⁾ 송몽규는 약 1년 동안 훈련을 받은 후 독립을 위한 활동을 하다가 1936년 4월 10일(20세) 중국 산둥성 제남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고, 6월경에 본적지인 함

경도 용기 경찰소로 압송되어 수감되었다.

이때는 윤동주가 송실중학교에서 자퇴하고 용정에서 광명중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시기였는데, 송몽규가 고초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윤동주는 친일과 광명중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큰 죄책감과 좌절감을 느꼈으리라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1936년 6월 10일에 지은 「이런 날」이라는 시에서는 만주국기와 일장기가 걸려있는 교문 안에서 철모르는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를 하는 것을 묘사한 후 모순(矛盾)이라는 두 글자를 떠올리면서 “이런 날에는 잃어버린 완고하던 형을 부르고 싶다”라고 마무리를 한다. 우리는 이 시에서 모순적인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이 순응하며 살 수 밖에 없는 자신의 좌절과 고뇌, 그리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로운 길을 깨끗하게 간 송몽규에 대한 존경과 그리움의 마음을 찾아볼 수 있다.

송몽규는 본적지인 함경도 용기경찰소로 압송되어 5개월 동안 고초를 받다가 그 해 9월 거주제한 조건으로 석방되었으며, 그 이후 평생 요시찰 인물로 일본 경찰의 감시를 받게 되었다. 송몽규는 거주제한을 어기고 가족들이 있는 용정으로 돌아와서 은진중학교에 복학하고자 하였으나, 그가 요시찰 인물이어서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아, 하는 수 없이 1937년 4월 용정의 민족계 학교인 4년제 대성중학교 4학년으로 입학하여 2년간 중단되었던 학업을 재개하게 되었다.³⁷¹⁾ 이 때 윤동주는 광명중학교에서 5학년으로 진급을 했고, 송몽규는 다시 윤동주의 집에 살면서 학교를 다녀서, 두 사람의 숙명적인 동행은 재개되었다.

대학시절 : 연희전문

연희전문학교 시절과 일본유학 준비기(1938~1942)

운동주는 1938년 2월 17일(22세) 광명중학교 5학년을 졸업한 후 대성중학교를 졸업한 송몽규와 나란히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합격했다. 연전 입학시험은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 해에 북간도 지역에서는 단 두 사람만이 합격을 했다. 송몽규는 4학년만 마쳤는데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것을 보면 그의 머리가 비상했음을 알 수 있다. 송몽규는 일찍이 부모의 승낙을 받아 연전에 진학하기로 결정했으나 운동주는 부친의 반대가 심해 애를 먹어야 했다. 운동주의 부친 윤영석은 아들이 의대에 진학하기를 원했다. 그는 자신이 문학을 했지만 문학은 아무 쓸데가 없더라고 하면서 문학을 해봤자 기껏해야 신문기자 밖에 되지 못한다고 아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썼다. 먹고 사는 걱정을 안 하려면 꼭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의대 진학을 강요했다. 운동주는 평소 성품이 유순하고 다정했지만 일단 뜻을 정하면 결코 물러서지 않는 편이었다. 부자간의 갈등은 매우 심각하여 결국 조부의 개입으로 1937년 9월에 이르러 운동주의 연전 문과 진학이 허락된다.

1938년 4월 9일 연전 문과에 입학한 운동주는 신입생 기숙사로 쓰였던 핀슨홀 3층에서 송몽규, 강처중과 한 방을 쓰면서 대학생활을 시작하였다. 핀슨홀은 현재 운동주 기념실이 있는 건물이다. 1941년 12월 27일에 졸업을 할 때까지 4년은 운동주의 일생에서 가장 행복했고 풍요로웠고 자유로웠던 시기였다. 연전은 그동안 운동주가 살아오면서 배우고 익혀왔던 기독교 신앙, 민족정신, 문학성을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형태로 꽃피우게 하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였다. 운동주는 연전에 왔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었던 잠재력을 마음껏 펼쳐볼 수 있었다.

당시 연희전문학교는 뜻이 있는 한국의 젊은이들에게는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이었다. 연전은 1915년 3월 YMCA에서 조선기독교대학(Chosun Christian College)이라는 이름으로 원두우가 세웠다. 초대 교장은 원두우, 교감은 에비슨

(Oliver R. Avison)이 맡았으며, 원두우가 병세가 악화되어 미국으로 귀국한 뒤 1916년에 세상을 떠난 후 부터는 에비슨이 2대 교장을 맡아 학교를 발전시켰다. 원두우의 큰 형인 존 언더우드(John T. Underwood)의 기부금으로 오늘의 신촌 연세대 캠퍼스 대지를 매입하여 이전함으로써 연전은 명실 공히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민족정신의 진원지요, 한민족의 독립을 위한 항일 운동의 총본산으로 꾸준히 성장해왔다.

운동주가 연전에 입학했던 1930년대 말은 일제가 발악적으로 가혹한 식민지 지배를 강화하던 때였고, 특히 학교에 대해서는 신사참배와 황국화 교육을 하라는 압력이 극에 달했었다. 어떤 학교들은 일제의 압력에 굴복하기도 했고 송실학교 같은 경우는 차라리 폐교를 선택하기도 하였다. 연전은 당시 3대 교장을 맡고 있었던 원한경(元漢慶, Horace Horton Underwood)이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하여 폐교는 면하였다. 운동주는 연전에 들어와서 그동안 명동소학교, 은진중학교, 송실중학교 등을 거치면서 싹을 내고 키워왔던 민족적 전통과 문화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을 높은 정신적 차원으로 승화시켰다. 운동주는 연전에 다닌다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특히 외솔 최현배 선생을 통해 한글의 매력에 푹 빠질 수 있어서 매우 기뻐했다.³⁷²⁾ 연전은 민족운동의 본산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곳에 입학하는 젊은이들은 남다른 자세와 각오로 공부를 했고, 최고 수준의 교수진들은 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학문적으로, 정신적으로 최선을 다해 지도했다. 당시의 민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의 분위기와 헌신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던 실력 있는 교수진들, 그리고 진지하게 배우는 자세로 임했던 학생들의 모습은 운동주와 연전을 같이 다녔던 유명의 증언을 통해 생생하게 전해진다.

외솔 선생의 『우리말본』 강의를 들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감격했고 또 영광스러웠고 연희 동산이 얼마나 고마운 곳인가를 뼈저리게 느꼈다. 동주가 얼마나 그 강의를 열심히 들었는지, 항상 앞자리에 앉던 동주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게 떠오른다.

하경덕 교수의 영문법 강의는 숙제 발표로 우리를 적잖이 골렸는데, 동주 역시

상당히 시달림을 받았으나 나중에 서로 이야기한 일이지만 그렇게 하교수가 밋 더니 지금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하였다. 이러한 훈련의 덕은 동주를 일본에서 계속 영문학을 전공케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양하 선생의 강의는 또 다른 면에서 동주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이 된다. 그분은 스스로 수필을 쓰시고 또 시도 좋아하시어 당시 몇몇은 평론이며 시를 써서 그분의 지도와 조언을 받았다. 동주 역시 자주 접촉하여 지도를 받은 바 있다. 말이 서투르고 더디면서도 깊이 있는 강의, 무게 있는 강의에 모두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동주를 울렸고 우리 모두를 울린 일이 있다. 그것은 손진태 교수다. 손 교수께서 역사 시간에 잡담으로 꾸리 부인 이야기를 하신 것이다. 꾸리 부인이 어렸을 때 제정 러시아 하에서 몰래 교실에서 폴란드말 공부를 하던 때 마침 시학관이 찾아와 교실을 도는 바람에 모두 폴란드말 책을 책상 속에 집어넣었다... 손 선생님은 이 이야기를 소개하시고 자신이 울며 손수건을 꺼내자 우리들도 모두가 울음을 더뜨려 통곡을 하였다. 그 후 우리는 그분을 우러러보았고 더욱 가까이하게 되었다. 아마도 동주의 시도 글도 이러한 의식의 흐름들이 있음을 나는 느끼는 바가 있다. 송충이잡이를 뒷동산에서 할 때면 손, 이 선생 등을 모시고 숲 속에서 사제간담배를 피우며 은밀한 대화를 하던 것도 잊을 수 없다.

그 밖에 김선기 선생의 음성학에서 들던 이야기, 민태식 선생의 한문과 고전, 이묘목 선생의 회화, 특히 강낙원 체육 교수의 은근한 민족의식 고취는 우리의 의식구조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원한경 박사의 소탈한 설교, 유억겸 선생의 무거운 인격, 이춘호, 최규남, 김두현 선생 등의 가르침이 동주나 우리에게 지성의 샘이었음은 물론이다.³⁷³⁾

조금 긴 인용이지만 운동주가 연전에 다니면서 경험했던 캠퍼스 생활을 생동감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증언이다. 운동주가 연전에서 공부할 때의 교수진은 다음과 같았다: 원한경(교장), 강낙원, 유억겸, 이양하, 이묘목, 이춘호, 김두현, 현제명, 최현배, 최규남, 김선기, 백낙준, 손진태, 신태환, 정인섭, 하경덕, 김윤경. 특히 운동주는 최현배, 김윤경, 이양하 선생을 존경하고

그분들에게 배운 바가 많다고 말한 것으로 그의 당숙인 윤영춘은 회고하고 있다.³⁷⁴⁾

윤동주는 연전 문과를 4년간 다니면서 총 60과목에 해당되는 학점을 들었는데, 학년이 바뀌어도 중복해서 들은 과목이 있어서 과목의 총 수는 다음과 같은 32과목이다: 수신, 성서, 국어, 조선어, 한문학, 문학개론, 영문법, 영독(英讀), 영작(英作), 영회(英會), 성음학(聲音學), 동양사, 자연과학, 음악, 체조, 국사, 서양사, 사회학, 경제원론, 논리학, 체조, 교련, 국문학사, 지나어(支那語), 사학개론, 철학, 교육학, 불란서어, 무도(武道), 일본학(日本學), 심리학, 법학. 이 중 성서는 매 학년 들어있었고, 영독, 영작, 영회는 3학년을 제외하고 매 학년 들어 있었다. 90점을 넘는 점수를 한 번이라도 받은 과목으로는 조선어, 음악, 성서, 영작, 서양사, 한문, 지나어 등이 있고, 70점 이하를 받아본 과목으로는 사회학, 일본학 등이 있다. 윤동주는 한문이나 한문학, 조선어 등의 점수가 높은 편이었고, 영어 과목들은 대체로 점수가 높았으나 2학년 영문법은 50점, 4학년 영작은 60점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윤동주는 이와 같이 다양한 학문의 영역을 섭렵하면서 아무 단절 없이 4년 동안 충실하게 학생의 본분을 지켜왔다. 입학부터 졸업까지 온전하게 학교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일생에서 연전 뿐이었다. 연전은 그만큼 그의 시가 영글 수 있는 풍요로운 토양과 환경을 제공했고, 정서적으로 사상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단단한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윤동주는 연전이 제공하는 양질의 학문적, 인격적 자양분을 스핀지처럼 흡수하여 연전이 기를 수 있는 이상적인 인물로 성장하였다.

연전에서의 4년은 윤동주가 그의 생애에 가장 원숙한 시를 지은 기간이었다. 이것은 윤동주가 자신의 첫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실기 위해 뽑은 19편의 시가 모두 이 기간에 창작된 것이라는 사실만 보더라도 확실하다. 윤동주는 연전 재학 시절에 총 33편의 시와 5편의 동시, 2편의 산문을 지었는데 그 자세한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1 운동주가 연전 재학 시절 지은 시와 산문 목록
(밑줄 친 것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수록된 19편)

연도	시	동시	산문
1938 (22세)	「 <u>새로운 길</u> 」, 「비오는 밤」, 「사랑의 전당」, 「이적」, 「아우의 인상화」, 「코스모스」, 「 <u>슬픈 족속</u> 」, 「고추밭」 <총 8편>	「햇빛·바람」, 「해바라기 얼굴」, 「애기의 새벽」, 「귀뚜라미와 나와」, 「산울림」 <총 5편>	「달을 쏘다」
1939 (23세)	「달같이」, 「장미 병들어」, 「투르 게네프의 언덕」, 「산골물」, 「 <u>자화상</u> 」, 「 <u>소년</u> 」 <총 6편>		
1940 (24세)	「팔복」, 「위로」, 「 <u>병원</u> 」 <총 3편>		
1941 (25세)	「 <u>무서운 시간</u> 」, 「 <u>눈 오는 지도</u> 」, 「 <u>태초의 아침</u> 」, 「 <u>또 태초의 아침</u> 」, 「 <u>새벽이 올 때까지</u> 」, 「 <u>십자가</u> 」, 「 <u>눈 감고 간다</u> 」, 「 <u>못자는 잠</u> 」, 「 <u>돌아와 보는 밤</u> 」, 「 <u>간판 없는 거리</u> 」, 「 <u>바람이 불어</u> 」, 「 <u>또 다른 고향</u> 」, 「 <u>길</u> 」, 「 <u>별 헤는 밤</u> 」, 「 <u>서시</u> 」, 「 <u>간</u> 」 <총 16편>		「총시」

위의 목록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이 관찰된다. 운동주가 연전에 와서 처음 지은 시는 「새로운 길」(5월10일)이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로 시작하며 “나의 길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고 노래하는 이 시 속에서 우리는 연전 시기를 시작하는 운동주의 각오와 포부를 엿볼 수 있다. 1학년 때 운동주는 5편의 동시를 지었는데, 이전의 동시보다 빼어난 솜씨로 쓰여졌지만 운동주는 더 이상 동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들이 그의 마지막 동시가 된다. 2학년 때는 이전에 썼던 시를 『조선일보』 학생란 등에 발표를 했지만 새로 많은 시를 쓰지는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1학년 때(1938년) 마지막 시 「고추밭」을 10월 26일에 썼는데, 1939년 9월



그림 35 윤동주와 정병욱

에 가서야 다음 시들, 즉 6편의 시 중 4편을 썼다. 「산골물」과 「소년」은 정확한 창작일자가 기록되지 않아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시인 윤동주는 2학년 때 오랜 공백기를 가졌던 것 같다. 3학년 때 (1940년)는 더 긴 절필기간을 가졌다. 윤동주는 12월에 가서야

「팔복」, 「위로」, 「병원」 3편의 시만을 지었는데, 이로서 그는 1년 3개월간의 침묵을 깨고 다시 창작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연전에서의 마지막 해인 1941년에 그는 총 16편의 시를 지었는데, 이 중 14편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수록될 정도로 모두가 윤동주가 심혈을 기울인 시이다. 윤동주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완성한 후 출판에 관해 이양하 교수와 상의했는데 일본 관헌의 검열에 걸리고 신변 안전에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충고를 받아들여 필사본을 3부만 만들어 이양하 교수와 정병욱에게 한 부씩 주고, 자신이 한 부를 보관하였다.

윤동주의 연전 4년을 살펴보면 빠뜨릴 수 없는 것은 기독교와 관련된 내용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윤동주의 생애를 살펴보면 기독교가 그에게 끼친 영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다. 가정과 마을, 교회, 그리고 그가 다녔던 대부분의 학교는 외형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기독교적인 원칙에 따라 운영되었다. 윤동주는 자연스럽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고 일요일에는 교회에 다니고, 성탄절에는 새벽송을 돌고, 나이가 들면서 주일학교와 여름성경학교 교사를 하는 등 기독교 신자로서 전형적인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였다. 기독교 대학인 연전에 와서도 그는 연전과 이화여전 학생들이 출석하는 협성교회(이 교회는 오늘날 연세대와 이화대 대학교회의 전신이 된다.)에 나갔고 선교사 부인이 인도하는 영어성경공부에도 참여했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큰 변화 없이 교인으로서의 생활을 계속 하는 것 같았

지만 운동주는 내면적으로 그의 존재의 근원을 뒤흔들 정도의 심각한 신앙적 회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³⁷⁵⁾ 이 회의는 날로 가혹해지는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것 같은 신에 대한 원망의 마음 때문에 생겼다고 짐작할 수 있지만 또한 한 개인이 성장하면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회의는 신앙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의심과 확신이 반복되면서 신앙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생기는데, 지금까지 심각한 신앙적 회의를 하지 않았던 운동주로서는 대학 1학년을 마치고 난 시점이 그동안 무비관적으로 받아들였던 신앙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해보는 적절한 시기였던 것 같다. 도리어 이런 성장통이 없이 주일학교 때 믿던 방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면 운동주의 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공감을 일으키는 매우 제한된 독자층을 위한 시로 남아있었을 것이다. 앞의 표1을 보면 연전 2, 3학년 시기에 운동주는 오랜 기간 동안 시를 짓지 못하면서 안정을 못 찾고 문학적으로 방황하였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신앙적 회의도 같은 시기에 겪었던 것 같다.

그가 오랜 절필기간을 끝내고 처음 시은 시가 「팔복」(1940년 12월)이다. 혹자는 이 시가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의도적으로 비틀어서 표현함으로써 그의 불신앙을 드러낸다고 평을 하지만, 그 이후의 운동주의 시가 전개하는 심오한 종교적 차원을 고려해볼 때, 「팔복」이야말로 운동주가 오랜 신앙적 회의의 기간을 통과한 후 그의 신앙이 한 단계 차원이 깊어지고 지평이 확장되면서 쓰기 시작한 시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옳다. 운동주가 다음 해 1941년 2월 7일 「무서운 시간」을 시작으로 6월 2일 「바람이 불어」까지 11편의 시를 썼는데, 이들은 거의 전부가 기독교와 밀접하게 관련된 시들이다.³⁷⁶⁾ 같은 해 후반부에 쓰여진 「또 다른 고향」(9월) 이후 6편의 시들은 모두가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들은 명백하게 기독교적인 색채를 띠지 않으면서 기독교적 진리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으로 평가된다. 삶의 의미, 죽음, 좌절, 내면의 성찰, 죄, 악, 부끄러움, 믿음, 사랑, 희망, 구원, 자유, 기쁨, 종말 등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주제인데 운동주는 연전시절과 그 직후에 쓴 시에서 이 주제들을 깊게 다룸으로, 신학(神學)의 시학화, 시학(詩學)의 신학화라고 할 정도의 고도의 사상적 융합 작업을 했

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운동주의 시는 종교, 이념, 민족을 초월해 모든 인류의 심금을 울리며 깊은 감동을 주는 것이다. 연전 4년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연전 1학년 때 아직 동시를 쓰던 순진한 운동주는 2,3학년 때 회의와 갈등의 시간을 보내고, 4학년 때 철이 든 모습으로 되돌아와서 4학년 1학기 때 기독교 신앙을 확립하는 시를 썼고, 2학기 때는 그 신앙을 바탕으로 완숙한 명시들을 썼다고 할 수 있겠다.³⁷⁷⁾

연전 시절의 운동주의 삶을 훑으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할 내용은 그가 학창 시절 가까이 지냈던 친구들, 특히 송몽규, 정병욱, 강처중과의 친분관계이다. 이 친구들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주는 없었을 것이다.

송몽규: 평생 운동주와 운명적인 동행을 했던 송몽규는 연전에 입학하면서 운동주와 같은 방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고, 방학 때면 같이 기차를 타고 고향 용정을 방문했다. 문과 학생회가 발간하는 『문우』 1941년 판을 편집했다. 그는 운동주와 성격이 대조적이었다. 운동주는 얌전하고 말이 적고 다정하고 자상한 성격이었고, 송몽규는 말이 거칠고 떠벌리고 행동반경이 큰 편이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은 성격차이 때문에 한 번도 다툰 적이 없고 늘 친하게 지내서 마치 쌍둥이 같았다고 한다.³⁷⁸⁾

정병욱: 그는 운동주의 2년 후배고 나이는 다섯 살이나 아래였는데 연전에 입학하자마자 운동주와 사귀어 이래 재학 시절 내내 형과 아우처럼 친하게 지냈다. 운동주는 그를 교회에 데리고 가기도 했다. 운동주는 그에게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필사본 3권 중 한 권을 주었는데, 그가 이것을 잘 보관하였기 때문에 해방 후 출판될 수 있었다. 그는 서울대 국문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운동주의 시가 교과서에 실리게 되는데도 큰 노력을 했다.

강처중: 운동주의 입학 동기인 그는 연전 신입생 때 운동주, 송몽규와 함께 같은 기숙사 방을 썼다. 졸업반 때는 문과 학생회장을 지냈고, 운동주가 일본으로 유학간 뒤 서울에 남겨둔 「참회록」을 비롯한 낱장으로 된 시 원고들과 책, 책상, 연전 졸업 앨범 등을 보관하였고, 또한 운동주가 일본유학 중에 그에게 보낸 편지 속에 써넣은 「쉽게 씌어진 시」등을 비롯한 일본에서 쓴 시 5편을 보관했다. 강처중

이 아니었다면, 운동주가 일본에서 쓴 시는 단 한 편도 세상에 전해질 수 없었을 것이다. 강치중은 해방 후 『경향신문』 기자로 있으면서 운동주의 시를 신문에 실어 소개했고 정지용 시인에게 1948년 1월 출간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서문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다.

운동주는 원래 1942년 3월에 연전을 졸업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일제 당국의 전시 학제단축 조치에 의해서 1941년 12월 27일에 졸업했다. 졸업 후 운동주와 송몽규는 한 달 반 정도 고향에 머물면서 일본 유학을 준비하였다. 이미 집안 어른의 허락도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일본 유학을 실행하는데 넘어야 할 높은 산이 있었다. 현해탄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도항증명서가 필수적이었는데, 그 증명서에는 창씨개명한 이름만 허용이 되었던 것이다. 운동주는 결국 1942년 1월 29일(26세) 연전으로 돌아와 학적부의 이름을 ‘히라누마 도오쥬우’로 바꾸었다. 송몽규는 조금 더 버티다가 2월 12일에 창씨개명을 했다. 당시 운동주의 기독교 신앙은 한층 무르익었고 일제의 탄압이 더욱 잔학해지면서 반일감정이 최고조에 달했을 텐데 종교적 순수성과 민족적 절개를 저버리면서 그가 얼마나 참담함과 치욕을 느꼈을 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시인은 시로 모든 것을 말한다고 하지 않는가? 운동주는 당시 그의 심정을 「참회록」이라는 시에 남겼다. 이 시는 그가 창씨개명을 하기 닷새 전인 1월 24일에 쓰여졌고, 그가 한국에서 쓴 마지막 시가 된다. 이 시를 통해 그는 창씨개명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앞으로 겪을 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시는 실존적 성찰, 역사 의식, 기독교적 죄 고백의 요소 등이 녹아서 하나로 융해되면서 완벽한 문학성을 이룬 운동주의 최고 역작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유학시절 : 도쿄와 교토

릿쿄대학 시절(1942년 4월~10월)

운동주는 마침내 1942년 4월 2일(26세)에 도쿄에 있는 릿쿄대학(立教大學) 문학부 영문과에 입학하게 된다. 송몽규는 4월 1일 교토에 있는 경도제국대학(京都帝國大學) 사학과에 입학했는데, 이 대학은 당시 동경제국대학에 버금가는 최고의 대학이었다. 운동주도 이 대학 입학시험을 쳤지만 떨어져서 릿쿄대학으로 바뀌어서 진학을 한 것이다. 운동주는 송실중학교 입시 때처럼 이번에도 시험 운이 별로 따르지 않았던 것 같다. 운동주는 릿쿄대학에서 첫 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 때 북간도 고향을 방문하여 보름 정도 머문 후 다시 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교토에 있는 도시샤대학으로 편입을 하게 되어 이 학교에서 수학한 기간은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곳에서 그는 다다미 6장 크기의 육첩방(六疊房)에서 하숙을 하면서 유학생생활을 시작했다.

릿쿄대학은 도쿄에 위치해 있었고, 성공회 계열의 기독교 대학이었다. 성공회는 일본 왕의 친동생 중 하나가 신자가 되어 일본 내에서 세력이 큰 기독교 교파였다. 이 시절 운동주의 학교생활의 면모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운동주가 만났던 대조적인 두 인물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인물은 군사교련을 담당했던 반도신지(飯島信之) 육군 대좌이다. 그는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가 정말 싫다.” “릿쿄대학은 미션계이기 때문에 미국인을 위한 스파이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학을 개조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일본 군국주의의 충실한 추종자였다. 당시 학생들은 모두 군사교육을 받아야 했는데 군사교육 출석정지를 당하면 곧 징병으로 끌려가야 했다. 반도신지는 이 권한을 이용하여 많은 학생들을 위협하고 괴롭혔다. 특히 조선인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일본에 필요없다.”고 하면서 가혹하게 대했다.³⁷⁹⁾ 당시 운동주의 사진을 보면 머리를 뺏뺏 깎은 모습으로 나오는데, 이는 전시체제에 맞춰

기풍을 진작하기 위해 교내 단발령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참고로 송몽규가 다니던 정도제대에서는 단발령을 내리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는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는 한 개인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 일제 당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일본은 기독교계 학교에서도 소위 황도 사상을 확실하게 주입하는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온갖 압력을 넣고 있었다. 운동주가 떠난 후 1942년 9월 29일에 릿쿄대학 이사회는 “기독교주의에 바탕을 둔 인격 도야”라는 정관 제1조의 문구를 삭제하고 “황도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으로 개정했다.³⁸⁰⁾ 그리고 10월에는 예배당을 폐쇄하고 그 자리를 교련에 쓰는 무기 창고로 사용했고, 대학 내 기독교식 예배를 일절 금지했다.

이런 숨 막히는 분위기 속에서도 운동주가 짧은 기간이나마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두 번째 인물인 교목 고송효치(高松孝治) 교수 덕이었다. 그는 대학의 채플을 전담하는 목사로서 문학부 종교학과에 소속된 교수였는데, 기독교사, 기독교경전학, 그리스어를 강의하기도 했다. 그의 높은 견식과 학식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그를 따랐고, 조선 유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어서 그들도 그를 무척 존경했다. 운동주도 고송효치 교목을 여러 번 찾아 갔다고 한다. 한 번은 운동주가 교련거부에 대해 그와 상담을 했고, 그는 “나도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신에게 기도하고 있으니까”하며 격려해주었다고 전해진다.³⁸¹⁾

운동주가 릿쿄대학에 다니며 도쿄에 머문 기간은 4개월 밖에 되지 않지만, 도쿄 시절은 시인으로서의 운동주의 생애에서 매우 중요한 기간이었다. 그의 마지막 시 5편이 이곳에서 쓰여졌기 때문이다. 1942년 봄 릿쿄대학 입학 직전에 소년 시절 친구이자 고종사촌동생인 김정우가 도쿄에서 운동주를 만났는데, 운동주는 그에게 다윗의 시편을 많이 읽으라고 충고를 해주었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당시 운동주가 성서와 시의 밀접한 관계에 주목하며 시를 구상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³⁸²⁾ 운동주는 일본 유학 기간 중에 여러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안에 시를 적어 보냈다고 한다. 그 중 연전 동문 강처중에게 보낸 5편의 시만 보존되었다. 그 시는 다음과 같다: 「흰 그림자」(4.14), 「흐르는 거리」(5.12), 「사랑스런 추억」(5.13), 「쉽게 씌어진 시」(6.3), 「봄」(정확한 날짜 미상)

이 중 「쉽게 씌어진 시」는 약소국 국민인 일본 유학생 운동주가 겪어야 했던 갈등과 소망과 다짐을 절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 시에서 그는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는 구절로 그가 처한 시대적 상황을 밝힌 뒤, 그의 어릴 때 친구들은 하나 둘 떠나가 험한 세상을 어떻게 견디는지 알 수 없는데, 부모가 보내주는 학자금으로 대학 노트를 끼고 노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가는 자신의 나약한 모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부끄러움을 느낀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지만 그는 여기서 주저앉지 않고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씩 몰아내면서 아침처럼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을 기다리며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다짐을 이 시에서 표현하고 있다. 운동주가 옥사하지 않고 계속 시를 지었다면 어떤 시들이 쓰여졌을지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결국 이 시는 그의 인생의 맨 끝자락에서 자신의 생애를 요약하며 그가 이루지 못한 소망을 담은 유언장이 되고 말았다.

도시샤대학 시절과 체포, 옥사까지 (1942년 10월 ~ 1945년 2월 16일)

1942년 7월(26세) 운동주는 여름방학을 맞아 북간도 용정 집으로 돌아와서 15일 정도만 머물렀다. 이 기간에 운동주는 동생 윤혜원에게 앞으로 우리말 인쇄물은 모두 사라질 테니 무엇이나, 악보라도 사서 모으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일본 동북제국대학에 재학 중인 친구가 편입 수속을 하기 위해 빨리 일본으로 오라는 전보를 보내서 부랴부랴 도일했다. 그러나 정작 일본으로 돌아온 운동주는 1942년 10월 1일에 교토의 도시샤대학(同志社大學)으로 편입을 하게 되었다. 아들이 제국대학을 나와 출세하기를 기대했던 운동주의 부친은 이 일에 대해 무척 노여워했다고 한다. 도시샤대학은 1875년에 설립된 기독교 계통 대학으로 개신교 조함교회파에 속한 학교였다. 학과 중에 신학과가 있어서 일본 내 기독교계 중요 인물들이 이 학교를 나왔다. 당시 도시샤대학은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교육을 했는데 학생들은 학년 구분이 없이 자율적으로 수강할 과목을 정했다고 한다. 운동주

는 이곳에서 1942년 가을 학기와 1943년(27세) 봄 학기를 공부했는데 그가 수강한 과목은 영문학 관련 4과목, 신문학 1과목 등 총 5과목이었다. 1943년 1월 겨울 방학은 귀성하지 않고 교토에서 지냄으로 그는 살아서는 고향에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운동주가 도시사대학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송몽규가 같은 도시의 경도제대에 재학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연전의 스승 이양하가 교토에서 오랜 기간 공부를 했고, 그가 중학교 때부터 애독하던 정지용 시인이 도시사대학 출신이라는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운동주는 송몽규의 하숙집과 불과 5분 거리에서 살고 있었으며 그와 자주 어울렸다. 그러나 삼엄한 시대에 독립운동 경력 때문에 일본 경찰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늘 감시를 당하고 있는 송몽규와 접촉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운동주는 송몽규와 가까이 지내면서 민족의 독립을 위한 일에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다. 그의 친구들에 의하면 보통 때는 조용하던 운동주가 일본인 교사에 대한 비판을 할 때면 감정이 격해지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또한 후배에게 여러 번 인도의 타고르 시인의 시를 낭송해주면서 조국 광복을 염원했다고 한다.³⁸³⁾ 나중에 작성된 일본 경찰의 취조문서와 재판 판결문을 보면 운동주는 이 기간에 “친구들과 조선의 독립을 강조하고 민족의식을 부추키고, 조선어 폐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등, 한민족으로서의 민족의식과 문화를 유지하고 양양시키려는 불온한 사상과 행동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³⁸⁴⁾ 오래 전부터 일본 경찰은 송몽규를 감시하면서 그와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고 기록해 놓았던 것이다. 더 이상 송몽규 일행을 놔두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했는지, 일경은 1943년 7월 10일에 송몽규를 먼저 체포했고, 7월 14일(27세)에는 운동주와 고희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체포하였다. 이렇게 운동주의 도시사 학창 시절은 갑자기 끝나버리게 되었다.

운동주가 도시사 재학 기간에 썼던 어떤 글도 현재 보존된 것은 없다. 다만 운동주가 투옥된 후 면회를 갔던 당숙 운영춘이 취조실에 가보니 운동주가 상당한 부피의 원고 몽치를 일어로 번역하고 있었다고 증언하는 것을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작품 외에 다른 작품들이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³⁸⁵⁾ 운동주의 시 어디에도 도

시사 대학 시절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지만 운동주 시비가 도시사 대학 안에, 정지용 시비와 함께 나란히 세워져 있다.

운동주는 1943년 여름방학을 고향에서 보내기 위해 체포되기 전에 교토에서 기차표를 예매하고 짐을 수하물로 먼저 부쳤었다. 운동주의 체포 소식은 그의 고향 도착 예정일 즈음에 용정에 전보로 알려졌다. 전보가 도착했을 때 운동주의 여동생 윤혜원은 부친의 요청으로 오빠를 마중하러 용정에서 2백 리 떨어진 두만강 건너 함경선의 종점인 상삼봉역에 가서 기차 시간마다 역에 나가 오빠를 기다려야 했다. 운동주가 체포된 후 일본에 있던 당숙 윤영춘과 고종사촌동생 김정우가 교토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는 운동주를 면회할 수 있었다. 7월 체포 소식을 듣고 도쿄에서 부랴부랴 면회를 온 윤영춘은 “아저씨, 염려 마시고 집에 돌아가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어머니에게 곧 석방되어 나간다고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운동주의 마지막 말을 들었다고 한다.³⁸⁶ 그는 형사의 지시로 운동주가 자신의 글을 일어로 번역하는 것을 보았고, 송몽규는 먼 친척이 되어서 면회를 할 수 없었다. 김정우가 면회를 했을 때 운동주는 역지로 미소를 지으며 할아버지와 부모님께 잘 있다는 소식을 전해줄 것을 몇 번이고 부탁하였다고 한다.³⁸⁷ 운동주는 체포된 지 260일 만인 1944년 3월 31일(28세)에 교토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은 결과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송몽규도 4월 13일에 동일한 형을 선고받은 뒤 한반도에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형무소인 큐슈 후쿠오카(福岡) 형무소로 이송되어 복역을 시작했다. 이들의 죄목은 조선독립운동이었다.³⁸⁸ 운동주는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독방에서 노동을 하며 수감생활을 했고 가족들에게 매달 엽서 한 장씩만 일어로 보낼 수 있었다. 운동주의 가족은 한 번도 면회를 할 수 없었고 우편으로 물건들을 보내는 것만 허용되었고, 운동주의 요청으로 영일(英日)대조 신약성서를 보내주기도 했다.

운동주의 출감 예정일은 1945년 11월 30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조국의 광복을 반년 앞두고 형기도 채우지 못한 채 1945년 2월 16일 새벽 3시 36분(29세)에 27년 2개월의 생애를 살고 운명하였다. 운동주의 옥사 소식을 듣고 부친 윤영석과 당

숙 윤영춘이 그의 사망 10일 후에 후쿠오카 형무소에 도착했다. 우선 아직 살아있는 송몽규를 먼저 면회했는데 반이 깨진 안경을 끼고 나타난 송몽규의 외모는 뼈에 가죽만 씌워놓은 것 같았고 말도 정확히 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왜 이렇게 되었냐고 물으니 “저놈들이 주사를 맞으라고 해서 맞았더니 이 모양이 되었고 동주도 이 모양으로...” 하고 말했다고 한다.³⁸⁹⁾ 송몽규는 3월 7일 세상을 떠남으로 평생 동행했던 친구가 간 길을 부지런히 뒤 따라가게 되었다.

운동주가 수감생활 중 남긴 시는 물론 어떤 글도 보존된 것이 없다. 그렇지만 운동주 시인이 인생의 막바지에 잡시라도 마음속에 떠올렸을 시상의 흔적을 추적해 보는 것은 부질없는 일은 아닐 것이다. 운동주의 동생 윤일주가 편지에 “벗 끝을 따라온 귀뚜라미 소리에도 벌써 가을을 느낍니다.”라고 써 보낸 적이 있었다. 여러 정황으로 보아 1944년 초가을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편지에 운동주는 다음과 같이 답장을 해 주었다고 한다. 물론 이것은 원래 일어로 쓴 것이고 윤일주의 기억 속에서 재구성된 것이다.

“너의 귀뚜라미는 홀로 있는 내 감방에서도 울어준다. 고마운 일이다.”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출간까지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무조건 항복으로 우리 민족은 광복을 맞이하였다. 38선에 의한 남북 분단과 건국을 위한 준비 등 복잡한 정세 속에서 광복을 다섯 달 앞두고 옥사한 운동주에 대해 세상 사람들은 아무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다 운동주 서거 2주기를 앞둔 1947년 2월 13일에 당시 『경향신문』 기자였던 강처중이 운동주의 시 『쉽게 씌어진 시』를 정지용의 소개글을 붙여서 지면에 실어서 운동주의 시를 세상에 알렸다. 그리고 3주기에 맞추어 운동주 시집을 발간하기로 계획을 세워 정병욱이 보관하고 있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필사본에 실린 시 19편에 강처중이 보관했던 낱장 시를 추가하여 총 31편의 시를 묶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제목으로 1948년 1월에 정음사에서 출판하였다. 이 시집은 당시 기준으로는 상당히 격식을 갖추어 고급스럽게 출판된 시집이었다. 당대 최고

시인이었던 정지용이 서문을 쓰고, 현직 신문기자인 강처중이 발문을 붙였다. 정식으로 등단도 하지 못한 시인의 유고시집이 이렇게 출판되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운동주의 시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그가 살아온 고귀하고 순결한 삶을 기리는 연전 친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하여 가능했던 것이었다. 이 시집은 출판된 후 6.25를 거치면서 정지용의 월북과 강처중의 좌익 연루 등으로 형태를 바꾸어가며 출판되었지만 판이 거듭되면서 새로운 원고들이 추가되어 내용이 증보되면서 점점 더 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어 마침내 운동주 시인은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으로, 그의「서시」는 가장 애송하는 시로 꼽히게 되었다.

연세 학풍의 미학적 승화

지금까지 우리는 운동주의 생애를 그가 다녔던 학교를 중심으로 재구성해 보았다. 운동주는 한 번도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었고, 적은 원고료 외에 돈을 벌어본 적도 없었고, 평생 부모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받았던 학생이었다. 그는 자신의 시집의 출판을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무시무시한 고독 속에서 죽었구나.”라는 정지용 시인의 말대로 운동주는 자신의 시를 통해 세상과 제대로 소통도 해보지 못하고 요절했다. 요즘의 기준으로 보면 그의 삶은 실패한 삶이다. 그렇지만 운동주는 어떤 누구보다도 연세를 빛낸 동문으로 존경을 받고 있다. 이미 운동주의 삶의 방식과 시는 연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아 학생, 교수, 직원, 동문 등 모든 연세인들에게 특별한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다. 우리는 운동주가 연세의 학풍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운동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연세 학풍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동서고근 화충의 승화

운동주는 동서(東西) 고근(古近)의 화충이라는 연세 학풍을 높은 수준으로 승화시켰다. 운동주에게 영향을 주고, 그리고 그가 계승하고 발전시킨 연전의 학풍의 큰 틀은 동서와 고근의 화충(和衷)이라 할 수 있다. 1932년 『연희전문학교상황 보고서』에는 연전의 교육은 “기독교주의 하에 동서 고근 사상의 화충으로 문학, 신학, 상업, 수학, 물리학, 화학에 관한 전문교육을 시(施)하여 종교적 정신의 발양(發揚)으로써 인격도야를 기(期)하며 인격도야로부터 돈실(敦實)한 학구적 성취를 도(圖)하되 학문의 정통에 반(伴)하여 실용능력을 겸비한 인재 배출”하는 것이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³⁹⁰⁾ 즉 기독교 정신을 토대로 하여 동양과 서양, 고대와 근대의 학문과 사상을 조화시켜 높은 학문적인 식견과 실용 능력을 갖춘 인격적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 목적은 연세대학의 역사를 통해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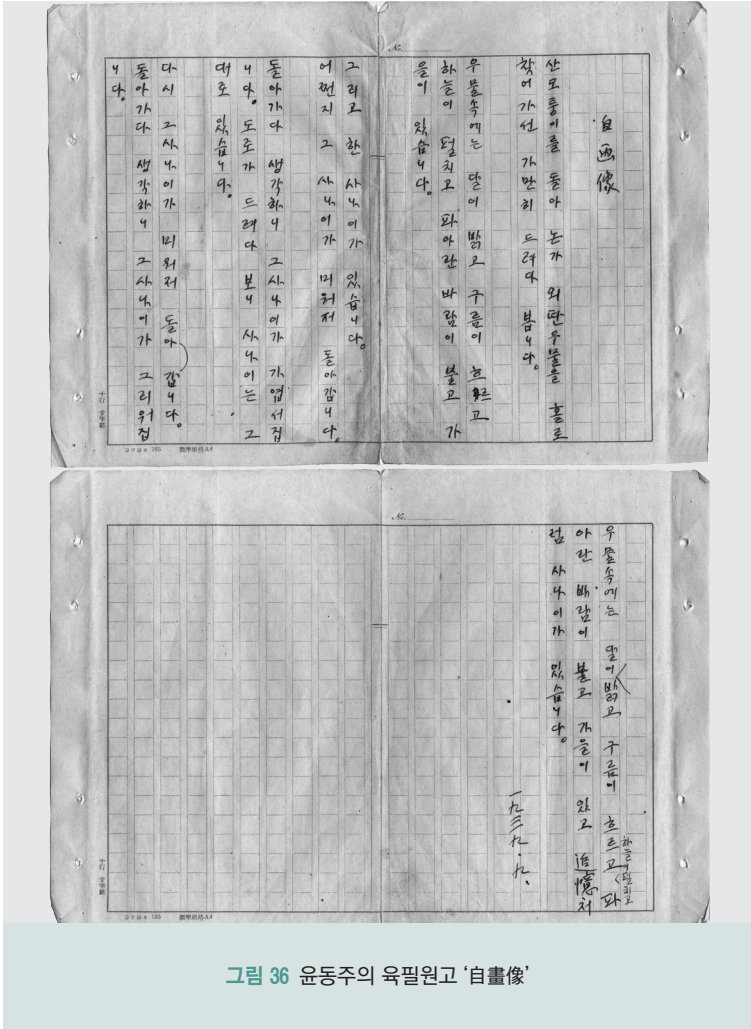


그림 36 윤동주의 육필원고 '自畫像'

늘날까지 소중한 원칙으로 존중되고 있으며 교육 영역은 물론 연구 영역에서까지 중요한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³⁹¹⁾

동서와 고근의 화충은 윤동주가 입학할 때 연전의 학풍이었지만, 그때까지 그의 생애 중 어느 한 순간도 그런 풍토에서 그가 벗어난 적은 없었다. 윤동주는 동서 고근의 화충의 정신을 누구보다도 뾰족 깊이 새기고 연전에 입학했다. 그의 고

향 명동촌은 뿌리 깊은 유교 전통과 민족정기, 신학문, 그리고 기독교가 마을 사람들의 삶 속에서 유기적 결합을 이룬 화층의 실험실이었다. 그들에게 화층은 사치스런 지적 유희가 아니고 삶의 방식이고, 양육과 교육의 원칙이고, 독립을 위한 운동이었다. 명동소학교, 은명중학교, 송실중학교를 통하여, 그리고 맹자를 만독하고 독립운동에 투신하고 기독교 목사가 된 김약연에게 사사하면서 운동주는 이미 화층의 높은 수준에 도달한 상태에서 연전에 들어왔다. 연전은 그에게 더 고차원적인 화층의 길을 열어 주었고, 그는 시를 통하여 미학적 차원으로 화층을 승화시킴으로 시대와 문화의 경계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해 낸 것이다. 오늘날 대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융복합과 맥락을 같이 하지만 그보다는 더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 화층이다. 화층은 동양과 서양, 고대와 현대, 학문과 실용, 실력과 인격, 개인과 사회 등을 다 포괄하면서, 이 모두를 산술적으로 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새로운 것을 창작해내는 작업이다. 운동주는 이 재구성의 작업을 통해 오염된 세상에서 순결을 노래했고, 어두운 밤중에 희망의 빛을 가리켰던 것이다. 동서 고근 화층의 학풍은 오늘의 상황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한 예로, 지금까지 기독교는 서구와 근대를 대표하는 이념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기독교의 무게 중심은 이제 남미와 아프리카, 아시아로 옮겨졌고, 기독교는 우리 민족사에 깊은 뿌리를 내린 지 오래다. 동, 서, 고, 근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근거하여 오늘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화층의 방도를 찾아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는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연세 학풍에 주어진 사명이다.

기독교 정신의 지평 확장

운동주는 연세 학풍의 기반과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기독교의 지평을 넓히고 깊이를 심화시켰다. 위의 『연희전문학교상황보고서』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연희에서의 화층이라는 재구성작업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루어 졌다. 연전은 개교 이후 끊임없이 기독교정신을 교육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왔다. 전교생들에게 기



그림 37 연희전문학교 입학하던 해의 윤동주(앞은 사람 둘째 줄 왼쪽 첫 번째)

독교 과목을 가르치기 위해 학생이 없는 신학과를 처음부터 설치했고, 「성서개론」을 모든 재학생이 필수 교양으로 수강하게 했으며, 정규과목 이외에 「채플」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기독교 정신에 따라 삶을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³⁹²⁾ 이런 전통은 오늘까지 면면히 이어져 오늘 연세대학교 정관 제1조는 기독교의 가르침에 맞추어서 “진리와 자유 정신을 체득한 기독교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학교의 목적임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기독교 정신의 교육과 인격 함양은 연세가 존립하는 한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존재 근거요 기간(基幹)”이라는³⁹³⁾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이므로 시대적, 문화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띠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기독교인가에 대해 성격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엇갈리는 평가가 있는 것을 고려해볼 때 더욱 그러하다.

원두우와 에비슨이 연전의 학풍의 기초를 세우면서 염두에 두었던 기독교는 초교과적, 초교회적, 초신학적 성격을 띠었다고 할 수 있다.³⁹⁴⁾ 첫째로, 연전의 기독교 정신은 초교과적이었다. 연전이 조선기독교대학으로 정식 개교하기 이전에

이미 미국 북감리교, 남감리교, 캐나다 장로교, 국내 북장로교 소속 선교사들이 초교파적 연합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연전은 그 기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³⁹⁵⁾ 또한 세브란스의학교는 한 때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라는 교명을 가질 정도로 처음부터 기독교 연합정신에 의해 세워졌다.³⁹⁶⁾ 연세의 에큐메니칼적 연합정신은 1963년 연합신학대학원과 2015년 Graduate Institute of Theology의 설립을 통해 더욱 확연하게 구현되었다.

연전의 기독교 정신은 또한 초교회적이었다. 즉, 기독교를 가르치는 것이 어떤 특정 교파에 속한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고, 기독교적인 덕목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이었다. 원한경은 1935년 연전 3대 교장 취임사에서 “우리는 장로교인이나 감리교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나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사업을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합니다.”라고 말했다.³⁹⁷⁾ 교단과 교회의 경계를 넘어서는 사고를 하면서 교회 밖에도 익명의 기독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유연한 관점에서 하나님 사랑하듯 세상에 관심을 두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연전은 정정보와 같은 비기독교인 학자도 교수로 초빙하고, 비기독교인 학생도 기독교인 학생의 수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받아들여 ‘교회 안’과 ‘교회 밖’의 구분을 넘어서는 진보적이고 포용적인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³⁹⁸⁾

연전의 기독교 정신은 또한 초신학적이었다. 신학은 전통적으로 교회를 위한 학문으로 여겨져 왔었다. 각 교단의 신학교에서는 목회자를 훈련하고, 평신도를 교육시키며, 교단의 신학적 전통에 대한 성찰을 한다. 신학의 주 관심사는 교회이고, 주 독자도 기독교인이다. 그러나 연세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적 성찰의 주된 관심은 세상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전공의 탐구가 이루어지고,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인재를 길러내는 기독교 종합대학 현장이다. 기독교적 창립 정신이 어떻게 각각의 고유한 교육과 연구의 영역으로 스며들어 다양한 분야와 유기적인 결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가 관심사이다. 연전이 처음부터 신과를 설치할 때 신학자나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주력하지 않고, 기독교 개론 과목과 채플을 운영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했다는 점은 연세의 신학적 전통은 기존의 신학의 경계

를 넘어선다는 것을 예증하는 것이다. 교단 신학교가 아니라 종합대학 내에 있는 신학자가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임무는 무엇보다도 기독교의 진리를 여러 학제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인문학적 담론으로 풀어내어 다학제 간에 기독교적 창립정신에 대한 학문적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³⁹⁹⁾

이와 같은 특징에 근거하여 연세적인 기독교는 개인의 구원과 더불어 민족의 해방도 강조했고, 교회 밖 세계 속에서도 참되고, 착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찾고 이를 수 있다는 일반은총적 낙관론의 입장을 취해오면서 기독교의 외연을 확장시켜왔다. 운동주가 접해왔던 기독교는 이러한 연전의 기독교 이해와 매우 유사했다. 명동촌이 있었던 북간도 지역은 연합정신이 강한 캐나다 장로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운동주의 스승 김약연이 믿고 있었던 기독교는 그 지평의 광대함과 성찰의 심오함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이다. 연전은 운동주가 갖고 온 종교적 맹아를 성장시키고 꽃피우게 하는 최적의 여건을 제공했고, 운동주는 그의 탁월한 문학적 재능을 통하여 한껏 기독교의 의미를 깊고 넓게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연전 4학년 후반부에 쓰인 시들은 기독교적 상투어를 최대한 자제하면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보편화시킨 것이었다. 그의 시를 종교시와 일반시로 나누려는 시도가 무의미할 정도로 기독교의 지평을 크게 확장시킴으로, 운동주는 신학의 시학화(詩學化)를 통해 시학의 신학화(神學化)를 이룬 것이다. 운동주는 이렇게 연세 학풍을 계승하고 발전시킴으로 다른 시대 다른 분야에 속해있는 연세인들에게도 귀감이 되며 영감을 주고 있다.

공동체 의식과 협동정신의 중요성 부각

운동주는 공동체 의식과 협동정신의 중요성을 삶과 시로 보여줌으로 연세 학풍의 발전에 기여했다. 공동체와 협동의 강조는 오래된 연세의 전통이었다. 신념과 가치를 공유한 여러 당사자들이 상호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결속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며 새역사를 열어가는 것은 세브란스, 연희, 연세가 걸어온

방식이다. 연전은 학생들의 협동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문우회, 상우회, 이학연구회 등의 학생 동아리 활동을 지원했고,⁴⁰⁰⁾ 단결력, 희생정신, 전체를 위한 개인의 참여, 애교심을 고취하기 위해 연보전(延普戰)과 같은 체육활동을 장려했다.⁴⁰¹⁾ 학문연구 분야에서도 “연희공동체”라고 불릴만한 긴밀한 유대 속에서 많은 학자들이 공동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국학의 발판을 쌓았다.⁴⁰²⁾

공동체는 운동주의 생애 속에서 여러 다른 모습으로 체험되었다. 명동춘은 매우 독특한 공동체였다. 민족공동체는 그가 한 순간도 소홀히 여겨본 적이 없는 그의 존재의 근거였다. 그가 다녔던 학교들은 대부분 강한 공동체적 에토스를 갖고 외부의 위협에 대항했다. 그는 송몽규와 평생 운명 공동체적 유대관계를 유지해왔다. 운동주는 연전에 와서 공동체 의식과 협동의 문화 속에서 생활하면서 더 높은 차원으로 그 정신을 고양시켰다. 그의 시에 자주 등장하는 ‘고향,’ ‘동무,’ ‘사랑,’ ‘그립다’와 ‘시대,’ ‘세기,’ ‘역사’ 등의 시어는 그가 늘 갖고 있었던 공동체적 관심을 드러내 준다고 볼 수 있다. 운동주가 남긴 마지막 산문 「화원에 꽃이 핀다」에서는 연전의 친구들을 꽃으로, 친구들의 모임인 공동체를 화원으로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구절이 눈에 띈다: “서로 마음을 주는 동무가 있는 것도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여러 동무들의 가룩한 심정을 내 것인 것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해를 거듭, 포성에 떠들썩하건만 극히 조용한 가운데 우리들 동산에서 서로 융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종전의 □□가 있는 것은 시세의 역효과일까요”⁴⁰³⁾ 운동주의 탁월한 문학성에 의해 이 산문에 표현된 동무들의 마음은 글 밖으로 뛰쳐나왔다. 연전 시절의 친구들은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까지 운동주를 공동체 구성원으로 여겼다. 그들은 운동주 시의 진가를 이해하는 높은 식견을 갖추고 있었고, 온갖 위협을 무릅쓰고 그의 시와 그의 삶의 흔적들을 보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겸손함과 섬기는 자세로 운동주의 유고집을 세상에 퍼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운동주 현상”은 단순히 천재적인 한 시인이 이루어냈다고보다는 연전에서 학창시절을 같이 보내면서 같은 스승에게서 배우고, 같은 학교의 기풍을 받아 사상이 형성된 연전 공동체와 유족이 힘을 합해서 이

루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⁴⁰⁴⁾

운동주는 이와 같이 공동체 의식과 협력정신을 높은 수준으로 승화시켜서 연세의 학풍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확산과 공동체 파괴, 공공성의 실종 등으로 우리 사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늘, 운동주는 연세 학풍의 나갈 길에 대해 큰 영감을 준다.

지금까지 우리는 운동주가 연세 학풍의 발전에 끼친 영향을 그의 생애와 시에 근거해서 살펴보았다. 운동주는 다른 인물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방식으로 연세 학풍에 기여했다. 운동주는 연세 학풍의 최대 수혜자(受惠者)이며 동시에 최대 시혜자(施惠者)였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운동주는 또한 연세 학풍의 최대 “희생자(犧牲者)”였다. 운동주가 연세 학풍의 이념을 저버리는 삶을 살았다면 그가 체포되거나 옥사하는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조용히 괴를 흘려 목숨을 바치겠다는 심정으로 최후를 맞이했다. 그는 연세가 추구하는 가치를 끝까지 지키다가 희생된 것이다. 그는 연세의 제단에 바쳐진 희생제물처럼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괴로움과 부끄러움과 죄책을 회피하지 않고 한몸에 지고 씨름했고, 빛이 어둠을 이길 것이라는 신념 하나만을 붙들고 아름다운 시어로 새로운 세상을 지으며 삶을 마감했다. 그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삼년 후에 그의 유고집이 출판되면서 운동주는 다시 생생하게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 운동주는 참되고, 착하고, 아름다운 것을 끝까지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진리를 연세인에게 깨우쳐 준다.

예수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한복음 12:24) 말하고 그렇게 사느라고 죽었다. 운동주는 연세 학풍의 옥토에서 잘 자라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운 나무와 같다. 그는 연세가 추구하는 가치를 시대와 국경을 초월하여 모든 인류가 추구할만한 아름다운 이상으로 승화시켰다. 그 꽃이 너무 일찍 저서 사람들은 아쉬워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 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씨앗이 되어 수많은 연세인들의 가슴 속에 뿌려진 것이었다. 운동주는 연세인들의 어휘와 정서와 이념 속에 담겨 있어서 연세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영감과 희망을 준다. 운동주는 연세 학풍의 토양에서 자라 개화한 승고하고, 비장하고, 우아한 꽃이다.

- 1917년(1세)** 12월 30일: 부친 윤영석과 모친 김용 사이에서 맏아들로 북간도 명동촌에서 출생
3달 전 9월 28일에는 고종사촌 송몽규가 같은 집에서 출생
- 1925년(9세)** 명동소학교 입학
- 1931년(15세)** 대랍자중국어인 소학교 편입
- 1932년(16세)** 용정의 은진중학교 입학
- 1934년(18세)** 12월 24일: 보존된 최초의 작품 「초 한 대」, 「삼과 죽음」, 「내일은 없다」 3편을 낱짜를 기록하여 남김
- 1935년(19세)** 4월: 송몽규 중국 낙양 군관학교 입교 차 중국행, 문익환 평양 송실중 4학년 편입
윤동주는 은진중 4학년 진급 후 9월 송실중 3학년으로 편입
10월: 송실중학교 학생회 간행지 「송실활천」에 시 「공상」을 게재함으로 최초로 시가 활자화 됨.
정시용의 시에 심취함
* 모두 4편의 시와 1편의 동시를 씀
- 1936년(20세)** 3월: 신사참배 강요에 대한 항의 표시로 송실중 자퇴
용정 광명학원 중학부 4학년 편입
4월: 독립운동에 투신하던 송몽규가 일경에 체포되어 고초를 받은 후 9월에 석방
* 모두 4편의 동시 19편의 시와 20편의 동시를 씀
「카톨릭 소년」에 동시 「병아리」와 「빗자루」를 처음 윤동주란 필명으로 발표
- 1937년(21세)** 광명학원 중학부 5학년으로 진급, 농구선수로 활약
* 모두 15편의 시와 6편의 동시를 씀
- 1938년(22세)** 4월: 송몽규와 같이 연희전문학교 입학. 강처중과 3인이 한 기숙사방을 씀
* 모두 8편의 시와 5편의 동시 1편의 산문을 씀
- 1939년(23세)** 기숙사를 나와 하숙생활 시작
* 모두 6편의 시를 씀

- 1940년(24세) 다시기숙사로 돌아옴.
정병욱과 깊이 사귀
* 12월에 1939년 9월 이후 절필기간을 끝내고 모두 3편의 시를 씀
- 1941년(25세) 졸업 기념으로 출판하려고 19편의 시를 묶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란 제목으로 시집을 내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필사본 3부를 만듦
12월 27일: 연전 졸업
* 모두 16편의 시와 1편의 산문을 씀
- 1942년(26세) 고향 용정에 한달 반 머뭄
도일 수속을 위해 창씨개명을 함
3월: 도쿄에 있는 릿교대학 문학부 영문과에 입학
10월: 교토에 있는 도시사대학 영문학과로 전입학
* 도일 전 「참회록」, 도쿄에서 「흰 그림자」, 「흐르는 거리」, 「사랑스런 추억」, 「쉽게 씌어진 시」, 「봄」 등 모두 6편의 시와 2편의 산문을 씀
- 1943년(27세) 7월 14일: 특고경찰에 의해 독립운동 혐의로 송몽규 검거 4일 후 검거됨
- 1944년(28세) 3월 31일: 경도지방법재판소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음
4월 13일: 송몽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음
이들은 후쿠오카 형무소로 이송되어 복역 시작
- 1945년(29세) 2월 16일: 새벽 3시 36분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사
3월 7일: 송몽규 옥사
- 1947년 2월 13일 「쉽게 씌어진 시」가 정지용의 소개문과 함께 『경향신문』에 게재됨
- 1948년 1월: 유고 31편을 모아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정음사에서 출판됨

- 1) 정연희, 『양화진』(서울: 흥성사, 1992), 235f.
- 2) 이 글은 『장신논단』, 제47~1집 (2015년 봄호)에 “언더우드의 생애, 선교활동, 정신에 비추어 본 기독교대학의 학풍”이라는 제목으로 실렸던 것을 수정한 것이다.
- 3) L. H. Underwood, Underwood of Korea, 이만열 옮김, 『언더우드 한국에 온 첫 선교사』(서울: 기독교문사, 1990), 27.
- 4) 이광린, 『초대 언더우드 선교사의 생애』(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1), 2.
- 5) L. H. Underwood, Underwood of Korea, 29.
- 6) 이광린, 『초대 언더우드 선교사의 생애』, 1f.
- 7) L. H. Underwood, Underwood of Korea, 26.
- 8) L. H. Underwood, Underwood of Korea, 294.
- 9) L. H. Underwood, Underwood of Korea, 29ff.
- 10) 이만열·옥성득 편역, 『언더우드 자료집 V』(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10), 199f.
- 11) L. H. Underwood, Underwood of Korea, 36.
- 12) L. H. Underwood, Underwood of Korea, 30.
- 13) L. H. Underwood, Underwood of Korea, 33f.
- 14) L. H. Underwood, Underwood of Korea, 34.
- 15) L. H. Underwood, Underwood of Korea, 36ff.
- 16) L. H. Underwood, Underwood of Korea, 31f.
- 17) L. H. Underwood, Underwood of Korea, 32f.
- 18) L. H. Underwood, Underwood of Korea, 41.
- 19) L. H. Underwood, Underwood of Korea, 43.
- 20) L. H. Underwood, Underwood of Korea, 43ff.
- 21) L. H. Underwood, Underwood of Korea, 91.
- 22) 이만열·옥성득 편역, 『언더우드 자료집 I』(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5), 1.
- 23) 이만열·옥성득 편역, 『언더우드 자료집 I』, 4f.
- 24) 이만열·옥성득 편역, 『언더우드 자료집 I』, 15.
- 25) 이만열·옥성득 편역, 『언더우드 자료집 I』, 22.
- 26) 이만열·옥성득 편역, 『언더우드 자료집 I』, 29.
- 27) 이만열·옥성득 편역, 『언더우드 자료집 I』, 36.
- 28) 김인수, “언더우드와 한국선교”, 언더우드기념사업회편, 『언더우드기념강연집』(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11), 55.
- 29) 이만열·옥성득 편역, 『언더우드 자료집 I』, 54ff.
- 30) 이광린, 『초대 언더우드 선교사의 생애』, 63ff.
- 31) 이만열·옥성득 편역, 『언더우드 자료집 III』(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7), 165f.
- 32) L. H. Underwood, Underwood of Korea, 251.
- 33)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인물들은 YMCA 활동으로 다시 결집된다.
- 34) 이만열·옥성득 편역, 『언더우드 자료집 I』, 30f.

-
- 35) 안영로, 『한국교회의 선구자 언더우드』(서울: 쿰란출판사, 2003), 114ff.
 - 36) 김인수, “언더우드와 한국선교,” 59.
 - 37) 이만열·옥성득 편역, 『언더우드 자료집 II』(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6), 302f.
 - 38) 이광린, 『초대 언더우드 선교사의 생애』, 238.
 - 39) 이만열·옥성득 편역, 『언더우드 자료집 I』, 484.
 - 40) 최재건, 『언더우드의 대학설립』(서울: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230.
 - 41) 최재건, 『언더우드의 대학설립』, 271~273.
 - 42) 최재건, 『언더우드의 대학설립』, 274~280.
 - 43) H. H. Underwood, *Modern Education in Korea* (New York: International Press, 1926), 135.
 - 44) 최재건, 『언더우드의 대학설립』, 335~36.
 - 45) 이만열·옥성득 편역, 『언더우드 자료집 II』, 108.
 - 46) L. H. Underwood, *Underwood of Korea*, 43.
 - 47) 여인석, “언더우드와 연세”, 언더우드기념사업회편, 『언더우드기념강연집』(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11), 490.
 - 48) 서정민, “언더우드와 제증원공동체”, 언더우드기념사업회편, 『언더우드기념강연집』(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11), 104.
 - 49) 서정민, “언더우드와 제증원공동체”, 105. 서정민은 언더우드와 에비슨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언더우드와 에비슨, 그들은 처음부터 동지적 유대로 결속되어 있었고, 복음선교의 목표, 방식, 특히 선교기관의 운영이나 학교의 설립 방향에서도 일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난다. 곧 연희대학을 추진하던 언더우드가 정상화의 궤도에 완전히 진입하지 못하고 타계하자, 그 뒤를 노선의 수정 없이 계승하고 추진할 수 있었던 이가 에비슨이었다. 세브란스와 연희라는 웅대한 두 기관의 행정책임을 겸한다는 부담에 앞서 일치된 목표를 수행해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욱 중요하였다. 결국 이는 반대로 에비슨의 제증원이나 세브란스의 발전에 언더우드가 철저히 지원해 나간 초기 행보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 50) L. H. Underwood, *Underwood of Korea*, 140f.
 - 51) L. H. Underwood, *Underwood of Korea*, 152~155.
 - 52) L. H. Underwood, *Underwood of Korea*, 141.
 - 53) L. H. Underwood, *Underwood of Korea*, 150f.
 - 54) 이만열·옥성득 편역, 『언더우드 자료집 II』, 290f. 언더우드가 순수한 마음으로 키니네 약품을 판매했음은 독립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잘 알 수 있다. “나는 한국인들에게 키니네를 공급했는데,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은 우리 사업의 일부입니다. 나는 본격적으로 키니네 사업을 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다만 지정된 기독교 권서인과 책방에 키니네를 공급했고, 그들은 그것을 팔아서 생계에 보탬입니다. 나는 한 푼의 이익도 취한 바가 없으며, 여러 번 많은 손해를 보는 바람에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갔습니다.”
 - 55) 이만열·옥성득 편역, 『언더우드 자료집 II』, 131.

-
- 56) 이만열·옥성득 편역, 『언더우드 자료집 III』(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7), 17.
- 57) 이만열·옥성득 편역, 『언더우드 자료집 V』(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10), 225.
- 58) 김인수, “언더우드와 한국선교”, 61f.
- 59) L. H. Underwood, *Underwood of Korea*, 57.
- 60) 이만열·옥성득 편역, 『언더우드 자료집 I』, 28.
- 61) 이광린, 『초대 언더우드 선교사의 생애』, 92~94.
- 62) 이만열·옥성득 편역, 『언더우드 자료집 II』, 14~19.
- 63) 이광린, 『초대 언더우드 선교사의 생애』, 140~145.
- 64) 이만열, “언더우드 선교사의 생애와 활동”, 16.
- 65) 이만열·옥성득 편역, 『언더우드 자료집 II』, 129.
- 66) H. G. Underwood, *The Call of Korea* (New York: Fleming H. Revell Co., 1908).?
- 67) H. G. Underwood, *The Religions of Eastern Asia* (New York: Macmillan Co., 1910).?
- 68) 이만열·옥성득 편역, 『언더우드 자료집 III』, 288.
- 69) 이만열·옥성득 편역, 『언더우드 자료집 III』, 289.
- 70) H. G. Underwood, *The Call of Korea*, 한동수 역, 『와서 우릴 도우라』(서울: 기독교 문화선교회, 2000), 106.
- 71) L. H. Underwood, *Underwood of Korea*, 293f.
- 72) L. H. Underwood, *Underwood of Korea*, 295.
- 73) 이만열·옥성득 편역, 『언더우드 자료집 V』, 78.
- 74) 이만열·옥성득 편역, 『언더우드 자료집 V』, 259.
- 75) L. H. Underwood, *Underwood of Korea*, 174.
- 76) 이만열·옥성득 편역, 『언더우드 자료집 III』, 288, 665f
- 77) H. H. Underwood, *Modern Education in Korea*, 131.
- 78) L. H. Underwood, *Underwood of Korea*, 39.
- 79) L. H. Underwood, *Underwood of Korea*, 188ff.
- 80) L. H. Underwood, *Underwood of Korea*, 204~207.
- 81) 이만열·옥성득 편역, 『언더우드 자료집 I』, 305.
- 82) H. G. Underwood, *The Call of Korea*, 46.
- 83) 이만열·옥성득 편역, 『언더우드 자료집 I』, 11.
- 84) 이만열·옥성득 편역, 『언더우드 자료집 I』, 90f.
- 85) 민경배, “언더우드와 연세정신”, 언더우드기념사업회편, 『언더우드기념강연집』(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11), 475.
- 86) 김인회, “언더우드의 교육정신과 연세교육”, 언더우드기념사업회편, 『언더우드기념강연집』(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11), 502.
- 87) L. H. Underwood, *Underwood of Korea*, 283~290.
- 88) 연세미래전략 포럼 자료집 (2013. 11. 29), 14f.

- 89) 이만열·옥성득 편역, 『언더우드 자료집 V』, 265.
- 90) 알렌 디그레이 클라크/홍사석 외 옮김, 『에비슨 전기: 한국 근대의학의 개척자』(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8), 35~36.
- 91) 알렌 디그레이 클라크, 『에비슨 전기』, 195.
- 92) 알렌 디그레이 클라크, 『에비슨 전기』, 199.
- 93) 알렌 디그레이 클라크, 『에비슨 전기』, 204.
- 94) 알렌 디그레이 클라크, 『에비슨 전기』, 217.
- 95) 알렌 디그레이 클라크, 『에비슨 전기』, 223.
- 96) 올리버 알 에비슨/박형우 옮김, 『올리버 R 에비슨이 지켜본 근대 한국 42년, 1893~1935, 상』(서울: 청년의사, 2010), 139.
- 97) 올리버 알 에비슨, 『올리버 R 에비슨이 지켜본 근대 한국 42년』, 141~143.
- 98) 올리버 알 에비슨, 『올리버 R 에비슨이 지켜본 근대 한국 42년』, 216~218.
- 99) 알렌 디그레이 클라크, 『에비슨 전기』, 256.
- 100) 해리 로즈/최재건 옮김, 『미국 북장로교 한국 선교회사. 1, 1884~1934』(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9), 109.
- 101) 알렌은 1884년 9월 20일, 한국최초의 선교사로 상해로부터 제물포에 도착하였다. 그는 9월 23일 일기에서 “조선이 장차 기독교 국가가 될 그날을 보기 위해 살고 싶다(I hope to live to see the day when she shall be a Christian nation)”고 기록하고 있다. 최재건, 『언더우드의 대학설립 : 그 이상과 실현』(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39~40 참조.
- 102) 서영석, “제중원 활동의 선교사적 의미,” 『세브란스의 초기 역사와 선교』(서울: 연세대학교 의료원, 2009), 32.
- 103) 최재건, 『언더우드의 대학설립』, 46~47.
- 104) 양현혜, “세브란스 의료 선교의 역사,” 『세브란스의 초기 역사와 선교』(서울: 연세대학교 의료원, 2009), 98.
- 105) 서정민, “언더우드와 제중원 공동체,” 『언더우드 기념강연집』(서울: 연세대학교, 2011), 96.
- 106) O. R. Avison, Seoul to F. F. Ellinwood, Feb. 20, 1895. 문백란, “세브란스병원 건립을 둘러싼 선교사들의 갈등과 선교정책 수정,” 『동방학지』 165(2014), 136에서 재인용.
- 107) 문백란, “세브란스병원 건립을 둘러싼 선교사들의 갈등과 선교정책 수정,” 149.
- 108) Clark, Allen D. 『에비슨 전기』, 279~280.
- 109) 올리버 알 에비슨, 『올리버 R 에비슨이 지켜본 근대 한국 42년, 1893~1935, 상』, 289~293.
- 110) 김학은,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 : 그의 생애와 시대』(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8), 303~304.
- 111) 최재건, 『언더우드의 대학설립』, 22.
- 112) 최재건, 『언더우드의 대학설립』, 32.

-
- 113) 최재건, 『언더우드의 대학설립』, 52.
- 114) 최재건, 『언더우드의 대학설립』, 59.
- 115) 해리 로즈, 『미국 북장로교 한국 선교회사』, 118.
- 116) 최재건, 『언더우드의 대학설립』, 72~76.
- 117) 최재건, 『언더우드의 대학설립』, 213~214.
- 118) 최재건, 『언더우드의 대학설립』, 260.
- 119) 최재건, 『언더우드의 대학설립』, 281.
- 120) 최재건, 『언더우드의 대학설립』, 285.
- 121)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 『언더우드 자료집 5』, 43.
- 122) 최재건, 『언더우드의 대학설립』, 214.
- 123)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 『언더우드 자료집 5』, 57.
- 124)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 『언더우드 자료집 5』, 59.
- 125)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 『언더우드 자료집 5』, 60.
- 126)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 『언더우드 자료집 5』, 61.
- 127)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 『언더우드 자료집 5』, 59, 67.
- 128)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 『언더우드 자료집 5』, 74.
- 129)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 『언더우드 자료집 5』, 77~81.
- 130)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 『언더우드 자료집 5』, 152.
- 131)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 『언더우드 자료집 5』, 185, 198.
- 132)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 『언더우드 자료집 5』, 188~189.
- 133)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 『언더우드 자료집 5』, 198.
- 134)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 『언더우드 자료집 5』, 238~239.
- 135) Lillias H. Underwood, Underwood of Korea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18), 113~114.
- 136) 최재건, 『언더우드의 대학설립』, 89.
- 137) 김학은,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 99.
- 138) 에비슨은 남장로교 해외선교부 총무 체스터에게 보낸 편지에서 “미션계 고등학교와 일반 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동등한 입학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미션계 고등학교 출신들이 일반 고등학교 출신들보다 더 많이 입학시험에 실패하였다고 하면서 현재 1학년에 일반고출신 37명, 미선고출신 18명, 국립농업학교 출신 1명이 재학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Oliver R. Avison to Rev. S. H. Chester, D.D, Sec. Exec. Foreign Missions, Nov. 13, 1917. 참조
- 139) 연세대학교백년사 편찬위원회, 『연세대학교 백년사 : 1885~1985. 1 : 연세통사. 상』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5), 151~153.
- 140) 연세대학교백년사 편찬위원회, 『연세대학교 백년사 : 1885~1985. 1』, 147.
- 141) 우사미는 조선총독부 내무부장관겸 토목국장을 하다가 1921년 5월에 도교부지사에 취임하였다.

- 142) O. R. Avison, Seoul to Frank Mason North, Mar. 6, 1917.
- 143) O. R. Avison, Seoul to Frank Mason North, Mar. 6, 1917.
- 144) Y. Takai 교수는 도쿄제국대학을 졸업한 인물로 초기부터 연희전문학교에서 일본어, 역사와 문학을 가르쳤다. Oliver R. Avison to Rev. S. H. Chester, D.D, Sec. Exec. Foreign Missions, Nov.13, 1917.
- 145) O. R. Avison, Seoul to Frank Mason North, Mar. 6, 1917.
- 146) O. R. Avison, Seoul to Frank Mason North, Mar. 6, 1917.
- 147) O. R. Avison, Seoul to Arthur J. Brown, Dec. 1, 1916.
- 148) 연세대학교백년사 편찬위원회, 『연세대학교 백년사 : 1885~1985. 1』, 156.
- 149) 교지매입에 관한 내용은 자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최재건은 총독부 임업과 토지 300에이커(약36만7200평)를 구입하였는데, 대지는 18, 829.10엔이었고, 수목을 포함한 가격은 43, 506.08엔이었다고 한다. 최재건, 『언더우드 의 대학설립』, 334 참조. 또한 『연세대학교 백년사』는 “지금의 신촌부지는 처음에 존 T. 언더우드의 기부금으로 190, 320평을 매입하였던 것이 그 후에 해마다 약간평의 토지를 매득하여 1930년에 267, 671평에 달했으며, 1936년에는 268, 838평에 이르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연세대학교백년사 편찬위원회, 『연세대학교 백년사 : 1885~1985. 1』, 155 참조.
- 150) O. R. Avison, Seoul to Arthur J. Brown, Sep. 7, 1917.
- 151) Oliver R. Avison to Mr. John T. Underwood, Sep. 7, 1917.
- 152) 연세대학교백년사 편찬위원회, 『연세대학교 백년사:1885~1985.1』, 158~185.
- 153) 최재건, 『언더우드 의 대학설립』, 337~338.
- 154) 연세대학교백년사 편찬위원회, 『연세대학교 백년사 : 1885~1985. 1』, 192~193.
- 155) 연세대학교 박물관편, 『연희전문학교 운영보고서(하)』, 53~58.
- 156) 연세대학교백년사 편찬위원회, 『연세대학교 백년사 : 1885~1985. 1』, 193~194.
- 157) 올리버 알 에비슨/박형우 옮김, 『올리버 R 에비슨이 지켜본 근대 한국 42년, 1893~1935, 상』, 379~380.
- 158) 최재건, 『언더우드 의 대학설립』, 341.
- 159) 연세대학교백년사 편찬위원회, 『연세대학교 백년사 : 1885~1985. 1』, 199.
- 160) 연세대학교백년사 편찬위원회, 『연세대학교 백년사 : 1885~1985. 1』, 173.
- 161) 연세대학교백년사 편찬위원회, 『연세대학교 백년사 : 1885~1985. 1』, 173.
- 162) 동아일보 1925년 12월 3일자 사설 “자금주선을 위하여 그 본국인 미국에 갔던 에비슨, 언더우드 양씨가 각 방면으로 활동한 결과 기부금이 이미 140만원에 달하였다고 한다.” 연세대학교백년사 편찬위원회, 『연세대학교 백년사 : 1885~1985. 1』, 221.
- 163) 연세대학교백년사 편찬위원회, 『연세대학교 백년사 : 1885~1985. 1』, 222.
- 164) 김학은,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 242.
- 165) 양현혜, “세브란스 의료 선교의 역사,” 99.
- 166) 양현혜, “세브란스 의료 선교의 역사,” 100.

- 167) 알렌 디그레이 클라크/홍사석외 옮김, 『에비슨 전기』, 161.
- 168) Oliver R. Avison to Rev. S. H. Chester, D.D. Sec. Exec. Foreign Missions, Nov.13, 1917.
- 169) 백낙준, 『백낙준 전집 9 : 회고록 종강록』(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5), 11.
- 170) 연세의료원 120년사 편찬위원회, 『인술, 봉사 그리고 개척과 도전의 120년, 1 : 한국의 현대의학 도입과 세브란스(1885~1945)』(서울: 연세의료원, 2005), 291.
- 171) 올리버 알 에비슨/박형우 옮김, 『올리버 R 에비슨이 지켜본 근대 한국 42년, 1893~1935, 상』(서울: 청년의사, 2010), 369.
- 172) 백낙준, 『백낙준 전집 9』, 86.
- 173) 연세대학교백년사 편찬위원회, 『연세대학교 백년사 : 1885~1985. 1』, 173.
- 174) 백낙준, 『백낙준 전집 9』, 32.
- 175) 연세대학교백년사 편찬위원회, 『연세대학교 백년사 : 1885~1985. 1』, 215~216.
- 176) 연세대학교백년사 편찬위원회, 『연세대학교 백년사:1885~1985.1』, 171. 에비슨은 미국선교본부에 보낸 “Report of Chosen Christian College 1923~24”에서 연희전문학교를 “the Macca of Christian Educaion in this land”라고 쓰고 있다. 연세대학교 박물관편, 『연희전문학교 운영보고서(상)』, 20 참조.
- 177) 백낙준, 『백낙준 전집 3』, 450.
- 178) 백낙준, 『백낙준 전집 3』, 453. [연세춘추] 1966.6.30,
- 179) 백낙준, 『백낙준 전집 3』, 456.
- 180) 백낙준, 『백낙준 전집 3』, 455~456.
- 181) 연세대학교백년사 편찬위원회, 『연세대학교 백년사:1885~1985.1』, 168.
- 182) 연세대학교백년사 편찬위원회, 『연세대학교 백년사:1885~1985.1』, 173.
- 183) 1932년부터 1937년까지 『연희전문학교 상황보고서』에 교육방침으로 명시되어 있다. 연세대학교 박물관편, 『연희전문학교 운영보고서(하)』, 30 참조.
- 184) 연세대학교백년사 편찬위원회, 『연세대학교 백년사:1885~1985.1』, 160.
- 185) 해관오공선선생기념사업회, 『해관 오공선』, 100~101.
- 186) 해관오공선선생기념사업회, 『해관 오공선』, 161.
- 187) 해관오공선선생기념사업회, 『해관 오공선』, 171.
- 188) 해관오공선선생기념사업회, 『해관 오공선』, 280.
- 189) 해관오공선선생기념사업회, 『해관 오공선』, 110.
- 190) 해관오공선선생기념사업회, 『해관 오공선』.
- 191) 해관오공선선생기념사업회, 『해관 오공선』, 111.
- 192) 해관오공선선생기념사업회, 『해관 오공선』, 147.
- 193) 해관오공선선생기념사업회, 『해관 오공선』, 148.
- 194) 해관오공선선생기념사업회, 『해관 오공선』.
- 195) 해관오공선선생기념사업회, 『해관 오공선』, 155.
- 196) 해관오공선선생기념사업회, 『해관 오공선』, 90.

- 197) 해관오공선선생기념사업회. 『해관 오공선』, 91.
- 198) 해관오공선선생기념사업회. 『해관 오공선』, 121.
- 199) 해관오공선선생기념사업회. 『해관 오공선』, 4.
- 200) 해관오공선선생기념사업회. 『해관 오공선』, 91.
- 201) 해관오공선선생기념사업회. 『해관 오공선』.
- 202) 마커스 보그, 『새로 만난 하느님』(한인철 역, 서울: 한국기독교출판사, 2001), 198.
- 203) 해관오공선선생기념사업회. 『해관 오공선』, 44.
- 204) 해관오공선선생기념사업회. 『해관 오공선』, 45.
- 205) 해관오공선선생기념사업회. 『해관 오공선』, 46.
- 206) 해관오공선선생기념사업회. 『해관 오공선』, 47.
- 207) 해관오공선선생기념사업회. 『해관 오공선』, 53.
- 208) 해관오공선선생기념사업회. 『해관 오공선』, 97.
- 209) 해관오공선선생기념사업회. 『해관 오공선』, 280.
- 210) 해관오공선선생기념사업회. 『해관 오공선』, 48.
- 211) 해관오공선선생기념사업회. 『해관 오공선』, 121.
- 212) 해관오공선선생기념사업회. 『해관 오공선』, 13.
- 213) 해관오공선선생기념사업회. 『해관 오공선』.
- 214) 해관오공선선생기념사업회. 『해관 오공선』, 150.
- 215) 해관오공선선생기념사업회. 『해관 오공선』, 112.
- 216) 해관오공선선생기념사업회. 『해관 오공선』, 113.
- 217) 위키백과 한국어판, “오공선,” 5.
- 218) 해관오공선선생기념사업회. 『해관 오공선』, 3.
- 219) <http://antiyesu.net>, “오공선,” 2.
- 220) 해관오공선선생기념사업회. 『해관 오공선』, 105.
- 221) 해관오공선선생기념사업회. 『해관 오공선』, 162.
- 222) 해관오공선선생기념사업회. 『해관 오공선』.
- 223) <http://dongA.com>, 7. 출처: 김영식, “근대 서양의학의 선구자 지식영과 오공선,” 『신동아』 통권 588호(2008. 9): 570~81.
- 224) 해관오공선선생기념사업회. 『해관 오공선』, 105.
- 225) 해관오공선선생기념사업회. 『해관 오공선』.
- 226) 해관오공선선생기념사업회. 『해관 오공선』, 95.
- 227) 올리버 R. 에비슨, 『Memoires of Life in Korea』上, (서울: 청년의사, 2010), 387~88.
- 228) 해관오공선선생기념사업회. 『해관 오공선』, 288~89.
- 229) 연세대학교 홈페이지 내 ‘연세발자취’ <<http://www.yonsei.ac.kr/contents/intro/personbnj.html>>(accessed 2 July 2014).
- 230) 본 글은 “백낙준을 통해 발굴되는 대학의 학풍”이라는 제목으로 『신학논단』 79집

(2015. 3)에 게재됨.

- 231) '105인 사건'은 1911년에 일제가 민족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확대 조작한 사건으로 서 당시 조선 총독 테라우치 마사타케를 암살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씌워 105명의 애국 지사를 투옥한 사건이다.
- 232) 연세대학교 박물관 편, 『내일을 걷는 연세 역사』(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3), 98~99. 이러한 업적과는 사뭇 다르게 백낙준에게 친일적 행적이 있었다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다. 2009년 11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내놓은 '3차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보고서'에 따르면, 백낙준은 '조선임전대책협의회' 결성에 참여하였고,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이었으며, '미영타도 좌담회' 대담자로 참석하는 등 여러 가지 친일 행적을 도모한 인물이었다("언론사주·대학총장 등 일제말 지도층 치부 '날날이'"(한겨레, 2009년 11월 27일자) 참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90216.html>(accessed 17 June 2014)). 대부분의 친일 행적에 대한 논쟁이 그렇듯, 백낙준의 친일 행적에 대한 논쟁도 분명한 결론 없이 지금껏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연구를 함에 있어서 그의 친일 행각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야하는 것은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그의 삶을 통하여 학풍을 찾아보려는 본 연구의 초점과 이 논쟁과의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파악되기에, 여기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사실이 있었음을 언급하는 것으로 그치고자 한다.
- 233)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역, 『용재 백낙준 박사 기념강좌』(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118.
- 234) 백관인 역, 『백낙준 박사 대담 모음: 내일을 위하여』(서울: 정음문화사, 1989), 295.
- 235) 백낙준, 『韓國改新敎史: 1832~1910』(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3).
- 236)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역, 『근대 학문의 형성과 연희전문』(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 491~492.
- 237) 백낙준이 몸담은 연세대학교의 학문성에서 국학이 돋보이게 된 이유로서 그의 공로를 뺄 수는 없다. 실제로 그는 일제 치하에서도 과감히 국어를 가르치는 커리큘럼을 기획하고 실천하였다. 그는 회고하기를, “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할 때 제일 염려한 것은 총독부 학무 당국에서 폐지 명령을 내리거나 없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경성 제국 대학에서 ‘조선어’를 정규과목으로 가르치는 것을 알게 됐지요. 그 핑계를 대고 우리도 이에 국어를 선택 과목에서 정규 과목으로 채택해 버렸읍[습]니다.” 백관인 역, 『백낙준 박사 대담 모음: 내일을 위하여』, 258.
- 238)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역, 『백낙준 박사의 학문과 사상』(서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5), 9.
- 239) 백낙준, 『眞理와 自由의 旗手들』(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2), 242.
- 240) 백낙준, 『시냇가에 심은 나무』(서울: 徽文出版社, 1971), 135.
- 241) “용재가 ‘홍익인간’을 교육 이념으로 제정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용재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민주주의적 인본주의로 받아들였고 또 그렇게 설명했다. 그의 개인으로서 자립인이 되는 교육, 국민으로서

- 자유인이 되는 교육, 세계인으로서 평화인이 되는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 이상 또한 이러한 홍익인간의 이념에서부터 도출되어 나온 것임에 틀림없다.”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엮, 『백낙준 박사의 학문과 사상』, 71.
- 242) 백낙준, 『나의 終講錄』(서울: 정음문화사, 1983), 221.
- 243) 백낙준, 『나의 終講錄』, 226.
- 244) 백낙준, 『나의 終講錄』, 238~239.
- 245) 백낙준, 『시냇가에 심은 나무』, 138.
- 246)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엮, 『용재 백낙준 박사 기념강좌』, 123.
- 247) 최이권 엮, 『백낙준 박사 설교 모음: 人生의 닻』(서울: 정음문화사, 1986), 137~138.
- 248) 김수진, 『초기한국교회100선』(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7), 197~200; 박경진, “연세대 초대 총장 ~ 용재(庸齋) 백낙준 박사,” <<http://blog.daum.net/kjpark/467>> (accessed 4 July 2014).
- 249) 백관인 엮, 『백낙준 박사 대담 모음: 내일을 위하여』, 47.
- 250) 박경진, “연세대 초대 총장 ~ 용재(庸齋) 백낙준 박사.”
- 251) 그가 이룩한 동서양의 조화로운 학문적 열매가 기독교 신앙의 바탕 위에서 맺어졌다는 사실은, 보편적인 세계사에 대한 그의 넓은 학문적 관심과, 국학을 통하여 한국적인 것을 회복시키려는 그의 특수한 학문적 애착이 조화를 이루며 동시에 추구되는 그의 학문 세계를 들여다볼 때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용재의 학문 세계는 보편적인 세계사와 민족 정신을 되살리려는 국학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보편성과 특수성의 결합은 용재의 기독교 이해에서 비롯된다. 인간의 의미를 근원적으로 추구하는 종교적 삶은, 언제 어디서도 삶을 억압하는 외부의 힘을 깨뜨리고자 하는 살아 있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엮, 『백낙준 박사의 학문과 사상』, 25.
- 252) 박경진, “연세대 초대 총장 ~ 용재(庸齋) 백낙준 박사.”
- 253) 백낙준, 『나의 終講錄』, 214.
- 254) 백낙준,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백낙준 전집』, 9권(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5), 166.
- 255) 연세의 발전과 한국사회 편찬위원회, 『연세의 발전과 한국사회』(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 416.
- 256)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엮, 『백낙준 박사의 학문과 사상』, 78~79.
- 25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엮, 『백낙준 박사의 학문과 사상』, 63.
- 258)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엮, 『용재 백낙준 박사 기념강좌』, 123.
- 259) 허호익, “좌우명 ‘무실역행(務實力行)’: 故 백낙준박사” (한국기독교공보, 2008년 4월 29일자), <<http://pckworld.com/news/articleView.html?idxno=39824>>(accessed 12 April 2014).
- 260) 백낙준, “延世大學教 初代總長 就任辭,” 『백낙준 전집』, 3권(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5), 30.

- 261) 글자체의 기울임 효과는 강조를 위하여 첨가함.
- 262) 연세대학교 홈페이지 내 '이념과 비전' 참조 <<http://www.yonsei.ac.kr/contents/intro/mission.html>>(accessed 24 March 2014).
- 26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연세국학연구사』(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 389.
- 264) 본 소고는 다음의 논문을 기초로 하고 있다. 박노훈, “연세 학원의 기독교적 토대 연구 ~ 박대선 총장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42(2014), 853~874.
- 265) 제1창학기(1885~1957)의 연세대학교는 광혜원 설립에 이어 세브란스의학전문과 연희전문이 출범해 오늘날의 캠퍼스가 조성되던 시기를 가리킨다. 제2창학기(1957~2011)는 세브란스의과대학과 연희대학교가 통합되고 원주캠퍼스가 형성되어 발전하던 시기를 가리킨다. 제3창학기(2012~현재)는 송도국제캠퍼스의 설립과 글로벌 수준의 교육이 도입된 시기를 가리킨다. 연세대학교 박물관 편, 『내일을 걷는 연세 역사』(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3).
- 266) 그가 총장으로 취임하던 당시 연세대학교는 개교 이래 가장 큰 혼란기를 보내고 있었다. 1960년부터 1964년까지 약 4년간 연세대학교에서 총장, 총장 서리, 혹은 총장 직무 대리 등 8명이 교체되었다. 박대선, 『하늘에서 정의가 땅에서 진실이』(서울: 전망사, 1996), 214.
- 267) 박대선은 그의 총장 취임사에서 연세대학교 정관 제1조를 인용하며, 자신의 사명을 피력하였다. “그러므로 본인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정관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본 법인은 진리와 자유 정신을 체득한 기독교적 지도자의 양성을 위주로 하는 기독교 교의에 조화하고 대한민국 교육법령에 기하여 고등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기본 정신에 의거하여 모든 교육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충성을 다하여 실천하고자 서약한 것입니다.” 박대선, 『진리의 골짜기』(서울: 전망사, 1986), 227.
- 268)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연세국학연구사』(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 12.
- 269) 연세대학교 학칙 제1조[목적] 참조.
- 270) 연세대학교 학칙 제1조[목적] 참조.
- 27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연세국학연구사』, 75.
- 272) 박대선, 『아름다운 세상』(고양: 한국기독교연구소, 2005), 251.
- 273) 박대선 총장은 1975년 3월 31일 두 명의 교수(김찬국, 김동길)와 15명의 학생들의 복직 복교를 승인하였다. 박대선, 『아름다운 세상』(고양: 한국기독교연구소, 2005), 257.
- 274) 박대선, 『아름다운 세상』(고양: 한국기독교연구소, 2005), 61. 그는 자신이 목사인 것과 목사를 양성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음을 펴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다. 당시 그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과 후학들 가운데는 함성국, 이계준, 이승만, 한승호 목사 등이 있다. “그 시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목사를 존경했고, 목사가 된다는 것을 가문의 큰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중조부님이 조부님을 평양신학교에 입학시켜 공부시켰는데, 그로부터 몇 십 년 후에는 손자인 제가 그 학교의 강사로 부임해 신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박대선, 『하늘에서 정의가 땅에서 진실이』(서울: 전망사, 1996), 75.

- 275) 박대선, 『하늘에서 정의가 땅에서 진실이』, 466~468.
- 276) 박대선, 『아름다운 세상』, 99~100.
- 277) 박대선, 『낙수: 인생88년 미수에 이르러』 (서울: 늘봄, 2003), 74.
- 278) 박대선, 『아름다운 세상』, 81~82.
- 279) 박대선, “연세발전의 구상” 연세춘추 1974.05.27. 3면.
- 280) 박대선, 『하늘에서 정의가 땅에서 진실이』, 402.
- 281) 박대선, 『낙수』, 197.
- 282) 박대선, 『진리의 골짜기』, 318.
- 283) 박대선, 『아름다운 세상』, 255.
- 284) 박대선, 『아름다운 세상』, 255.
- 285) 박대선, 『아름다운 세상』, 255~256.
- 286) 박대선, 『하늘에서 정의가 땅에서 진실이』, 432.
- 287) 정창영, 고 박대선 총장 2주기 추모예배 추모사, 2012년 4월 28일 신애감리교회.
- 288) 박대선, 『낙수』, 330~345.
- 289) 박대선, 『아름다운 세상』, 204.
- 290) 박대선, 『아름다운 세상』, 206.
- 291) 박대선, 『아름다운 세상』, 213.
- 292) 박대선, 『하늘에서 정의가 땅에서 진실이』, 249.
- 293) 그에 대하여 박대선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연세대학교에 입시부정이 있을 수도, 또 경리상의 부정이 있을 수도 없었다. 1차로 과결된 감사팀이 아무 하자도 없음을 보고했다. 문교부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데가 어디 있느냐며, 또 다시 다른 감사반을 과견했으나 그들도 똑같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니까 문교부는 세 번 감사반을 보냈으나 모두 흠을 잡을 것이 없었다...나는 과거 11년간 한 사람의 학생도 부정 입학 시키지 않았던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경리도 너무나 깨끗하게 해왔기 때문에 감사반도 놀랐을 것이다. 나는 대학 총장이 할 일을 하고 어디서나 큰 소리 칠 수 있으려면, 학교 행정이 깨끗해야만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학교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무슨 낫을 들고 할 말을 하겠는가?” 박대선, 『아름다운 세상』, 253~254.
- 294) 박대선, 『아름다운 세상』, 254~55.
- 295) 박대선, 『낙수』, 206~207.
- 296) 박대선은 자신의 건강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또 제 건강법은 첫째, 의욕을 가지고 뭐든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걱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을 안 하면 되는 것이죠. 또 신앙생활을 하니까 걱정될 일 없습니다.” 그의 인터뷰 전문은 다음을 참조하라. 박근수, “신념과 양심의 교육자 박대선 박사” 『지역사회』 10(1991), 86~93.
- 297) 정창영, 고 박대선 총장 2주기 추모예배 추모사, 2012년 4월 28일 신애감리교회.
- 298) “나는 주일날 교회(을지로 6가에 있는 광희문 교회)에 갈 때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시대의 전차를 탔다. 운전기사도 주일날 하루는 쉬어야 하고, 그에게도 교회에 갈 기회를

- 주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 박대선, 『아름다운 세상』, 206.
- 299) 박대선은 인자(仁慈) 사랑을 ‘최고선’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였다. 그는 인자(仁慈)의 정신을 구약성서 창세기로부터 소급해 올라가 발견한다.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뜻이다. 구약성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기록이 있고, 제일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이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한 형제요 자매라는 뜻이고, 사람 아래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다는 만민 평등의 중요한 사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또한 이 사상은 사람은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고,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기본 권리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 박대선, “최고선의 탐구” 『기독교사상』 32/1(1988), 10~12.
- 300) 박대선, “최고선의 탐구” 『기독교사상』 32/1(1988), 10~12.
- 301) 박대선, “정의의 횃불 들고 연세이를 빛내라.” 연세춘추 1969.03.03, 2면.
- 302) 박대선, 『낙수』, 201.
- 303) 그에 대하여 당시 심치선 교수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1964년 9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미수주의 인물인 박대선 박사님이 연세대학교 총장으로서의 취임은 교내외 연세가족들에게 예상치 못한 큰 충격이었습니다.” 박대선, 『낙수: 인생88년 미수에 이르러』, 342.
- 304) 박대선, 『아름다운 세상』, 201.
- 305) 박대선, 『하늘에서 정의가 땅에서 진실이』, 213.
- 306) 그는 총장직을 수락하며 그가 드린 기도의 응답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어느 정도 생각할 시간을 갖고 난후 얻은 해답은 제가 목사이고 또 이 학교가 기독교 계통의 학교니까 기독교적 입장에서 방향을 제시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다면 한번해보자는 자신이 서더군요. 그래서 수락하고 그 학교에 갔는데 그러다보니까 11년을 있게 되었습니다.” 박근수, “신념과 양심의 교육자 박대선 박사” 『지역사회』 10(1991), 90.
- 307) 손원영, “박대선, 학교에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게 하다.” 『참 스승』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4), 281.
- 308)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80년사』 (서울: 연세대학교, 1965), 872~873.
- 309) 그는 자신이 받은 연세학원의 사랑과 인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술회한다. “나는 4월 27일, 3개월의 예정으로 해외여행을 떠났다. 떠나는 날, 공항에서의 거교적인 환송은 자못 명예총장님, 이사장님과 이사님들, 많은 교수와 학생대표, 그리고 동문 여러분의 뜨거운 환송의 정을 나누면서, 나는 무거운 책임이 맡없이 지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연세인이 나에게 지워주는 책임의 중력을 느낄수록 연세인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는 것도 점점 뚜렷하게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다.” 박대선, “구미 여행의 인상, ① 미국대학의 시찰 소감” 연세춘추 1966.09.19, 3면.
- 310) 당시의 엄혹한 현실에 대하여 박대선은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그러나 100개 대학교 학생들이 매일 같이 거리로 나와서 ‘구속 교수, 구속 학생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쳤

다. 그래서 정부는 1975년 봄에 교수 두 사람, 학생 200명 모두를 석방했다. 그런데 정부는 각 대학에 공문을 보냈다. ‘교수와 학생들을 복직시키거나 복교시켜서는 안 된다’고 뜻을 박았다. 만일 학교가 그것을 어길 때는 엄중한 처벌을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연세대학교는 교무위원회를 소집하여 석방된 교수는 복직시키고 학생들은 15명 전원을 복교시켰다. 99개 타대학들은 문교부의 명령대로 학생들도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다.” 박대선, 『아름다운 세상』, 251.

- 311) “석방된 교수 및 학생의 복교를 즈음하여” 연세춘추 1975.03.17. 1면
- 312) 박대선, 『아름다운 세상』, 254.
- 313) 박대선, 『아름다운 세상』, 204~205.
- 314) 박대선, 『하늘에서 정의가 땅에서 진실이』, 225, 301~302.
- 315) 박대선, 『하늘에서 정의가 땅에서 진실이』, 412~415.
- 316) 박대선, 『하늘에서 정의가 땅에서 진실이』, 354~369.
- 317) 박대선, 『하늘에서 정의가 땅에서 진실이』, 356.
- 318) 박대선, 『하늘에서 정의가 땅에서 진실이』, 253.
- 319) 박대선, 『하늘에서 정의가 땅에서 진실이』, 278~283.
- 320) 그는 동문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슬회하였다. “당시의 나는 그들에게 ‘이제부터는 연세대학교 졸업생으로 동문회를 단일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의견을 말하였다. 그 후부터 지금은 ‘연세대학교 동문회’ 이름으로 모이고 있다. 이제는 연대 관계자들이 ‘연세대학교’라는 이름 아래 뭉치는 것을 보고 흐뭇하게 느끼고 있다.” 박대선, 『아름다운 세상』, 218.
- 321) 박대선은 연세를 돕고 있는 교회재단과 도울 수 있는 사회의 여러 재단을 방문하는 일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였다. 박대선, “연세는 세계로의 도약단계 독수리기상 하늘에 떨치라” 연세춘추 1969.05.05. 1면.
- 322) 박대선, 『하늘에서 정의가 땅에서 진실이』, 221.
- 323) 박대선, “연세는 세계로의 도약단계 독수리기상 하늘에 떨치라” 연세춘추 1969.05.05. 1면
- 324) 박대선, 『하늘에서 정의가 땅에서 진실이』, 310.
- 325) 박대선, 『하늘에서 정의가 땅에서 진실이』, 311.
- 326) 박대선, 『아름다운 세상』, 224.
- 327) 박대선, “연세인 됴에 긍지 가지라” 연세춘추 1969.03.10. 2면.
- 328) 박대선, 『아름다운 세상』, 258.
- 329) 박대선, “신입생 환영사~생의 성공자 되어 주기를” 연세춘추 1968.03.11. 2면
- 330) 박대선, “책임적 존재되라” 연세춘추 1968.09.23. 2면
- 331) 박대선, “신입생 환영사~생의 성공자 되어 주기를” 연세춘추 1968.03.11. 2면
- 332) 박대선, “박대선 총장의 전망” 연세춘추 1970.05.11. 5면
- 333) 박대선, “훈사~연세는 진실한 실력인의 산실 인류위한 봉사의 역군 되길!” 연세춘추 1966.02.28. 2면.

- 334) 박대선, “능력, 예지 모아 민족 봉사를” 연세춘추 1973.05.14. 2면
- 335) 박대선, “책임적 존재되라.” 연세춘추 1968.09.23.2면.
- 336) 박대선, 『하늘에서 정의가 땅에서 진실이』, 434. 『낙수』(서울: 늘봄, 2003), 201.
- 337) 박대선, 『아름다운 세상』, 258.
- 338) 박대선, “박대선 총장의 전망” 연세춘추 1970.05.11. 5면.
- 339) 송우혜, 『운동주 평전』(서울: 푸른역사, 2004), 42.
- 340) 김형수, 『문익환 평전』(서울: 실천문학, 2004), 91.
- 341) 김형수, 『문익환 평전』, 85.
- 342) 송우혜, 『운동주 평전』, 56.
- 343) 김응교, 『운동주와 걷는 새로운 길』, 510.
- 344) 명동촌 여성들 중에는 신(信)자 돌림이 50명이 넘었는데, 이것은 그동안 개똥네, 와룡택 등으로 불리던 여성들이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는 의미에서 ‘믿을 신’자 돌림으로 작명을 하였기 때문이다. 문익환은 이 사건을 ‘어머니들의 부활’이라고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김형수, 앞의 책, 100.
- 345) 서정민, 『이동휘와 기독교: 한국사회주의와 기독교 관계 연구』(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439.
- 346) 송우혜, 『운동주 평전』, 67~68.
- 347) 김형수, 『문익환 평전』, 89.
- 348) 송우혜, 『운동주 평전』, 100.
- 349) 김정우, “운동주의 소년 시절”, 『나라사랑』 23(1976.6), 117.
- 350) 김정우, “운동주의 소년 시절”, 121.
- 351) 송우혜, 『운동주 평전』, 50, 54.
- 352) 김응교, 『운동주와 걷는 새로운 길 I』, 228.
- 353) 송우혜, 『운동주 평전』, 120.
- 354) 송우혜, 『운동주 평전』, 111.
- 355) 박창해, “운동주를 생각함”, 『나라사랑』 23(1976.6), 129.
- 356) 송우혜, 『운동주 평전』, 154.
- 357) 김응교, 『운동주와 걷는 새로운 길 I』, 226.
- 358) 윤영춘, “명동촌에서 후쿠오카까지”, 『나라사랑』 23(1976.6), 109.
- 359) 송우혜, 『운동주 평전』, 123.
- 360) 송우혜, 『운동주 평전』, 126.
- 361) 송우혜, 『운동주 평전』, 170.
- 362) 송우혜, 『운동주 평전』, 171.
- 363) 송우혜, 『운동주 평전』, 174.
- 364) 송우혜, 『운동주 평전』, 182.
- 365) 김형수, 『문익환 평전』, 178.
- 366) 김형수, 『문익환 평전』

- 367) 송우혜, 『운동주 평전』, 187.
- 368) 김응교, “운동주와 걷는 새로운 길 11. 송실 송실 합성 송실: 운동주, 문익환의 송실중 자퇴,” 『기독교사상』 660(2013.12), 127.
- 369) 송우혜, 『운동주 평전』, 195.
- 370) 김형수, 『문익환 평전』, 185~6.
- 371) 송우혜, 『운동주 평전』, 220.
- 372) 송우혜, 『운동주 평전』, 154.
- 373) 송우혜, 『운동주 평전』, 164~5.
- 374) 윤영춘, “명동촌에서 후쿠오카까지”, 110.
- 375) 유영, “연희전문 시절의 운동주,” 『나라사랑』 23(1976.6), 124~125.
- 376) 윤영춘, “명동촌에서 후쿠오카까지”, 109~110.
- 377) 송우혜, 『운동주 평전』, 274.
- 378) 유양선, “운동주의 시에 나타난 종교적 실존: ‘돌아와 보는 밤’ 분석,” 『어문연구』 35(2007.6), 169.
- 379) 유양선, “운동주의 시에 나타난 종교적 실존: ‘돌아와 보는 밤’ 분석”
- 380) 유영, “연희전문 시절의 운동주”, 123.
- 381) 송우혜, 『운동주 평전』, 354~355.
- 382) 송우혜, 『운동주 평전』, 357.
- 383) 송우혜, 『운동주 평전』, 364.
- 384) 김정우, “운동주의 소년시절”, 121.
- 385) 김인섭, “운동주 시의 ‘슬픈 천명’과 자기 실현: 일본체류기간의 시와 행적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3(2009), 27.
- 386) 송우혜, 『운동주 평전』, 407.
- 387) 윤영춘, “명동촌에서 후쿠오카까지”, 113.
- 388) 위의 글, 106.
- 389) 김정우, 앞의 글, 121.
- 390) 1977년 『문학사상』 12월호에 소개된 특고경찰(特高警察) 비밀문서와 1982년 『문학사상』 10월호에 소개된 운동주에 대한 판결문을 통하여 이 사실은 명백하고 자세하게 확인되었다. 송우혜, 『운동주 평전』, 402, 427.
- 391) 윤영춘, “명동촌에서 후쿠오카까지”, 114.
- 392) 김석득, “조선학의 요람, 연전 문과,” 연세의 발전과 한국사회 편찬위원회 편, 『연세의 발전과 한국사회』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 44.
- 393) 연세 120주년 기념으로 편찬된 『연세의 발전과 한국사회』는 2005년까지의 연세의 역사를 요약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한국학 분야와 첨단 과학 분야를 통해 연세가 세계의 우수 대학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이것이 연세 창립이후 줄곧 추구해온 기독교 정신 하의 ‘동서·근교 화층’을 달성하는 것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연세의 발전과 한국사회 편찬위원회 편, 『연세의 발전과 한국사회』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2005), 366.
- 394) 민경배, “연세 창립과 기독교 정신,” 연세의 발전과 한국사회 편찬위원회 편, 『연세의 발전과 한국사회』, 28.
- 395) 민경배, “연세창립과 기독교정신”, 17.
- 396) 이는 무교파, 무교회, 무신학이나 반교파, 반교회 반신학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기존의 교과, 교회, 신학의 전통의 바탕 위에서 종합대학이라는 상황에 맞게 새로운 차원을 추가함을 뜻한다.
- 397) 김석득, “조선학의 요람, 열린 문과”, 44.
- 398) 박형우, “세브란스의전과 의학의 토착화,” 연세의 발전과 한국사회 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103~104; 특히 에비슨의 모교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는 그가 재학하고 교수로 가르치던 시기에 에큐메니칼 정신에 근거한 연합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왜 연세의 기독교가 초교파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선호, “올리버 알 에비슨(Olover R. Avison)의 연희전문학교 사역,” 『신학논단』 64(2011), 110;
- 399) 정선이, “연희전문 문과의 교육,”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근대학문의 형성과 연희전문』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5), 68.
- 400) 연세대학교백년사 편찬위원회, 『연세대학교 백년사 I 연세통사 (상)』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85), 168.
- 401) 이대성, “공학윤리 교육의 확대에 따른 기독교 종합대학의 과제,” 『기독교사회윤리』 23(2012), 240.
- 402) 연세대학교백년사 편찬위원회, 『연세대학교 백년사 I』, 268.
- 403) 연세대학교백년사 편찬위원회, 『연세대학교 백년사 I』, 627; 윤여탁, “한국 스포츠의 견인차, 연세 체육,” 연세의 발전과 한국사회 편찬위원회 편, 『연세의 발전과 한국사회』, 231~4, 236.
- 404) 서정민, “한국교회사 연구의 시원과 백낙준의 『한국개신교사』,”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같은 책, 456~7.
- 405) “□□”로 표시된 부분은 운동주의 육필 원고에 2~3글자 정도 공간으로 비어있는 부분이다. 류양선은 그 빈 칸에 들어갈 말이 연전 문과 학생들의 공동체인 ‘문우회(文友會)’임이 틀림없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이 글을 통해 운동주의 연전 시절에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했었는지 잘 알 수 있다. 류양선, “운동주의 <병열> 분석 - 산문 <화원에 꽃이 피다>와 관련하여,” 『한국현대문학연구』 19(2006.6), 386.
- 406) 연전시절 운동주의 친구 박창해는 운동주는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분열은 멸망의 첫 걸음이다,” “겨레의 마음에 지닌 정서를 발전시켜 주는 것은, 도덕률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시를 경외하는 것이 자기를 구원하는 길이다” 등의 생각을 나누었다고 한다. 박창해, “운동주를 생각함,” 『나라사랑』 23(1976.6), 131.

색인

ㄱ

- 가우처 ... 70
- 간도 ... 190
- 간민회 ... 193
- 간호교육 ... 68
- 감리교 ... 32
- 감리교 선교회 ... 42
- 감리교신학대학 ... 166
- 감리교회 ... 41
- 갑신정변 ... 61
- 갑오경장 ... 119
- 강원식 ... 24
- 강처중 ... 208, 215
- 건교정신 ... 163
- 건학이념 ... 160
- 건학정신 ... 152
- 계일 ... 56
- 경도제국대학 ... 217
- 경성고아구제회 ... 113
- 경성공업전문학교 ... 133
- 경성보육원 ... 113
- 경성양노원 ... 114
- 경성제대 ... 104
- 경신 ... 69
- 경신학교 ... 24
- 경신학교 대학부 ... 28
- 경신학원 ... 24
- 경향신문 ... 216
- 고든 ... 30, 63
- 고마츠 미도리 ... 79
- 고송효치 ... 218
- 고아원 ... 22
- 고희옥 ... 220
- 과학 ... 96
- 관서학원대학 ... 164
- 광명학원 ... 202
- 광혜원 ... 21
- 교양교육 ... 134
- 교육선교 ... 71
- 교풍 ... 188
- 구리개 ... 61
- 구만길 ... 24
- 구세군 ... 18
- 구세진전 ... 32
- 구세학당 ... 24
- 구암리장로교회 ... 104
- 국립마산결핵병원 ... 111
- 국학 ... 84, 133, 148
- 군산야소교병원 ... 104, 115
- 군정청 ... 107
- 권서인 ... 30
- 그로브교회(Grove Church) ... 19
- 그리스도신문 ... 33
- 그리어슨 ... 194
- 금주회 ... 85
- 기독교 ... 21
- 기독교대학 ... 13
- 기독교연합대학 ... 28
- 기독교청년회 ... 127
- 긴급조치 ... 167
- 김구 ... 192, 196

김규삼 ... 176
 김규식 ... 25
 김동길 ... 162
 김동리 ... 201
 김약연 ... 191
 김영식 ... 125
 김용 ... 195
 김윤경 ... 210
 김응교 ... 190
 김인회 ... 43
 김재준 ... 201
 김정식 ... 24
 김정우 ... 195
 김진석 ... 24
 김찬국 ... 162
 김철 ... 193
 김하규 ... 191
 김효규 ... 175

L

낙양군관학교 ... 200
 남녀공학 ... 134
 남대문교회 ... 60
 남도천 ... 191
 내과 ... 28
 내무성 ... 105
 노도사 ... 22
 노블 ... 72
 노스 ... 70, 78
 노정현 ... 175
 노천극장 ... 82, 173
 노춘경 ... 22
 뉴 브룬스위크(New Brunswick)
 ... 18, 20
 뉴욕대학(New York University) ... 17

C

대림자 ... 198
 대성중학교 ... 207
 대학교육 ... 141
 대학준비위원회 ... 134
 대한기독교서회 ... 127
 대한성서공회 ... 127
 대한예수교회 ... 42
 대한의원 ... 115
 더글라스 ... 58
 델타 워실론(Delta Upsilon) ... 17
 도교 ... 34
 도시사대학 ... 78, 217
 독립협회 ... 102
 동경제대 ... 200
 동방학연구소 ... 135
 동서고근(東西古近)의 화충(和衷)
 ... 91, 92, 160
 동시 ... 212
 동아일보 ... 201
 동양사 ... 133
 동양척식회사 ... 80
 동양학 ... 94
 디에(Die) ... 16

R

라사행 ... 200
 라토렛 ... 132
 러들로 ... 64, 127
 러일전쟁 ... 192
 런던 전도문서회 ... 31
 로스 ... 194
 루스재단 ... 179
 루스채플 ... 179
 루이빌대학 ... 103

루이빌 의과대학 ... 103
루이스 H. 세브란스 ... 75, 94
릴리아스 ... 73
릿쿄대학 ... 217

□

마가복음 ... 31
마르틴 루터 킹 ... 171
마윈드 기금 ... 65
마펫 ... 70
만국공동회 ... 102
만주 ... 190
만주군관학교 ... 205
만주사변 ... 133
말콤 펜윅 ... 57
매일신보 ... 123
매균 ... 132
맥윌리엄스 ... 65
맥균 ... 204
메이번 목사 ... 19
명동교회 ... 194
명동소학교 ... 195
명동중학교 ... 195
명동촌 ... 189
명동학교 ... 192
명신여학교 ... 200
명희조 ... 200
목포야소교병원 ... 104
무기화학 ... 66
무단정치 ... 83
무어 ... 59
문과 ... 133
문교부장관 ... 134
문병규 ... 191
문익환 ... 191, 195

문화정치 ... 83
미국성공회 ... 54
미국 전도문서회 ... 31
미생물학 ... 66
민경배 ... 43
민영익 ... 61
민족교육 ... 90
민족주의 ... 197
민주화운동 ... 167
민청학련 ... 167
밀리 ... 71, 72, 82
밀리 학당 ... 24

ㅂ

박대선 ... 160
박상동 ... 164
박서양 ... 59, 60
박성춘 ... 59
박영식 ... 175
박영화 ... 164
박정서 ... 192
박태환 ... 193
반도신지 ... 217
배재학당 ... 102
배재학교 대학부 ... 28
백낙준 ... 83, 86, 130
백양로 ... 82
번커 ... 33, 115
법인 정관 ... 72
베어드 ... 58, 204
베커 ... 70, 72
벤쿠버 ... 58
별 헤는 밤 ... 198
보건학 ... 61
보성전문 ... 106

보스턴대학교 ... 166
 보육원 ... 104
 볼로뉴 슈 메르(Boulogne Sur Mer) ... 15
 봉사 ... 141, 152
 부산 ... 58
 북간도 ... 190
 북장로교 선교부 ... 20
 브라운 ... 64
 브라운 박사(Dr. Brown) ... 16
 브랜드포드 ... 54
 브루크로이드 ... 54
 빈 대학 ... 104
 빈튼 ... 29, 58, 61
 빌링스 ... 72

人

사라 앤 ... 22
 사립대학 ... 81, 88
 사립학교법 ... 67
 사카데 ... 77
 사회정의 ... 171
 상동교회 ... 193
 상학, 상학과 ... 39, 44
 새로운 길 ... 212
 새문안교회 ... 22
 생리학 ... 66
 샬머니즘 ... 34
 샤프 ... 71
 서경조 ... 22
 서상륜 ... 22, 62
 서시 ... 223
 서양사 ... 133
 서양의학 ... 61
 서재필 ... 102

서전서숙 ... 192
 서정주 ... 201
 선교병원 ... 62
 성교찰리 ... 32
 성서번역 ... 42, 193
 성서번역위원회 ... 31
 세브란스 ... 63
 세브란스병원 ... 31, 88
 세브란스연합의학교 ... 67, 94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 67
 세브란스 의과대학교 ... 28
 세브란스의전 ... 104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 104
 세키야 데이자부로 ... 72, 77
 센추럴대학 ... 103
 소년금주단 ... 57
 솔내 ... 22
 송도 국제캠퍼스 ... 150
 송몽규 ... 195, 215
 송순용 ... 32
 송우혜 ... 196
 송창희 ... 196
 송한범 ... 201
 수강신청 ... 134
 수양동우회사건 ... 123, 133
 수피아여학교 ... 104
 승실중학교 ... 202
 승실활천 ... 204
 쉘즈 ... 59
 쉽게 씌어진 시 ... 215
 스크랜턴 ... 193
 스테드만 ... 102
 스티븐슨 ... 81
 스티븐슨 기금 ... 81
 스티븐슨홀 ... 81

스피어 ... 69
 승동교회 ... 59
 시몬 에비슨 ... 54
 시약소 ... 28
 시학 ... 214
 신도 ... 34
 신민회 ... 25
 신사참배 ... 204, 209
 신성중학교 ... 144
 신촌 ... 209
 신촌캠퍼스 ... 79
 신촌문예 ... 201
 신학, 신학과 ... 92, 214
 신학서원 ... 132, 144
 신흥우 ... 77
 실사구시 ... 44, 134

○

아관파천 ... 38
 아담스 ... 71
 아사히의전 ... 106
 아키야마 ... 80
 아펜젤러 ... 22
 아펜젤러홀 ... 82
 안락학교 ... 104
 안명선 ... 24
 안양기독교보육원 ... 106, 114
 안창호 ... 25, 125, 192
 알렉산더 ... 103
 알렉산더 와우(Alexander Waugh) ... 14
 알렌 ... 21, 52
 알몬트 ... 54
 애양원 ... 104
 앤드류 장로교회 ... 58
 야스퍼스 ... 139

약리학 ... 66
 약물학 ... 66
 언더우드 ... 12, 24, 70
 언더우드 학당 ... 24
 언더우드홀 ... 82
 에비슨 ... 29, 46, 52, 70, 209
 에큐메니칼 선교대회 ... 25, 63
 에큐메니칼 정신 ... 45
 엘리자벤(Elisabeth Grant Maire) ... 14
 엘린우드 ... 22, 63
 연동교회 ... 69
 연보전 ... 230
 연세대학교 ... 13, 28, 134
 연세대학교 백년사 ... 95
 연세학풍 ... 13
 연전 ... 208, 213
 연합대학 ... 94
 연합정신 ... 228
 연희대학교 ... 28, 134
 연희전문 ... 89
 연희전문학교 ... 28, 88, 208
 연희전문학교상황보고서 ... 95
 영국덕 ... 200
 영명학교 ... 104
 영신학당 ... 25
 영창학교 ... 132
 예수교학당 ... 24, 69
 예일대학교 ... 132
 오궁선 ... 91, 100
 올리버 ... 54
 와다나베 ... 77
 요코하마 ... 21
 용재 ... 144
 용정 ... 60, 192, 199
 우사미 ... 78

원두우 ... 208
 원일한 ... 172
 원한경 ... 90, 209
 월즈 ... 63
 웰본 ... 71
 웰즈 박사 ... 41
 위키백과 ... 122
 유길준 ... 59
 유동식 ... 175
 유성준 ... 24
 유아세례 ... 22
 유억겸 ... 90, 134
 유명 ... 209
 옥사명 ... 24
 윤동주 ... 191
 윤석중 ... 201
 윤신영 ... 195
 윤영석 ... 195, 221
 윤영선 ... 195
 윤영춘 ... 211, 220, 222
 윤일주 ... 222
 윤재옥 ... 195
 윤치호 ... 77, 106
 윤하연 ... 195
 윤하현 ... 191
 윤혜원 ... 198
 은진중학교 ... 199
 의료선교 ... 63
 의료선교사 ... 21, 94, 127
 의사면허 ... 105
 의학교 ... 28
 의학전문학교 ... 88
 이기창 ... 197
 이기택 ... 175
 이당진 ... 102

이동녕 ... 192
 이동휘 ... 192
 이상설 ... 192
 이상재 ... 24
 이수정 ... 31
 이순탁 ... 91, 94
 이승만 ... 24, 107
 이양하 ... 210
 이영준 ... 106
 이원궁 ... 24
 이윤영 ... 114
 이용찬 ... 193
 이의순 ... 193
 이준 ... 192
 이중화 ... 24
 이천환 ... 168
 이토 히로부미 ... 66
 이화여전 ... 213
 인문학 ... 96
 인민학교 ... 196
 일치와 연합 ... 42

ㅈ

장로교 ... 32
 장로교 선교회 ... 42
 장원량우상론 ... 32
 전덕기 ... 192, 193
 전인교육 ... 150
 정공빈 ... 22
 정동교회 ... 22
 정명학교 ... 104
 정병욱 ... 213, 215
 정비석 ... 201
 정순만 ... 192
 정약용 ... 144

정음사 ... 222
 정의 ... 170
 정인보 ... 90, 94, 148
 정일권 ... 205
 정재면 ... 192
 정재용 ... 25
 정진원 ... 24
 정창영 ... 168
 제1의 창학 ... 149
 제2의 창학 ... 149
 제3의 창학 ... 149
 제니, 제니 번스 ... 55, 56
 제물포 ... 58
 제증원 ... 28, 62
 제증원병원교회 ... 60
 제증원의학교 ... 60
 제창병원 ... 200
 조동수 ... 124
 조선기독교대학 ... 28, 208
 조선말 ... 89
 조선 문학 ... 89
 조선선교 ... 58, 85
 조선성교서회 ... 31, 32
 조선어 ... 32, 133
 조선 역사 ... 89
 조선은행 ... 79
 조수 ... 62
 조지 뮐러(George Müller) ... 14
 존(John T. Underwood) ... 15
 존(John Underwood) ... 14
 존 L. 세브란스 ... 75
 존 T. 언더우드 ... 75
 존디웰즈학원 ... 24
 존 로스 ... 193
 종교교육금지 ... 78

종합병원 ... 64
 주일학교 ... 22
 직업교육 ... 44
 진리와 자유 ... 144
 진병호 ... 24
 진보 ... 88

ㄸ

찬송가 ... 33
 찰스 뎀스 철학강좌 ... 34
 참회록 ... 215, 216
 창립정신 ... 43
 창씨개명 ... 124, 126, 216
 창학 정신 ... 144
 채플 ... 84, 134
 청구구락부사건 ... 124
 청운양로원 ... 114
 체스터 ... 87
 초교과 ... 42
 초급대학 ... 71
 총독부 ... 72, 78, 80
 최명오 ... 22
 최영규 ... 112
 최은 ... 128
 최현배 ... 84, 90, 209, 210
 지원관 ... 81
 침례교 ... 102

ㅋ

카알 야스퍼스 ... 139
 코리아 미션 필드 ... 37
 콜레라 ... 29
 쿡 ... 71
 쿤즈 ... 69
 클라크 ... 70, 71

키니네 ... 29

E

타고르 ... 220

턴로지귀 ... 32

토론토대학 ... 56

토론토 의과대학 ... 56

토론토 전도문서회 ... 31

토마스(Thomas Underwood) ... 14

F

파크대학 ... 83, 132, 141

팔복 ... 214

평양대부흥운동 ... 57

평양신학교 ... 196

포크, 포크 중위 ... 24, 65

폼프톤(Pompton) ... 19

프레데릭 언더우드 피난처 ... 42

프레드릭(Frederick W. Underwood) ... 15

프린스턴대학 ... 132

프린스턴 신학교 ... 132

피부과학 ... 66

피부비뇨기과학 ... 104

핀슨, 핀슨홀 ... 81, 208

H

하나님의 선교 ... 36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 188

하디 ... 56, 72

하라다 ... 78

학풍 ... 148, 188

한국 ... 20

한국개신교사 ... 136

한국복음주의총공의회 ... 42

한국어 ... 21

한국어사전 ... 33

한국어입문 ... 33

한국어학당 ... 135

한글교육 ... 94

한문학 ... 133

한성감옥서 ... 24

한신대학교 ... 192

함성국 ... 175

해관 ... 102

해부학 ... 66

해스부루크 소년학교 ... 17

허스트 ... 64

헤론 ... 22, 61

헨리 머피 ... 82

헵번 ... 31

헵번 부인 ... 41

협성교회 ... 213

협성신학교 ... 84

협성회 ... 102

화란 개혁신학교(Dutch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 18

화충 ... 91, 96, 127

화학 ... 66

황국화 교육 ... 209

황순원 ... 201

황의돈 ... 193

회중교회 ... 54

휘트모어 ... 71

휴 오닐 진료소 ... 29

홍사단사건 ... 125

홍업구락부사건 ... 124, 133

히포크라테스 선서 ... 120

3.1운동 76

105인 사건 36, 132

R

RC, Residential College ... 150

T

The Call of Korea ... 34

The Religions of Eastern Asia ... 34

V

VIP ... 175

VIS ... 175

Y

YMCA ... 28, 208

